금주의 법구–〈잡보장경〉
유리하다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대로 진실을 말하라.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3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4월 5일)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연등회보존위원회,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21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불기2567년 연등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5월 20일 진행된 연등회 연등행렬에서 한마음선원 중고등학생회 회원들이 '북두칠성등(燈)'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글=신성민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평화기원 10만 연등 물결, 세상을 장엄하다

연등회보존위, 5월20~21일 종로서 연등회 개최

5만여 대중 연등행렬 참여해
코로나 이전으로 규모 '회복'
선두장엄등으로 '사물등' 선봬

특별취재팀=
박재완 · 신성민 · 윤호섭 · 임은호 기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기리기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가 성대하게 봉행됐다. 이번 연등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일상회복이 이뤄진 뒤 열리는 첫 연등회여서 의미를 더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와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21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를 개최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해 연등회는 차별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담아내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마당은 어린이, 청소년과 연희단의 율동 발표로 꾸며졌다. 연희단은 흥겨운 율동으로 축제의 흥을 돋웠고, 참석대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등지혜상은 한마음선원의 '봄을 품은 염주등'이 수상했으며, 연등선정상은 수국사와 삼천사가 받았다. 연등인욕상은 승가사 · 석불사 · 도선사 · 화계사 · 금륜사 · 삼성암 · 구룡사 · 충정사가 수상했으며, 연등지계상은 불광사 · 봉은사 · 진각종 · 옥천암 · 파라미타 · 총지종 ·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 돌아갔다.

이어진 연등법회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법회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이자 연등회보존위원장인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했다.

진우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전법 포교를 통해 매일 매일을 축제의 날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부처님 탄생게가 평등과 평화의 선언임을 강조한 진우 스님은 "부처님 오신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할 때 개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세상은 조화와 상생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축원했다.

이어 스님은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선대의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선(禪) 명상 보급에 앞장서겠다. 천년을 세우겠다는 간절한 서원으로 우리 사회를 보살피며 전법 포교의 길에 진력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며 만나는 인연마다 부처님 법 전하는 날마다 좋은 날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부처님의 생애를 운문으로 노래한 경전인 〈붓다차리타〉를 통해 부처님 탄생의 의미를 되새겼다. 연등법회 사부대중은 우인 정사와 덕수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과 기원문을 통해 지혜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을 다짐했다.

A3면에 계속

사고 부처님오신날 특집호 제1437호는 제작 일정 상 배송이 지연됐습니다.
제1438호도 제작 일정으로 배송이 늦어집니다. 독자여러분의 혜량바랍니다.



2023년 봉축특집호
A·B·C 섹션 88면 발행

선지식에게 묻다 A4·5
불영 자광 대종사(조계종 원로의장)



테마人 C1·2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봉축특집 기획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A13·14·15·17·18·19



이제는 비건 시대 B1·2·3·7·10·11
스리랑카 불교성지를 가다 B25
봉축 지상법석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A7
각 종단 봉축법어·봉축사 A6·8·9
연등회 화보 C12·13

서울시의원불자회 "佛法 실천, 시민에 봉사"

5월 19일, 제11대 불자회 창립법회
진우 스님 "자리이타 하라" 당부
지현 스님 계사로 5계품 수계식도
불자의원들 "부처님 정법 외호"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불자회는 5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1대 불자회 창립 및 수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울시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들이 오계를 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울시민을 위해 일할 것을 다짐했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불자회(회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는 5월 19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11대 불자회 창립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남창진 서울시의회 불자회장, 최기찬, 임만균, 황철규 시의원 등 사부대중이 대거 동참했다.

이날 남창진 제11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원융화합과 상생의 대승적 정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창진 회장은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상생 자비 중도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시민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오늘 창립법회를 계기로 우리 의원불자회는 시민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 명상할 것을 제안했다. 진우 스님은 "욕심과 번뇌를 내려놓으면 선광처럼 지혜가 나타난다"고 강조하며 "자리아타 마음으로 서울시민을 위해 일한다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창립법회에 이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계사로 나서 5계품 수계식이 봉행됐다.

지현 스님은 "부처님 오계법은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반조하며 닦는 불자의 생활신조가 되는 것"이라며 "높은 탑 위에서 망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살피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정하면 몸이 안락하고 나아가서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부처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년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힘과 같다"고 말했다.

연비 후 지현 스님은 불자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계첩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황철규 의원은 불자의원들을 대표해 낭독한 발원문에서 "오늘 수계한 공덕으로 부처님 지혜와 자비를 배워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여야를 초월해 올바른 시정을 행하고 천만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면서 "각자의 역량이 서울시와 우리 이웃, 모든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아 끊임없는 성찰과 정진으로 수계 공덕을 온 우주의 모든 중생들에게 베풀어 모두의 보리심을 일으키고 부처님 정법을 외호해 이 땅 위에 불국정토를 세우는 대승보살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11대 서울시의회 의원불자회는 우봉 스님을 지도법사로 30명이 활동하고 있다. 평소 전통사찰 규제개혁과 예산 편성 등에서 활약해 온 것을 계기로 마음을 모을 수 있었다. 앞서 서울시의회 불자회 준비위원들은 지난 3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창립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진우 스님은 "우리 민족문화의 뿌리인 불교 정신을 정치에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종단 원로·신도들 '천년을 세우다' 동참

대종사 스님들 잇달아 기금 쾌척
대각회·태안사, 불사 기금 전달
조계사 신도들 바자회 수익 기부



종단 원로인 대종사 스님들부터 불교단체, 사찰, 일반 신도까지 경주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잇달아 쾌척하고 있다.

조계종 명예 원로인 정련 대종사는 5월 1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및 승려복지기금으로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정련 대종사를 대신해 부산 내원정사 주지 지일 스님이 참석했다.<사진>

기금 전달 직후 지일 스님은 "정련 대종사께서 '총무원장 스님이 중심을 잘 잡아주셔서 종단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큰 원력을 세운 만큼 불사가 원만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하셨다"면서 "앞으로도 종단 불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종단 원로 스님들의 불사 기금 전달도 이어졌다. 청우 대종사(강릉 등명낙가사)와 혜성 대종사(부산 금강선원), 중하 대종사(공주 신원사), 법성 대종사(부산 인지사)는 5월 15일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 기금을 전달했다. 원산 대종사(양산 통도사)는 직접 참석하지 못했지만, 기금을 전하며 종단 불사의 성공을 기원했다.

불교단체와 사찰들의 불사 동참도 이어졌다. 대각회(이사장 보광, 조계종 호계원장)는 5월 19일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2000만원, 승려복지기금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대각회 이사장 보광 스님을 비롯해 법안정사 주지 법수, 대각사 주지 종원, 대성사 주지 법안, 정토사 주지 법원 스님과 신도회 임원진이 함께 했다.

이날 곡성 태안사(주지 각초)도 마애부처님 입불 불사와 아미타요양병원 발전기금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 진우 스님은 "열악한 환경에도 종단 불사와 승려복지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계사 신도들도 바자회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 기금으로 기부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5월 15일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천년을 세우다' 불사기금 8290만 6753원을 전달했다.

신성민 기자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11주기 다례재' 봉행

5월 20일 안양본원…1천여 대중
'마음 등불' 대행 선사 향훈 되새겨
혜수 스님 "큰스님 제자로 정진"


5월 20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대행선사 열반11주기 추모다례재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이 대행 선사 영전에 차를 올리고 있다.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근현대 대중포교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 (1927~2012)의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앞서 추모다례재에 모인 전국 불자들은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기고 전법포교의 원력으로 승화시키는 자리를 가졌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은 5월 20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1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번 다례재는 국내외 25개 지원 신도 및 주요 임원을 포함한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례재는 식전 사부대중 의식으로 주지 혜솔 스님을 법주로 대중들은 천수경을 봉독하고 축원, 뜻으로 푼 반야심경 봉독을 진행했다.

이어진 다례재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과 주지 혜솔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 헌화가 이어졌다. 이밖에 본원과 각 지원 신도회장, 임원들도 각 령전에 헌화하며 대행 선사를 향한 추모와 가르침을 실천해갈 것을 다짐했다. 또 옥천 감로사 주지 길산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헌화가 이어졌다.

다례재에서는 열반 11주기 추모특집 영상을 통해 안양본원이 세워지게 된 역사가 소개됐으며 그 불사가 이뤄지게 된 근간인 대중포교 원력이 전해졌다.

영상에서 대행 선사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은 모두 똑같다. 부처님께서 둘 아닌 일대사를 보신 것에는 내 생명 아닌게 없고, 내 도량 아닌게 없다. 그런 경지에서 어찌 나툼이 없겠는가"라며 "우리가 공부해서 길이 없는 길을 걸으면 허공이 다 내 길이 아니겠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라고 마음수행의 필요성을 설했다.

대행 선사는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좀 너그럽게 살라. 몸과 가정이 둥글게 어질게, 착하게 지혜롭게 문리가 터져야 한다. 그래야 나도 건지고 상대방도 건질 수 있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마음수행에 대한 터전으로 마련된 한마음선원의 불사에 참여한 수많은 대중들의 옛 추억과 새로운 희망을 전했다. 추모 분위기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대중들이 그 가르침을 이어 연희단을 준비하면서 전법의 환희로 승화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다.

다례재 후에는 본원 선법합창단이 선법가 '자유의 한마음'과 '서천의 푸른 나무'를 부르며 대행 스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선사께서 50년 전 중생 제도의 터전으로 이 도량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상원사에서 수많은 대중을 보듬어 안고 안양에 오셔서 많은 신도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 그 당시 함께 시작하신 신도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후손들이 함께 거들며 한마음 대중을 이루고 있다"며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백년 수천년 앞으로도 인연을 이어 만날 수 있도록 세세생생 부처님 제자로, 큰스님 제자로 함께 정진해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다례재에 앞서 대행 선사와 인연이 깊은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성우 대종사가 안양본원을 찾았으며,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선시를 지어 추모재에 참석한 대중들에게 공개했다. 노덕현 기자


"오늘은 조계사 부처님 목욕하는 날" 1년에 하루, 부처님도 목욕을 한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그동안 어깨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는 날. 조계사 대웅전 부처님도 사부대중의 정성어린 손길에 더욱 장엄한 금빛을 되찾는다. 서울 조계사 사부대중이 높이 5m에 달하는 대웅전 본존불 소제관욕을 위해 작은 크레인까지 동원해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윤호섭 기자 · 사진=조계사

3대종교·상담계 "전문상담사법 제정을"

조계종 포교원 등 5월 15일 제정 촉구 성명

불교, 가톨릭, 개신교 등 3대 종교계가 국민 마음 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주교, 이상억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대표는 5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범종교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각 종교를 대표해 조계종 포교부장 선업 스님과 민범식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이상억 목사가 참여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는 각자가 지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바탕을 두고 사회과학적 상담이론과 실천을 접목하여 전문 상담사를 양성해 왔다.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국가에서 양성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라면서도 "하지만, 상담에 있어 종교적 요소와 고유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제정된다면 지금까지 각 종교가 전문성을 지니고 수행해온 종교상담 영역의 활동을 배제할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 건강 돌봄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성과 전문성을 표방하고 종교가 가지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며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하는 상담서비스지원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에, 한국 종교계는 관련 법률 제정과 관련해 기독교의 목회 상담, 불교의 명상 상담, 천주교의 영성 상담 등 종교 상담의 전문영역을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과 학문적 토대를 갖춘 전문 상담사를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 법률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상담계도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불교명상담단체협의회 등 종교 및 상담학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국민 마음건강 및 복지 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상담 관련법 제정 절차에 조속히 임하여 대국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라"면서 무자격자와 비전문가들의 상담 수행을 금하는 법 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신성민 기자

대학생포교 '한마음'…동국대에 기금 쾌척

돈명·종열 스님, 김도현 병원장 각 5000만원 전달



대학생 청년불자 육성에 동참하기 위해 스님과 재가자가 나섰다.

동국대 건학위원회(위원장 돈관, 동국대 이사장)는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과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 김도현 연세베스트요양병원장이 5월 19일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사진>

이사장 돈관 스님은 "소중한 정재로 대학생 전법을 통해 청년불자 양성의 소중한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웅 동국대 총장은 "청년불자 양성은 미래 한국불교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며 "기부자들께서 솔선수범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정재를 보시해주신 뜻을 잘 살리겠다"고 말했다.

은해사 회주 돈명 스님은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고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학교가 융성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엄사 회주 종열 스님은 "학교를 방문해 보니 동국대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라 생각된다"며 "교육불사를 위해 돕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 기부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좋은 인연이 되어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에 권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병원장도 "스님들 말씀 잘 새기셔서, 그 뜻이 잘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해외지도자들 "연등회, 세계인의 축제"

5월 20일, 종단협 초청 6개국 14명 스님 진우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6개국 불교지도자들의 예방을 받고 "연등회를 통한 불교국가간의 교류로 불교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스리랑카,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방문한 13명의 스님들을 맞았다.<사진>

진우 스님은 "코로나19 이후 해외불교계 스님들이 다시 함께 연등회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면서 "연등회를 통해 아시아권 불교국가가 교류하고 함께 연대하면서 불교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종정 예경실장 담마라타나 스님은 "연등회는 이제 한국만의 축제가 아닌 전세계의 축제"라면서 "불자로서 연등회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스리랑카의 오래된 불교 인연을 언급했다. 스님은 "2004년 쓰나미 당시 한국 불자들의 후원은 재난 극복의 큰 힘이 됐고, 최근 국가부도 상황에서 건네준 십시일반 의료품들은 희망이 됐다"면서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담여 스님은 연등회로 세계에 평화가 가득하길 기원했으며 베트남불교중앙협회 사무국장 팃탄휴 스님도 "연등회는 자비와 지혜가 꽃피는 축제"라며 "모두가 행복한 부처님오신날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임은호 기자

일상회복 후 첫 연등회…"전법의 길 진력" 다짐

〈1면에 이어〉

"인류를 구원하신 부처님같이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러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음과 세상을 밝히는 연등행렬의 시작을 선언합니다!"

오후 7시부터는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연등행렬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처음 열린 이번 연등회에는 5만여 대중이 행렬에 참여하고, 10만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밤하늘을 장엄해 이전 규모로 회복했음을 세계에 내보였다.

올해 선두 장엄등은 '불교사물등'이었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등, 목어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도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평등공법등'을 새로 선보였으며, 화계사는 '세계일화등', 진각종이 '황룡등'을, 전국비구니회는 '샤카디타등'을, 태고종이 '거북법고등' '관세음보살등' '달위의 비천등' '연꽃과 아이들등' 등을 새로 제작해 행렬에 참여했다.

부인과 함께 연등행렬을 구경하러 온 이민호 씨(61)는 "그동안 매번 행렬 참가자로만 연등회를 즐겼는데 올해는 구경꾼의 시선으로 보고 싶어 거리에 나왔다"며 "직접 등을 들고 걸을 때는 내 주변만 볼 수 있었는데 전체적인 행렬을 보게 되니 훨씬 즐겁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등행렬을 구경하는 아이들과 인사를 나누는 진우 스님.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진관사 연희단이 봉축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5월 21일에는 한국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 '전통문화마당'이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펼쳐졌다.

이날 문화마당은 '전통마당' '청춘마당' '국제마당' 'NGO마당' '나눔마당' 등 5개 주제에 따라 100여 개 부스가 마련, 직접 체험하고 즐기는 오감만족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열렸다.

이색적인 체험으로 가득한 '전통마당'은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다. 고려 전통 금니 사불 체험을 한 김영미 씨(33)는 "전시회에서나 봤던 금니 사불을 직접 해보니 신기하다"면서 "앞으로 불교작품 전시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체험 소감을 밝혔다.

동국대 운동장 3만명 운집
NO마스크로 연등행렬 참여
전통문화마당 웃음꽃 '활짝'

청춘마당은 '참 삶을 위한 여정 출가' '대불련과 놀아볼련' '불교 외국어 서적 · 명상음악 전시판매' '소통하는 스님들이 전하는 즐거운 불법특강 통통통' 등 젊은 층을 겨냥한 참신한 체험행사와 청년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힐링 프로그램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국제마당은 세계일화를 콘셉트로 미얀마, 몰골, 일본, 대만, 태국, 네팔, 베트남 등 주요 불교국가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NGO마당에서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남북 화해를 위한 평화 서명 운동' '에코붓다 쓰레기제로운동' 등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홍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라운딩 도중 민추본 부스 앞에서 설명을 듣고 즉석에서 평화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사장 일면 스님이 직접 나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실시하고 동참자에게 손 선풍기 등을 선물했다.

조계사 옆 우정총국 마당에서는 외국인 등만들기 대회가 열렸다. 오전 11시부터 216명의 외국인들이 등만들기에 참여, 한국만의 아름다운 연꽃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미국에서 온 수잔 씨는 "만들기 뿐 아니라 등의 기원과 정성의 의미, 한국인의 정서를 느낀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박재완 · 신성민 · 윤호섭 · 임은호 기자

金 · 銀 메달로 즐기는 연등회

조계종–한국조폐공사, 직경 40㎜ 기념메달 출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연등회의 기념메달이 처음으로 제작된다.

한국조폐공사(사장 반장식)는 1200년 역사의 대한민국 대표 축제 연등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 조계종과 공동으로 기념메달을 기획했다. 기념메달은 금메달과 은메달 2종으로 출시하며, 각각 순도 99%에 중량 31.1g, 직경 40㎜다.〈사진〉 특히 은메달은 조폐공사 최초로 앞 · 뒤 양면을 채색해 연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판매가격(부가세 포함)은 개당 금메달 396만원, 은메달 22만원이다.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조폐공사 쇼핑몰(www.koreamint.com) 등에서 선착순 예약 판매한다.

은메달 앞면에는 연꽃등을 분홍색으로 채색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새겼다. 배경에는 연꽃등에서 빛이 널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파동 형태로 표현했다. 뒷면에는 스님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등 행렬을 묘사했다. 메달 속 성인 남성은 팔모등, 남자아이는 수박등, 여자아이는 연등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또한 연등회의 영문 'Yeon Deung Hoe'를 비롯해 'Lotus Lantern Festival' 'Au999(금메달)' 'Ag999(은메달)' 및 조폐공사 홀마크를 새겼다.



조폐공사 측은 "'연꽃등'을 줄여서 연등(蓮燈)이라 부르고, '불 밝히다'는 의미로 '밝힐 연(燃)' 자를 써서 연등(燃燈)이라고도 한다"며 "욕심과 집착으로 어두워진 마음에 지혜를 밝히는 의미를 담아 메달을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은 "조계종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지닌 연등회를 기념메달로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기념메달을 통해 계승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향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경찰 불자들 "공정 · 호국경찰로 거듭나겠다"

경찰청 경승단 · 불교회, 5월 15일 봉축법회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경찰 불자들이 "불의에 맞서는 공정한 경찰, 국토를 지키는 호국경찰이 되겠다"고 서원했다.

경찰청 경승단 · 불교회는 5월 15일 경찰청 본청 대강당에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경승단 총재)을 비롯해 경승실장 지현 스님(조계사 주지), 경승 선업 스님(조계종 포교부장)과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 윤희근 경찰청장, 김준영 경찰청 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경승단 총재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봉축법어를 통해 임제 선사가 말한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상기시키며, "자기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경찰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경찰 곁에는 국민이 있고, 국민의 곁에는 국민의 수호신인 경찰이 있다. 또한 부처님의 광명과 지혜의 등불이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찰 여러분 한분 한분의 보살행이 국민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경승실장인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사바세계에 나투신 부처님의 고귀한 가르침을 가슴에 바로 새기고 나와 너로 시작하는 시방삼세의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수승한 가르침을 따라가겠다"고 서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말에서 "자비와 상생을 향한 걸음으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해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가 되자고 선언하신 진우 스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찰 또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힘차게 응답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신뢰받는 경찰, 존중받는 경찰, 함께 함께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경찰청 봉축법회서 함께 관불의식을 하는 모습.

이와 함께 경찰청 불자회원과 법회 참여 대중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거듭날 것을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참여대중은 발원문에서 "경찰 제복의 자긍심을 잊지 말고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경찰, 불법과 불의에 맞서는 공정한 경찰, 국토를 지키는 호국경찰이 되도록 보살펴달라"고 기원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진우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은 경찰청 로비에서 참수리 장엄 등 봉축 점등식을 개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국 전역서 부처님오신날 축하

5월 5일 백악관서…해외특별교구도 연합법회

미국 백악관을 비롯해 전역에서 부처님오신날(The Buddhist festival of Vesak) 행사가 열렸다.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치러진 것은 올해로 세 번째다. 5월 5일 열린 행사에는 스님 20여 명이 초대됐다.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의 남편 더글라스 엠호프, 미국 국제불교회(IBAA) 이사장 왕모(Wangmo Dixey), 캄보디아, 태국,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대사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사진〉

대승 불교권 스님 3명, 테라바다 불교 스님 3명, 바즈라야나 불교 스님 2명이 각 지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 조계종 미주 비구니승가회 회장이며 조지아주 붓다나라 템플 주지 선각 스님과 태고종 소속 미국인 혜도 스님 그리고 일본 조동종 대각 스님이 초대돼 점등과 축원 그리고 메시지를 전했다.

앤토니 블린컨 미국 국무장관은 축하 메세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세계에 펼쳐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동참자들은 점등과 축원을 통해 전쟁과 고통 종식을 염원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 희망을 전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지회도 연합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해외특별교구 미중서부지회는 5월 13일 LA달마사(주지 금선) 법당에서 조계종 소속 15개 사찰 합동 연합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법왕사 주지 현일 스님은 법어에서 전쟁과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부처님 원력으로 따스한 세상, 밝은 사회가 이뤄지길 기원했다. 스님은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는 땅을 향한 부처님 탄신 모습처럼 부처님 자비가 사방으로 퍼져 탐욕이 없는 세상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KOMSCO 한국조폐공사

부처님오신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기념메달



연등회 기념 금메달

판매가격 : 3,960,000원

순금(Au999) / 31.1g / ø40mm/ Proof



연등회 기념 은메달

판매가격 : 220,000원

순은(Ag999) / 31.1g / ø40mm/ Proof

| 디자인

앞면
연등회의 가장 대표적인 연꽃등을 메인테마로 하고 배경곡선으로 빛의 파장을 표현하였다.

뒷면
나이,성별,직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등을 가지고 함께 행렬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 선착순 예약접수 〉 05.22(월) - 06.02(금), 12일간

※ 배송 : 교부 09.18(월)- 09.22(금)

온라인 판매
KOMSCO 한국조폐공사
POONGSAN 풍동양행
Hmall THE HYUNDAI.COM

협업 기관
연등회보존위원회 YeonDeungHoe Preservation Committee
대한불교조계종

제조 및 판매 주관
KOMSCO 한국조폐공사
www.koreamint.com



오롯 골드바 판매
구매처 : 공사 쇼핑몰 (www.koreamint.com)
문 의 : 02-710-5227

선지식에 길을 묻다

불영 자광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장)

“포교=수행, 이젠 ‘부처님 法’ 전해야 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는 종정 추대, 총무원장 인준, 종헌 개정안 인준 등의 권한을 가진 종단 최고 의결 기구이다. 원로의장은 원로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는 임무를 가진 자리다. 올해 4월 원로회의 새 의장에 불영 자광 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자광 대종사는 1세대 군승이자 군종특별교구장으로서 한국불교 군포교 역사에 새 장을 열었고, 호계원장 · 동국대 이사장 등 주요 소임을 역임한 조계종단의 어른이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불교와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자광 대종사에게 들었다.

〈편집자 주〉



불영 자광 대종사는…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대종사는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진급,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다시 종단으로 돌아가서 수행자가 됐다. 이후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과 호계원장,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계위원을 역임했다. 2019년 원로의원으로 선출됐고, 2023년 4월에는 원로의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는 매일 아침 서울 충무로에 소재한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출근한다. 대종사는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소임을 맡아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현역이다. 학술원장실에서 만난 자광 대종사에게 근황을 여쭈니 “별 것 없어요. 내가 밥 해 먹고, 빨래하고, 도량 청소하고, 부처님께 기도합니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실제 대종사는 세수가 80세를 훨씬 넘었지만, 주석처에 시자도 공양주도 부전스님도 두고 있지 않다. 이유가 궁금했다. “시자나 공양주 둘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이내 수행자의 자세를 강조했다.

“스님은 편하고 호화롭게 살면 안 됩니다. 내가 혼자서 밥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목탁치며 염불할 수 있는데 시자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일상생활도 수행입니다. 스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수행해야죠.”

자광 대종사가 공양주, 시자, 부전 등을 두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대학생 · 청년을 위한 장학금, 종단 주요 정책 불사 기금 등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하기 위해서다.

“내가 목탁치고 기도하니까 공양주, 시자, 부전으로 나가는 월 보시금이 없어요. 그런 돈을 아끼고, 신도들이 보내주는 보시금을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전부 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광 대종사는 지난 5월 1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년을 세우다’ 불사에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동국대에도 장학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노구에도 시봉 없이 모든 것 ‘혼자서’
“생활이 수행… 아낀 정재로는 기부”
원로의장 추대 後 “출가자 문제 동참”
“행자교육부터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서 나온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시대의 화두
불교 전승 위해선 전법포교가 최우선
“부루나 존자처럼 목숨 걸고 포교를”

현 세대 · 시대 맞는 승가교육을

지금도 일선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자광 대종사는 원로의장으로 선출 직후 일성도 “종단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였다. 특히 “출가자 급감에 대한 문제 해결에 원로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단 원로들이 나서서 현안 해결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출가자 급감 문제는 종단의 존폐가 걸린,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로라고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 밥 먹고 살면서 놀면 안 되잖아요. 오랜 시간 수행하고 포교한 원로로서 지혜를 보태야지요.”

그러면서 대종사는 그간 포교의 부재를 지적했다.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출가자 급감 문제는 넓게 보면 저출산 문제와 연결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출가자도 감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럼에도 출가 자원이 이 같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은 청년 포교를 등한시했던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제도 원인이 있습니다. 청년 포교 부재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자광 대종사는 출가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시대에 맞는 행자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젊은 세대가 춤을 좋아하면 춤을 추며 부처님을 찬탄하도록 하고, 랩을 좋아하면 〈반야심경〉 등 불경도 랩으로 독경하도록 하자”는 게 대종사의 주장이다. 그만큼 정형화된 교육이 아니라 차별 없고 열려 있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젊은이들은 스님이 되는 것이 엄청난 각오나 결심이 필요하다고 아는 것 같아요. 넓게 보면 스님의 삶은 결혼만 하지 않을 뿐 일반인과 별 차이 없어요. 이제는 청년들에게 부처님의 계율 지키는 생활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삶임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중단됐는데, 종단에서 염불대회를 열었습니다. 젊은 학인들이 랩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등 새로운 염불 방식을 보여줘 인기가 좋았습니다. 재가 청년과 청년 학인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수행풍토를 만들면, 출가자 증가에 조금은 도움 되지 않을까요?”

망하기 싫다면 포교해야 합니다

‘춤으로 랩으로 젊은 세대를 불교로 이끌자’는 격외의 제안은 자광 대종사 자신이 그렇게 중생을 전법포교하고 교화했기에 가능한 제안이다. 실제 자광 대종사는 스승인 경산 스님을 따라 조계사에서부터 어린이 포교를 했다.

“우리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 ‘포교를 해야 불교가 망하지 않는다’ 고 생각하며 조계사에서 어린이 포교를 시작했어요. 은사스님을 시봉하면 과자나 사탕 같은 것들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이를 모아서 어린이, 중고등학생 법회에 가져서 나눴죠. 어떻게 보면 운문 스님과 제가 어린이 법회를 처음 시작했죠.”

〈A5면에 계속〉



선지식에 길을 묻다

불영 자광 대종사 (조계종 원로의장)

“茶한잔에도 온 우주 동원…대자비심으로 살라”

역임했던 모든 소임서 ‘화합’ 강조해
“화합하려면 타인의 입장 인정하라”
연기법 상기… 결국엔 ‘우리는 하나’
“서로 포용하며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자광 대종사는 매일 아침 동국대 불교학술원으로 출근 후 부처님께 향과 복전(福錢)을 공양한다. 대종사는 “어디서든 해 온 오래된 습관”이라고 했다.

〈A4면에 이어〉

자광 대종사가 한국불교 포교사에 한 획을 그은 여러 업적은 ‘1세대 군승’으로 활동하며 이룬 것들이다. 종비생 1기로 동국대 인도철학과에 입학한 자광 대종사는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군포교 일선에 뛰어든 것은 장병들을 포교하라는 스승의 명을 받든 것이다. 이로 인해 대종사는 졸지에 ‘군대를 두 번 간 남자’가 됐다.

“대학을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려는데, 군승으로 갈 스님이 부족하다며 입대를 요청받았습니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군대를 가라니 난감했어요. 그래도 나라를 이끌 젊은 장병들을 불교로 이끈다는 생각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복무했습니다. 중생교화가 스님의 근본 사명이잖아요.”

1970년 임관한 자광 대종사는 1995년 국방부 군종실장(대령)을 끝으로 전역하기까지 25년 동안 군포교에 매진했다. 군승으로서 대종사가 남긴 성과는 대단하다. 군종실장 시절 장병들의 종교 현황에 맞춰, 기존 불균형했던 군승과 군목의 비율을 조정했다. 이를 통해 군승법사 정원을 100여 명으로 확대했다. 장병 상대로 법회 · 설법을 4600회했으며, 이를 통해 계를 준 장병만도 4만6000명에 달한다.

전역 후 군인연금을 받으며 세속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종사는 승단에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종단으로 복귀하며 자광 대종사는 당시 총무원장이었던 월주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 “비구로서 하자 여부를 종단 호법부에서 심의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종단을 대표하는 총무원장스님이 직접 삭발해 달라”고 자청했다.

조사해보니 자광 대종사는 청정비구로 아무 문제가 없었고, 월주 스님은 대종사를 영화사로 초청해 정성을 다해 삭발해줬다. 그렇게 대종사는 비구로서 종단으로 ‘환귀본처(還歸本處)’ 했다.

종단에 복귀한 자광 대종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을 역임했다. 여기서도 군포교사에 한 획을 긋는 대작불사인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를 건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불자들의 성금으로 130억 원을 모연해 불사를 완성했다. 이 같은 대종사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지난 2018년 호국 연무사 경내에 공덕비를 세웠다.



자광 대종사의 논산훈련소 법당 호국 연무사 건립 공덕을 기리기 위한 비문 제막식. 2018년 봉행됐다.



5월 1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는 자광 대종사.

‘부처님 법 전합시다’ 깊이 공감

오랜 시간 일선에서 포교를 해온 자광 대종사는 지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자승 스님이 회향사에서 밝힌 “성불하세요 대신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로 인사하자”는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시대 인식을 정확하게 한 것입니다. 신도 급감, 출가자 급감 현상에 돌파구를 찾고자 부처님 전법의 길을 따라 43일 동안 1167km를 도보순례한 것이죠. 그동안 편안하게 살고 있던 것을 반성하고 이제 제대로 포교하고 전법도생하자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광 대종사는 경전에 있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상기시키며 “부처님께서도 정각(正覺) 이후 포교하고 전도할 것을 강조했다”면서 “전법포교는 불자들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설법제일 부루나 존자가 수나이 지역으로 가서 전법할 것을 전하자 부처님께서는 염려하며 ‘너를 칼과 창으로 해치려면 어떻게 하려하나’ 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루나 존자는 ‘수행해 해탈코자 하는데 내 육신이 죽게 된다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것이라 생각하겠다’ 고 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처럼 목숨을 걸고 포교했습니다. 부처님 당시 불타는 전법 원력으로 중생교화에 매진하자는 화두를 상월결사가 던진 것이죠.”

화합하려면 인정하라

자광 대종사를 상기시키는 다른 키워드는 ‘화합’이다. 학내 혼란스러웠던 동국대를 이사장으로서 3년 동안 이끌면서 ‘화합’으로 나아가게 했다. 대표적 사례가 2018년 청소노동자와의 화합이다. 당시 동국대는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내홍을 겪었다. 청소를 하지 못한 학교는 쓰레기가 넘쳐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파업 시작 후 86일인 4월 24일 동국대와 청소노동자들은 그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런 극적인 타결에는 자광 대종사의 제안이 있었고, 학교와 노조 모두 서로 입장을 배려해 ‘참회 · 화합 · 상생’의 합의점을 찾았다.

결국에는 관련 노동자 97명 전원은 직접 고용됐다. 이후에도 자광 대종사는 부처님오신날과 명절마다 청소미화원 · 경비 · 기능직 근무자 대상 오찬을 열어 노고를 치하하고 한아름 선물도 전달했다. 그래서 자광 대종사가 이야기하는 화합의 원칙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다.

“정치인, 기업인, 일반인 모두가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욕심 없이 살 수 있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만 욕심이 지나치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도 욕심이 있다는 것을 왜 인정을 못하는 겁니까. 내 욕심이 있으면 상대방도 욕심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욕심부터 이해를 해보세요. 상호 상대방의 욕심을 이해하고 대화를 하면 합의점이 나옵니다. 이런 합의점을 찾기 시작하면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자광 대종사에게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와 국민들을 위한 짧은 법문을 청했다. 이내 대종사는 찻잔을 들어 보고 “차 한잔을 위해 온 우주가 동원되고 있다”며 불자들을 위한 소참법문을 시작했다.

“이 찻잔의 차를 위해서 찻잎이 재배돼야 하죠. 찻잎을 키우기 위해서는 차나무가 뿌리내릴 대지와 이를 키울 물과 햇빛이 필요하고, 이를 키울 농부와 찻잎을 덖을 다인(茶人)의 노고가 필요하죠. 차를 우려낼 물도 그냥 얻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과정이 뒤에 있어요. 우린 혼자서 단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차 한모금도 내가 잘나서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인연법, 연기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를 떠나 내가 살 수 없고, 나를 떠나 네가 살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로 미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자비심’을 발휘하며 사세요. 서로 돕고 포용하며 따뜻하게 살아가십시오.”

돌아서 나오는 길, 자광 대종사는 “깨닫고 보니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더라. 마음을 잘 써라”고 충고했다. 그렇다. 모든 문제는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겠는가. 천국도 지옥도 결국 마음에 있다. 대종사가 오도송에 강조했듯이.

모양도 색깔도 부피도 무게도 없는 마음.
도무지 한계가 없으니 우주를 싸고도 남았고,
가고 옴이 따로 없으니 항상 존재하고,
무게 또한 없으니 우주를 짊어졌고,
성내고 기뻐함도 없으니 항상 평화롭고,
색깔마저 없으니 각양각색을 한달음에 총섭하였네.
마음에서 허공이 나왔고, 시간과 공간이 나왔고,
중생과 부처가 나왔고, 천당과 지옥이 나왔으니,
과연 삼라만상을 창조하였구나.
항상 나와 함께하는 진법계의 실상이여!
만상이 출몰하도다.

–자광 대종사의 오도송 ‘마음, 마음, 마음이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봉 은 사

사부대중 일동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 org |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오늘 밝힌 자비 등불로 상처 입은 사람 위로를

성파 스님
조계종 종정



무생(無生)의 삶을 이룩하고 해탈(解脫)의 위신력(威神力)을 갖춘 분이 오늘 진리(眞理)의 현신(現身)으로 우리곁에 오셔서 범부(凡夫)를 고쳐 성인(聖人)을 이루는 우레 같은 할(喝)을 하니 비로(毘盧)의 바다가 뒤집히고 생각마다 미륵(彌勒)이 하생(下生) 합니다. 곳곳에서 진리(眞理)의 현관(玄關)이 열려 중생(衆生)을 깨우치는 사자후(獅子吼)가 쏟아지고 자문(慈門)이 열려 중생(衆生)을 요익(饒益)케 하는 무외시(無畏施)가 넘칩니다.

새들은 환희(歡喜)에 젖어 생멸(生滅) 없는 무생가(無生歌)를 노래하고 석녀(石女)는 줄없는 거문고로 틀 밖의 소식을 전하니 두두물물(頭頭物物)은 불조대기(佛祖大機)를 풀어내고 범성(凡聖)은 본래면목(本來面目)을 통해 차별 없는 일미(一味)를 이룹니다.

삼라만상(森羅萬象)은 일기일경(一機一境)을 통(通)해 진리(眞理)의 모습을 드러내고 여러분 앞에 시종(始終) 없는 빛을 놓고 있습니다.

자성(自性)을 통(通)해 무생(無生)의 면목(面目)을 깨달은 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解脫)과 안락(安樂)을 얻을 것이요, 탐욕(貪慾)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타적(利他的) 덕성(德性)을 깨달은 분은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보살(菩薩)의 대기대용(大機大用)을 얻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열어서 중생(衆生)이 지닌 어둠을 걷어내고 본래면목(本來面目)을 깨닫게 하는 지혜(智慧)의 논밭을 일구어 중생(衆生)이 쏟아낸 노여움과 아픔을 반야(般若)의 품으로 안아서 따뜻한 자비(慈悲)로 바꾸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고통은 사랑과 자비(慈悲)의 헌신(獻身) 없이는 줄어들지 않고 중생(衆生)의 고통을 제 몸에 담는 비원(悲願) 없이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대비(大悲)의 한 생각이 세상(世上)을 변화(變化) 시키고 인생(人生)을 바꾸게 합니다.

날마다 미워하고 다투며 얼굴을 붉히는 이웃이 부처 될 사람이며 불조대기(佛祖大機)를 갖춘 진리(眞理)의 구현체(具現體)입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자비의 등불은 좌절의 상처를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오만해진 사람들에게는 회심(回心)의 눈을 뜨고 자기를 낮추게 하는 하심(下心)의 등불입니다.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 밝히자

법공 정사
불교총지종 종령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온 세계에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길 서원하며, 모든 사부대중에게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행복과 희망, 선업과 복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국가 간의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러한 시기야 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의 동체대비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길 때 이 사회는 더욱 화목하고 살기 좋은 불국정토로 거듭 날 것입니다.

수행본기경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나(我)란 존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기 자신' 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주의 근본이며 출발점입니다. 내가 태어남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또한 내가 죽는 날 이 우주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소중한 만큼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니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자대비와 지혜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구원하는 자비의 등불을 함께 밝혀나갑시다. 성도합시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친애하는 불자여러분. 오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더 특별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려움 없이 이웃과 함께 활짝 웃으며 서로를 마주보는 온전한 부처님오신날을 3년 만에 맞이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을까 상대방을 배려했던 따뜻한 마음, 최악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지 않은 희생정신,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먼저 보살피는 자비심이 우리 모두를 구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모두 인연과 인과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은 마음의 전쟁을 불러오고 내려놓음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내 안의 존엄함을 깨닫고 청정하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때 진정한 행복의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스스로가 주인공이며 부처로 살아가는 길이 될 것이며 온 국민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한결같은 불자의 목표 '성불'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아름다운 룸비니 동산으로 오신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의 사자후로 만 생명의 존엄을 설하셨으니, 우리가 만법의 주인이요 우리 사는 이곳이 극락입니다. 오늘 봉축의 마음 모아 오색의 연등 밝히니, 무명 번뇌는 사라지고 정법의 시대가 환하게 밝아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고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도 어두워지는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깨우침의 힘은 탐욕의 불을 끄는 지혜를 싹틔우고 악행의 과보를 녹여 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목표는 성불입니다. 성불을 향한 길은 오직 마음 닦는 길입니다. 중생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니, 굳건한 신심과 드높은 서원을 잃지 말고 열심히 정진합시다. 정진이 무르익어 자등명이 성취되고 일심이 청정하여 법등명이 이루어집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닦아가면 오늘도 내일도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참회 · 화합으로 불국정토 만들자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불안했던 나날을 보냈습니다. 치유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우리 사는 이곳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참회하고 화합하며 혁신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자주정신으로 새롭게 발돋움해야 합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봉행하는 우리들의 불작불행(佛作佛行) 인연공덕(因緣功德)으로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은 열반락(涅槃樂)을 얻어 영원한 안락을 누리며, 고통 속에서 헤매는 이들은 하루 빨리 고통을 여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서로 도웁시다.

올해는 진각성존 회당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신지 6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종단은 '다시 종조정신으로' 라는 기치아래 신행문화를 활성화하면서 교화와 포교불사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진언행자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종단이 거듭나도록 서원하고 정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비 실천해 사회적 책무를

관음종 총무원장 법명 스님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셨고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智見)을 열어서 청정함을 얻기 위해 출현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명 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올바른 통찰을 열어 보이고, 생사의 속박과 삶의 불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구체적 원력을 갖고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불자들은 등이나 밝히는 일로 부처님 오심을 봉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각을 통해 진여의 올바른 삶을 개척하고,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어려운 이웃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자비 실천으로 봉축하고, 이 나라의 분단된 아픔을 통일로 치유할 수 있는 헌신적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불교가 이 시대의 종교로서 구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하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마음 속 불성 볼 때 환희장 열린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부처님께서는 원만히 구족한 지혜를 몸소 깨달아 일깨워주시고, 동체대비의 크신 자비로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에 물든 중생들에게 무욕(無慾)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중생들에겐 이념과 사상, 계급과 계층, 지위와 위상이 다를 수 없습니다. 차별과 차등이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공존과 소통의 지혜로운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을 헤아려 마음 속 환한 등불을 찾는 것이야말로 참된 불자의 도리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회 공동체의 평화와 평등을 위한 뜻깊은 법석을 널리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未完)의 부처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불성(佛性)을 바로 볼 때 이 사회의 어둠을 물리치고 환희장의 세상을 열 수 있습니다.

불성이 세상을 밝히는 날, 부처님의 미소가 우주법계에 봄꽃처럼 만개할 것입니다.

분별없는 마음으로 이웃 돌아보자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불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을 봉축하며, 대일여래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서 모두 평안하시기를 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존재가 공통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를 보면 곧 법(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여래를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이(不二)의 관계에 있으며, 모든 존재는 결국 한 몸, 즉 동체라고 설하신 것입니다. 일체중생이 모두 다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인간으로 오신 부처님 시현의 참뜻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별없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생명을 존중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소욕지족의 삶을 실천할 때 오탁의 번뇌가 없는 청정한 밀엄정토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펼쳐 놓으신 가르침에 의지하여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평화의 세상이 열리기를 대일여래의 가지력을 빌려 서원합니다. 성도합시다.

무명 번뇌 제도하면 깨달음 세계 돌아가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모든 생명을 제도하시고자 일대사 인연으로 나투신 자비의 부처님.

고귀한 만남의 인연을 벅찬 감격으로 두 손 모아 맞으며 큰 뜻을 따르리라.

중생을 위해 신명을 다 바치는 거룩한 원력을 찬탄하며 광대무변한 법신의 자리를 향하리라.

생멸이 없는 마음의 본성을 보면 곧 진실한 부처님을 볼 것이니 파도와 바다가 둘이 아니듯 중생의 고향은 부처님 도량이구나.

중생심을 일으키는 무명 번뇌 제도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으리니, 평화로운 마음에서 인류의 행복 얻어지고 일심 청정으로 부처님 세상을 이룩하여라.

삼라만상 각양각생 모두 하나의 법성

경정 정사
진각종 총인



하늘땅의 움직임이 제 길을 가듯이 부처님은 오고 감이 늘 자재하여 오늘도 여전히 우리 곁에 오십니다. 선남선녀 찬탄하여 꽃 뿌려 맞이하고 오시는 뜻 헤아리고 받들어 갑시다.

법계는 그 자체가 일여성(一如性)이여서 겉은 나뉘면 여럿이고 안은 모여 하나라. 삼라만상 각양각색 제 빛깔을 자랑해도 모두 다 하나 법성의 장엄한 활동상이니 그 이치 깨치면 안락정토 여기입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 이것저것 분별하여 내 것 남 것 주고받고 뺏고 뺏기지만 다툼은 다시 화해로, 다름은 또 조화로 생명법칙 깊은 속성 마음에 담아내면 나라거나 사람마다 손잡고 살아갑니다.

군중의 아픈 외침 갑남을녀 신음소리 남 탓 내 변명하며 메아리로 돌리고, 거짓 숨겨 진실인양 내 책임 떠넘겨도 지은만큼 받는 진리 거스를 수 없으니 속마음 서로 새기며 평등사회 가꿉시다.

윗자리 아랫자리 때에 따라 바뀌거늘 내 자리 나의 몫을 제대로 보살펴서 참회를 먼저 하여 내 형편 떼쓰지 말고 더불어 사는 동네 곳곳 포근히 감싸 안고, 세간의 생활 중에서 참 깨달음을 누립시다.

참 마음 심인 밝혀 오신 뜻을 기립시다.

인욕의 갑옷 입고 세상에 법 전하자

홍파 스님
관음종 종정



고덕(古德)께서는 멀고도 오랜 구원겁전(久遠劫前)에 제법실상(諸法實相)의 묘법(妙法)을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중생의 삶과 하나 되어 깨달음의 성취로 돌아왔노라."

세상은 〈법화경〉 비유 말씀처럼 여전히 번뇌의 불길은 멈추질 않습니다. 온 세상은 편안한 곳이 없어 마치 불타는 집과 같아 고통이 가득하여 너무도 무섭고 떨리며, 생노병사와 우환이 항상 있으니 이런 번뇌의 불길이 타올라 그칠 줄 모르는구나.

우리 모두 부처님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산승(山僧)은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2567년 부처님오신날 합장하고 발원합시다.

많은 사람의 삶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인욕의 갑옷을 걸치고 이렇게 중생들 곁으로 진리의 법을 전하러 떠납시다.

편안하지 못한 이들을 편안하게 합시다.

“육바라밀 실천해 부처님 됩시다”

특별 지상 법문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정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5월 20일 조계사 초하루 법회에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전하며 “우리 모두는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정진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시자마자 곧바로 일곱 걸음을 걸으시면서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을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 나보다 더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뜻인데 모든 중생에게 자기 인격의 존엄함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명에 의해, 욕심으로 인한 인과로 고통받습니다. 모두 일체개고를 떠나 결국은 성불해야 완전한 근심 걱정, 고통, 괴로움 등 모든 번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크게 나눠보면 하나는 연기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과법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우리는 성불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극락은 행복이라는 상대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입니다. 극락은 곧 성불입니다.

며칠 전 저는 종기 수술을 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빨리 제거하지 못했고, 병을 키웠는지 피고름을 짜내며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미련곰탱이’라고 하더군요.

몇 해 전 손가락을 다쳐 지독하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는데 불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 선생님께서 마취를 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아문다면서 마취 없이 꿰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이니까 참을성이 있으실테니 그냥 참으세요”라는 겁니다.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팠어요. 이때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수행자인데 불자 앞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그래서 속으로 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빨리 아물었어요. 이번에 수술을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부처님 인과법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행복한 때가 있으면 힘들 때도 반드시 옵니다. 해가 지면 반드시 해가 뜨고, 밀물이 들어오면 썰물이 있지요. 이것이 인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다고 너무 들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즐거운 만큼 과보도 생깁니다. 인과를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이는 성불입니다.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 일희일비합니다. 일희일비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바로 수행이고, 쉽지 않기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성취를 위해서는 마음부터 인과에 벗어나야 합니다. 윤회하는 인과를 벗어나야 평상심을 통해 진정한 행복이 찾아옵니다. 좋다 싫다와 같은 감정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옛날 만리장성 북방에 한 노인이 살았죠. 어느 날 전재산이었던 말이 도망가 버렸죠. 가족들 모두 걱정했는데 노인은 아무 표정이 없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도망간 말이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재산이 두 배가 됐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했지만 이번에도 노인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집니다. 얼마나 슬퍼요. 재산도 재산이지만 아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차라리 말이 없었으면 다리도 부러지지 않았을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노인의 얼굴표정은 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전쟁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면제가 됐네요? 전쟁에 나가지 않고 목숨도 살린 거죠.

지금 이 상황의 과정들을 가만히 보세요. 한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생기고, 나쁜 일 후에는 좋은 일이 반복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면 다 그럴 겁니다. 이생에서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의 업이 금생에 나타나고, 금생의 업이 내생에 나타납니다. 내생에 고통 없이 살고자 한다면 금생에 잘해야겠지요.

부처님은 부처가 되기까지 오백생을 수행자로 사셨습니다. 선재동자, 설산동자, 금강경에 나오는 인욕보살, 난타여인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지금 등을 켜는 것이 난타보살 덕분이죠. 가난한 여인 난타가 연등부처님께 겨우 마련한 기름으로 등불 공양을 하지요. 바람이 불면서 다른 등불은 다 꺼졌지만 유일하게 난타 여인의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 공양한다는

>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을 행하면 우리 모두 열반의 피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업 없애려면 기도로 내 마음을 보다 편안하게 하고 꾸준한 명상으로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포교 원력이 실려 있습니다. 지혜의 등불입니다.

무구강 동자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부처님께 흙탕물 속에서도 물들지 않는 연꽃을 다섯송이를 공양하고 싶었지만 사람들 틈에 끼어 다가가지 못하죠. 그때 연등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길을 만들어 줍니다. 진흙길이어서 사람들은 다 피했지만 무구광 동자는 부처님께 다가가 꽃공양을 올리고, 머리를 풀어 연등부처님 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합니다. 공양하는 마음, 부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세상 모든 중생들을 공경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만나는 모든 것들이 부처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부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람간의 관계 속에서 감정이 드러나면서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나고 이것이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연기라고 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연기적 과정에 의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감정, 내 마음이 편하느냐 편하지 않느냐는 것은 내 몫입니다. 새옹지마처럼 기분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연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기분이 좋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것이죠. 그걸 평상심이라고 하고, 또는 중도심이라고도 합니다.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끄달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난리가 나죠. 치고 박고 싸우고 고소하다 보면 나쁜 마음이 내 어느 한 곳에 저장됩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 무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숨어 있다가 연기법으로 때가 되면 드러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직면하게 되면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고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시고 악한 행위를 저지른 과보로 받은 온갖 장애인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이 인과와 연기를 알려주기 위해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고 필연적으로 피하려고 하면 고통만 가중됩니다. 고통을 담담히 맞이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이러한 마음상태는 생사해탈이 됩니다.

이번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지으면 내가 업장을 스스로 없앨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육바라밀을 행해야 합니다. 보시와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 육바라밀을 행한다면 열반의 피안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 괴로운 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공도 좋고 합격도 좋고 건강도 다 좋지만, 거기에는 인과가 발생하기에 그것이 다 내 감정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업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합니다. 명상을 통해 마음을 편안히 하고 업을 더 이상 짓지 않아야 합니다.

탐욕심과 진에심, 우치심의 세 가지 번뇌인 삼독심은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됩니다. 독이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지나친 욕심과 성질을 참고 남을 탓하지 않으며 열심히 기도하고 육바라밀을 행해 부처님이 됩시다.

이 법문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초하루를 맞아 5월 2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설한 법문을 요약 게재한 것입니다.



마음 평화 이루는 부처님 가르침

화합 기도하며 자비 등불 세계로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니시가와 세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주법계에 가득한 자비광명을 찬탄합니다. 지금 인류와 지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파괴, 질병, 전쟁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모든 고통을 없애겠다"라고 서원하신 부처님의 자비는 보편하여 널리 베풀어질 것입니다.
신뇨엔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에 대승 불자로서 마음의 탄생과 이타(利他)실천을 맹세합니다. 가까운 이웃에서부터 현유(顯幽) 모든 생명의 지복(至福)을 위해 이타행으로 자비의 등불을 크게 크게 넓혀갑시다.

함께 행복한 사회 만들자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월인 스님
(사)대한불교 승가종 종정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오신 부처님.
부처님이 오신 이유를 다시 살피고 물질에 집착하는 욕망을 털어 냅시다.
불생불멸 삼세인과법을 바로 알아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새겨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 무명에서 벗어납시다. 황폐하고 삭막해진 우리 사회를 구하고 가꾸는 데 앞장섭시다.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갑시다.

바로 당신이 존귀한 부처님



세계불교교황청장 능인 스님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 오셔서 쌍림에서 열반하시기까지 여덟까지의 모습을 보이심은 나와 같이 수행하면 일체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하늘 위나 아래 나 홀로 높다고 선언함은 모든 중생 개개인이 누구나 높다는 것으로 중생의 평등과 자유를 선언함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당신께서 부처로 탄생하시는 날입니다. 당신은 내가 사랑하고 존귀하신 부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닙니다.

중생제도의 지팡이가 되자



세계불교법왕청 대승정 목탁 스님

수천 마디 말보다 단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미사여구로 말만 하지 말고 스스로 앞장서는 수행하는 수좌가 되고자 발원합니다. 승려의 옷에 취해 살지 말고 중생교화 인간 방생에 땀 흘리는 수행자가 됩시다. 모두 합심하고 하나가 되어 중생을 구원하는 지팡이가 됩시다.
佛门弟子离不开佛祖的手掌 比起千言万语，重要的是实践一次 希望不要只用一句空话，成为带头人 不要沉醉在僧侣地衣服里 要成为众生教化人放生汗水地修行者 大家齐心协力成为一体 确信这样的过程就能从佛教徒的苦难中拯救出来 佛到天涯海角的大志 现在我们给大家展示一下越来越像佛祖的行吧 让我们展示流着汗努力的样子吧

평등의 불법, 만방에 전하자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부처님께서는 무명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탄생게를 통해 모든 사람이 소속, 신분, 계급, 인종, 재산, 학벌, 능력 등과 관계없이 똑같이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임을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서 이 세상에서 탐욕으로 인한 전쟁, 살상, 억압, 착취, 차별 등을 없애야 하겠습니다. 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지혜 광명 나투는 불국토 이루세



(사)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부처님오신날 오늘은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싱그러운 바람은 선선하고 부드럽습니다. 천지 만물이 모두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 모든 것이 즐거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두두물물에 불성이 깃들어 있음을 알리셨습니다. 이 온 우주에 불성이 가득하니 날마다 좋은 날이요, 날마다 기쁨입니다.
우리가 부처임을 스스로 깨달으면 행복의 경지가 저절로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 광명과 자비 광명이 만방에 펼쳐지는 불국정토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평화 실천에 앞장서자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를 존중하도록 합시다. 세상이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과 폭력이 없는 세상이 바로 부처님께서 그리신 세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불자들의 봉축하는 마음이 나아갈 곳입니다. 진정한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삼론종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인 자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모두의 마음을 모아갑시다.

마음의 평화 찾는 계기 되길



(사)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스님

삼보 전에 큰절을 올립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가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불안한 일상을 이겨온 국민이 부처님 자비 원력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는 염원일 것입니다.
개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면 그 자체가 바로 부처님의 세상입니다. 불자는 물론이고 국민 모두 치유와 안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아 궁극적 평화인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와 안정 행복의 가득한 부처님 오신 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스스로 행복한 법 구하자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스님

부처님께서는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이라는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시고 가신 그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은 나로 인한 것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에 의지하고 스스로를 성찰하여 변화시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허물이 없게 하고, 스스로 자신을 훈계하고 제어하여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자신을 성찰하여 스스로 맑아지면 이 세상은 더불어 맑아져 행복해진다는 솟아오르는 샘물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합시다. 부처님오신날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도록 계속하여 정진해 나갑시다.

생활 속 정진 계기 삼자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부처님은 무명의 중생을 가엽게 여겨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사물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는 가여운 중생들 곁에 언제나 어디에나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자 몸을 나투신 것입니다.
타인에게 널리 베풀고 인격적으로 살며 어떠한 고뇌도 견디어 내고 참삶을 더해 가는 정진(精進)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그리고 생각의 실천으로 저마다의 등불을 밝힙시다. 아직 세상에는 수많은 무명이 남아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건지는 부처님의 그 마음을 바로 보고 계속 정진합시다.

희망의 등불 밝히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대봉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현대 문명의 갖가지 병폐를 극복하고, 모두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남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같이 화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치관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신수 봉행하며 새롭게 거듭나 삿된 견해를 물리치고 정견의 수행과 정진으로써 몸소 자비행을 실천하여 이웃에게 희망과 전법의 등불을 전하는 진정한 불제자가 됩시다. 삶의 현장에서 극락정토가 실현되기를 등불을 밝히며 간절히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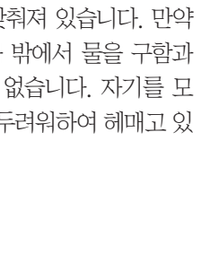
마음 법 바로 세우자



천토불국종 총무원장 지성 스님

마음이 일면 만물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만물이 사라집니다. 모든 것은 일체유심조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 하나 제대로 다잡는 것이 바로 불국정토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이것이 부처님오신날의 가르침입니다. 삼계의 모든 고통을 없애고자 하신 부처님은 바로 마음공부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마음속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관불하여 신구의 삼업 탐진치 삼독을 소멸하면 저절로 복과 지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일이 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 자비 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의 부처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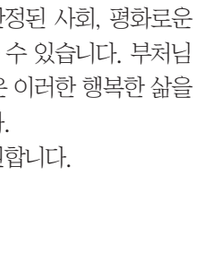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雲山見靑山 春來草自靑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庵絶往來
寂寂廖廖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구름이 흩어지니 산이 나타나고 봄이 오니 스스로 새싹이 돋네.
몸과 마음 정(定)에 들어 움직이지 말고 토굴 속에 묵묵히 앉아 왕래 끊어라.
잠잠하고 고요하여 한 가지 일도 없으니 마음의 부처 보아 자신에게 의지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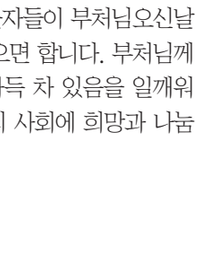
마음 등불 밝은 빛 나투네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도심 스님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 밝혀 광명으로 거듭납시다.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해 기꺼이 밝은 빛으로 오신 우리 부처님.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함께 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납시다. 인연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어리석어 성불할 줄 모르고 있으므로 깨달음의 모습으로 일대사인연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그 큰 뜻을 알고 우리 모두 등불 밝혀 마음껏 봉축하고 소리 높여 찬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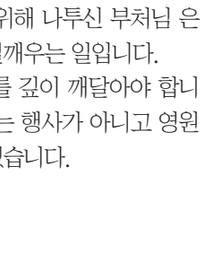
대중 참여 기치 높이자



한국불교통합조계종
종정 혜각 스님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계층 간, 지역 간 양극화와 극심한 개인주의 풍조의 만연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불자들은 서로 화합하고 상생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불자들이 앞장서서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해 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보다 대중 공사를 통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이뤄가기를 진심으로 서원합니다.

소통과 화합, 불국정토의 길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명암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길 위에서 나고 길 위에서 법을 전하시고, 길 위에서 열반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길에서 맨발로 법을 전한 까닭은 그것이 바로 대중의 삶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부처님 연기법의 선근으로 이끌고 악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배려와 나눔, 관심과 자비로 더 행복한 삶이 영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읍시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바로 불국정토를 이루는 길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 봅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부처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이신 부처님께서는 중생 제도하고자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갖춰져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자기는 영원하므로 종말이 없습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의 종말을 걱정하며 두려워하여 헤매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길이길이 축복합시다.

행복 전하는 수행자 됩시다

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성보 스님

부처님오신날, 우리는 부처님 삶과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중생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합하는 곳에서 비로소 법이 나툰다고 하셨습니다. 화목한 가정, 안정된 사회,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는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 정진하는 수행납자들은 이러한 행복한 삶을 중생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구촌 소외이웃 위해 마음을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일봉 스님

자비로운 마음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불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오신날 잠시나마 이들을 위해 마음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 차 있음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불법 도리를 깨닫는 자리로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파 스님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미혹에 빠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나투셨습니다. 해마다 사찰에 연등을 달고 소원을 올리지만, 각자의 소원을 빌기보다는 마음의 연등을 달아야 합니다. 뭇 중생을 위해 나투신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리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오늘 하루만 기리는 행사가 아니고 영원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전하며 불국정토 이룹시다

일심 믿어 견성 하세

(사)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我今設實語
汝等一心信
修習佛智慧
必得於見性

내가 지금 진실한 말을 하니
우리 무리들은 일심으로 믿어
부처님 지혜를 습득하게 되면
반드시 견성을 얻을 것이다.

자리이타 대서원 다시 세우세

대원불교 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전하셨습니다. 진리의 가르침을 이 땅에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같던 불자들에게 가르침이 전해지고 사성제와 연기법과 팔만 사천의 법문이 소통되었습니다.
여러분! 계묘년 초파일을 맞아 부처님 진리 말씀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소통시키는 자랑스러운 불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아 불성을 찾아 부처님 가르침 따라 정진 수행하며 부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이 불국정토가 될 것입니다. 자리이타의 동체 대비 서원을 세워 자타를 구제하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 청정, 부처 자리 오르자

세계불교 육조조계종
종정 동봉 스님



인간은 삶의 의미를 끝없는 욕망과 물질의 충족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세상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나의 소관이고, 세상이 혼탁한 것도 내 책임입니다. 일부러 복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구태여 화근을 짓지 마십시오. 마음이 어두우면 중생으로 남고, 마음이 청정하고 진솔하면 부처의 자리에 오릅니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각자 자세를 낮추어 자신을 성찰하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과 더불어 모든 인류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되는 정진을

세계법왕 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정림 스님
(사)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지혜로 이웃과 내가 하나임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웃을 돕고 남을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가르침인 자비의 원리이며 최고의 덕입니다. 남을 돕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인정으로 대하면 상대방도 그 인정에 감복하여 서로 이해하며 존경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은 짧았지만 깨달음의 진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해집니다. 온 우주 법계에 충만한 그 가르침 앞에서 다시 한번 자비심을 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우리 모두가 부처 됩시다.

평화공존 세계 나가자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스님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분단의 역사 70년이 자리하고 있는 이 나라에 아직도 남과 북의 극한 대립은 지속되고 있고, 평화공존은 멀기만 합니다. 사회 양극화가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웃 나라로 눈을 돌리면 전쟁과 테러, 종교분쟁, 인종차별, 지진 등이 하루가 멀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탐욕과 증오, 편견과 차별을 내려놓고 더불어 가야 합니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과 공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불법 귀의하면 날마다 좋은 날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은 무량겁의 공덕으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해탈의 기쁨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팔만 사천의 청정한 길을 펼쳐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셨으니, 오늘 부처님오신날은 일체중생이 지혜로 태어나고 자비로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부처님은 45년간 맨발의 전법을 통해 지난(至難)한 고해(苦海) 속에서 보리(菩提)의 길이 있고, 억겁 윤회의 고통에서 열반의 실상(實相)으로 들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 하나마다 귀를 기울이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이요, 하나하나 실천하면 곳곳이 대자대비의 화엄 세계가 될 것입니다.

분별심 버리고 이타수행 나서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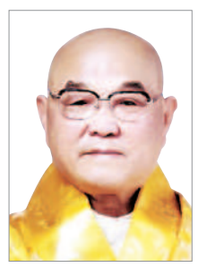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스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지 2567 성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 세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고통이 다 하면 즐거움과 행복이 오듯, 우리는 더욱 대동 단합하여 용서와 화합의 길로 가야 할 것입니다.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일심으로 돌아가서, 진제(眞諦), 속제(俗諦)를 따로 분별함이 곧 번뇌 망상심이니 심신이 둘이 아닙니다. 세속과 승가가 곧 마음 안에 있고 수행에 있다함이니 우리 모두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인류를 위해 발심 수행합시다.

적멸의 즐거움에 이르네!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혜륜 법진 스님



歸依佛 兩足尊
歸依法 離欲尊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대승 〈대반 열반경〉 사구게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제행은 항상함이 없으니 이것이 생멸의 법이다. 생함과 멸함이 멸하여야 적멸의 즐거움에 이르나니.

억압받는 이웃 돌아보세

(사)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중생이 깨달으면 곧 부처라는 것을 알려주시며 또한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원력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마음의 등불을 켜서 항상심을 가지고 수행하기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보이는 현상계 물질계 집착하고 욕망을 키워 만족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고통 아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의 삼세인과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새겨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히어 무명에서 벗어납시다.

깨달음은 공경으로 회향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스님



우리 불자들은 초파일이면 항상 등을 밝힙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태워 광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지혜의 상징인 연등을 밝히는 것은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깨달음은 모든 생명을 부처님같이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것으로 회향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부처님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몰아내고 슬기롭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처럼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 정진해 나갑시다.

하심의 도리를 행합시다

한국불교 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생명이 움트는 봄날에 꽃비 흩날리며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진 또 정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헛된 말에 귀를 열어 현혹되지 말고 하심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무명이라는 어둡고 어두운 곳을 밝게 밝혀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남과 이웃을 생각하고 위하여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말로만 하는 화합과 상생으로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버리고 남을 진정으로 위하는 하심의 도리를 행하는 참 불자가 됩시다.

복전작복 합시다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나무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고 잘살기를 희망합니다, 콧구멍 없는 하늘소가 울부짖는 이치와 같습니다. 공부도 문복이 있어야 하고 벼슬도 관복이 있어야 하고 재물도 재복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부지런히 노력하면, 무식도 면하고, 벼슬도 얻고 재물도 얻는 것입니다. 전생복이 없으면 제아무리 살아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큰 부자는 잔꾀로도, 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부귀를 지혜로 구한다면, 성인은 소녀 시절 큰 벼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 뜻 모르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만 고달프게 하는구나.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방 장 임담 의현
주 지 능 종

동화사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1(도학동 35) / www.donghwasa.net
전화 053)980-7900 / 팩스 053)985-4405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韓國佛教太古宗

僧正院

僧 正 慧雲, 知足, 錦龍, 圓默, 智山

元老會議 議 長 道 光
首席副議長 大 隱
次席副議長 雪 雲
議 員 德山, 錦龍, 鏡潭, 覺林, 南坡, 靑山, 智弘, 雪山, 法宣, 智性, 智山, 保惠, 世明, 智玄, 東佑, 東杓, 觀正

中央宗會 議 長 法 潭
首席副議長 法 信
次席副議長 法 輪

護法院 院 長 導 鶴
副 院 長 瑞 虎
委 員 惺應, 晩愚, 六和, 松憲, 淸虎, 慧學, 智峰

初審院 院 長 錦 潭
副 院 長 明 願
委 員 法能,古潭,羨覺,杲峰,蓮虛

中央選擧管理委 委員長 九 山
副委員長 慈 明
委 員 法一, 智海, 鶴山

總務院長 虎溟

行政副院長
教育副院長 一 蘆
財經副院長 能 解
總務部長 道 惺
教務部長 正 眼
財經部長 曉 能
文化部長 圓 悟
社會部長 現 潭
弘報部長 晴 空
糾正部長 眞 華
校任·傳法師部長 心 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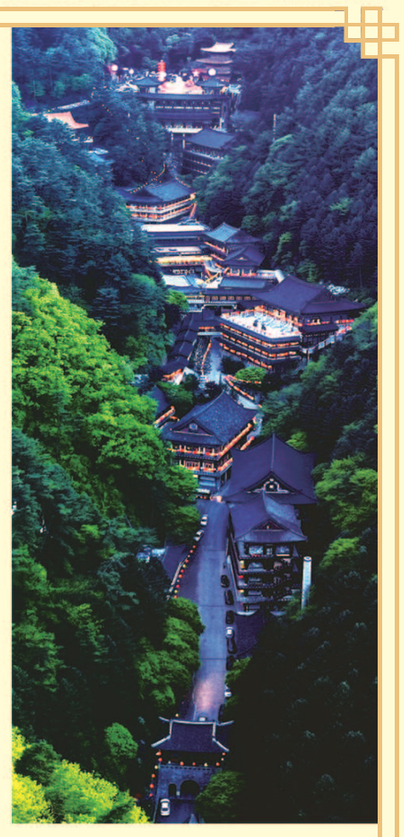
宗策委員長 智 弘
教育院長
布敎院長 法 京
考試委員長 才 弘
法規委員長 慧 周
社會福祉院長 休 完
佛敎文藝院長 聖 海
副 院 長 鏡 月
東邦佛敎大學學長
敎學處長 哲 悟
全國比丘尼會長 玄 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振 話
全國信徒會長 裵錫塋
靑年會長 李承潤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봉 부처님오신날 축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박덕수
총무부장 김갈수
교무부장 정도웅
교육부장 구성해
재무부장 지설혜
사회부장 이개문
규정부장 박거홍

원로원

원로원장 주정산
원로간사 김도산

감사원

감사원장 조진덕
감사위원 곽수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김세운
종의회부의장 김경천
황세열
총무분과위원장 김월도
법제분과위원장 방경혜
재무분과위원장 이보광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구인사길 73 총본산 구인사
전화 043-423-7100 / 팩스 043-420-7399 / www.cheontae.org



불기 2567 진기 77 부처님오신날

"자비의 등불로 세상을 밝힙시다!"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총 인 경 정
통리원장 도진 종의회의장 덕운
현정원장 능원 교 육 원 장 효명
총금강회장 정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7 | 전화 (02)913-0751~4 | 팩스 (02)913-0755

봉 계묘년 부처님 오신날 축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종정
영산 홍파

원로원장 보우 법륜

포교원	교육원	총무원	호법원	중앙종회
원장 계산 도현	원장 도선 성종	원장 청산 법명	원장 지열 경원	의장 덕운 혜산
포교부장 홍원	수교부장 도문	부원장 허주 도각		부의장 법웅
조직부장 호명	역경부장 도전	총무부장 홍경	종정추대위원회	부의장 지성
		교무부장 법선	호법위원회	
		재무부장 여은	법계위원회	
		사회부장 현성	감사위원회	
		감찰부장 덕일		

깨달음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 합장하고 봉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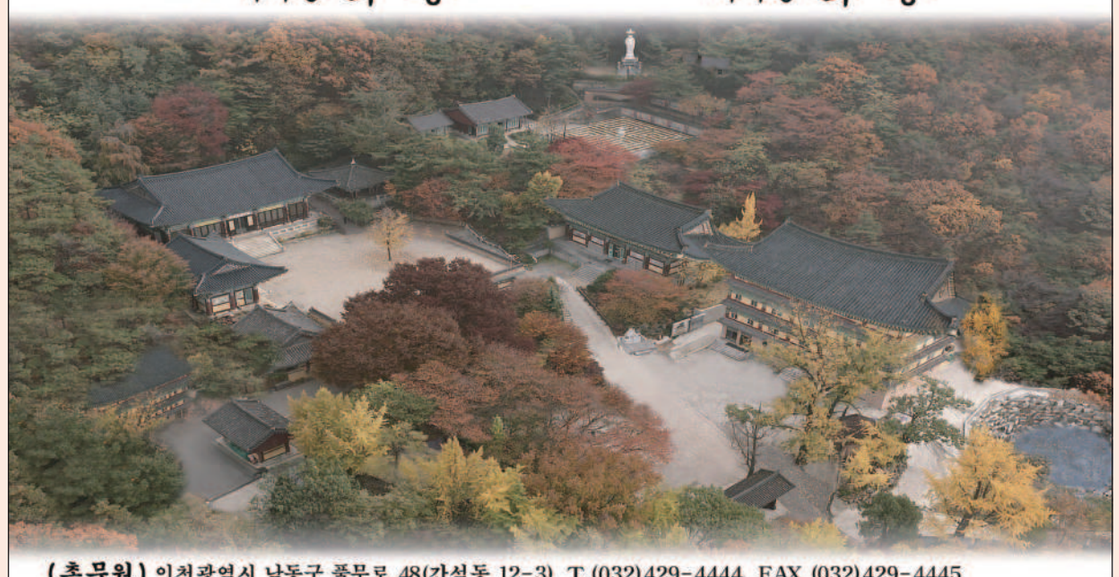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 www.kwanum.kr
T 02) 763-0054 F 02) 763-5851



공익법인 대한불교 화엄종

총무원장 화 응 중앙종회의장 대 휴
종무처장 양위찬(원당)

대본산 약사사(약사사추모관운영) 희망다문화협동조합
재단법인 화엄승가장학재단 이사장 화 응
공익법인 화엄종약사사장학회 이사장 화 응



(총무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032)429-4444 FAX (032)429-4445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02)730-0798 FAX (02)730-0799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월운스님**

종도일동

(사)전통불교 태고종 총무원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 54번길 183-101
전화 031)847-9338 / **팩스** 031)842-9337
총무원장실 직통 010-6242-6664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불성평등 자유의지의 천부적 권리 우리불자들이 지켜 나갑시다.

(사) 현대불교조계종

종 정 **벽운 해광** 대종사
부종정 **성주** 부종정 **혜원**

총무원장 **동화** 종회의장 **법진**
교육원장 **해인** 포교원장 **도선**

각지역 종무원, 종회의원 및 종도 일동

◈ 입종서류 ◈

• 주민등록등본 사본 • 반명함판 사진 • 신행 이력서

현대불교조계종 종단입종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발행

총무원 보광사 신도일동

총무원 :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86-100 식장산 보광사 / 전화 042)284-3929
총무원장 동화 010-8552-7108

奉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祝

(사)대한불교 원융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우리종도는 원융무애한 일원상의 진리를 스스로 체득한다.

圓滿融通 人格完成
우리종도는 원만 융통한 대인상의 인격을 수련 성취한다.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우리종도는 원통융화한 이상 사회의 실현에 적극 헌신한다.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우리종도는 원융회통의 참된 평화 세계건설에 이바지한다.

원융종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180-6 (구로동)
총본산 : 원융사 전화 02)853-0430~1 팩스 02)857-5094

※원융종 종도 여러분 사.암 등록증과 임명장, 신분증에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 임명장, 승려증은 필히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삼론종

종 정 **혜승** 종정사서 **보명**
전계화상 **혜공** 승정원장 **진봉**
승정위원 **인봉, 은곡, 지민, 지운, 지심, 지공**

총무원장 **해불** 원장사서 **성화** 사정부원장 **성우**
종회의장 **지경** 교리연구원장 **남륜**
총무부원장 포교원장 **해인** 포교부원장 **지연**
총무부장 **근혜** 교무부장 **자원** 수선원장 **응진** 수선부원장 **성혜**
사회부장 **도일** 재무부장 **성덕** 교육원장 **법지** 교육부원장 **묘현**
문화원장 **혜관** 문화부원장 **마애**

각 교구 종무원장
서울·경기 종무원장 **묘현** 충북 종무원장 **정연** 충 남 종무원장 **성현**
대구·경북 종무원장 **지화** 강원 종무원장 **도광** 전라·남북 종무원장 **도암**

중앙종회
종회의원 **지학 성현 성화 근혜 보명 묘현 정연 성각 지화**
응진 지연 자원 해산 성덕 해인 도암 도일 도광
중앙신도회장

종도일동

총무원 주소 : 충남 서천군 문산면 문고길203번길 103 천용사 전화 043)878-0109

세계불교 육조조계종 총본산

괴산 흥천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총재 무해 동봉
총본산 괴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주소 충북 괴산군 연풍면 수옥정길155
전화 043-833-5525, 010-3503-9737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안성 영평사

세계법왕일붕문도중앙회 회장
영평사 주지 정림



주소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031-676-3960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종회의장 **벽산 혜암**

포교원장 **법전 법현** 연수원장 **가원 성각** 교육원장 **진각**

강원종무원장 **영 명**	서울종무원장 **감 우**	총무부장 **진 공**
경기종무원장 **혜 암**	군산종무원장 **덕 일**	재무부장 **지 안**
충청종무원장 **진 산**	경남동부종무원장 **진 공**	사회부장 **진 성**
전라종무원장 **덕 운**	경남서부종무원장 **진 성**	연화부장 **정 해**

종도일동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총무원 :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796번길 62-12 천지암

◈ 불.법.승 ◈

(宗) 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滅空대종사 법주 正覺대종사

원로원장	**금산**	**부 종 정**	**회천**	원로부원	**정공. 정민**
호법원장	**호신**	**총무원장**	**법장**	종회의장	**법융**
고시원장	**해룡**	부 원 장		문화원장	**법등**
감찰원장	**법도**	교육원장	**홍인**	염불원장	**원명**
		사무총장	**평산**		

종회의원 **법융,법성,평산,호신,홍인,법종,보각,도오,지일, 법우,수산,도연,해곤,해봉,법전,도율**

총무부장	**지일**	교육부장	**도오**	규정부장	
호법부장	**청파**	교무부장	**청암**	포교부장	**혜수**
문화부장	**진각**	재무부장	**도능**	교화부장	
총무국장		포교국장	**도원**	홍보국장	**강천**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회국장		예술국장	**보인**	사 무 장	**신연화성**

교구원장 **수산,법인,보산,불광,도연,용현,법송,지원,청광,정륵**
(전국 16개 교구)

학 인 모 집
불교의례·범패·어산·바라·작법무
종립기관 승가대학 교육원·염불원

■ 삼보조계종:
총무원 경남김해시 호계로499번길4
전화 055-338-0089 / 팩스 055-333-1880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불광사 대웅전 위에 상서로운 오색구름이 피어 났습니다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종 정 **정산도정 석청봉 화남**
(종정예경실 : 홍보실장 석법성)

최고원로의장 **무량사**(석홍섭)	총 무 원 장 **천운사**(덕륜 석법경)	승 정 원 장 **수불사**(석원명)
원 로 회 장 **약사암**(석수오)	총 무 부 장 **성불사**(석현덕)	문 화 원 장 **다산불원**(석법민)
원 로 위 원 **천흥사**(석대몽)	총 무 국 장 **천운사**(석법성)	감찰호법원장 **동국사**(석원명)

각교구 지부장

다산불원(석법민)	**여해선원**(석여해)	**대원정사**(석대산)	**월안정사**(석월안)	
보문사(석무오)	**도림사**(석혜통)	**심원사**(석원목)	**천흥사**(석대몽)	**석불암**(석길현)
광엄사(석법현)	**광명사**(석진공)	**청수암**(석성산)	**문수암**(석성오)	**성지암**(석무착)

종도일동합장

총본산:경남양산시 주진로205 천성산 불광사 전화 055-364-4747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단법인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송 청파**

교육원장	동담 백천	기획실장	대비	종 회 의장	
감찰원장	동암 원효	사서실장	동판	사 무 국 장	동석 우석
문화원장	덕일 금산	총무부장	동봉 태공	창원교구원장	동백 지원
고시원장	도진 동영	복지원장	동법 혜조	포 교 원 장	동우 영산
사회원장	덕진 도광	수선원장	동성 혜각	의 전 원 장	동민 경오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 3통, 사진(3×4) 3장, 이력서 3통

종회위원 일동



총무원 50809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시례마을
TEL : 055-336-0108, 335-0178 FAX : 055-336-7070 / H·P : 010-3595-6522, 010-8939-6522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대한불교 종단진흥총연합회

회 장 대한불교율사조계종 총무원장 **청송 청파**

고 문
대한불교 해동종 총무원장 **송산**
중앙불교 조계종 종 정 **우담**
한국불교 대불종 총무원장 **만주**

소속명단

대한불교 통일조계종 총무원장	**무각**
한국근본불교 해동종 종 정	**정일**
대한불교 법보 조계종 종 정	**향운**
사)함 께 가 는 길 이 사 장	**혜상**
생활실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해 동 자 비 원 원 장	**만호**
한국불교 법상조계종 종회의장	**법장**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교육원장	**도문**
한국불교 미륵선종 종 정	**해일**
대 만 불 교 조 계 종 총무원장	**대명**
일 산 자 비 원 원 장	**도일**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감찰원장	**동암**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고시원장	**동영**
대한불교율사조계종 경기종무원장	**동일**



◉각 종단 총무원장님 : 종단 입종을 환영합니다.

종단연합회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대동로 417번길 83-17 우)50809
전화 055)336-0108. 335-0178, 323-0108 팩스 055)996-7070
HP : 010-3595-6522, 010-8939-6522

(사)한국대승불교조계종

종 정 **효산현각**
총무원장 **지호혜관**

사정원장 **성군**, 사회부장 **향광**, 재무부장 **선혜**, 교무부장 **보명**,
사정부장 **자공**, 비구니원장 **덕심**, 울산종무원장 **향광**, 서림사 **현각**,
지장사 **광영**, 금정사 **덕심**, 법성사 **인덕**, 천광정사 **취운**, 연화사 **일허**,
운고사 **운고**, 용연사 **취암**, 천운사 **현장**, 동방원 **법운**, 동방원 **효혜**,
불심정사 **혜관**, 쌍암사 **덕산**, 미륵사 **혜각**, 미륵정사 **혜월**, 미정사 **선혜**,
무심사 **보명**, 보우선원 **성군**, 칠성암 **무설**, 관음사 **월명**,
용덕미륵정사 **영주**, 계령미륵정사 **계령**, 보광정사 **자공**, 약불암 **무여**,
천심정사 **진토**, 쌍암사 포교원 **향광**, 백련암 **문정**, 화성암 **성화**,
금강사 **금강**, 금오사 **금오**, 칠원정사 **도원**

■ 총본산 :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384-3 서림사
■ 총무원 : HP. 010-4590-5539 FAX. 052)275-5539
■ 사정원 : HP. 010-5061-8300
■ 울산종무원 : HP. 010-4546-1100

이대론 한국불교 소멸…'전법'으로 돌파하자

프롤로그 Prologue

왜 '전법'인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은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부처님 믿으라고 전법하는 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임무는 '전법하라'입니다. 전법 없는 불교는 죽어가는 불교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합니다. 오랫동안 그 말을 주고받았지만, 금생에 성불한 사람을 못봤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사를 성불보다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하면 어떨까요.

지장보살께서는 지옥중생을 다 제도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다음 생으로 미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불합시다' '성불하세요'를 다음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갑시다."



지난 3월 23일 조계사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법회 참석대중이 '상월결사 108원력문'에 맞춰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자료사진

지난 3월 23일 조계사에서 봉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회주 자승 스님이 밝힌 회향사 중 일부다. 이날 단상에 선 자승 스님은 대중에게 '전법'을 강조했다. 43일, 1167km 인도 순례의 목적이 바로 전법 원력을 세우는데 있음을 대외에 천명한 것이다.

자승 스님은 43일간의 인도 순례 기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전법의 중요성을 설법했다. 2월 11일, 초전법륜지 사르나트 녹야원에서 봉행된 인도순례 입재법회에서 '21세기 신(新) 전도선언'을 선포한 스님은 "한국불교를 살릴 길은 전법을 통한 포교"라고 설파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해라. 완전히 이뤄지고 두루 청정한 삶을 널리 알려라"라고 선언했다. 이는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원력을 세우자는 당부이기도 했다.

이 같이 자승 스님이 간절하게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로 살아가자"고 대중에게 설파한 것은 최근 한국불교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는 위기 징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2021년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조사에 따르면 종교인구는 꾸준히 감소세다. 2004년 당시 24%였던 불교 인구는 2014년 22%로, 2021년에는 16%로 줄었다. 개신교 역시 2004년 21%에서 17%로, 가톨릭은 7%에서 6%로 감소했다.

2000년대 이후 종교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에 있다. 2004년 당시 20대 중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 20대는 31%, 2021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22%에 불과하다. 30대의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조사 때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20 · 30대의 탈(脫)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국갤럽의 분석이다.

이런 탈종교화 현상은 종교 호감도에도 영향을 줬다. 비종교인에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불교 20%, 천주교 13%, 개신교 6% 순이었지만,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종교인은 61%에 달했다. 비종교인의 '무호감 종교' 응답률은 2004년 조사에서는 33% 정도였지만 17년이 지난 뒤에는 61%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관심이 없어서'라는 대답도 빠르게 증가 중이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2004년 37%였지만, 2014년엔 45%, 2021년엔 54%로 늘었다.

내부적으로는 불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다른 종교보다 옅다는 점도 위기의 징조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주1회 이상 경전을 읽는지를 묻는 질문에 불자 중 3%만 읽는다고 답했다. 반면, 개신교인은 42%, 가톨릭 신자는 35%가 주1회 이상 경전을 읽는다고 응답했다.

종교인의 기본인 기도는 어떨까. '하루에 1회 이상 기도를 한다'고 응답한 불자는 단 5%에 불과하다.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한 불자는 42%로, 주요 3대 종교 중 가장 높았다.

비종교 인구 역전 '탈종교' 가속화
"호감 종교 없다" 비종교인 증가해
독경 · 수행 않는 불자, 정체성 얕아
한국불교 전반적인 체질 개선 시급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서
자승 스님 "금생엔 부처님 법 전하자"
전법 통한 한국불교 중흥 원력 강조
상월결사 108원력문, 전법 지침 담겨
원력문 바탕한 '新 전법운동' 나서야

자기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옅다보니 불자에게 불교는 후순위다. '자신의 삶 속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불자는 62% 정도지만, 개신교는 90%, 가톨릭은 85%가 '종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교육화, 조직화된 정예 '핵심신도' 양성에 불교는 사실상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척도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일반 불자들은 '기도는 스님이 해주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기도를 하지 않고, 경전도 독송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도 응집력이 낮다는 것은 신도 이탈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전법을 위해서는 한국불교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최종 발표된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전법 원력 지침으로 활용할 만하다.

108원력문의 방향은 총 5가지로 △삼귀의 △사무량심 △삼법인 △사섭법 △사성제를 근간으로 △팔정도 △육바라밀 △십선업 등의 교리와 상월결사가 지향하는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자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훌륭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청년 대학생들이 활기차고 자유롭도록 돕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등 계층포교, 세대전승 지침을 담아냈다는 점은 포교 원력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충분하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원력(願力)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갖는 '내적인 결심'과 그에 따르는 '힘'을 아울러 의미하는 말이다. 그렇기에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포교에 대한 결심인 원(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포교의 힘(力)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대중화를 고민해야만 한다. 즉, 상월결사 108원력문이 대중 사이에 널리 펴져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대중화를 위한 핵심 주체를 두고 지속적으로 보급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 "상월결사 108원력문을 지속적으로 보급해 대중화할 수 있을 때 한국불교 포교의 지남(指南)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 4조 조장을 맡았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설암 스님(강릉 용연사 주지)은 미디어 등을 통한 대중화 방안을 제안했다. 설암 스님은 "상월결사 108원력문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음성 좋은 스님을 통해 오디오 ·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일선 사찰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사찰에 보급된 뒤 법회에 활용하며 자연스럽게 대중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BBS불교방송, BTN 등 교계 미디어에서 108원력문 오디오 ·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방영하는 것도 보급의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인삼매 속에 펼쳐지는 바로 지금 여기 이곳 원각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법보종찰 해인사

방장 벽산 원각 대종사

주지 혜일

사부대중 일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www.haeinsa.or.kr

☎(055)934-3000 Fax 934-3010

상월결사 108원력문

부처님, 온 세상의 마음에 계시는 부처님,
저희를 존엄한 생명으로 받아주셨으니,
오늘도 신심과 원력을 세워 생명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절을 올립니다.

1.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2.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3. 청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4. 모든 존재는 결국 소멸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겠습니다.
5. 모든 존재는 함께해야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겠습니다.
6. 무상의 이치를 알아 고통의 삶에서 벗어나겠습니다.
7. 무아의 이치를 알아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겠습니다.
8. 마음이 어두우면 삶이 고통스러워짐을 알아가겠습니다.
9.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우치겠습니다.
10. 욕심과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다스리겠습니다.
11. 깨달음의 바른 길을 찾아 항상 정진하겠습니다.
12. 삶을 향한 이기심과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습니다.
13. 나의 행복은 세상의 행복 안에 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14. 상대를 가리지 않으며 조건 없이 베풀고 돕겠습니다.
15. 계율을 철저히 지키며 항상 자비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16. 꿋꿋이 참고 견디며 고난을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17.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상에서 불교를 실천하겠습니다.
18. 인내와 근면을 실천하는 힘으로 깨달음을 이루겠습니다.
19. 진리를 향해 가행정진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하겠습니다.
20.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21. 마음의 어둠을 떨쳐내고 지혜의 광명을 간직하겠습니다.
22. 바른 관점으로 치우침 없이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23. 바른 생각으로 정당한 도리에 맞게 사유하겠습니다.
24. 바른 언어로 모두에게 진실하고 유익한 말을 하겠습니다.
25. 바른 행동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26. 바른 생활로 나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습니다.
27. 바른 노력으로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8. 바른 의식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29. 바른 수행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겠습니다.
30. 어느 곳에서나 부처님의 완전한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31. 정법의 아름다움을 온 누리에 환히 밝히겠습니다.
32. 말과 행동으로 화합하여 다투지 않고 상생하겠습니다.
33. 의지와 계율로 화합하여 함께 일하고 수행하겠습니다.
34. 생각과 이익으로 화합하여 함께 편안하게 나누겠습니다.
35. 모든 생명들이 서로를 존중하여 화합하겠습니다.
36. 살아있는 것들을 다치게 하거나 해치지 않겠습니다.
37. 잘못된 관계를 통해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38. 거짓말로 속이지 않아 진실한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39. 모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
40. 마음을 다스려 탐욕스럽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41.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42. 정직하고 진실한 언행으로 모든 생명을 살피겠습니다.
43. 교만과 분노가 아닌 존중과 용서를 실천하겠습니다.
44. 재물을 기꺼이 나눠주고 진리를 기쁘게 전하겠습니다.
45. 환한 얼굴과 부드러운 말씨로 사람들을 대하겠습니다.
46.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람들에게 이익과 기쁨을 주겠습니다.
47.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처신하겠습니다.
48.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모든 존재를 받들어 가겠습니다.
49. 사소한 행복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50. 스스로 솔선수범하며 남에게 책임을 미루지 않겠습니다.
51.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52. 누구나 갖고 싶은 것에는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53. 사부대중이 함께 참된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54. 부처님을 따라 전법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A15면에 계속〉



2월 9일부터 3월 23일까지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부처님 7대성지 1167km를 도보순례한 대장정이었다.

전법 실천지침 담은 '21세기 新전도선언'

상월결사 108원력문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신들과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둘이서 한 길로 가지 마라."

불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부처님의 전도선언 중 한 대목이다. 사실 전도선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전도의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고 동시에 불교가 세상에 존재하는 당위성을 밝힌 대목이기 때문이다. 불교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세상의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이익을 주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불교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의 생애와 발걸음을, 1167km의 인도 성지를 순례하면서 부처님의 삶과 부처님의 원력을 몸으로 마음으로 겪었다. 순례단 전원은 매일 일과를 108배로 마무리했다. 매일의 순례를 마무리하는 회향의 108배는, 처음에는 회향의 예참문이었다. 이는 순례의 막바지 절정에 이르면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새로운 원력으로 거듭났다. 바로 '상월결사 108원력문'이 그것이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순례와 동참의 원력을 모아 한 마음으로 새겨낸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한국불교 1700년 역사를 새롭게 일구려는 내일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요구하는 당위성을 한국불교와 작금의 세계에 새롭게 구체화하려는 서원에 기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행 중심의 한국불교가 이제는 전법 중심의 한국불교로 바뀌어야 한다는 새로운 방향성을 요청하는 간절함을 담고 있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여러 측면에서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오늘의 현실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새로운 지침을 우리에게 부여한다고 생각된다. 108원력문의 하나하나를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 대략을 나누어 살펴보자.

108원력문의 전반부는 삼귀의로 시작해서 삼법인, 사무량심, 사섭법, 사성제, 육바라밀, 팔정도, 십선계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하고 따르는 불교공동체의 기본적인 실천

> **불교 전법 이유는 '사람들의 행복 위해'**
> **상월결사 인도순례서 발표된 '108원력문'**
> **전법 원력 다시 되새기며 실천 지침 제시**
>
> **전반부엔 삼귀의 · 삼법인 · 사성제 등 담겨**
> **후반부, 현대 불자들 나아갈 방향 제시**
> **새로운 전도선언, 우리 '원력'으로 삼아야**

체계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부처님 이래 불교공동체가 수지(受持)하고 실천해온 불교의 근본정신을 계승한다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지는 후반부의 원력문들은 작금의 한국사회 그리고 나아가 세계사회의 현실 속에서 불교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담고 있다. 한국사회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현실은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현실로 인한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다.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이러한 현실로부터 동떨어질 수 있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빚어낸 자원의 고갈,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붕괴 등 인간 삶의 현실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위기를 한국사회는 물론 인류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8원력문은 이에 대한 처방전 역시 구체적인 지침으로 담아내고 있다. 단 그 지침은 부처님의 근본정신, 대승불교의 근본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부처님은 탄생게에서 생명 하나하나의 고귀함과 존중받아야 함을 근본정신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승불교 특히 〈화엄경〉은 그 생명 하나하나가 가지는 고귀함과 소중함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는 평등함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생명 하나하나의 비길 데 없는 고귀함과 소중함, 그 고귀함과 소중함에 있어서 모든 생명의 한결같은 평등함, 그것이 108원력문에서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현실로 인한 갈등과 대립의 위기 그리고 환경파괴로 인한 생태계의 위기에 대한 대응지침의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와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는 원력문은 그 기반의 생명존중 정신을 여실하게 드러낸다. "동물과 미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와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원력문은 다종교현실과 생태계 위기의 현실에 대한 불자들의 실천 지침이자 마음가짐에 대한 근본적인 요청을 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새롭게 새겨낸 21세기의 전도선언을 한국불교의 '원력'으로 삼는 계기를 만나게 되었다.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익혀서, 온전한 내 삶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다면, 내일의 한국불교가 내일의 한국사회를 짊어지는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당연한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석길암 /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43일간 진행된 상월결사 인도순례는 부처님의 전법원력을 되새기는 정진의 장이기도 했다.

순교 각오로 '전법포교'에 임하자

상월결사 108원력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108원력문이 새로 발표됐다. 올해 3월 14일 상월결사 인도 성지순례 기간 중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의 일이다.

108원력문은 새롭다. 부처님 탄생게가 그렇듯이 생각의 새로움과 실천의 새로움이 함께한다. 기존의 108 기도문보다 쉽고 체계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삼법인, 사성제, 사섭법, 육바라밀, 팔정도, 십선계, 전법, 화엄, 자비, 무차평등, 실천불교, 상월결사 정신 등 불교의 핵심 메시지와 현안 과제들로 짜여 있다. 참회는 그만한다, 성불도 다음 생으로 미룬다, 금생에 중요한 것은 오직 전법이어야 한다는 게 기본 바탕이다.

새로운 108원력문은 전법의 생활화로 규정할 수 있다. 일상에서 무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 예를 들자면 이렇다.

"41.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59.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88.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101. 아프고 외로운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국어다.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배려토록 한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사회를 이루며 같이 산다. 개인의 깨달음은 불교의 귀착점이 아니다. 함께 깨닫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이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에 이르신 후 다른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셨다. 깨달음을 이루신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 일주일 이상을 걸어서 다섯 수행자를 향해 진리를 설하셨다. 진리를 설하는 행위를 전법이라 하고, 진리를 주고받는 사람들을 일컬어 교단이라고 부르니 불교의 탄생은 교단 탄생과 직결된다. 두 번 말해 무엇하랴. 교단의 존재 이유는 전법 말고는 없다.

수행자가 깨달음에 몰두하다가 이웃에 소홀해지면 모두가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부처님의 제1과제는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 지금은 성불할 때가 아니라 전법할 때라는 게 상월결사의 정신이다.

> **상월결사, 우리의 안일함 인정하고**
> **'쇄신하자'는 메시지 내부에 던졌다**
> **이젠 지혜를 모아 실천방안 찾을 때**
>
> **원력문 독송 콘텐츠 제작 보급 필요**
> **108배하며 원력문 독송하면 더 좋아**
> **원력문 공동 체험 통한 신불교운동을**

한국불교가 부처님의 제1과제를 얼마나 실천했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면 아쉬움이 작지 않다. 상월결사는 우리의 안일한 관행을 인정하고 이를 쇄신하자는 메시지를 불교계 내부에 던졌다. 방향이 올바르다면 지혜를 모아 좋은 실천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필자는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08원력문은 '마음먹기(生心)'의 형식을 취한다. 내가 바라는 것, 우리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해야만 하는 것을 위주로 구성했다. 열심히 독송하면 스스로 마음을 낼 수 있는 자기 확인의 경험을 할 수 있다.

즉, 내적 자발성을 유도하는 언어 반복 훈련이 구체적 실천의 중요한 포인트다. 매일 특정 시간에 독송하는 게 관건이다. 108배를 하면서 독송하면 더 좋다. 음성 좋은 스님의 오디오 독송 콘텐츠를 제작해 이를 보급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합송 체험도 권장한다. 도반들이 모여 같은 마음 같은 속도로 함께 읽으면 혼자 읽을 때와 또 다르다. 공동체 유대감이 한층 강화된다. 다 읽고 나면 경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도 가진다. 이를테면 내가 확실하게 실천한 원력문에 대한 자기 점검이다. 경험에 대한 느낌, 생각, 새로운 깨달음 등에 대해 도반들과 솔직하게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각 사찰에서, 단위 학교와 포교당이며 다양한 불자 모임에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일종의 신불교 사회운동으로 발전시켜 볼 만하다. 자기 혼자 할 때는 내적 자발성이 지켜져야 하고, 함께할 때는 공동체 유대감 형성이 중요하다.

108원력문은 하나하나가 공덕을 쌓는 일이다. 하루에 한 가지만이라도 확실히 실천하면 선근공덕이 저절로 증장한다. 마지막 원력문은 비장하고 결연하다.

"부처님 법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온 삶을 바친다는 말은 종교적 순교의 개념이다. 우리 불교는 신라의 이차돈 이래 부처님 법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없다. 절박하지 않았다. 이제는 한가할 시간이 없다. 순교를 불사할 정도의 전법 각오를 다져야 한다.



윤재웅 / 동국대 총장

상월결사 108원력문

〈A14면에 이어〉

55. 부처님의 자유와 평화를 모두가 이루도록 돕겠습니다.
56. 국민과 사회에 바르고 온화하게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7.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8.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59.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60. 계층과 신분을 분별하지 않고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1.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2. 모든 생명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불교를 전하겠습니다.
63.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64.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65. 모든 일에 자비롭고 선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66. 모두에게 차별 없이 친절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67.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68.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지 않겠습니다.
69. 동물과 미물이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70. 다툼이 있었다면 먼저 다가가 화해를 청하겠습니다.
71. 내 편을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72.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73.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74.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하겠습니다.
75. 더욱 화합하고 성숙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76. 불자들이 힘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77. 불자들이 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8. 자녀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바르게 성장하게 하겠습니다.
79. 청소년들이 훌륭한 불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0. 청년 대학생들이 활기차고 자유롭도록 돕겠습니다.
81. 중장년층이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82. 노인들이 인생을 아름답게 회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83. 불자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84. 모든 사람에게 언행이 일치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85.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수지하고 독송하며 기억하겠습니다.
86. 굳건한 정진과 보시의 공덕을 널리 회향하겠습니다.
87. 차별하지 않는 마음이 부처임을 명심하겠습니다.
88.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89. 종교와 문화, 정체성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90. 가난을 멸시하거나 부자를 질시하지 않겠습니다.
91. 겉모습과 권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92. 잇속이 아니라 진실에 입각해 판단하겠습니다.
93. 화합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94. 모두를 공평하게 보듬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95. 세상 속 불교를 실천하여 희망과 용기를 전하겠습니다.
96. 각자의 수행이 한국불교의 자긍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97.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세상의 평화로 나아가겠습니다.
98. 사회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꺼이 헌신하겠습니다.
99. 유익한 신행문화를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겠습니다.
100. 회향의 공덕을 나누어 움직이는 불교를 이루겠습니다.
101.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을 부처님으로 여기겠습니다.
102. 불제자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현시대에 실천하겠습니다.
103. 사부대중은 국민의 삶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겠습니다.
104. 사부대중은 인간의 삶에서 생로병사를 함께하겠습니다.
105. 한결같은 신심과 원력으로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6. 사부대중의 정진을 모아 불교중흥을 이루겠습니다.
107. 불법 만난 인연, 모든 생명을 축원하며 보답하겠습니다.
108. 부처님 법 전하는데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중생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큰 원력으로 삼겠습니다.
사부대중이 함께 매일매일 정진하면서 전법과 포교에 온 삶을 바치겠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사단법인 樹山慈悲禪院



이사장 **法 相**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217번길 6
전 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 스 055)265-005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 화 055)277-7626, 010-6586-3088
팩 스 055)237-4563

세계법화수행법음협회

법화전법도진 성불도량 기청사

주 지 **묘혜공**



법화원도회
법화경 독송회

사부대중일동

부산 동래구 상륜덕화사
부산 사상구 법만묘화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삼덕로77
전화 055)383-1256, 1292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종회의장 **법륜**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교육원장 **영호**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호법부장 **문경**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종도모집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총무원장 **법응 정관**

연수원장 **용정 일월**
교육원장 **월화 법봉**
포교원장 **금화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고시원장 **보화 원도**
총무국장 **무화 무경**
사회국장 **용화 해월**
교육부장 **법타**
부산교구종무원장 **보화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사) 대승불교조계종
The Mahayana Buddhist Jogye Order

이사장 **현 담**

이 사 **인각 법광 만법 도각 법공**
감 사 **대성 혜원**

각 교구장 및 대의원 일동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신상명세서, 증명사진 2매 등**

법인사무국 : 경남 사천시 백천길 234-34 백룡사
전화 055)832-8367 / 팩스 055)832-8368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대한국불교조계종 총연합회

자문위원 **(은덕사)종천 (성덕암)법신 (해원암)지우 (본각사)법우**

총무원장 **호산 성보**

호법원장 **(구천사)상원**
감찰원장 **(화엄사)무심**
교육원장 **(성불사)무덕**
문화원장 **(문수암)승태**
포교원장 **(양명사)석법성**
호계원장 **(약사암)보임**
재무원장 **(묘음정사)덕운**

마산종무원장 **(삼선암)정안**
밀양종무원장 **(약사암)연화**
울산종무원장 **(감로암)동련**
경남종무원장 **(수선암)성산**
비구니원장 **(관불사)관조**
진주종무원장 **상원**
총무원중앙신도회장 **진영혜(보리심)**

경기종무원장 **(반야사)지연**
전북종무원장 **(광명사)대명**
대구종무원장 **(무상사)일불**
비구니부원장 **(향적암)지범**
김천종무원장 **(약수암)자운**

무연고자 장례 및 선천성어린이 심장병돕기 종단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 사부대중 일동

대한국불교조계종(총연합회)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입종시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발행

창원시 마산회원구 광려천북로 208 총본산 불광사
전화 055)232-7819, 010-8540-8209

청년포교 제언
대학생불자들에게 듣다

친숙 · 편안하게…청년포교 시작점

전법ON 부처님법 전합시다

사단법인 상월결사가 대학생 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동국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현재 한국불교계는 청년포교가 화두다. 동국대는 매월 11일을 '합장데이'로 지정하고, 불교의 생활화를 위해 교내 공양 장소에 '공양기도문'도 게시했다. 장학금 지원과 다양한 공모전도 준비 중인 상황. 청년층 포교가 가장 취약한 종교인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까. 포교의 주체이자 대상이기도 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에는 유정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제61년차 중앙회장, 송산하 서울대 불교동아리 회장이 참여했다. 〈편집자주〉



서울대 불교동아리
송산하 회장

"공격적 포교, 청년들에겐 부담
종교색 덜어내야 접근성 높아져
합리적 설명으로 점차 다가가야"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하면 정적인 포교를 지향했던 불교다. 불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부터는 "대문을 두드리며 선교하던 기독교처럼이라도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성도 나온다. 어떻게 보는지.

유 주위 친구들이 불교를 긍정적으로 느끼는 건 절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고 환경이 주는 친숙함 때문이다. 만약 기독교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불교도 청년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할 것 같다. 불교동아리 역시 가입 제한이 없고 누구나 오고 싶을 때 오고, 차를 마셔도 되고, 스님과 상담을 원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서부터 불자로 살았지만 일반적인 사찰법회보다 동아리법회를 좋아하게 된 건 지도법사 스님 말씀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고, 그것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포교보단 '불교는 어렵다'는 이미지 탈피가 우선이라고 본다.

송 기독교의 열성적인 선교 방식 때문에 신도 숫자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중 · 고등학교를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종교보다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우선이라는 걸 알게 됐다. 종교가 낯선 사람에게 처음부터 종교를 들이밀 순 없다. 친숙함과 편안함 그 다음이 종교여야 한다. 올해 동아리에 30명이 새로 들어왔는데 가입 이유가 제각각이다. 하지만 대부분 힘들 때 편안한 곳을 찾거나 혼자 있고 싶을 때 불교를 찾는다. 20대에 불교 가르침을 체감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공격적인 포교가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지.

유 불자를 포교하는 게 아니라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포교하는 것이기에 종교색은 빼는 게 좋다. 흔히 어른스님 모셔서 토크쇼를 하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보다는 젊은 불자연예인을 초청하면 반응이 훨씬 좋을 거다. 젊은 친구들에게 종교색은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다.

송 불교는 복식에서부터 이웃종교보다 종교색이 강할 수밖에 없다. 스님들의 삭발염의가 신비감을 주지만 이는 반대로 거리감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색을 뺀다는 건 형식적이고 어려운 걸 덜어내는 의미로 보면 될 것 같다. 한자로 알려주면 어려운데 영어로 말하면 이해가 더 직관적으로 되는 것처럼.

▲기성세대가 청년포교를 되살리자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까.

유 불교동아리 활동을 할 때 매년 구입해야 하는 불서 리스트가 있다. 사놓긴 하는데 펼쳐보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눈높이에 맞는 책도 많지 않다. 이런 지원이라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송 공감한다. 똑같은 불서를 30권씩 보내주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권만 있어도 돌려볼까 말까다. 법요집이라면 모르겠지만. 부처님과 경제학, 불교와 양자역학 이런 실생활과 연결된 책이 아니고서는 볼 일이 거의 없다.

유 사실 절에 가서 청년이 할 게 없다. 꾸준히 다니려면 청년들이 즐길 게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절 자체가 드물다. 단순히 재정적인 지원만으로 청년포교가 쉽게 될 거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송 성인이 된 이후 불자가 된 입장에서 볼 때 법당 이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법당이 종교적인 공간이라면 그 외에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문화공간 같은 곳. 홍대선원이 그런 면에서 큰 장점이 있다. 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클래스를 마련한다든지 청년세대만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세대를 위해 불교가 바뀌어야 할 점 혹은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유 불교학을 전공한다고 하면 대단한 불자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정작 성적을 맞춰 입학한 무교인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물론 공부를 하면서 불교를 좋아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 복수전공을 하고 다른 쪽으로 취업을 한다. 불교계에서 번듯한 직업을 갖기가 어렵다보니 전공자마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전공자를 잘 가르쳐서 붙잡아둘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송 청년을 흔히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둬야 한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 이걸 왜 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공덕을 쌓는 일이니 열심히 하라'는 논리적이지 못한 말은 청년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유 법문이든 법회든 청년과 함께 하려면 30분 안에 끝내고 노는 게 제일 아닐까. 또 전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법당 부처님은 누구인지, 한자는 한글로. 관광사찰 정도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을 일반적인 사찰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송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불교공동체가 단순히 고귀해보이거나 멀게 느껴져선 안 될 것 같다. 불교는 불교만의 분위기 속에서 포교에 나서고, 지금까지 굳어진 '어려운 종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난다면 청년세대의 접근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유정현 제61년차 중앙회장

"불교 어렵다는 인식 탈피 먼저
사찰서 청년 소속감 찾기 힘들어
즐길거리 만들어야 사찰 찾아가"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대한불교법화종·대한불교법화종

종정 청암도선 대종사

원로원
의장 보명
(의원 일동)

총무원
원장 관효
(부 · 국장 일동)

중앙종의회
의장 서안
(의원 일동)

포교원
원장 일우
(부 · 국장 일동)

전국교구종무원장

부산교구종무원장 법경
경주교구종무원장 혜문
김창교구종무원장 송열
경북교구종무원장 해월
강원교구종무원장 서리 승일
창녕교구종무원장 법상
마산교구종무원장 현진
충북교구종무원장 지성
전라교구종무원장 정각

전국 사암 주지 및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 17(성남동) 전화 02)762-2678 팩스 042)627-5044

일상 속 스며드는 불교… '불교 3대' 비결



2022년 10월 16일 범어사 일주문 일원에서 진행한 선재동자문화전승단 수계법회 및 가족 수계법회 모습.



서울 조계사가 5월 13일 개최한 '화목한 3대 가족–하하하 노래자랑 대회'에서 이소정 가족 팀 '호호호 패밀리'의 공연 모습.

'불교 3대' 이룬 가족 사례보니
1대의 모범적 신행상 바탕으로
스며들 듯 자연스레 신앙 계승

개종률 감소… 세대전승 중요해
가족 신행공동체 발전 위해서는
구성원 중 정예 불자 배출 필요

불교 세대전승 제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정성으로 포교하겠습니다."

'상월결사 108원력문' 중 59번째 원력 내용이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그간 등한시 돼 온 '불교 세대전승'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서다. 사실 한국불교에서 '불교 3대'를 이루고 사는 불자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타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미덕임을 아는 불자들의 특성은 가족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불교 세대전승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 사회는 개종이 어려워지는 '가족 중심 신앙 형태'로 나아가고 있어서다.

1984년부터 10년 단위로 한국사회의 종교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제5차 비교보조사 보고서(2015)에 따르면 한국사회 개종률은 점점 축소되는 추세다. 1984년에는 개종을 경험한 사람은 17%, 1994년에는 16%에 달했지만, 2014년에는 10%로 줄어들었다.

통계자료를 보면 세대간 종교 전승 비율에 있어서 불교는 나쁜 편이 아니었다. 자신의 종교와 부모의 종교가 일치하는 비율에서 부친 67%, 모친 82%(2014년 통계 기준)으로 개신교, 가톨릭보다 높게 집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개신교로 이동한 비율도 적지 않았다. 한국갤럽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개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 중 13%가량이 부모가 불교였고, 가톨릭 신자 중 11%의 부모가 불교였다. 반대로 부모가 개신교와 가톨릭을 신앙했지만, 자녀가 불교로 개종한 비율은 각각 1%에 불과했다.

세대 전승에 있어서 불교가 불리한 점은 10~30대의 미래 세대가 50~60대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세대를 이어 불교를 신앙할 미래자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령별로 보면 불교는 10~20대가 전체 불교인구의 10%, 30대는 11%에 불과하다. 반면 50~60대 인구는 각각 3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은 보고서에서 "부모가 특정종교를 믿는 경우 자녀도 해당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동일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는 불교인의 가족 구성원 종교 일치율이 높지만, 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인구 확장성은 다른 종교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명호 중앙승가대 강사는 '2030년 한국사회의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 주제의 논문에서 "총인구 감소로 인해 절대적 규모의 종교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포교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교 효과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이라면서 "이 경우 가족 내 세대계승이 포교의 기본이 되고, 종교 존립의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세대전승을 통해 '불교 3대'의 신행공동체를 이룬 가족들의 비결은 무엇일까.

외할머니부터 친정어머니, 자녀까지 '4대 불교'를 이룬 현정연 씨는 어머니와 함께 포교사로 활동하며 크고 작은 불교행사에서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현 씨는 "외할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신행활동에서 영향을 받아 불교가 진리임을 체험했다"고 한다. 특히 어머니는 평소 자녀에게 큰소리 한 번 치신 적 없었고, 항상 사찰에서 기도하면 모범적인 신행생활을 하셨다는 게 현 씨의 설명이다.

현재 현 씨는 "어머니와 함께 홍법사 불교대학을 수료하고 〈법화경〉 경전을 매일 1품씩 읽으며 기도를 함께 하고 있다. 어머니가 도반으로 여겨질 정도로 함께 수행하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홍법사 어린이 법회 및 합창단 활동 등을 통해 불교와 친숙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명상 등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불교를 접하도록 하고 있다.

친정어머니부터 자녀까지 3대가 한집에 살며 불교를 신앙하는 이소정 씨는 "어머니와 조계사에 와서 신행활동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러운 생활이었다"고 술회했다.

이 씨는 어릴 적 신실한 신심을 보여줬던 어머니를 따라 조계사 어린이법회를 다녔고, 대한불교 소년소녀합창단원으로도 활동하면서 불자로 거듭났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과 딸도 조계사 어린이 법회와 저학년 법회를 다니며 조계사 소년소녀합창단에서 활동 중이다.

'불교 3대' 비결에 대해 이 씨는 "마치 스며들듯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들에게 사찰이 편안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신앙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면서 "아이들이 주말에 법회에 참석해 기도하고 합창단에 가서 찬불가를 합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가 최근 암 투병을 하셨는데 가족들이 같은 신앙을 가지다보니 구성원 모두가 쾌유를 기원하는 기도를 자주 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데 불교는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부산 대광명사 슬기어린이합창단 자모회 회장인 이경민 씨는 친정어머니부터 자신의 자녀까지 '불교 3대'를 이뤘다.

이 씨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불교와 가까워질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부산 해광사에서 기도수행을 했며, 자신도 5세쯤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을 찾곤 했다. 이 씨는 "어머니와 절에 갈 때면 엄마와 함께하는 나들이처럼 느껴졌고 절을 찾을 때마다 편안했던 기억이 남아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의 자녀들은 모두 사찰 어린이 합창단에서 활동했으며 아이들이 찬불가를 배워오면 집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불렀다.

이 씨는 "어린이들이 하는 활동을 보며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천진불의 의미를 알게 됐다"며 "어머니가 절에 자주 데리고 다니셨던 기억이 있어 힘들 때면 사찰을 찾아 위로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 3대'를 이룬 세 가족 모두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녀들이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불교에 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또한 1대가 솔선수범하며 불자로서 바른 삶과 신행을 보여줬다는 것도 가족이 '불교 신행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던 비결이었다.

실제 전문가들도 '스며들 듯 자연스럽게' 불교를 신행하도록 만드는 것은 세대전승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최소한의 간단한 불교 의식을 할 수 있는 불자가 가족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집에서 제사를 불교식으로 지내려면 최소한 목탁을 치며 〈반야심경〉 〈천수경〉을 독송하고 정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식사할 때 함께 공양기도문을 외우는 것도 좋은 일"이라며 "불교의식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연스럽게 불교를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은 "스스로 모범적인 불자가 돼 올바른 불자의 삶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회장은 "내가 불교를 신행해 행복하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아야 가족 구성원들도 불교를 신행하게 된다"면서 "같이 불서를 읽고, 템플스테이를 다니며 불교 신행생활이 행복하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사찰 내 3대가 신행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곳을 찾기 어렵다. 가족 신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불자들을 대상으로 계층별 상황별 전법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교육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정각 대종사 대한불교선교종(전)종정
삼중 대종사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선화종 종정
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이사장 겸 회장 : 화산 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법인수석이사 부회장 : 정산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법인기획이사 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법인재무이사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법인상임이사 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법인호법이사 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종정
법인전법이사 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종정
법인섭외이사 부회장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종정
법인행정이사 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법인종규이사 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법인유나이사 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법인국외이사 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법인차석이사 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종정

법인법규이사 부회장 : 정림 대종사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종정
법인외호이사 부회장 : 법혜 대종사 금강조계종 종정
법인호계이사 부회장 : 법홍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종정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일웅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종정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정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종정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종정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이사 : 옥당 명사 국제상좌부조계종 종정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종정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종정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종정
회장사서실장 : 삼하무착
사무총장 : 서병열
기획실장 : 전성배
사무국장 : 배영희

※ 입회비 및 년회비 결제한 회원만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전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45, 216호(비래동) 전화 : (042) 285 - 1227
● 사무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1 혜명빌딩 6층 전관 전화 : (02) 756 - 1227 팩스 : (02) 774-1487 ● 부.경사무처 : 불광사, 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 364-4747

'핵심신도' 양성 제언

교육 · 커뮤니티 활성화로 신도 정예화


불교대학을 수강하고 있는 불자들. 핵심신도로 나아가는 기본은 '교육'이다.

불교를 포교하는 목적은 부처님 법을 통해 중생을 교화하고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종교로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적정 수의 신도 수를 유지 ·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한 포교 목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기존 신도들의 '충성도'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문제다.

하지만, 한국불교의 고질적 문제점 중 하나가 재가불자들의 소속감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한국리서치가 2022년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종교활동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불자의 33%만이 "내 삶 속에서 종교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신교는 66%, 가톨릭은 55%에 달했다.

또한 '종교가 삶에 영향을 준다'을 묻는 질문에는 불자의 42%만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반면 개신교인들은 72%, 천주교인은 62%가 자신의 삶에 종교가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불교를 신앙하면서도 삶에서의 영향력과 중요도가 타종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불자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신도 조직의 응집력 약화와 신도 이탈로 이어질 수 있어 '집토끼 지키기'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교육화되고 조직화된 '핵심신도'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종단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야 하고, 이는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교육의 목적은 특정한 인간상으로 '변화'시키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소속'해 그 조직에서 부여하는 사명을 '실천'하도록 만드는 데 있기 때문이다.

재가불자들 종단 소속감 미비
불교대학 졸업 후 재교육 전무
수행 결합 장기 프로그램 필요
사찰 소모임 등 활동 영역 구축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핵심신도 양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 연수 등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불교단체인 SGI의 경우 매주 공부 자료를 제작 · 배포해 신도들 스스로 공부하고 모임 안에서 토론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기 교육은 보상감과 단체 소속감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화된 신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펼쳐주는 것도 중요하다. 핵심신도들에게 지위를 부여해 활동하도록 만드는 종단적인 종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찰 신도들도 관심 영역이 다양하다. 관심사나 취미 등을 주제로 사찰 내 커뮤니티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신도조직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장기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언했다. 조 교수는 "1990년대 사찰 불교대학이 신도교육과 조직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조금은 퇴조의 길을 가고 있다"며 "불교대학 1~2년 과정을 마치면 끝난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 장기적인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교학 교수를 양성할 것도 아닌데, 너무 어렵기만 한 교육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제는 기본교육 후 신행과 결합된 10~20년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교육 내용도 부처님 생애를 중심으로 기본 교리를 철저하게 이해시키는 쪽으로 가야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직한 신앙상을 가진 불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그래야 '핵심신도'를 양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명망 있는 수행지도자 배출 먼저"

'수행 활성화' 제언

부처님 법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과제, 수행이다.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재미있는 문화 체험을 한다고 해도 개인의 정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지난 1월 제37대 집행부 신년기자회견서 핵심 종책 가운데 하나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강화'를 꼽았다. 이를 위한 마중물이 바로 명상센터 건립. 현재는 서울 용산에 부지를 확보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단계다. 최근에는 조계종 명상 프로그램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2026년까지 종단이 인증한 명상 과정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수행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10년 전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에 참불선원을 개원하고 재가불자들의 수행을 지도하고 있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수행력 갖춘 지도자 배출'을 1순위 과제로 제시했다.

스님은 "유발 하라리 한 사람의 영향으로 그의 스승이 세운 인도 고엔카센터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빌게이츠도 명상을 시작했다"며 "공신력을 갖춘 명망가가 대중에게 수행의 가치를 알린 하나의 사례"라고 평가했다.

각산 스님은 이런 수행지도자 배출과 더불어 참선을 주제로 한 템플스테이 운영이 수행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사찰에서도 연령 등 계층별로 참가자를 구분해 수행을 지도하고, 점검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스님은 "일반인들이 집에서 매일 적어도 10~30분 스스로 선명상을 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공(空)과 중도, 사성제, 팔정도, 삼법인, 연기 등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발 하라리 한 명의 영향으로
印 고엔카센터에 사람들 몰려
수행공동체 자체로 포교 도움
'산속 禪' 아닌 '삶 중의 명상'

참선과 불교명상이 일반인에게 '마음챙김'으로 더 익숙하지만 수행법의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학자들 역시 불교계가 나아갈 방향으로 '명상의 확대'를 꼽는다.

한국문화융합학회가 펴내는 〈문화와융합〉 제43권 4호(2021)에 실린 논문 '코로나 시대의 포교와 불교 명상의 활성화 방안'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결론을 내놓는다. 논문을 쓴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사회문화연구원 김미영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는 "붓다가 가르친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로, 수행문화와 이를 전파할 수 있는 콘텐츠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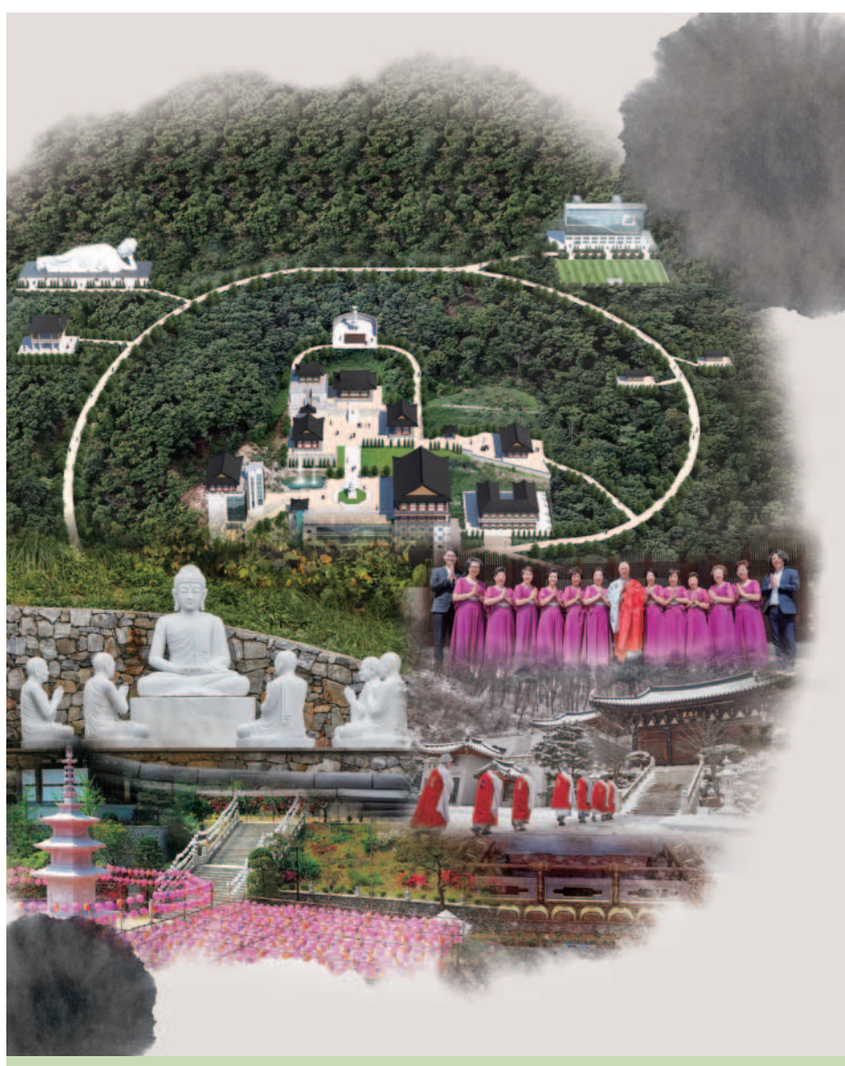
그는 세계적인 명상센터 플럼 빌리지와 샌프란시스코 선센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명상할 때 높은 쿠션을 쓰거나 탑돌이를 변형해 걷기명상을 개발하는 등 불교인만의 종교가 아닌 '마음 다스리기'로의 광범위한 불교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종교인이나 무교인 모두 살아가면서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각각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연구교수는 "수행공동체에서 스님과 일반인이 함께 먹고, 걷고, 일하고, 휴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정신은 그 자체로 포교가 될 것"이라며 "산 중의 선(禪)이 아닌 삶 중의 명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스님과 참선하는 불자들. 불자들의 수행 활성화는 제대로 된 자도자의 안내가 뒷받침돼야 한다.



한국불교태고종
청 련 사

조 실 해 경
원 로 도 암, 지 홍
회 주 상 진
주지 직무대행(재무) 심 곡
총무(원주) 벽 산
교 무 거 진
서 무 효 능
교 무 보 효 진
대 중 일 허, 일 겸
일 벽, 일 월

종무소 직원
총무과장 정태우(일소)
업무과장 이진미(소봉)
업무계장 최진호(무착)
경리주임 성진희(소담)

청련사 불교문화연구소
소 장 곽승훈(동광)
실 장 인용민(법정)
홍보팀장 유재걸

현장관리직원
소 장 허대형

재단법인
천년고찰 청련사

이사장 상진
이 사 해경, 심곡
벽산, 거진
효능
최종남, 이종수
감 사 최인귀
법무실장 홍창수

청련사 두도엔지니어링
(종합건설회사)
건설본부장 김호영
상무이사 김유영

청련사 극락원
(추모관)
상 무 장진우
과 장 송 원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169 전화 : 031)836-2439, 1080 팩스 : 031)836-1081 홈페이지 : http://www.bluelotus-temple.co.kr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 한국불교선조계종

종 정 호림당 **혜원**
원로의장 **정광**

명예종정 **법경**
부 종 정 **법정**

총무원장	**법성**	종회의장	**혜관**
교육원장	**도원일**	감사원장	**보덕재**
호법원장	**홍법성**	문화원장	**이상명**
포교원장	**진언**	비구니부원장	**무광일**
비구니원장		비구니부원장	
문화부장	**해원**	총무부장	**법산**
사서실장	**벽**		

교(敎)는 배워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요.
선(禪)은 닦아서 육관을 통해 보는 것이니 제대로 된 참선을 배워야만 합니다.
선을 통해 같이 동행할 스님을 모집합니다.

종 도 일 동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작원길9 성불사 전화 053)322-0567, 010-6537-0567

(사)대한불교 금강종

종 정 **무학당 송 천**
총무원장 **법산당 영 봉**

종정예하 예경실장 **정 해** 총무원장 사서실장 **정 휴**

원로원장	**월서**		
교육원장	**혜일**	호법원장	**관호**
고시원장	**혜신**	보건원장	**정일**
수선원장	**해륜**	복지원장	**법영**
비구니원장	**법신**	비구니원상임고문	**지연**
비구니원수석고문	**해안**	비구니부원장	**능현**
중앙종회의장	**법화**		
중앙종회부의장	**현우 법일**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각 지역 교구원장]

서울특별시 교구원장	**정심(서원암)**
부산광역시 교구원장	**해안(법정사)**
대전광역시 교구원장	**정휴(일성사)**
대구광역시 교구원장	**정일(광원사)**
울산광역시 교구원장	**능현(옥련암)**
창원시 교구원장	**하연(만월정사)**
경기북부 교구원장	**현수(여래사)**
충청남도 교구원장	**혜진(천본사)**
충청북도 교구원장	**자오(덕성암)**
경상남도 교구원장	**관호(관호사)**
경상북도 교구원장	**정암(정암사)**
전라북도 교구원장	**월서(삼불사)**
전라남도 교구원장	**혜신(남해사)**

(사) 대한불교 금강종 입종 안내문

◇ 구비서류:법복(가사+장삼) 착용한 사진 3매(여권사진),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수행이력서 1통, 소정의 입종비
◇ 교부서류:사찰 운영자는 주지 임명장,사찰 등록증,승려증, 사단법인 등록 허가증,신도 년말정산 기부증서

총무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와룡로 99-74(일성사) 전화 (042)935-2279 fax (042)935-2279
HP 010-3550-5153(총무원장 직통), 010-7547-2149(총무원 사무국장)

제2014-38호 사단법인 **대한선불교**

대한불교 원효종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비영리 법인 및 국가기관 등: 본점〉

종 정 **혜륜 법진**

종회의장 청산 태일
호법원장 영민 현응
총무원장 요산 청암

종회의원 및 종도일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용당내광로 297-3 전화 052)238-8010

(주)보광석재

(주)보광석재는 1983년 창립한 이래로 우리 불교의 우수한
전통 석조 문화를 계승·발전하고자 기획에서부터 설계, 제작, 설치까지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매순간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찰 및 문화재 전문의 석조회사입니다.

대표이사 **김한열** 합장



본사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석재단지길 38 전시장 : 경북 고령군 운수면 운용로 523
전화 : 054-955-8888~9 팩스 : 054-955-8890 E-mail : bkstone601@naver.com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재단이사회

명예이사장	경원
이사장	일명
부이사장	경담
상임이사	혜광
이사	혜천

법도화, 자비행

종정 / 총무원

종정대행 혜일
총무원장 혜일

원로회의

원로의장	대륜
원로의원	혜천 덕봉
	혜성 현암
	법선 법성

중앙종회

종회의장	도정
종회부의장	
종회사무처장	혜광
종회의원	재단이사회

고봉 석경 무착
정암 서현 보은
동철 성운 혜성
덕산 일현 백운심
여래자

종무위원

호계원장	동청	총무부원장	도허
교육원장	지언	기획추진위원장	지광
포교원장	마덕	호계부원장	지명
문화원장	제법	문화부원장	해동
고시위원장	원공	총무부장	지원
감사원장	법광	교무부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교구	보해
경기남부교구	지안
경기북부교구	지흘
경남교구	덕운
대구교구	무상심
대전교구	현담
전북·전남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울산교구	현산
충북교구	지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 1층 / Tel : 02-991-8175, 8904 / Fax : 02-991-8176 / www.ilbung.org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 종무소 (051)508-3122

대한불교조계종 천육백년 전통사찰 나한기도 영험도량

부산 최초의사찰

금련산 마하사

거사회 관음회
지장회 나한회
천수회 목우회
합창단 청림회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봉수로 138 (연산동 2039) 전화 051)852-2436, 051)866-0606 전송 051)867-1700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천년고찰

대한불교 조계종 불광산 장안사

주 지 무 관
신도회장 여 원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전화 051)727-2393

불교의 우주관과 사상을 세계 유명건축가의 초현대적 감성으로 녹여낸

불교문화 창작예술 공간

더뷰;ㅁ 비젼센터가 탄생됩니다



108만원 원불 동참계좌 : 부산 101-2083-6727-07
문의 : 010-5514-1002(오오! 일사천리)
거제 장목 더뷰;ㅁ 비젼센터 평천 범혜 합장

한국불교태고종

동래 읍성 마안산 자 비 암

부산유형문화재 151 육경합부
부산유형문화재 152 선림보훈

주 지 청 암 자 관
총 무 정 웅



신 도 일 동

부산 동래구 복천로 5번 가길 46 전화 051)552-3320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희망찬 기장군을 기원하며

부산기장군불교연합회

회 장 정오 스님 외 회원스님일동
신도회장 성환필 외 임원일동 합장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28번길 77 고불사
Tel 051)721-2927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주경야선 관음수행도량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주 지 영 제
교무 덕 중 재무 무 성
신도회장 이경훈

사부대중 일동 합장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봉축점등대법회
5월 7일 오후 7시
봉축전야점등식
5월 26일 오후 7시
봉축법요식
5월 27일 오전 11시

정기법회
매월 1일 · 2일
오전 10시 30분
금강경전법회
매월 세 번째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철야기도
매월 일주일간 봉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43번길 77
www.samkwangsa.or.kr 전화 051-808-7111~6

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재 단 법 인
부산동명불원

東明佛院

원 장 인월 원순
이 사 장 김경조
상임이사 박희채

이 사 김성규 이인수 안수근 강석진 이재동 조성두 정종원 이희태 홍철우 이욱태 김기환
감 사 황주환 권성열
신도회장 성재곤
부 회 장 이원옥 이상수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남구 동명로 57(용당동) www.btbf.kr
전화 051)626-4337, 624-7667 팩스 051)626-4330

홍법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위한 도약의 첫 걸음은
대한불교조계종 홍법사와 함께

심산 深山 주지
양재생 신도회장
이영숙 수석부회장
사부대중 일동
신도회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33번길 202
전화 : 051-508-0345
팩스 : 051-508-6561
E-mail : 5080345@hanmail.net
www.busanbuddhism.net

대한불교조계종 弘法寺

國際佛光會 韓國釜山協會 (사)한나래문화재단 (사)한나래교육재단 한나래평생교육원
한나래지역아동센터 HANNARAE COMMUNITY CHILD CENTER
금정구자원봉사센터 Geumjeong Volunteer Center
국민행복실천 운동본부 행복드림센터

밀양 사 천 왕 사

주 지 대 풍 범 각

신도회장 최금식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산내면 산내용전4길 29-67
전화 055) 352-3104 핸드폰 010-5009-6449

부산포교원 해운대 대각정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1 선프라자 419호 / 전화 (051) 731-2300

자비 실천하는 여성불자회
내가 참여하는 가운데 발전하는 여성불자회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 총

회 장	정분남	부회장	한순점	재 무	여소현
고 문	왕선자		정정자		여미란
	류영남		황곡자	회 계	이원희
자문위원	정찬스님		김정연	총 무	김미옥
	홍도스님		이해숙		성희강
	백명숙		이동희	봉 사	이명희
	이성희		하승우		
감 사	장홍자		최성숙		
	박영선		김희경		
			곽해숙		

부산여성불자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4층 402호)

佛都 부산, 5만 봉축 연등으로 물들다

불기 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회 개최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 및 송상현광장 일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순국선열 극락왕생 기원
2030엑스포 유치 발원도
부산불교대상 최금식 씨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연등이 부산 도심을 장엄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에서 '불기 2567년 부산연등축제 부산연등회(이하 부산연등회)'를 봉행했다.

이날 부산연등회는 진각종 부산교구청장 현강 정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불교TV염불공양회는 부산불교연합회와 금정총림 범어사가 마련한 느티떡을 비롯한 여섯 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육법공양을 진행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느티떡과 콩찐이를 나눠먹고 좋은 인연을 기원하던 옛 풍습을 선보였다. 이어 부산불교어산회가 호국영령위령재를 봉행하며 부산불교의 호국정신의 가치를 기렸다. 호국영령위령재에 참석한 대중들은 순국선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어 부산연합회 회장단 스님들과 신행단체 및 주요 내빈들이 청정한 세계를 발원하는 관불의식을 진행했으며,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장 마나 스님이 발원문을 통해 2030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부산 발전을 한마음으로 염원했다. 이어 대회사와 봉축사, 내빈들의 축사 후 제5회 부산불교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공동주최하고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주관한 부산불교대상은 최금식 ㈜선보공업 회장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은 서보석 반도산전 대표, 신기열 목원개발 대표, 삼광사 차문화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이명숙 진각종 유가합창단 단장, 최은숙 해동중학교 교사, 고담나누미 봉사회가 수상했다.


부산불교연합회가 5월 20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법요식 및 제등행렬을 진행했다.

시상식 후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 봉사반의 축가 음성공양에 이어 연등행렬이 진행됐다. 연등행렬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송상현 광장까지 펼쳐졌으며 부산 주요사찰과 불교계 신행단체에 소속된 불자들은 직접 제작한 장엄등과 행렬등을 들고 밤거리를 밝혔다. 취타대와 내빈들의 발걸음을 따라 사천왕등, 불을 뿜는 용등, 코끼리등, 부처님등 등 다채로운 장엄등이 뒤를 따랐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 대학생들의 참여도가 높았다. 천진불을 대표하는 동자승들과 직접 제작한 연등을 들고 그 뒤를 따르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금정중과 해동중학교, 해동고등학교에서 참여한 학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부산대불련 학생들도 참여해 모든 연령대가 동참하는 연등행렬로 눈길을 끌었다.

각 사찰에서 참여한 불자들은 손에 행렬등을 들고 어두운 거리를 밝혔으며, 연등을 손에 끼고서 가벼운 율동도 선보였다. 학생들의 석가모니불 정근 소리가 거리를 채웠고, 시민들에게 "성불하세요"라며 인사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회장 보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찬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비록 축제의 시간은 아주 짧은 순간으로 지나가겠지만, 우리의 밝은 마음과 깊은 인연은 우주의 영원한 시간 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축원했다.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봄바람이 생명의 기운을 피우는 좋은 날, 삼라만상 모든 존재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각자의 마음에 무명을 걷어내고 청정한 지혜의 등불을 밝혀 봉축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은 "부산연등축제는 연등을 밝히는 것의 참의미를 되살려 어려운 이웃과 사회의 고통을 나누고,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은 "부처님오신날은 부처님의 탄신을 경축하고 그 가르침을 새겨 모든 인류에 전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연등축제를 봉행해 거짓과 위선이 판치는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 정화되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함께 나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연등회에는 부산불교연합회 증명 혜총 대종사,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보운 스님,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현강정사, 마나 스님, 부산조계종연합회 회장 원허 스님, 고문 덕륜 스님, 범산 스님, 부회장 성문 스님, 법일정사,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을 비롯해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범어사, 동산대종사 향훈 기려

승가대학 · 일반학교 장학금 9000만원 전달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5월 12일 보제루에서 '동산대종사 열반 58주년 추모재 및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사진〉

추모재는 △명종5타 △개식 △헌향 및 헌다 △죽비삼배 △입정 △동산대종사 생전 녹음법문 △행장소개 △헌화 △동산장학금 전달 △인사말씀 △부도전 헌향 및 헌다 순으로 진행됐으며,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동산 대종사 1세대 상좌와 동산문도회 스님 및 범어사 신행단체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동산 스님은 1954년 11월 조계종 초대 종정으로 추대됐고, 1958년 종정으로 재추대됐다. 동산 스님은 불교중흥과 청정승단 구현에 헌신했으며, 1965년 3월 23일(음력) 세연을 다하고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납 52세였다.

동산장학금은 총 9000만원이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1500만원), 범어사 승가대학(500만원), 청암사 승가대학(1000만원),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1000만원), 동국대 경주캠퍼스(1000만원), 동명대학교(1000만원), 해동중학교(1000만원), 금정중학교(1000만원), 이화여대 불교학생회(1000만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은 "우리 모임의 목적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다.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고통 받는 모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라며 "제행무상이라는 진리대로 시시각각 변화는 모든 상황 속에 한 생각을 잘 지키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성보博, '올해의 박물관상 · 미술관상'

학술도록 〈불국토를 조각하다, 범어사 대웅전〉

11월까지 어린이 프로그램 운영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이 5월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된 '제26회 전국박물관인대회'에서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수여하는 제3회 '올해의 박물관 · 미술관상(출판물 부문)'을 수상했다.〈사진〉



올해의 박물관 · 미술관상은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의 활성화와 발전에 공헌하고 우수한 활동을 펼친 박물관과 미술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 부문은 기획전시, 교육프로그램, 출판물 부문이다.

〈불국토를 조각하다, 범어사 대웅전〉은 '범어사 대웅전'을 주제로 진행한 첫 학술도록으로 대웅전의 가치를 재조명한 도록의 구성, 후속 연구 및 콘텐츠 활용 가능성에서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불교 목조각 장인과 건축, 공예, 조각 등 각 분야별 연구자의 원고를 함께 수록해 대웅전을 이해하는 데 다층적인 관점을 제시했다.

또 학술연구를 통해 범어사 대웅전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했고, 문화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연차적으로 사찰문화재와 지역사 등 각 분야별 학술연구에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린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문화 탐방을 떠나요!'를 새롭게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6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박물관 전시 관람과 시청각교육, 체험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5월부터 11월까지(7월 방학) 매달 다른 주제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범어사 성보박물관 홈페이지(www.beomeomuseum.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위드아시아, 탈북청소년 장학금 전달

국제구호 NGO (사)위드아시아(이사장 지원)가 5월 20일 부산 문수사 대웅보전에서 탈북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장학금을 전달했다.

위드아시아는 대전 및 포항 등에서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국내 탈북자 학생 4명에게 각각 50만원, 총 200만원을 전달했다. 학생 및 가족들은 장학금 전달식 후 부산 관광 명소를 방문하고 문화 체험 및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사)위드아시아는 이번 장학금 전달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불교계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고, 탈북자들에게 불교와 사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했다. 장학금 전달은 초하루 법회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사장 지원 스님은 "신도들에게 탈북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원 스님은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우리나라에는 3만5천 명이 넘는다"며 "목숨을 걸고 힘겹게 이 땅을 찾은 그들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오늘 장학금 전달은 그들을 마음으로 품고 함께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신도회 출범…회장에 김명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가 5월 15일 설법전에서 '신도회 출범식 및 신도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신도회장은 김명진 ㈜매일마린 대표이사〈사진〉로 현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수석부회장, 한국선용품협회 회장, ㈜세화기계 대표이사를 역임한 불자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또한 부산 영도구 행복장학회 이사 및 동명대학교 사업단 산학교수로 활동하며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김명진 회장은 취임사에서 "통도사 대중스님들을 외호하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종정스님의 뜻을 지키며 통도사 신도회 및 신행단체가 마음을 다해 활동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주지 퇴우 정념

사부대중일동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오대산 월정사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단법인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동 명 사

종정 **법 운**

종도 사부대중 일동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총무원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 (복성리 1095)
전화 054)974-2605 팩스 054)974-2705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모두를 자기와 같이 본다면 그 마음의 향기 에너지가 상대까지 밝아지게 한다.
– 대행 선사 법어 –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중동) | 전화 053)767-3100 | 팩스 053)765-1600

불기2567(2023)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제15회 **청도 유등제**

일시 : 2023년 6월 3일(토) 오전11시~

장소 : 청도 파랑새다리 일원

6/3(토) 11:00~

-관객 레크레이션
-식전공연(청도지역예술인)
-개막공식행사
-점등식
-축하공연 및 불꽃놀이

청도불교사암연합회 회원일동



■ 주최 : 청도군 ■주관 : 청도유등제봉행위원회 ■후원 : 청도불교사암연합회 및 연합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팩스 054)335-0293

대한불교조계종

운문승가대학

회 주 **명 성**
주 지 **진 성**



운문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전화 054)372-8800 팩스 054)371-0359 www.unmu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본사

황악산 직 지 사

사부대중일동

경북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www.jikjisa.or.kr
전화 (054)429-1700~3, 429-1713~15 팩스 (054)436-3174



육군훈련소 1천 장병 불자로 거듭나다

종정협의회 스님들 참여
회장 월인 스님 수계법문

3년 만의 수계법회 재개
미래세대 포교 원력 모아
성덕종 등 포교 후원 눈길
월인 스님 "각 종단 전법을"

논산=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종정협의회는 5월 1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1000여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는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중단된 육군훈련소 수계법회가 각 종단 스님들의 노력으로 재개됐다. 대한불교종정협의회(회장 월인, 이하 종정협)는 5월 13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를 찾아 1000여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는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는 종정협의회 14대 회장으로 추대된 승가종 종정 화산 월인 대종사가 증명법사로 수계법문을 하였으며,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동봉 스님,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정림 스님, 불교정중종 도심 스님 등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스님 100여 명이 계사로 나서 장병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했다.

종정협은 10여 년 전부터 연 2회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수계법회와 함께 위문행사를 진행해 왔다.

법석에 오른 월인 스님은 "오늘 내리는 이 계는 여러분의 마음에 자비의 씨앗이 되어 주변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힘든 군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두움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삼아 부단히 정진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내려진 계는 청년들인 훈련 장병들의 상황에 맞게 '생명을 존중할 것' '도둑질을 하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할 것'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하지 말 것'으로 쉽게 풀어서 내려졌다.

계를 받은 대표 훈련 장병들은 증명계사로 법석에 오른 월인 스님 앞에서 연비를 받으며 건강한 군 생활을 기원했다.

연비의식은 향불로 피부에 따끔한 충격을 주어 반성하고 마음을 다지는 행사이지만, 훈련 상황임을 참작해 삼보를 상징하는 도장을 스님들이 장병들의 왼팔에 새기는 것으로 대체됐다.

훈련소 내 코로나 확산 여파로 넓게 자리 잡은 장병들 사이를 스님들이 누비며 연비를 진행했고, 훈련 장병들은 합장한 채로 오계를 되새기며 불자로서 거듭나기를 서원했다.

훈련 장병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옵니다. 계를 받는 제자들은 부처님께 귀의하겠습니다"를 힘차게 연호했다.

이날 수계법회를 함께 집전한 호국연무사 주지 여일 군승법사는 "그동안 육군훈련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계법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종정협의회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수계법회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군포교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종정협은 수계법회에 앞서 호국연무사 세심관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을 재추대했다. 취임식은 정산 청봉 스님의 봉행사에 이어 추대장 봉정과 직인과 종정기 전달, 제14대 회장 월인 스님의 취임사와 축사, 공로패 수여 등으로 진행됐다. 종정협은 취임식 비용을 호국연무사에서 진행하여 절약한 비용을 위문품 구입에 보탰다. 수계법회는 승가종과 불교어머니회 등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성덕종에서 쌀 10kg 150포대 등을 추가로 후원했다.

쌍계사, 해동다맥 차문화 대축전



해외 불교 관계자 한자리에 모여
차나무시배지 명상길 걷기 등 체험
진우 스님 "종단 차원 차문화 확산"

지리산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쌍계사 및 차나무 시배지 일원에서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개최했다.〈사진〉 '2023 하동 세계차엑스포 행사의 일원으로 열린 이번 차문화대축전은 세계차회, 좌담회, 체험행사, 다맥전수회, 고산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5월 11일 차나무 시배지에서 찻잎을 채취하는 '개원 채다 의식'은 헌다에 이어 나라별 의식, 고불문 낭독, 채다의 순으로 진행됐다. 12일에는 쌍계사 괘불전에서 입재 법요식에 이어 세계차들차회, 다맥전수식이 봉행됐다.

육법공양에 이어 108헌다, 울산다도예절협회의 금당 헌다, 대회사, 축사, 혜원정사의 두리차회 시현, 대구종정다문화회의 신라 다례 시현, 혜원정사의 조선(한국) 전통 다도 시현에 이어 팔영루에서는 다맥 전수식이 열렸다.

선다회 이사장 영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축전이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다일미(禪茶一味)' 사상을 계승해 진여를 밝히는 차문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모든 중생이 본래의 자성을 찾는 곳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제21회 진감, 초의, 만허, 고산 대선사 다맥전수식이 열렸다. 진감국사 전승선차 다도교육 이수자 김향미 씨를 비롯한 15명의 차인이 다맥을 전수 받았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 봉축위, 연등문화축제 '꿈타는 연등회'

2,000여 사부대중 동참 성황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눈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음악회 취소의 아쉬움 남아



'전북 봉축위원회'가 5월 13일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전북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가 5월 13일 연등문화축제를 봉행했다. 전주 전라감영에서 봉행된 연등문화축제는 (사)불교문화보존회가 주최해 '꿈타는 연등회'를 주제로 열렸다.

행사장 주변의 체험부스에서는 지화장인 김제 성덕사 도홍 스님의 지도로 연등·지화(紙花) 만들기, 금산사 미륵전 공포 조립체험, 전북 진북사 주지 동찬 스님의 지도로 다도&명상체험, 사찰음식 전문가 주호 스님의 수수팥 경단만들기, 금산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여찬 스님이 지도한 연꽃등 만들기, 한지부채 캘리그라피, 전통목판체험, LED 연꽃등 만들기, 소원번쓰기, 내꽃나무화분심기, 한지부채 문인화, 룰렛을 돌려라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전라감영 광장에서는 전북 지역의 유치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제17회 전북 어린이 큰 잔치가 열려 부모님과 함께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심의 나래를 활짝 폈다.

어린이 잔치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그림그리기, 글짓기 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체험행사에 참여해 불교와 민속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오후에는 전북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전북도민 노래자랑이 열렸다. 30개 팀이 사전신청하는 등 도민들의 참여열기도 뜨거웠다. 또 새롭게 선보이는 청소년 댄스 UCC공모전, 부처님 생일축하 가족 UCC 공모전도 열렸다. 사전 접수된 영상을 토대로 입상한 참가팀들의 즉석 공연으로 청소년들의 창작열기와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연등축제의 막을 올리는 대규모 연등축제의 시작은 전북불교연합합창단의 축하무대로 막을 올렸다. 수현사 주지 응묵 스님과 김민주 불자의 사회로 진행된 봉축법요식에는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을 비롯하여 공동위원장 일원 스님과 진성 스님, 금산사 부주지 원혜 스님 등 조계종 17교구본말사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도홍 스님, 정읍 일광사 승천 스님 등 전북지역 각 종단 소속 스님들, 한광수 금산사 신도회장,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불자들과 안호영 국회의원, 김성규 전주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불자들은 부처님과 같은 자비행과 실천행을 행하여 세상의 고뇌에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산사 조실 도영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중도를 실천해 나와 이웃이 함께 평온한 일상과 행복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누구나 미래를 꿈꾸며 설레게 하고 그 미래를 향해 부단히 정진하게 하여 조화로운 어울림과 평온이 함께하는 일상이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공동봉축위원장 진성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생명존중, 인간 존중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불자들의 사명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봉축음악회는 문화재 당국의 석연찮은 반대로 취소돼 불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진성 스님, 전주교도소 위문

5월 10일 부처님오신날 맞아 영양찰떡 전달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단장 이재현)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백용성 부대 장병 위문에 이어 전주교도소와 전주소년원 수용자들을 위한 자비나눔 활동을 이어갔다.

진성 스님과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은 5월 10일 전주교도소(소장 박경선)와 전주송천정보통신학교(소년원장 장재원)를 방문해 영양 찰떡 1,300명분(약 530만원 상당)과 학생 간식과 음료수를 전달했다.〈사진〉

또 청소년자립생활관과 에마뉘엘 쉼터, 천사의 집에도 후원금과 100명분의 청소년 간식과 음료수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전주 천지사), 이재현 마이산 탑사 붓다봉사단장, 황동현 전주소년원협의회 고문, 김도은 소년원 어머니회장, 남상준 (사)전북문화관광연구소장, 탑밴드 봉사단 천순희 단장, 사랑으로 행복을 붓다 복지관 김경은 단장, 소년원 어머니회 지원단 정해자 단장 등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수용자들의 자신의 죄업을 진정으로 참회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본 세계불교교황청은 세계불교승가연합재단과 룸비니불교협의회와 유대를 하여 부처님탄생지 룸비니동산에서 팔만사천등 연등불사를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룸비니 내 세계불교교황청 마하라니사찰에 약사여래좌상 삼천불 봉안불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년 룸비니성지순례와 대만 국제공승재에 한국대표단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 세계불교교황청 네팔본부 마하라니사찰

국내종단 (대표 고문단)

사)대중불교조계종 종정 향덕큰스님
대한불교정토선종 종정 정암큰스님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석능인큰스님
사)동국불교 조계종 종정 자화큰스님
대승불교 임제종 종정 법장큰스님
대한불교연조계종 종정 효천큰스님
세계불교 일화조계종 종정 청암큰스님
대한불교 대명조계종 종정 용이큰스님
대한불교 선불조계종 종정 용산큰스님
대한불교 홍제종 종정 운붕큰스님
한국호국 선불교조계종 종정 자승큰스님
사)불대한불교 조계종 종정 명성큰스님
대한불교 동산조계종 종정 진관큰스님
대한불교 벽암조계종 종정 해안큰스님
세계선불교 조계종 종정 현중큰스님
대한불교 반야조계종 종정 지우큰스님
대한불교 선율조계종 종정 혜광큰스님
세계불교 미륵천태종 종정 천호큰스님
대승불교 재단법왕종 종정 운봉큰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육조선원 종정 혜암큰스님
대한불교 호법조계종 종정 호법큰스님
한국불교 법왕종 종정 돈오큰스님
대한불교 미타조계종 종정 대영큰스님
대한불교 도선국사조계종 종정 도선큰스님
대한불교 성불조계종 종정 정인큰스님
대한불교 지장회 대표 해광대법사
호국불교 승가회 대표 성호큰스님
호국불교 조계종 대표 현광대법사
대한불교 정토회 대표 청명대법사

대 법 황 향덕존자
교황청장 석능인대승통
전권대사 운봉대종사
상임이사 도선 무아 용산 상호 청암 용이 혜광 대웅
법인이사 원산 도법 혜현 범해 봉화 대원.
특임이사 선재람샬 반테 쭌두 누룹 히세 갤루 템바

각 종단 사찰 가입환영
• 종단설립하고자 하는분
발급: 단체등록증, 종정추대장, 종헌종법, 법계증서.
• 사찰등록하고자 하는분
발급: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정관.
본 단체에 등록한 사찰은 개인사찰 소유권인정함.

●세계불교교황청 중앙본부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291. 2층 ●청장실 : 053) 321-5008. ●팩스: 053)321-6008 ●홈페이지: www.monarchywbc.com ●Email : buddhasangha@naver.com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주지 우현 광우

사부대중일동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제14교구 창원 불모산 **성주사**

조실 서해 홍교 대종사
주지 법안

신도회장	김이순	신도고문	황기동
신도고문	문무수	신도고문	윤순희
신도고문	노필생	신도부회장	황연자
마야회장	황경숙	불모회장	이점숙
불성회장	백승곤	성포회장	김종석
관음회장	이남숙	지장회장	정영애
산신회장	전윤자	찬불단장	황혜경
다도회장	김인화	서각회장	김미정

-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불모산 성주사**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곰절길 191(천선동 102) 전화 055) 262-0108~10

마음으로 함께하는 **참다운 기도도량**

화개산 반야사

16나한 복장불사중

주지 종오 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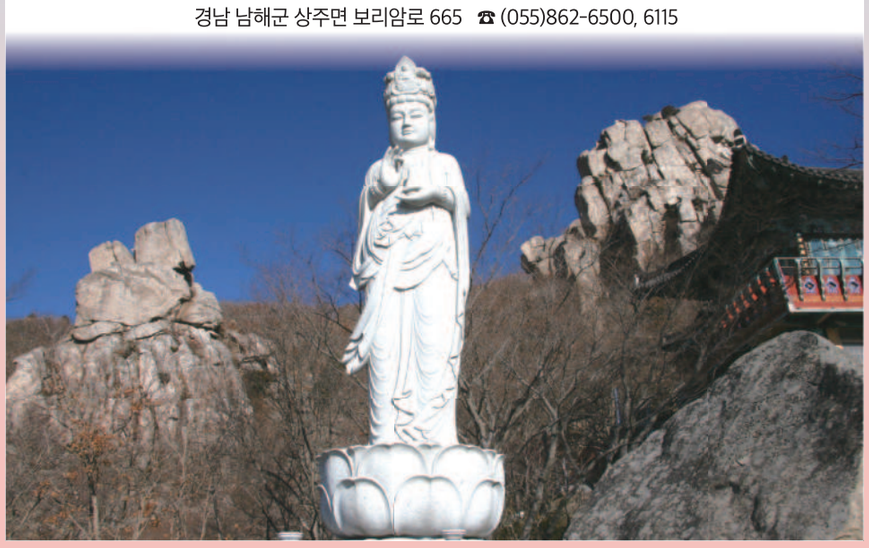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관음성지 금산 **보리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65 ☎ (055)862-6500, 6115



대한불교 법화종

신라고찰 비음산 **불곡사**

주지 서암 도홍

소장문화재
- 보물 제436호 석조 비로자나불 좌상
- 지방유형 문화재 제133호 불곡사 일주문



대한불교조계종

표충사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성철스님 기념관

산청 겁외사

전쟁이 없는 세계평화와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불국정토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회주 원택스님
주지 일학스님

겁외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철로125
전화 055)973-1615



정토마을

간월사 주지 : 능행

간월사 적멸보궁 낙성식

일시 : 2023년 9월 16일(토)

〈 수행과 돌봄이 하나된 정토마을 행복공동체 〉

- (재) 정토사관자재회
- 정토마을 자재병원 (호스피스전문의료기관)
- 청주 정토마을 수행센터
- 마하보디교육원
-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
-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문의 : 052-255-8588 / 010-2926-8500 종무소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야정길 216-40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호국도량

울산 신흥사

주지 인경

사부대중일동

1649년 조성 아미타 부처님 봉안사찰(보물 제2149호 국가지정문화재)



울산광역시 북구 대안4길 280
전화 052)295-7522 www.sinheungsa.co.kr

울산 천만사

천만사 법왕대왕 향덕 박승억 존자가
7개국의 스님들의 축하 속에 법왕대왕으로 추대됐다.



네팔세계불교승가재단과 룸비니불교협회, 세계불교교황청에서 주관하여 지난 2022(불기2566년) 11월1일 네팔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공원내 대법황 추대식을 위하여 각국대표단 외국고승들과 한국대표 큰스님들과 불자님들이 동참하여 부처님의 동체대비 사상을 확립시키고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대법회를 봉행하였다.

특히 네팔대표스님, 캐나다대표스님, 싱가폴대표스님, 미얀마대표스님, 티벳트대표스님, 스리랑카대표스님, 인도대표스님 등이 참가하여 향덕 큰스님의 대법황추대에 대하여 다같이 경축 불공으로 경하드렸으며 룸비니시장님께서도 축사를 해주시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계불교교황청 교황청장 석능인 합장

울산시 북구 달천 만석골길 108 전화 052-295-3407 pail3407@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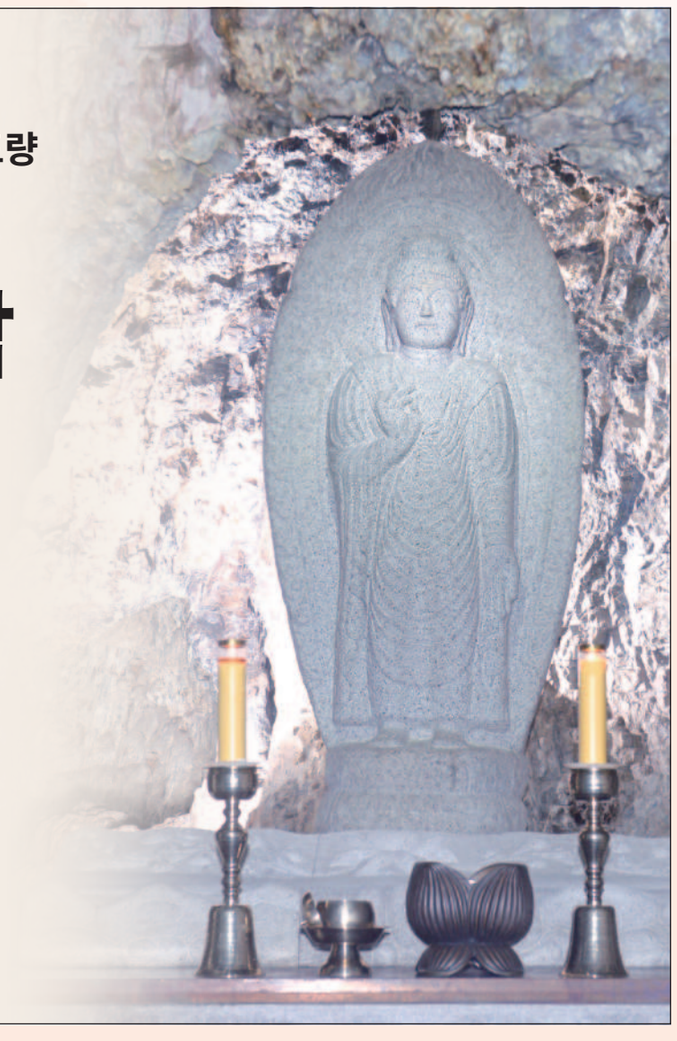
영남최고의 관음기도도량

천성산

미 타 암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주진로 379-61
전화 055)365-4184



대한불교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암연합회

자 문	월파(문수사), 눌암(법륜사), 지용(남산사)
상임자문위원장	덕진(정토사)
회 장	산옹(백양사)
감 사	본명(등룡사)
상임부회장	혜원(해남사)
부 회 장	보화(월봉사), 문성(옥천암) 태암(관음사), 종선(청룡암) 천조(석남사)
총무부장	효암 (여여선원)
교무부장	양관 (동축사)
재무부장	범허 (화장사)
사회부장	진응 (내원암)
포교부장	정진 (태안사)
복지부장	명조 (선암사)

부설
울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혜안(성불사)
울산사암연합합창단 단장 기탁(화봉선원)

회 원 일 동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151(신정동) 성수빌딩 6층
전화 052)266-3318~9 팩스 052)261-1285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한국불교조계종

밀양 삼봉사

주 지 대휴당 녹원
신도회장 김종인, 손경례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단장로379-8,
전화 055)356-0124 부산포교원 051)516-3000

찾아가는 영화관

마가스님과 어머니의 지구별 여행

불(佛)효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접수기간 : 5월 8일 ~ 5월 30일

사찰 상영 / 단체 관람문의
☎ 070-8028-2817

예고편 QR코드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법회안내〉

■철 야 용맹정진	·매월 1,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7일 철야 용맹정진	·음력 7월 1일 ~ 8일 / 음력 12월 1일 ~ 8일	
■재가불자 참선결제	·동안거 결제	음.10월 15일 ~ 1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2월 15일 ~ 3월 30일
	·하안거 결제	음. 4월 15일 ~ 7월 15일
	·산 철 결 제	음. 8월 15일 ~ 9월 29일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41-23 http://www.wondangam.org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상담시간 : 오전 8시~오후5시)

대한불교조계종

함월산 백양사

주 지 지은 산옹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백양로67(상안동)
전화 052)243-8712 Fax 052)243-1142 e-mail : hws1142@daum.net

사)대한불교승가종

복천암

주 지 삼화 무착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동면 영천2길 21-19
전화 055)372-3555

양산시불교사암연합회

고 문 정수(보현정사) 반산(원각사) 청봉(웅상 불광사) 문수(하북 불광사) 종일(천불사) 성남(용주사)

감 사 수운(화엄사) 지도(내원사)
회 장 동진(미타암)
부회장 현고(용화사)
총 무 호법(신흥사)
재 무 시주(계원암)
교 무 성광(보문사)
기 획 진무(정각사)
홍 보 도훈(양산 포교당)

회 원 정윤(법천사) 운암(조계암) 유정(보각사) 세봉(호성사) 무문(원효암) 운성(대일암) 일지(자경원) 정진(성전암) 도광(통도사사회국장)



경남 양산시 장삼동길 13-1(북부동

미진 속에 앉아서 법륜을 굴린다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⑳ 두 개의 그림자

〈원문〉 "부루나야, 물속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나거든 두 사람이 물속의 해의 그림자를 같이 보다가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면 해의 그림자도 두 사람을 따라 각각 동쪽 서쪽으로 가 본래 있던 표준 위치가 없나니 해가 하나인데 어찌하여 그림자는 동서로 각각 둘이 되어 가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또 물속의 해의 그림자는 둘인데 어찌 하나로 나타났다 하겠느냐? 완연히 허망하여 의빙할 근거가 없느니라.

부루나야, 네가 여래장에서 색(色)과 공(空)으로써, 서로 기울고 서로 빼앗으므로 여래장도 따라서 색(色)과 공(空)이 되어 법계에 두루 하나니, 이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맑고, 해도 밝고, 구름은 어둡나니, 중생이 미혹하고 답답해져 각(覺)을 등지고 진(塵)에 합하므로 진로(塵勞)를 발하여 세간의 모습이 있게 되었느니라.

나는 미묘하고 밝아 불생불멸(不生不滅)함으로써 여래장에 합하므로 여래장이 오직 미묘한 각(覺)의 밝음이어서 법계에 원융하게 비추나니 그 가운데서 하나가 무량이 되고 무량이 하나가 되며, 작은 것 가운데서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것 가운데서 작은 것을 나타내며, 도량에 움직이지 않고 시방세계에 두루하며, 몸에 시방의 다함이 없는 허공을 받아들이며, 한 털끝에 보왕찰(寶王刹)을 나타내고 미진 속에 앉아서 대법륜(大法倫)을 굴리느니라."

〈강해〉 강물에 비친 해그림자를 한 곳에서 두 사람이 같이 보다가 서로 방향을 달리하여 가면 해그림자가 두 사람을 따라가므로 해그림자가 둘이 된다는 비유를 들었다. 이는 여래장에서 나오는 색(色)과 공(空)의 경계를 해그림자가 사람 따라 둘이 되는 경우에 비유한 것이다. 서로 기울고 서로 빼앗는다는 말은 시소가 한 쪽이 올라가면 한 쪽이 내려오듯이 색이 되면 공이 없어지고 공이 되면 색이 없어지는 것처럼 여래장이 때로는 색이 되고 때로는 공이 되어 법계에 두루한 그 속에서 중생세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염연기(染緣起)를 따라서 중생계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염연기란 각(覺)을 등지고 진(塵)에 합하는 배각합진(背覺合塵)의 과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로 인해 진로(塵勞)가 일어난다. 진로는 곧 번뇌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塵)은 육진(六塵)의 경계를 뜻하는 말이고, 노(勞)는 번뇌가 일어나 마음이 피로해지는 것을 말한다. 육진을 통해서 일어난 번뇌가 결국 사람을 노곤(勞困)하게 만든다. 이 진로에 의해서 세간상(世間相) 곧 세상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생의 세계는 진로의 경계라는 것이다. 반대로 부처님의 경계는 정연기(淨緣起)인데 불생불멸(不生不滅)로 여래장에 합해져 있는 묘각명(妙覺明)이라 하였다. 미묘한 각의 밝음뿐이라 법계에 밝음 그 자체로 있다는 것이다. 이 속에서는 진로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한량없는 무수(無數)가 되고 무수가 하나가 되어 이(理)와 사(事)가 원융하며 작은 것 가운데 큰 것이 나타나고 큰 것에 작은 것이 나타나 크고 작은 차별이 없다고 하였다.

하나(一)와 무량(無量)은 이(理)와 사(事)를 뜻한다. 하늘에 뜬 달이 하나지만 강물마다 달그림자가 생겨 '천강유수천강월(千江有水千江月)'이 되는 이치이다. 화엄 사법계(四法界)가운데 이사무애법계(理事無礙法界)의 도리에 해당되는 말이다. 큰 것과 작은 것이 서로 융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이때는 큰 것이 이가 되고 작은 것이 사가 된다.

이 이사무애(理事無礙)는 이어 사사무애(事事無碍)가 되어 일체 현상이 본체와 서로 즉하듯이(相卽) 사(事)와 사(事)가 서로 즉하여 한 사물이 법계 전체를 나타내며, 한 티끌이 우주 전체가 된다. 그러므로 도량에 움직이지 아니하고(理) 법계에 두루하며(事) 몸(理)에 시방의 허공(事)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정보(正報)에 의보(依報)가 다 수용된다는 말로 어어 말한 한 털끝에 보왕찰을 나타내고 미진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린다는 말과 함께 사사무애(事事無碍)의 부처님 경지를 말하고 있다. 보왕찰은 부처님 국토로 불찰(佛刹)이라는 말과 같다. '미진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린다'는 말은 정연기의 극치를 나타내는 말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꼬리뼈 순화, 견성 후 자기 제도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⑳ 말초신경 순화와 살갗호흡

처음 꼬리뼈가 열리는 것은 척추뼈 순화의 과정에서다. 특히 선천원기가 깨어날 때 꼬리뼈의 자극이 극렬하게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꼬리뼈 순화가 충분하게 진행되었으면 내단전이 형성된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간소해진다. 만약 척추뼈 순화의 과정에서 양 족심(발바닥의 용천혈)이 열렸으면 그 이후에는 극심한 통증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반신 소주천의 경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꼬리뼈 순화가 진행된다. 가슴에서 일어나는 격정이나 장부에 쌓인 업식들은 척추뼈에 내장된다. 척추의 업식은 꼬리뼈에 내장된다. 때문에 꼬리뼈 속에는 극한의 투쟁심, 성적인 욕망, 생존본능, 동물적 습성, 원초적인 번뇌들이 내재되어 있다. 꼬리뼈가 자극되면서 그런 업식들은 다양하게 표출된다. 꼬리뼈 순화는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면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드러나는 통증조차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비춰봐야 한다. 꼬리뼈 순화는 견성오도 이후에 진행되는 자기제도이다. 해탈도 과정이다. 의식체계를 완전히 바꾸어서 본성이 주체가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제도해야 한다. 이 상태에서는 오로지 황정만 주시한다. 꼬리뼈의 업식이 깨어나고 냉기가 표출되면 속이 울렁거리거나 뜨거운 열감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반신 소주천을 행한다. 갈비뼈 순화를 통해 뜨거움이 다스려지면 황정에 안착시키고 아직 열감이 남아있으면 중심과 영대 사이를 오고 가면서 갈비뼈 순화를 반복한다. 나중 채약(採藥)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다시 불덩어리가 형성된다.

말초신경 순화

말초신경은 뇌신경, 경수신경, 흉수신경, 요수신경, 천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초신경을 순화하면서 피질 경로와 자율신경을 함께 순화한다. 말초신경을 순화하는 방법으로 살갗수행법이 활용된다. 살갗수행법은 사념처관에서 유래되었다. 사념처란 몸과 마음을 이루고 있는 네 가지 요소를 관찰하는 것이다. 신념처, 수념처, 의념처, 법념처가 그것이다. 신념처관을 행하는 방법 중 한 가지 기법이 살갗수행이다. 부처님께서는 생명의 몸을 바깥 몸과 안 몸으로 구분하셨다. 바깥 몸은 육체의 몸이다. 안 몸은 영혼의 몸이다. 마음 또한 진여심과 생멸심으로 구분하셨다. 사념처관 중 신념처관은 바깥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수념처관은 안 몸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의념처관은 생멸심을 관찰하는 방법이고 법념처관은 진여심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살갗수행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가 호흡법이고 둘째가 관법이다.

살갗호흡법

천천히 아랫배로 숨을 빨아들인다. 의지를 두는 곳은 백회이다. 숨을 들이쉴 때 호흡의 감각을 백회에서 느낀다. 숨이 빨려 들어갈 때 백회가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면 감각이 열린 것이다. 백회의 들숨 감각이 명확하게 인식되면 조여드는 느낌을 나선 형태로 만든다. 의도를 갖고 노력하면 점차로 나선의 감각이 명료하게 세워진다. 백회의 표면에서 형성된 나선 느낌을 시상까지 끌어들인다. 숨을 들이쉬는 속도와 나선의 느낌을 일치시킨 상태에서 천천히 들이쉬어야 한다. 나선 느낌이 시상까지 내려오면 의식이 몽롱한 상태가 된다. 시상이 가바로 인해 억제되면서 세타파 상태가 된 것이다. 나선 느낌으로 시상 억제가 능숙하게 이루어지면 숨을 끌어들이는 범위를 연수까지 확장시킨다. 백회에서 연수까지 밋밋한 기둥이 세워진 느낌이 들면 성취된 것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흐 스님의 〈능가경〉 강설

⑳ 심법의 경계

'나'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유희'

"상상하다"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 보다. 둘째, 외부 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생각이나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다. 재생적으로 상상하는 일과 창조적으로 상상하는 일이 있다'이다. 이 뜻을 보면 말의 논리성은 맞지 않지만, 삶의 현상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 뜻을 반복하여 읽다 보면 인간은 자신들이 알 수는 없지만 다른 생명체로 살아왔음을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문장의 구조를 보면 꼭 내가 아닌 나의 경험에 대해 내가 다시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나라고 지칭하는 둘(사실은 다양한 모양들이지만 편의상 둘이라 함)의 모양이 다르므로 지금의 모양을 더 높이 평가하여 창조나 발견하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 이면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의식은 단지 경험된 인식만 존재하지 경험하지 못한 인식은 저장할 수가 없다. '나'라는 주체가 그 경험을 지금의 '나'라는 모양으로 한정한다면, 그 전의 경험과 기억을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상하다"라는 말은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세상에 진실이 있다면 아마도 '자신을 모른다'일 것이다. 이러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모양을 가진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에 그 전의 기억이라는 것이 분명히 왜곡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증득하여 스스로 얻은 이러한 심법의 경계는 언어나 망상을 벗어난 것으로 이름도 없고 상대적 분별도 없네. 부처가 세상에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이 법은 항시 머물러 소멸되지 않네."

그럼 우리는 왜 자신을 모르고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에 확신을 가지는 것일까? 그것은 물질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발생하는 달콤한 '유희' 때문이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 중에 두 가지를 뽑는다면 '상상하다'와 '유희'일 것이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아주 작은 유희들이 있겠지만 인간의 유희와는 비교가 안 된다. 다른 동물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 유희라는 것은 생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유희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아쉬워한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갈구하는 마음이 더욱더 늪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다.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왜냐하면 항상 아주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으니 그것만 채우고 그만두기를 바란다. 그리고 보고 듣는 모든 것에 조금 더 잘 보고 듣기를 바란다. 마음속으로 "그때 그만둘 거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항상 부족하다. 이러한 욕구가 있는 한 자신에 대한 탐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욕망을 완전히 채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살아간다는 것은 욕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곳이다. 사회의 다양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교라는 눈의 잣대가 생기고 이익과 손실이 생기고 억울한 일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욕망은 사라지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만이 모든 것에 대한 앎을 가질 수 있다. 여기에서 앎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닌 것에 대해 내가 아니라고 아는 앎, 그것 밖에 없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면 다시 불필요한 일들이 생겨난다. 자칫 무엇을 알면 무엇에서 벗어나고 빠져나온다고 생각하겠지만 벗어나는 일도 빠져나오는 일도 아니다.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저 많은 생 동안 자신과 무관한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여 그 일이 꼭 나의 일처럼 느껴진 것이지, 나의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가르침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때 자신은 모양과 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이며, 그것을 아는 것이 가르침을 의지하는 것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 法물교조계종



총무원장 능허 혜운(흥안사)

법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운

종회의장 조허 혜윤(금강사)
교육원장 인륜 보현(보광사)
선 원 장 진보(법등사)
규정원장 백봉 성관(대성사)
포교원장 혜선(효암사)
문화원장 일락(중산정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31길 5-44 전화 02)762-2459 팩스 02)742-2344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37호 | A30 | 전면광고

전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 일을 알고자 하느냐?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법화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능 • 매가 : 2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1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 가능 • 매가 : 15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포교원(급) 안내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2층에 2층, 40평
- 인근 상권 주거 및 재래시장 밀집
- 보증금 700만원, 월세 55만원 (관리비 없음)
- 시설비 : 1,300만원

010-5635-6199

사 찰 안 내

사찰로 사용 적합

- 경북 영천IC 1분 거리 대도로 분 부지 1,000평
- 건물 140평 정남향
- 불교요양원, 포교당, 사찰운영
- 가액 30억

010-3540-0196

사 찰 안 내

강서구 방화동 상가 3층 32평

- 법당 넓은평 : 방2, 주방1, 화장실 복도 2칸 단독 사용, 창고방1
- 2000/65만원
- 엘리베이터, 주차 無(재래시장에 공영주차장 있음)
- 주변에 대형마트, 음식점, 재래시장 있음 부처님 외 인등, 북 등 전체 보시
- 시설비만 2,000만원(비품 모두 새것) 몸만 오시면 됩니다.바로 기도 수행 할 수 있음

010-6613-2265

사 찰 안 내

- 건물, 토지 지주 승락시 지번공개능, 상담 후
- 위치 : 경기권, 경북권, 충북권, 충남권, 강원권
- 소 · 대형 사찰 인수하실 분 단체나 법인, 개인 매수인 직접시 직거래 가능
- 소형 2,000만원부터 100억대 사찰 또는 소형 / 나는 자연인이다 정도의 오지 터 〈직거래 가능〉
- 공시지가 이하 소형임야 또는 대형임야 사찰 부지 1. 계약금 걸고 대형사찰 잔금 대출금으로 양도 가능

(도암)010-3184-5362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1천 6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농막·토굴(터)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물야면
- 평수 : 1898㎡당. (574)평
- 용도 : 토굴, 주말농장
- 보전관리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곳, 도로, 골짜기, 전기접
- 가액 : 2,600만원

010-5454-7662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 대지 : 약 250평 법당, 요사채, 주차장 70평
- 공찰소임 관계로 급매 / 시설 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054-536-2587

토굴(급)안내

경북 영덕 칠보산 아래 미등기 지상권 주택

- 가액 : 2천만원
- 방 2개, 부엌 1개, 화장실 1개, 가전제품 모두 드립니다.
- 마당 주차, 텃밭 있음, 1년 토지세 5만원

010-4323-3579

김해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구산동 시영 아파트 상가 3층, 301호
- 3층 크기 약 60평
- 매매금 : 2억 8천만원 (시설 포함, 융자 1억 포함)

010-3485-495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서구 비산동 소재
- 버스 역세권 도보 3분 거리 도시가스, 유동인구 많음

010-3402-499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김해 동IC에서 5분 김해 공항에서 15분
- 창건 30년, 도량 270평
- 가액 : 8억 9천만원

010-6898-9114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 6,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 043) 644-1102

춘천 금선사(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1억 5천만원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 입니다.

010-3428-2774

사찰(급)안내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 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암 자 안 내

통영 바다와 산의 경치, 공기가 좋은 곳

- 법당, 삼존불, 신중, 약사불, 칠성, 용왕, 산신각, 집기 일체 포함
-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 대지 : 법당과 텃밭 포함, 106평 (주차 다수 가능)

※보살님과 법사님도 가능합니다.

- 가액 : 1억 7천만원

010-3344-6667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010-4727-6065

멋진사찰 (급) 안내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 대 지 : 약 175평
- 건 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4~5평
- 요사채 : 1동 약 25평 1동 약 25평, 2층 약 6평
- 가 액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건강상의 이유로 시세 이하로 계산합니다.

010-3007-5611

포교원 안내(40년)

- 위치 : 수영 R-Y 부근, 2층 40평
- 법당 : 아미타, 관세음, 지장, 신중, 영단, 소불 200불
- 전세 : 2천/35만원, 사권 2300만원

주지 소임 관계로 급, 즉시 법회 가능

010-9695-1060
051-727-2421

파주 금당사 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411-1, 411-2
- 매매금 : 3억원
- 올수리, 사찰 장엄 완료, 250평



010-4727-6065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암도

승정원 승정원장 석벽봉

원로원 원로원고문 석법령 위 원 석일우, 석도명, 석청산, 석체법, 석일두, 석혜천, 석혜암, 석진공

총무원
총무원장 석도선 | 교육원장 석동은 | 기획원장 석담허 | 법계고시위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종허 | 의전원장 석법도 | 어산장 석도암 | 감찰원장 석원허
비구니회장 석경호
부원장 석대공 | 총무부장 석성덕 | 감찰부장 석성현 |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 사회부장 석자광 | 사서부장 석성우 |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 문화부장 석성원 | 포교부장 석보현 |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민 | 지원국장 석해인 | 봉사국장 석성운 | 포교국장 석혜진
포교국장 석법정 | 포교국장 석성원 | 의전국장 석균중 |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 문화국장 석원종 | 의식국장 석성혜 | 사서국장 석성오

비구니회 부회장 석효성 | 부장 석지현 | 국장 석충효

종무원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성 |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 제천중앙종무원장 석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법인 임원
이사장 도선 이 사 체법 일두 성만 성우 감 사 성덕 성민
운영이사 학산 성원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의공

법률자문위원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 교보생명 16층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 이경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정 (이영숙)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단임원
법사고문 도혜 | 홍보부장 원명 | 구미부장 혜진
울산원장 법광 | 부산부장 혜성 | 대구부장 혜련
종무원장 성종 | 경기부장 자운 | 청주부장 혜원
법사원장 목암 | 전남부장 혜명 | 충북부장 상학
경남국장 성광 | 포교국장 청운 | 삼척국장 정허
사업국장 종현 | 통영국장 덕인 | 영천국장 원명
포교국장 덕운 | 포교국장 혜림 | 통역국장 정연
종무국장 도연 | 봉화국장 혜정 | 포교국장 혜경
서울국장 명덕 | 화순국장 보정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총본산 경북 영양군 수비면 절터길 54-39, 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총무원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전화 02)303-5612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37호 | A31 | 전면광고

다른 사람이 곧 나요,
내가 곧 남이라고 생각하여
나 아닌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아함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보존회 학인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극락왕생 · 인도환생 발원

반려동물 천도재 · 49재
태아령(낙태, 유산) 영유아 천도사찰

해인승가대, 동국대 출신 철학박사 큰스님 직접 집전

부산 온천장 약불사 051-556-2270
반려동물 수의판매 · 부산 반야원 010-8543-4289

범음·범패 학인 모집

각단의식, 천수바라,
오공양작법, 법고, 송주북,
정근북 및 개인지도

진주시 집현면 진산로 1528-7
금 륜 사
전화 010-7579-8200



추천 · 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

영남범음범패

통범(구암스님)소리를
채보하여 악보로 수업

- 의식 및 사물장단
- 태평소 · 대금 · 작법무
-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2길 32-81, 영원사

010-3156-2211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무료상담

(법률 세무 및 신행상담, 명상법회)
선행, 송기명 법사(010-3686-4807)
정호스님(법무사)
-매주 목요일 오후 2시~5시
명상법회(보리방편론)
명상지도사 : 김석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선정원 02-733-5525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빙의, 공황장애, 우울증치료 간질 있는 분 연락주세요.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10-4804-2309
천도비는 1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천도하면 90% 이상 성불됩니다.
※ 몸 아프신 분들 천도 해드립니다.
※ 친견하실 분은 330만원 별도입니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성학 래정법 전국 최초로 출간

사주없이 온 시간만으로만 보고 과거 현재 미래 점사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보성역리학회에서 구성학 래정법을 책으로 알기 쉽게 출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주 없이 온 시간만으로 과거 현재 미래 점사까지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역학을 공부하신 분이나 실전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책입니다. 스님들이나 무속인들께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일반인들까지도 가능합니다. 역학공부를 하시고도 자신이 없어 허송세월 보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 책을 구입해 보시면 후회 없으실 겁니다.

보성역리학회 - 보 성 거 사 -

상담 보성역리학회
문의 010-4524-6989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문암사
- 주 지 : 연주 스님(속명:김금자)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옥율2길 307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평안한 하루 휴심침향

침향의 향기는 예로부터 향로에 피우는 것만으로도 천지인의 기감을 깨닫는 묘약이라고 하여 정신세계를 맑게 하며 상기된 신체의 이완과 심신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비사 '휴심침향'은 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의 안전기준 적합 확인과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안전 확인을 받았습니다. 휴심침향을 만드는 모든 과정은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 천연재료를 숙성하여 수작업으로 제조한 제품입니다.

법당, 기도처, 요가·명상처, 가정, 사무실 등 다양한 곳에서 피울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인증제품 : 코드번호 FB22-12-0233



종합향

- 문의전화 : 033-375-2100
  010-9245-2357
- 주 소 : 강원 영월군 주천면 황산벌길 157-6
- 홈페이지 : ok114.co.kr/0333752100
- 계좌번호 : 농협 351-1101-8874-03

- 종 합 향 : 100.000원
- 선향 大 : 70.000원
- 불 향 : 80.000원
- 선향 小 : 30.000원
- 가루향(도향) : 70.000원
- 침향비누 : 15.000원


종합향


선향


불향



가루향 & 침향비누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불지사

주지 **청계 정인**

앞서가는 가르침, 부처님 따라하기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2
전화 055)262-6663



대한불교 조계종 **천자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1099번길 161
TEL_ 055)551-5282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신흥사

조실 **영 규**

주지 **호 법**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원동로 2282-111
대광전 보물 1120호 / 대광전 벽화 보물 1757호

함 안 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원 명**
총 무 **영 공**
감 사 **정 광**

신도회회장 **조용찬** 신도회총무 **신현숙**
신도회부회장 **박성하** 신도회차장 **김성곤**

신행단체

공무원불자회 회장 **지희선**
바웃다합창단 단장 **박문자**

경남 함안군 칠원읍 유원길778(달전사) 전화 055)587-8419

창원특례시 불교연합회

회 장 **법안** (성주사 주지)
수석회장 **광우** (정법사 주지)
부 회 장 **지암** (송림사 주지)
월서 (길상사 주지)
무성 (구룡사 주지)
진홍 (자비정사 주지)
감 사 **해암** (용천사 주지)
무아 (진불선원 주지)
혜명 (반야사 주지)
사무총장 **원문** (금룡사 주지)
총무부장 **무경** (대고아사 주지)
재무부장 **선해** (미타사 주지)
포교부장 **무성** (구룡사 주지)
문화부장 **성욱** (영진사 주지)
복지부장 **성우** (천웅사 주지)

증명법사 **흥교** (성주사 조실)
상임고문 **지태** (봉원사 주지)
원행 (정인사 주지)
도홍 (정인사 주지)
정인 (불지사 주지)
원정 (한가람이사장)
고 문 **운남** (봉림사 회주)
월봉 (석봉암 회주)
호정 (세심사 주지)
석봉 (백운사 회주)
월도 (원흥사 주지)
성일 (수선정사 주지)
명종 (자비사 주지)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특례시 성산구 용지로 96 하이페르상가 14층 H.P 010-2523-2445

경남고성군불교사암연합회

직전회장 **이암**(문수암)
회 장 **수운**(약수암)
부 회 장 **원각**(청련암)
감사 **현제**(장위사) **월암**(운흥사) 총무 **진각**(청수암)





대행 스님

자기가 잘 안다고 뻣뻣이 굴지 말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순응하라

마음공부의 자세

질문 요즘 유튜브를 통해 대행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걱정거리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모든 걸 주인공에 맡겨 놓는다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는지요. 그렇다면 마음공부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는 가정에서나 도량에서나 자기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남의 차원에서는 좀체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벌어지는 거죠. 내가 좀 더 그 도리를 이해를 하고 그쪽 방면으로 한번 서 보는,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내가 서 보는 그런 마음이 돼야 하고 그 마음이 됐다면 남들과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자비심이 생겨서 가정도 조화를 이루고 또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루죠.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 부부가 만나서 사는 데도 간단하게 생각이 되지마는 사람 사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그것이 너무도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그러고도 생활에 의해서, 자기 인연에 의해서 천차만별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생활을 하게 돼 있죠. 장사꾼은 장사를 하고 정치인이면 정치를 하고 말입니다, 뭐든지. 내 몸도 복잡다단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폐허가 되면 또 한쪽이, 즉 말하자면 공장장이 폐업을 하고 파업을 일으킨다면 몸 전체가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도 복잡다단하고 모든 생명들이 내 몸 안에 형성이 돼서 한 사람의 선장으로서 마음을 먹게 돼 있으니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 데다가 가정도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사회도 복잡다단합니다. 세계는 물론이거니와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전달한다, 마음과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뜻은 우리 마음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부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보배를, 우리가 싱그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는 언제나 나를 세우지 말고 남에 참견하지 말고 주변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남을 탓을 하지 말고 '남이 이렇게 해서 이렇다' 이러지 마세요. 남의 탓이 절대 없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놨을 때,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놨을 때는 스스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스스로 돌아갑니다. 완화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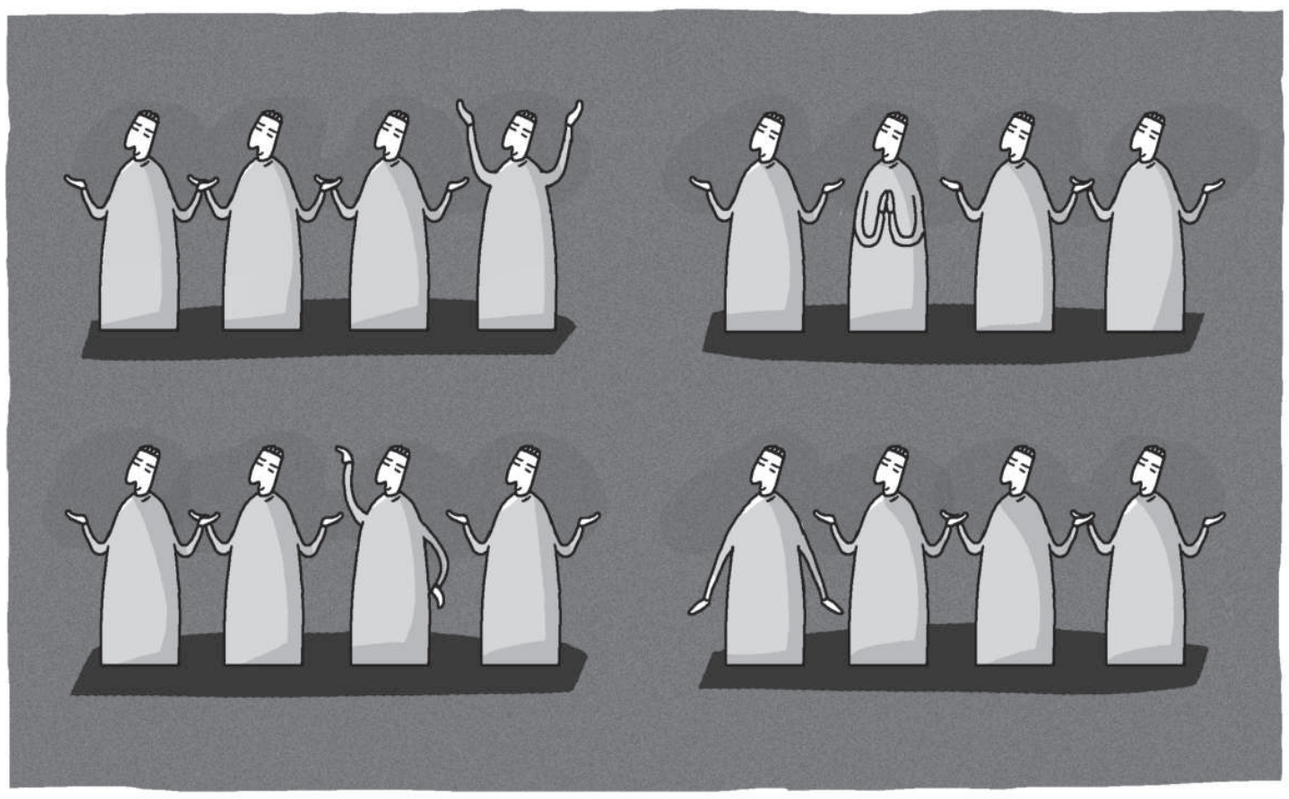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것이 아주 스무드하게 돌아가는데, 말로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이 사람이 틀리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이런다면 공부하는 거는 틀려 버렸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말만 벌어져 가지고 싸움만 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부하는 데 심중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그러한 관습적인 습을 몽땅 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근본을 가지고 있으니 주변을 둘로 보지도 마시고, 원망하지도 마시고 모든 것을 나로 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이 말하는 거는 깨달은 대로의 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자비다' 이런 거 말입니다. 왜? 그건 무명을 치고 옷만 벗겼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욕이 아니라 자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답답하면 욕을 한마디 해 놓고선 그 사람 마음의 근본을 건지려고 무척 애를 쓰는 그런 자비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그런데 남의 속을 하나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대로 막 해 버리는 그런 습이, 여러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때는 그 습관이 나온다고 봅니다. 다른 때는 아무 일도 없다가도 급자기 닥쳤을 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급자기 닥칠 때에 한번 찔러 보면 영락없이 예전의 습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체 만법에 의해서 마음의 보배가 쓰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코드라면 큰 거를 쓰려면 큰 코드 하나에, 마음을 먹을 때 '나는 모터를 돌리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모터가 돌아지고 '난 냄비에 찌개를 끓이겠다.' 하고 코드를 꽂으면 찌개가 끓여지는 것이 바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우주의 섭리나 이 세계의 섭리나 나라의 섭리나 가정의 섭리나 복잡한 몸의 섭리나 모두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자력이 여러분한테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여여하니 부처니라."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색에 끄달리지, 욕심에 끄달리지, 말에 끄달리지, 나에 끄달리지, 모두 끄달리다 보니깐 아예 그냥 철통같이 막힌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마음에 의해서 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용을 먼저 하는 것은 사법이고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법이든 사법이든 어떤 거를 막론하고 다 놔 버려야 됩니다. 놔 버리고서 자기가 한생각을, 한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무심히 생각하면서 무심히 밥 먹고 똥 누고 잠자고 편리하게 살아나가듯이 큰일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스스로의 자기 한생각에 좋게 돌아올 수 있는, 좋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저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 좋게 탁 내던질 때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생각을 좋게 내 주기 위해서 한번 찔러 볼 수도 있고, 오다 가다가도 한번 말을 푹 찔러서 남의 부아를 훌렁 뒤집어 놨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떨까 하는 것도 한번 해 봄으로써 거기에선 한 마음의 도리에 큰 공덕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서도 속이 뒤집어지게 남한테 말을 해 주는 거는 그것도 자비다 이겁니다. 그, 왜? 모르는 사람이 뒤집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악으로 돌아가지만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이 속을 뒤집어 놓는 거는 그건,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의 뜻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자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을 원망 안 한다. 남을 증오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서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참견을 안 하되 참견을 할 수 있는 거는, 내 앞에 닥친 참견은 해야지요. 이 도량에서도 만약에 뭐가 잘못 돌아간다 이럴 때는 자기 생각에, 주인공에 맡겨 놓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걸 말로 발설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다면 일이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오히려 바깥으로 더 커지죠.

이런 건 다 놔 버리고 자기한테만 오로지, 자기 주인공한테만 맡겨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는 걸 봤고,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눈에 거슬린 거지 내가 없이 어떻게 거슬립니까?

그런 거를 놓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끝없는 옛부터 우리가 가지고 살아온 습을 녹일 수 있으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항복을 받을 수 있으며 또 항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항복을 받고 내가 항복을 하는 건데, 항복을 받는 사람도 나요, 항복을 하는 사람도 나다 이겁니다. 육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십이상이 구족하다'는 말이 있듯이 그대로 산 부처다 하는 겁니다. 산 보살이다, 산 법신이다

☞ A34면으로 계속

한마음선원은
불법의 궁극적 목표인 한마음을 깨닫게 하는 도량으로서
모든 중생이 본래로부터 지니고 있는 불성을 밝혀
성불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전화 051)403-7077

부설 한마음유치원
전화 051)403-6701 www.한마음유치원.kr

대한불교조계종

광명선원

일체제불의 자비와 사랑은 일체중생의 자비와 사랑이다.
-대행선사 법어

사부대중일동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전화 043)877-5000 팩스 043)877-2900

주변을 둘로 보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로 보라

☞ A33면에서 계속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에 조금도 애착이 없이 남의 걱정 하기 이전에 나부터 아시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남의 걱정이 있걸랑 내 마음에다가 맡겨 놓으시라는 얘기지 걱정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자비한 마음이 있걸랑은 안에다가 굴려 놓으십시오. 거기에 맡겨 놓으신다면 오히려 내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 주는 것보다 백 곱쟁이 천 곱쟁이 아마 좋은 결과를, 씨를 거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면서도 좀 더 사는 데에 괴로움이 없이 사시라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걸 다 놔 버리고, 못났든 잘났든 문이 아니든 문이든 한번 엎드러져 보고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큰 경험이며 보배를 크게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주인공을 자꾸 놓치게 됩니다

질문 주인공을 잘 잡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습에 끄달려서 자꾸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여일하게 주인공을 잡고 갈수 있을는지요. 어떤 의정이 있어야 할까요?

답변 만약에 속이 상해서 와락 소릴 질렀다고 합시다. 그것도 바로 그대로 놓은 겁니다. 그냥 한순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한순간 뛰어 넘어야지, 그것을 붙들고 '아이구! 또 놓치고선 또 악을 썼구나.' 이런다면 허, 그럼 사람이 뭐, 말도 못 하고 뭐, 악도 못 쓰나요? 악을 쓰되 쓰지 말고 쓰지 않되 써라 이겁니다. 그냥 악쓴 것도 놓은 거고 악 안 쓴 것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걸립니까? 아, 그렇게 걸려 가지고야 은산철벽을 어떻게 뚫고 넘겠습니까. 옛날 사람 같으면 은산철벽을 뚫는다고 온통 야단이고 그냥 뭐, 여기도 걸리고 저기도 걸리지만 아, 지금 사람이 얼마나 잘 머리가 돌아가는데 여기저기에 다 걸립니까?

또 뭐, 이 의정 내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를 찾아 가지고, 찾을 게 없는 걸 찾아 가지고 정말 진짜 보임하고 돌아갈 때, 체험을 하고 돌아갈 때 참, 미지수의 그 문제가 거론됐을 때 '아, 이게 뭔가? 야, 이게 뭔가?' 하고 아주 대의정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게 뭔가' 하고 돌아갈 때 그 이게 뭔가 하는 것도 놓는 것이요, '이거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놓쳤구나.' 하는 것도 놓은 겁니다. 놓쳤다고 하는 것도 놓은 거고 붙들고 있다 하는 것도 놓은 거니깐 다 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뻣뻣이 굴지 말고 항상 녹신녹신하게, 겸손하게 순응하고,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한테 순응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자길 모르면, 자기한테 순응 못 하면 항상 남한테도 순응을 못 합니다. 그리고 부처도 발견을 못 하고요. 항상 뻣뻣하니 아니, 부처가 나올 수가 있나요? 흙이 딴딴하게 굳어 보세요, 싹이 나오나. 물을 녹녹하게 칠해야 고 싹이 호봇하게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믿는 친구한테 사기당했어요

질문 얼마 전에 믿었던 친구한테 사기를 당해 억울하고 분한 마음 참을 길이 없습니다. 모든 게 내 탓이라는 걸 알면서도 친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질 않아 괴롭습니다. 제게 정신 차릴 수 있게 일침을 가해 주십시오.

답변 우리 몸뚱이에서 정맥 동맥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 숨 쉬는 것, 한 발짝 떼어 놓았으면 또 한 발짝 떼어 놓는 것,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실질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다 잘 알고 있는데 말로만 알았지 실천을 통해서 감응이 되질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잘되는 것은 어느 틈에 잘됐는지도 모르고, 잘못되면 또 내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니까 '이거 조상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가, 부모가 잘못됐나, 남이 뭘 어떻게 해서 잘못됐나, 그놈이 그렇게 해서 잘못됐지' 이러곤 이것이 다 남의 원망이고 증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증오나 원망을 왜 하게 되느냐. 그것을 각각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옳게 못 보고, 나쁜 것도 옳게 못 보고, 좋은 것도 옳게 못 보고, 진리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증오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한 생각 한 생각을 잘못하는 게 그만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이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증오하고 자기 멋대로 원망하고 자기 멋대로 괴롭다고 하고 자기 멋대로 아주 속상해서 애를 씁니다. 그렇게 꼬부장해서 애를 쓰는 그 마음이 바로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결국 자기한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공을 던지지 않았다면 공이 튀어오지 않듯 자기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대로 바로, 과거가 따로 없이 미래가 따로 없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영원한 대진리가 바로 소진리고 소진리가 대진리인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 여러분한테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여러분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능력이 생겨서 작용을 하게 되고 분기도 일어나고 잔잔하게 자비도 생기고 또는 여러분의 그 무한의 능력도 생기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지수화풍이 합쳐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걸 개별적으로 생각한다면 바람, 물 또는 흙, 태양, 이거 개별적으로만 생각한다면, 능력이 생길 수가 없죠. 불이 일어날 때 반드시 물이 없다면 끌 수가 없듯이 그러한 관계상 사대가 한데 합쳐서 이렇게 능력이 인다는 그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 모든 유정물이나 무정물 또는 동식물이 다 지수화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만 지수화풍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지 않는 것들도 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사람과 같이 움죽거리고 있지만 사람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본말 모르고 일본 사람도 우리 한국말 모르듯이 이렇게 서로 모르고 돌아가고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방하착을 하라' 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판단을 할 것 같으면 자기한테 업보가 되고 유전이 되니까 절대로 자기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주인공에다가 모든 것을 놔 버려라' 이런 것입니다. 자기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일임하고 믿고 돌린다면 거기서 바로 자기가 걸리지 않는 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응이 오고 말입니다.

생활의 어떠한 것도 그 오온 속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손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볼 때는 다섯 개가 이렇게 뚜렷하지만 주먹을 쥐었을 때는 한 주먹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게 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바로 한 세상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도 한세상, 저렇게 살아도 한세상이라면 좀 더 우리가 인간의 삶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영원 불생불멸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불심을 좀 더 돈독하게 가지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가질 때, 부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써 삼배를 올릴 때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부처님 몸이 내 몸이요 바로 부처님의 그 무한의 능력이 내 능력이기도 할 터인즉, 내가 아프다면 바로 내 지극한 마음 속에서 바로 의사가 나올 것이고, 바로 지극한 마음에서 가난을 물리칠 것이고, 지극한 마음 속에서 유생 무생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잘못 써 가지고 유전이 되기도 하고 현실에도 바로 자꾸자꾸 다가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은 걸리지 마세요. 주인공에 모든 걸 일임시키고 아는 건 알아서 감사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일임해서 놔 버리세요. 그런 법을 아신다면은 감사해도 놔 버리고, 또 괴로워도 놔 버리고, 외로워도 놔 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꼭 돼야 할 텐데, 부처님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정성을 들여 시주를 했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이 나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아니 자기 자부처가 이렇게 안 되게 했구나.' 하는 걸 믿으면 돌아서 다시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거를 납득을 잘하셔서 인과응보를 겪지 마시고 유전에 말리지 마시고 윤회에 끄달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괴로움이 생긴다고 해도 거기다가 바로 놔 버리세요. 자기가 색이자 공이고 공이자 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둘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바로 자기 실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기 실상이 공이니까 공에다 모든 것을 놔 버리세요. 진실하게 믿고. 믿지 않으면 놔 버릴 수가 없어요.

믿어야 열쇠를 맡기죠? 믿지 않으면 열쇠를 맡길 수가 없듯이 말입니다. 내가 '참나'인 주인공을 진실로 믿는다면 몸이 아프고 괴로워도 거기를 믿고 맡길 수가 있죠. 주인공이라는 그것 자체도 이름이고 실(實)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상 그 자체를 믿는다는 것인데 바로 거기다가 놓아 버린다면, 믿고 놓아 버린다면 해결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한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또 안 당한 사람도 있고 사기를 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공에 놓는, 방하착 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은 나중에는 참자기의 감응이 와서 그걸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그럴 겁니다. 또는 안 그런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한다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오온에 칠보가 가득히 차 있듯이 그 모든 것이 다 저절로, 가난도 면할 것이고 병도 물러날 것이고, 자기의 뿌리로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만 가서 되는 것이 아니니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공에다가 놓아 버리세요. 모든 것을 공에다 놔 버리라는 것은 왜냐. 예를 들어 만약에 장님이 있다고 한다면 장님은 지팡이 없이는 못 갑니다. 그러니 공에다 놓지 않는다면 장님의 눈을 밝게 할 수는 없고 겨우 지팡이 하나 쥐여 주는 것밖엔 안 되죠.

그래서 공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다 놔 버린다면 바로 여러분에게도 그 뜻이 풀려 공 도리도 알 수 있으며, 바로 인에 의해서 연도 생기고 그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연기법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쓰면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연이라고 할 때, 그 연에 따라서 인연의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행하고 듣고 보고 하는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에 다니면서 건성 다니지 마시고 정진 열심히 하시고 진실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고행하신 이유

질문 부처님께서는 이미 수억겁 전에 깨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고행을 하셔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답변 하이고, 참 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깨치셔서 이 세상에 났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타고 났지 않습니까? 모습을 가지고 나왔고 모습을 가지고 나온 그 자체를 어느 누구가 그 깨쳤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신 거죠. 말하자면 보여 주려고요. 여러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그게 보여 줘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여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 하는 사람들은 남 탓 안 한다.
남의 말에 끄달려 돌아가지 않는다.
남의 참견을 안 한다.
모든 것은 안으로 굴린다.







奉祝隨想

수보리처럼 부처님 맞이하기

이미령
불교강사
경전이야기꾼





그림 · 최주현

수보리처럼 옷 깁다가 문득 佛法에 마음 열리는 것
가장 법답고 아름답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사월초파일은 아기 싯다르타가 어머니 마야왕비에게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굳이 '오신 날'이라 부르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 오셨으니 서둘러 맞으러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당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연회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영 인사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신다는 말일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맞이하는 이 '나'는 무엇일까?'

수보리 존자처럼 옷을 깁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에 사무쳐서 부처님 평소 가르침에 마음이 탁 열리는 것,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장 법답고 아름답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부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제자 아난을 거느리시고 마을로 들어오셔서 탁발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부처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나자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부재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안타까워 아나율 존자가 하늘눈으로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다 부처님을 찾아냈습니다. 부처님은 저 위의 하늘, 그러니까 제석천의 세계인 삼십삼천(도리천)에서 지내고 계셨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당신을 낳고 7일 만에 세상을 떠나 천상의 신으로 태어난 생모 마야부인을 만나 법문을 들려주고 아울러 천상의 신들에게도 진리를 들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저 삼십삼천 도리천에 계십니다."

아나율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목련 존자가 천상으로 올라갔지요. 지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처님을 그리워하는지 알려서 하루라도 빨리 인간 세상으로 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상으로 올라간 목련 존자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 뒤에 상카시아국 큰 연못가로 내려가겠다."

목련 존자는 서둘러 지상으로 내려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렸습니다. 부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고, 너도 나도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지요.

"부처님이 오신다! 여래께서 오신다!"

"우리 모두 7일만 참읍시다. 다시 부처님을 뵐 수가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상카시아국 큰 연못가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나라의 왕들은 군사들까지 총동원하였습니다. 마치 나라에 외국의 국가원수가 방문하면 가장 멋진 의장대 사열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세력을 맘껏 부리며 가장 근엄한 분위기를 연출하려 하였지요. 부처님이 오신다는데 그 누가 환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천상에서는 하늘의 꽃을 뿌리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부처님에게 올릴 소중한 공양물을 들고서 연못가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스님들도 저마다 설레고 들뜬 마음으로 부처님을 맞으러 연못가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부처님을 맞이할 것인가?

연못가로 몰려드는 사람들은 이 행운의 주인공이 누구일지도 궁금했습니다. 귀한 분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은 전생에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쌓아야 그럴 수 있으리란 생각도 했지요.

약속대로 7일째 되는 날 홀연히 연못가에 세 갈래 보석 길이 하늘로부터 지상으로까지 펼쳐졌습니다. 제석천이 부처님의 무사귀환을 위하여 천상의 신들에게 명한 것입니다. 가운데 황금 길은 부처님이 밟고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길이요, 양쪽으로 은과 수정으로 만들어진 길은 부처님을 호위하는 제석천과 범천이 밟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어진 보석 길을 밟고 내려오시는 부처님 앞으로 사람들이 앞 다투어 나아갔고 부처님은 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그들의 외로웠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빠진 이가 한 사람 있었지요. 조금 떨어진 라자가하의 기사굴산 산기슭에서 옷을 깁고 있던 수보리 존자입니다. 부처님이 자리를 비운 석 달은 지상의 스님들에게는 안거 석 달 기간이었고, 안거를 마치면 스님들은 너나없이 손수 자신의 옷을 살펴 수선하는 것이 의무였지요.

부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수보리 존자는 서둘러 바느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해서 바느질을 도중에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수보리에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뵈려고 하는 부처님은 과연 무엇인가? 눈 귀 코 입 몸 뜻을 지닌 존재가 부처님인가? 또 달려가서 맞이하려는 이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땅 물 불 바람의 4대로 이루어진, 덧없기 짝이 없고 그저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천상에서 오신다는 저 부처님도, 맞이하려고 나아가려는 이 나도 실체가 없어 텅 빈 것인데, 이렇게 텅 빈 것이라면 과연 오는 것은 무엇이고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일까?'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게송으로 일러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부처님에게 절하려거든/눈앞에 보이는 형상은/덧없다 관찰하여라.

과거 부처님들도/미래 부처님들도/현재의 부처님처럼 모두가 덧없는 것이다.

부처님에게 절하려거든/지나간 과거와 다가올 미래/그리고 지금 현재 이 모두가 텅 비었다고/'나'라고 할 것이 없다고 관찰하여라."

수보리 존자는 거듭 생각했습니다.

'모든 법은 비고 고요하니 무엇이 '나'이고 무엇이 '부처님'일까?'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친 수보리 존자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진실한 법의 덩어리(법신)에 귀의하리라."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옷을 깁기 시작했습니다.(〈증일아함경〉 제28권)

연못가에 드리워진 세 갈래 보석 길을 밟고 내려오신 부처님은 대중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진정으로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수보리이다."

사월초파일은 아기 싯다르타가 어머니 마야왕비에게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부처님 오신 날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을 굳이 '오신 날'이라 부르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귀한 분이 오셨으니 서둘러 맞으러 나가야겠지요. 그런데 부처님에게는 당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연회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 환영 인사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이 오신다는 말일까? 오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맞이하는 이 '나'는 무엇일까?'

수보리 존자처럼 옷을 깁다가 몸을 일으키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에 사무쳐서 부처님 평소 가르침에 마음이 탁 열리는 것, 부처님오신날에 가장 법답고 아름답게 부처님을 맞이하는 의식입니다. 부처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社說

일상회복 첫걸음 '부처님 마음'

길고 어두웠던 3년 4개월이라는 터널을 지나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으로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오색 연등이 거리를 장엄하고 환희의 봉축탑이 전국을 밝힌 오늘, 불자들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되새긴다.

신들의 세계인 천상, 뭇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인 천하를 모두 통틀어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고 설하신 부처님. 천상과 천하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존귀한 건 없다는 가르침이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을 자아 상실의 시대라고 말한다. 돈과 권력, 명예에 눈이 멀고 정신이 팔려 내가 아닌 것을 나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나는 남들보다 덜 가졌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인가. 자등명법등명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아닌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신과 진리에 의지할 때다.

그렇게 스스로 자유와 행복을 얻었다면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은 단순히 형형색색의 연등이 아닌 마음의 등불인 이유다. 다 타고 나면 사라지는 촛불이 아닌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우리의 마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웃과 아픔을 나누고,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 자비의 손길을 뻗는 인드라망의 정신.

'일념즉심 무량겁(一念卽心 無量劫)' 한 생각에 무량겁이 다 들어있고 생각 하나만 바꾸면 그것이 곧 행복이고 기쁨인 극락세계다. 등을 달고 향을 피우고, 아무리 좋은 공양물을 부처님께 바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졌던 그 마음이야말로 긴 터널을 뚫고 나온 세계인을 위한 일상회복의 첫걸음이다.

이제 다시 전법의 길을 가자

"천년을 세우겠다는 간절한 서원으로 우리 사회를 보살피며 전법 포교의 길에 진력하겠다."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연등법회에서 밝힌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봉행사 중 일부다. "전법 포교의 길에 진력하겠다"는 다짐은 최근 한국불교의 화두인 '전법'을 다시금 일깨운다.

지난 3월 23일 상월결사 인도순례 회향법회에서 "금생에는 '부처님 법 전합시다'로 살아가자"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회향사는 한국불교계에 큰 울림을 줬고, '부처님 법 전합시다'는 시대과제가 됐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도 이후 다섯 비구에게 설법한 뒤 교화활동을 이어갔다. 곧 60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제자들에게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전법을 떠나라"라고 전도선언을 내린다. 이 전도선언에서 불자의 의무가 바로 전법과 교화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강조한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다. 불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법을 전하는 것'이다.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는 불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정언명령이기도 하다. '상월결사 108원력문'은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전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 지침이 담겼다. 그 지향점도 실천불교, 사부대중 불교, 사회와 세상에 기여하는 불교로 명확하다.

원력을 세웠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전법의 등불을 밝히고 나아가자. 인천(人天)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불기2567년
BTN 불교TV
부처님오신날 특집 프로그램 안내

특별생방송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27일(토) 10:00, 22:30

문광스님 미국에 가다 (1, 2부 연속방송)
5월23일(화) 19:30
5월26일(금) 07:30
5월28일(일) 22:00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미래를 여는 천년의 가르침
5월24일(수) 13:00, 22:30
5월29일(월) 20:30

'사가다와' 다람살라의 부처님 오신날 풍경
5월25일(목) 07:30
5월26일(금) 23:15
5월29일(월) 12:00

미얀마 스님의 탁발
5월26일(금) 19:30
5월28일(일) 07:00
5월29일(월) 23:15

상월결사 인도순례 스님의 눈물(1, 2부 연속방송)
1부 달빛 눈부처 / 2부 전법의 마중물
5월27일(토) 08:00
5월28일(일) 13:00
5월29일(월) 22:30

환상의 섬 욕지도, 魚관음보살을 모시다
5월26일(금) 21:30
5월27일(토) 07:30, 19:30

성타대종사 수행 70년 노을을 등지고 달을 벗 삼아
5월25일(목) 09:30, 21:30
5월26일(금) 15:30

불기2567년 법륜스님 봉축법문
5월28일(일) 21:00
5월29일(월) 13:00
5월30일(화) 23:30

불법(佛法)유턴
5월22일(월) 12:00, 20:30

자현·광우스님의 끝판 맛수다
5월24일(수) 07:30, 19:30

시간의 비밀코드를 풀다
5월23일(화) 23:1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

부처님 법 전합시다

동국대학교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고문 해봉 자승
이 사 장 돈 관
WISE캠퍼스총장 이 영 경 동국대학교총장 윤 재 웅 의 료 원 장 채 석 래





WISE캠퍼스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융합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



의료원 자비인술과 약사여래의 원력 실현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교육기관

동국대학교 /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 의료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영석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금산중학교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흥제중학교 / 은석초등학교 / 동국대학교 부속유치원 / 동국대학교 DUICA

이젠 VEGAN 시대

가장 가까운 자비 실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
(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
모든 생명이 그 자체로 존귀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이유로 고통 받고 있기에 직접 나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하겠다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선언이자 탄생게다.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세상 뭇 중생의 평안을 위해 일평생을 바쳤기에 모두가 손꼽는 성인이 됐다. 5월 27일 불기2567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날이다.

인간의 식탁에 오르기 위해 매년 전 세계에서 10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죽어가는 오늘날. 삼시세끼 우리의 밥상부터 돌아보자. 우리의 한 끼에 어떤 생명이 담겨있는지, 말 못하는 동물의 아픔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의미에서 채식은 불살생(不殺生)이라는 가장 가까운 자비의 실천이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적은 살생이기도 하다. 잊지 말자. 육식을 한다고 죄책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다. 매순간 우리의 자세를 돌이켜 생명평화의 길로 나아가자는 다짐이다.

글=윤호섭 기자 · 사진=한국불교문화사업단

INSIDE

B3 특집 · 이젠 비건 시대
조계종 CJ 손잡았다

B10 · 11 특집 · 이젠 비건 시대
비건식품 · 음식점 어때요?

B13 기획
생명나눔 걷기명상 대회

B25 특집
스리랑카 불교 성지를 가다



그림 · 최주현

‘채식’, 세상서 가장 적은 살생

프롤로그 Prologue

이젠 비건(vegan) 시대

‘보릿고개’ 기근 겪은 우리나라
육류 섭취에 대한 갈망 높아져
현대사회서도 육식에 의미 부여
‘육식주의’로 이데올로기化 돼

기후위기의 주범 ‘공장식 축산’
고기 얻기 위해 자연환경 파괴
‘동물성 단백질=암 유발’ 연구도
채식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부합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 앞으로.”
“어차피 인생은 고기서 고기다.”

우리는 흔히 이처럼 ‘고기를 먹는 행위’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간단한 기분전환일 수도 있고, 때론 ‘플렉스(flex)’라고 외치며 일종의 과시로써 육류를 소비하기도 한다. 앞서 맨 처음 나열한 두 문장은 ‘고기압’과 ‘거기’라는 단순히 ‘고기’와 비슷한 발음을 우스갯소리로 바꾼 표현이지만 그만큼 우리는 고기를 먹는 것을 ‘상당히 즐거운 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왜 그럴까.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다

1950년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기근에 시달려야 했다. 미군을 쫓아다니며 “기브 미 쪼꼬레뜨”를 외치던 꼬마아이들은 차치하더라도 오죽하면 트로트가수 진성의 ‘보릿고개’라는 노래에서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라는 표현까지 나왔을까. ‘물 한 바가지’ ‘초근목피(草根木皮)’라는 노랫말에서도 먹을 것 부족한 게 가장 큰 가난이었다는 아픔이 전해진다.

이렇게 먹을 것이 궁하던 시절, 고기는 그야말로 ‘원기회복’을 위한 음식이었다. 건더기가 없더라도 뼈나 고기를 우린 국물 또한 평소 먹기 어려운 고급 음식이긴 마찬가지. 농사를 위해 꼭 필요했던 소, 달걀을 꾸준히 낳던 닭에 비해 특별히 인간에게 기여하는 게 없던 개들은 복날이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개장국’으로 요리되던 게 불과 몇 십 년 전이다. 그때는 ‘없어서 못 먹던’ 그 고기, 오래 전 인식이 지금까지 이어져 그 시절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마저도 조금 더 집착하게 하는 원인이 됐을 터.

시대가 바뀐 지는 한참 됐다. 이젠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골라 먹어야 할 지경이다. 그렇다고 그저 많기만 하다면 줄이자는 제안이 설득력 있을 리 없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리는 일, 왜 필요할까?

인간 멸종이 다가온다

‘기후위기’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육류 생산과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선뜻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

2006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놔 세상을 놀라게 했다. 자동차와 전철,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나오는 걸 합쳤을 때가 13.5%였다. 벌써 17년 전 이야기다.

이제 과학자들은 지구의 평균기온이 1.5℃만 더 오르면 인간의 힘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러시아 영토의 65%에 달하는 영구동토층의 얼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치명적인 병원균이 지표로 방출되고, 지구의 열돔 현상으로 지구 가열은 더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다고 해도 지구는 스스로 계속 뜨거워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9년 BBC에 따르면 8월 15~21일 고작 일주일 사이에 아마존 우림에선 95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했고, 그 원인으로 가축방목과 사료작물 재배를 위한 토지 개간성 인위적 산불이 꼽힌다.

소고기 고작 1kg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곡식 7kg. 그리고 물 10톤. 더 많은 육식을 위해 나무를 베어버리고 인간이 얻은 것은 조금 더 빨라진 멸종위기다. 그리고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선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 받고 있다.

‘원기회복’ 음식은 옛 말

인도의 과학자들이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 양쪽 모두 암을 유발하는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aflatoxin)’을 투여했다. 이후 한쪽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20% 함유된 먹이를, 다른 쪽에는 동물성 단백질이 5%만 함유된 먹이를 지속적으로 먹였다.

연구결과 단백질이 20% 함유된 먹이를 먹은 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간암에 걸렸고, 5%만 함유된 먹이를 먹은 쥐들은 한 마리도 간암에 걸리지 않았다. 여기서 단백질 20%는 서구인들이 평소 식사에서 섭취하는 양이다.

이 연구결과는 콜린 캠벨과 토마스 캠벨이 쓴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정리돼 있다. 저자는 50년 이상 건강과 영양 연구를 해온 미국 코넬대 제이콥 굴드 셔먼 석좌 명예교수 콜린 캠벨과 그의 아들인 가정의학 전문의 토마스 캠벨. 단백질과 암 발생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석학이다.

이들은 책에서 단백질이 암을 발생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다만 식물성 단백질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만 암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다양한 실험으로 증명한다.

콜린 캠벨 박사는 “질 높은 단백질로 알려진 동물성 식품은 건강을 보장하지 않고, 채식으로 단백질을 얻기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대중이 육식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연구에선 많은 양의 식물성 단백질을 투여해도 암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채식은 곧 ‘자비’의 실천

우리는 정육식당을 비롯한 수많은 고깃집에서 한 손에 프라이팬을 든 채 밝게 웃고 있는 돼지 · 소의 캐릭터를 만나곤 한다. 손님들이 식당에서 보다 즐겁고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한 하나의 장치다.

사회심리학자인 멜라니 조이 박사는 저서 〈우리는 왜 개는 사랑하고 돼지는 먹고 소는 신을까〉에서 육식주의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규정한다. 육식 정당화의 함정을 ‘3N’으로 정리하는데, 육식이 정상적이고(Normal), 자연스럽고(Natural), 필요하다(Necessary)는 논리가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한다는 뜻이다.

공장식 밀집사육시설에서 살아가다 도축돼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과정을 그린 황윤 감독의 영화 ‘잡식가족의 딜레마’에선 공장식 축산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황 감독에 따르면 암돼지는 비좁은 감금 틀에 갇혀 인공수정으로 새끼를 낳고,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 도살장에 보내진다. 또한 새끼돼지들은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상처내지 못하도록 이빨과 꼬리가 잘린다. 축사에선 피부병약, 장 치료제, 각종 호흡기 치료제, 심장약, 호르몬제와 항생제 등 수많은 약병을 마주한 황 감독이다. 양돈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숨졌다는 뉴스도 접하는 지금의 현실.

고대 인도 전역에 퍼져 불살생과 비폭력을 강조했던 덕목 아힘사(ahimsā).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 ‘삼정육(三淨肉)’이라는 극히 제한적인 육식만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혹자는 “불교에서도 육식을 허용했다”는 논리를 펼치지만 이는 육식을 정당화하려는 핑계에 불과하다. ‘삼정육’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대한 육식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으로 봐야 한다.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나투신 의미를 돌아보는 부처님오신날 봉축기간. 매일 마주하는 밥상에 올라오는 음식들이 부처님 가르침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한번 돌아볼 때다.



이젠 비건(vegan) 시대

조계종 CJ 손잡았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CJ제일제당이 4월 18일 서울 조계사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사찰음식 현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사찰음식 공동개발 및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것.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고 사찰식 본연의 맛을 살린 무(無) 오신채 만두의 개발을 필두로 향후 다양한 사찰식을 손쉽고 편하게 맛볼 수 있도록 가공식품 형태로 공동개발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 처음으로 공개된 제품은 사찰식 왕교자다. 벌써부터 "채소의 씹는 식감이 가득하고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잡은 끝맛이 일품"이라는 입소문이 자자하다. 사찰음식계의 새바람을 몰고 오고 있는 '사찰식 왕교자'와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양한 사찰식을 살펴봤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고기가 없다"…사찰 만두, 집에서 만나다

조계종 사업지주회사 ㈜도반HC(대표이사 지현)와 ㈜CJ제일제당이 누구나 일상에서 간편하게 K-사찰식 제품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사찰음식 현대화에 나섰다. 그 첫 결과물은 바로 '사찰식 만두'다.

만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간식'이자 식사, 심지어 야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탄생하게 된 '사찰식 왕교자'는 엄선한 양배추와 무, 숙주, 호박, 콩, 청양고추 등 자연 재료에 소금과 후추, 친환경소재로만 맛을 내 자연의 순수한 맛을 담았다. 동물성 원료 없이도 풍성한 맛이 일품이다. 無오신채는 물론이요, 자연 재료로 맛을 내다보니 콜레스테롤 0%로 부담도 없앴다. HACCP 인증 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되고 있어 더욱 믿음이 간다.

특히 조계종 스님들과 함께 만들어 낸 제품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 국내 사찰음식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 진관사 스님들의 감리 아래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정통 사찰식 만두를 공동 개발한 것. 1년 반 동안 깐깐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그 맛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진관사에서 스님과 신도들이 먹는 정성이 담긴 레시피로 만들어져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다.



사찰식 만두가 출시될 수 있었던 것은 CJ제일제당이 식물성 전문 브랜드를 론칭하면서부터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출시하고 식물성 식품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만두를 비롯해 떡갈비, 주먹밥 등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내보이며 비건 식품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상익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도 4월 19일 도반HC와 진행된 업무협약에서 "비건음식 열풍이 불면서 사찰음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협약으로 사찰음식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만두로 출발하지만 더 많은 식품을 발굴해 대중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앞으로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사찰식 왕교자를 시리즈로 발전시켜 채수와 함께 끓여 먹으면 맛있는 물만두와 손만두, 군만두 등으로 확대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사찰식왕교자'는 온라인 승소몰(https://www.seungso.co.kr)과 승소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 가능하다. (02)720-1786

사찰식 왕교자 맛있게 먹는 법

• 수탕조리 스님 추천

1. 냄비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열을 가합니다.
2. 물일 끓기 시작하면 해동시키지 않은 냉동 상태의 만두를 넣고 약 7분간 끓여줍니다.
*조리 시 끓는 물과 냄비가 뜨거우니 주의하십시오.

• 에어프라이어 조리

1. 에어프라이어를 약 180℃로 예열합니다.
2. 봉지에 해동시키지 않은 냉동상태의 만두 6알과 식용유 20~30ml(밥숟가락 2~3 숟가락) 정도 넣고 흔들어 줍니다.
3. 기름이 코팅된 만두를 에어프라이어에 겹치지 않게 놓고 180℃에서 약 10분 동안 조리합니다.
4. 만두를 뒤집어 180℃에서 약 5분간 더 조리해줍니다.
*에어프라이어 조리 시 뜨거운 열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 찜요리

1. 찜기에 적당량의 물을 붓고 열을 가합니다.
2. 물이 끓기 시작하면 해동시키지 않은 냉동 상태의 만두를 찜기에 올리고 뚜껑을 닫은 후 약 7분 동안 쪄줍니다.
*찜조리 시 뜨거운 물과 스팀에 주의하십시오.

곧 출시되는 다양한 사찰식들

사찰식 잡채

자연자료 그대로의 조화로움

사찰식 잡채는 자연이 주는 다채로운 고명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은 불교수행의 핵심적인 요소인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고추와 버섯, 우엉, 숙주, 당근 등 재료 그대로의 조화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찰식인만큼 당연히 파, 마늘, 부추, 흥거, 달래 등을 사용하지 않은 '無오신채' 음식이다. 여기에 CJ제일제당이 오랫동안 개발해 온 달콤짭조름한 비법 간장양념의 기술력으로 낸 감칠맛은 덤이다.

다듬고, 삶고, 지지고, 볶는 것 없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맛내기가 까다로울뿐 아니라 번거로운 재료 준비 과정을 미리 마쳤다. CJ제일제당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3분 데우기로 든든한 잡채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CJ제일제당은 사찰식 잡채를 시리즈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리즈는 아삭한 우엉과 홍고추의 산뜻함을 지닌 우엉잡채와 버섯의 향긋한 풍미와 식감의 조화를 살린 버섯잡채, 콩단백의 씹는 식감을 살린 불고기 잡채 등으로 구성됐다.

CJ제일제당 측은 "불교수행의 핵심적인 요소인 생명에 대한 감사함을 담았다"면서 "고추, 버섯, 우엉, 숙주, 당근 등 자연재료 그대로의 조화로움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나눔공양밥

공양의 참된 정신, 베풂

"흰 쌀밥 한 그릇, 그 어떤 공양보다 귀한 공덕입니다."

나눔공양밥은 결손아동, 홀몸어르신 등 직접 밥을 짓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너무도 많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나눔 트렌드로 햇반 형태의 공양밥을 개발, '편리하고 안전한 나눔공양밥으로의 나눔'을 계획하게 됐고 위험한 불 없이 어느 누구라도 간편하고 빠르게 따뜻한 밥을 손쉽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한다는 계획이다.

출시 후에는 '소원 담아 공양밥 캠페인' '사찰 및 복지재단 기부' 등 다양한 공양밥 문화 캠페인도 구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를 통해 대한불교조계종과 천 년을 함께할 파트너십 구축도 기대하고 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 지역 쌀 활용 등 조계종과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고민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측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보시"라면서 "나눔공양밥은 자비의 밥이 돼 전국 어려운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콩고기

100% 식물성 단백질

사찰식 만두와 잡채 등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콩고기다. 콩고기는 CJ제일제당의 차별화 기술력을 담아 100%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다. 환경과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는 불교 정신을 담으면서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사찰음식이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식물성 대체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CJ제일제당이 개발한 'CJ단백질(CJ TVP)'은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물성 소재로 대두·완두 등을 배합해 만들었다. 이를 이용해 다양한 비건 만두를 선보이고 있다.

"일상서 쉽게 즐기는 사찰식문화 만들 것"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



"일상에서도 쉽게 사찰음식을 즐기는 식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찰식 만두가 출시되기까지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CJ제일제당과의 협업에 대해 "시대감각에 맞는 사업 추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주혜 스님은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푸드 열풍에 힘입어 한국표 채식주의가 주목받자 사찰음식이 한국만의 독특한 채식문화로 손꼽히고 있음을 간파,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첫 결과물인 '사찰식 왕교자'는 사찰식 본연의 순수한 맛을 담았을 뿐 아니라 간편성에서도 합격점을 받고 있다. 전국 교구본사를 포함한 말사와 복지관 등 유관기관들에서 관심을 갖고 구매, 판매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출시를 앞두고 있는 다른 사찰식들도 탄력을 받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소임을 시작해 사업부장으로 6년차를 맞은 주혜 스님은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종도들이 만족할 수 있고 종단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알 것 같다"면서 "도반HC와 CJ제일제당은 상호간 고품질 식문화의 공동개발을 위해 힘써 조계종 스님과 종무원, 신도들을 위해 공헌, 앞으로도 각각의 소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기획·출판사·미디어 등 도반HC 산하의 4개 법인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업무 점검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종단과 사찰, 종도들을 위한 일이기에 모든 이익 또한 종단과 사찰, 그리고 종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업지주회사 (주)도반HC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67, 전법회관 1층
전화 02-720-1786 | 팩스 02-720-1788 | www.seungso.co.kr

CJ 제일제당 | 승소(僧笑)

스님들이 드시는 그 맛 그대로,
정통 사찰식 만두
왕교자 출시!

스님들의 6번의 감리 끝에 탄생한 고품질 정통 사찰식 만두가 5월 출시되었습니다.
사찰식 왕교자는 전화주문 및 승소매장과 승소몰(www.seungso.co.kr)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 좋은 6가지 채소가 듬뿍
청양고추로 깔끔하게 잡은 끝맛
스님의 레시피를 온전히 담아내다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興天寺

사부대중일동

삼각산 흥천사에서 기도하시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주소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전화** 02)929-6611~2 **팩스** 02)921-1626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화계사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선 덕 견향
주 지 우봉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 www.hwagyesa.org

구국성사 용성진종대종사
대각사상으로 수행·포교하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무심 보광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임원 일동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본점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0길 87
목동 사무국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371
전화 (02) 765-2701 팩스 (02) 741-1385





미래세대에 오셔서 중생을 구제해 주시는 미륵부처님을 모신 봉선사 미륵전에 나만의 부처님을 모십니다.
동참문의 : 031-527-1951

조 실 월운 해룡 회 주 밀운 부림
주 지 서성 초격 부주지 오봉 도일
문화원장 성일 종책실장 덕암 총무국장 혜복
기획국장 도일 교무국장 법등 재무국장 성의
사회복지국장 법륜 문화국장 혜각 호법국장 자공
포교국장 해륜 연수국장 탄현 종무과장 자거
교구신도회장 벽송 김남명 신도회장 이도피안
사부대중 일동

뿌리깊은 종단, 보람여는 교구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사무실 : 031-527-1951~2, 529-1950
종무실 : 031-527-5974 팩스 : 031-527-1958
홈페이지 : www.bongsunsa.net

부설 운영기관 학교법인 광동학원(광동중.광동고.의정부광동고), 연꽃유치원,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남양주시 일시청소년쉼터, 경기 남양주 아동전문보호기관. 구리 인창경로식당, 구리 실버인력뱅크, 학대피해 아동쉼터 희망둥지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불자전용 메신저 비톡은
다양한 제휴 혜택과 불자들의 경제활동을
위한 불교 장터/불교 콘텐츠 등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포교를 통한 부처님 법 전합시다"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행
신도회장 자연
사부대중일동
부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 거주시설 녹향원
청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대궁 어린이집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우리말 금강경 특별기도 영험도량
수 국 사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23길 8-5 (구산동)
전화 02)356-2001 / 팩스 02)359-6297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교 구 장 능 원
부교구장 종 원
부교구장 세 봉
대한민국 육 · 해 · 공 군 군 승 일동
대한민국 국 군 불 교 총 신 도 회 일동
대한민국 국군 예비역 불자 연합회 일동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흥제사 건립불사
01 군불교 총본산!
• 장병, 마음의 쉼터이자 귀의처 흥제사.
• 군승법사의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자 군장병의 불교문화 체험공간 입니다.
02 호국불교 근본도량!
• 민족과 함께하는 호국기원도량 흥제사.
•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 던진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도량 입니다.
03 미래불교 산실!
• 다양한 계층 아우르는 포교도량 흥제사.
• 지역민의 신행차이자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와 함께하는 수행도량입니다.
동참계좌: 국민은행 477401- 01-237619
대한불교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동참문의: 군종특별교구 종무실 02-797-7266
계룡대 호국 흥제사 조감도
육해공군 삼군본부가 있는 계룡대에 군불교 총본산이 될
호국 흥제사가 건립됩니다.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달빛이 운치를 더하는 소박하고 편안한 절
대한불교조계종
만월산 현 덕 사
주 지 현 종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싸리골길 170
전화 033)661-5878 팩스 033)662-1080
www.hyundeoksa.or.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27일 (토, 음 4.8)
벽 암 지 홍
신도회장 환희지 이난희
법회 및 기도 안내
일요법회 매주(일)10:30
호법법회 매월 첫째주(수) 10:30
초하루신중기도 매월 음력 초하루 10:30
지장재일기도 매월 음력 18일 10:30
유관기관 안내
행원 사회적협동조합
보리수 지역아동센터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시립 하안누리어린이집
시립 새론어린이집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YouTube 금강정사
대한불교조계종 금강정사
주소 경기도 광명시 설월로58(소하2동 341-2) | www.sejon.org
전화 02)898-8200 | 팩스 02)898-1844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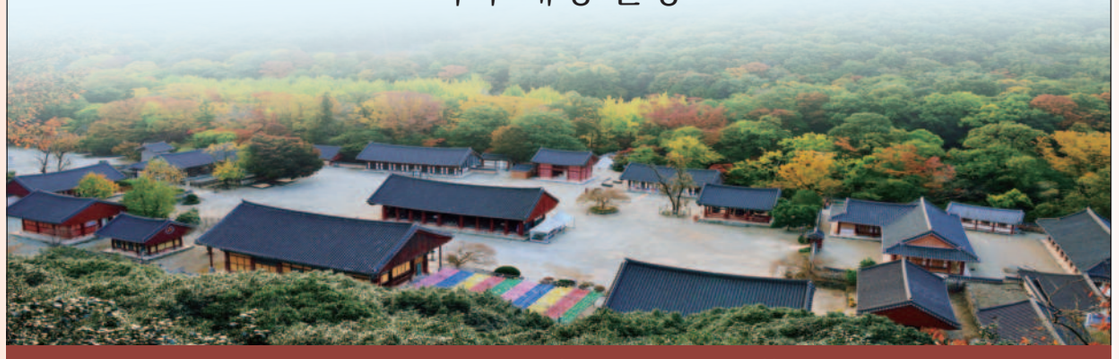
기도와 수행, 복지와 문화공동체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
- 승려노후수행마을
- 고창 푸드마켓
- 선운기초푸드뱅크
- 고창군 건강 ·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선운사 템플스테이
-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고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 고창군 노인복지관
- 선운사 불교체험관
- 고창군 노인복지센터
- 선운교육문화회관
  - 고창 시니어클럽
  - 갤러리 리유
  - 명상학교 '보리수 아래'
  - 공동육아나눔터
  - 고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반야스터디 카페
  - 담마 북까페

주지 **경우**

사부대중일동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 063)561-1422 http://www.seonunsa.org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실	금산도영	총무	화평	사회	우림
회주	취산도법	교무	석초	포교	응묵
주지	월강일원	재무	제환	호법	덕림
부주지	시산원혜	신도회장	한광수		

17교구 사부대중 일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Tel. 063)548-4440~2 Fax. 063)548-1390
www.geumsansa.org

부설 전북불교회관 | 서원노인복지관 | 룸비니 어린이집
전주혁신도시 전법도량 수현사

영산작법보존회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회장	혜 안(작법보유자)
부회장	도 홍(지화장엄보유자)
교육원장	정 호
조교수	법 정
총무	법 진
재무	지 오
감사	법 원 정 수

영산 작법 보존 회원 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한국불교태고종 전북종무원

종회의장	법 전	종무원장	진 성
수석부의장	청 명	부원장	연 수
부의장	혜 일	총무국장	현 진
종회의원	법 륜, 원 경	교무국장	법 성
	송 월, 혜 담	재무국장	지 오
	도 홍, 법 운	문화국장	법 진
	혜 신, 혜 경	주재기자	문 선 희
	원 만, 정 수		
	보 경, 법화심		

전북종도일동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인봉1길 11
전화 063)285-9700 팩스 063)282-1536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주지 재안

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북 군산시 동국사길 16 전화 063)462-5366

'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33 관음성지'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능가산 **내소사**

주지 **진성**

사부대중일동



전북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전화 063)583-7281
내소사 템플스테이 063)583-3035

대체육 개발 '불가피' 불교적 해석은 '과제'


사진 = shutterstock

이젠 비건(vegan) 시대

대체육 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

동물성 대비 가격경쟁력 높여야
'맛' 위한 나트륨 문제도 해결과제
최근 배양육 기술에 업계 관심 커
종교별 접근은 걸음마 단계 수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축산업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을 거듭했고, 고기가 부족하지도 않은 세상에서 대체육은 왜 탄생했을까. 대체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싹을 튼 건 축산업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원인이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기 위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만 20kg이 넘고, 초식동물인 소가 트림이나 방귀로 배출하는 메탄가스도 상상을 초월한다. 배설물 역시 마찬가지.

공장식 축산업이 기후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면서 대체육은 지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진보적인 정체성을 갖게 됐다. 이로 인해 2019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대체육 개발 기업 '비욘드미트(Beyond Meat)'는 공모가의 10배에 달할 만큼 주가가 올라 대체육 시장이 하나의 산업군으로 형성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곧이어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체육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체육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점차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비욘드미트의 주가는 지난해 12월 최고 주가 대비 80% 이상 폭락했고, 결국 전체 직원의 20%가량을 해고해야만 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대표적인 원인을 대체육의 부족한 가격 경쟁력에서 찾았다. 엔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가치소비'라는 의미를 두고 대체육을 찾던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멀어졌다. "그 가격이면 차라리 진짜 고기를 먹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그렇다고 해도 대체육 시장의 전망이 어두운 건 아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넘어 곤충을 이용한 대체육 개발, 세포배양육 생산 등 보다 기술적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대체육 생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제26회 식량안보세미나 내용을 중심으로 대체육 시장의 미래를 짚어봤다.

식물성 단백질-생산 효율성 과제

당시 '세계 식물성 단백질 자원의 생산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김민수 애그스카우터 대표는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과 유제품이 향후 10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의 5%와 10%를 각각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세계 판매는 2020년 294억 달러에서 2030년 162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MZ세대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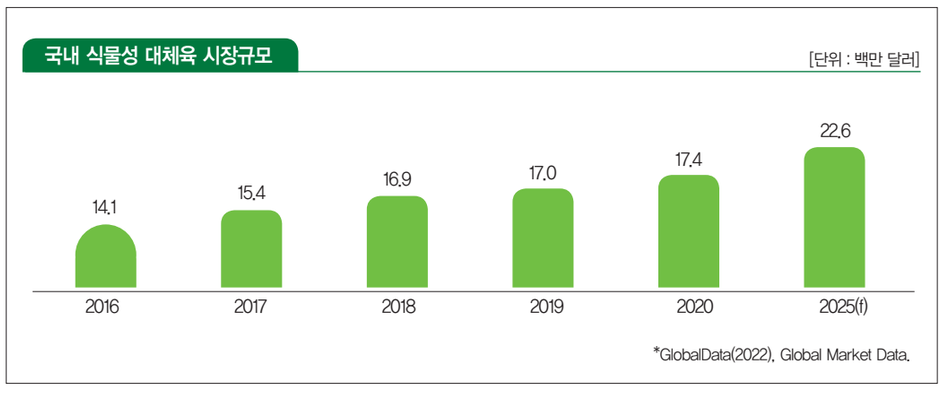
김 대표는 "초기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과 스타트업, 대규모 식품 및 육류 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져 식물성 단백질 식품에 대한 많은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며 "외식업체의 관심, 글로벌 식품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식물성 단백질 식품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 최대 식물성 단백질 식품 시장인 미국의 경우 2020년 식물성 단백질 식품 매출액이 70억 달러로 27% 상승했으며, 대체육 산업은 45%, 대체우유 산업은 20% 성장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내에서 식물성 식품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체 식품 판매 성장률을 앞질렀다는 점이 눈에 띈다.

김 대표는 식물성 단백질 산업의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기존 동물성 단백질 식품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기업의 생산 효율성 증대를 꼽았다. 앞서 비욘드미트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며 위기를 겪은 것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맛, 풍미, 식감 등에서 동물성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기술적 보완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특히 나트륨 함량 과다와 갖은 향신료 사용, 글루텐 문제, GMO 사용 여부 등으로 소비를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어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김 대표는 "지속 가능성, 건강, 종교적 가치, 환경 및 동물 보호 등의 이유로 동물성에서 식물성 단백질로의 수요가 변화해 고단백 대두와 완두에 대한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식용곤충도 대체육 소재로

남성희 국립농업과학원 곤충양잠산업과장은 인구 증가,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난과 환경 파괴를 해결해줄 대안으로 식용곤충에 주목했다. '곤충 이용 식품 및 대체육 소재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남 과장은 "이미 전 세계 20억 명이 1900여 종의 식용 곤충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식용곤충 대량생산의 장점으로 △생산단계서 적은 온실가스 발생 △단위면적당 우수한 생산성 △영양학적으로 단백질 및 불포화지방산 풍부 등을 제시했다. 또 현재 세계 식용곤충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26년까지 15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에선 2014년 이전 메뚜기, 누에 유충 · 번데기, 백감장 3종만 식용으로 허용됐지만 이후 4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반식품원료로 등록됐다. 최근에는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가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돼 총 10종의 곤충을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남 과장에 따르면 단세포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 단백질 개발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스위스의 에센토는 식용곤충 건조물과 단백질 바를 판매하며, 곤충을 이용한 버거 패티도 제조한다. 이케아는 딱정벌레 유충으로 만든 버거와 미트볼 조리법을 비롯한 미래형 음식 조리법 20가지를 담은 요리책을 출간했다. 국내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단백질 보충제, 에너지 바, 시리얼 등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세포배양으로 만든 인조육

식물성 단백질이나 식용곤충에 비해 세포배양육은 비교적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기술이다. 한국축산식품학회가 2021년 펴낸 〈축산식품과학과 산업〉 10권 1호에는 배양육에 대한 산업계 동향과 안전 문제 등을 주제로 한 글이 실렸다.

숙명여대 위해분석연구센터와 식품영양학과 오혜민 · 성미선 · 신지은 · 윤요한이 쓴 '배양육 기술 개발 현황 및 안전에 대한 문제'에 따르면 배양육은 기존 가축생산 방식이나 다른 축산물 대체식품에 비해 차별화된 가치를 가진 미래 유망 식품소재다. 자원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이 낮고, 생산 공정 중 배양육 내 영양소를 인체에 유익한 물질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기존 육류와 유사하고, 실제 식육의 제조가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다.

국외에선 199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돼 미국 배양육 개발업체인 '잇저스트'는 배양육 제조기술을 활용한 닭고기를 생산해 2020년 최초로 싱가포르에 판매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선 벤처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 ·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유전자 편집 기술에 따른 불안정성, 미생물 오염 등이 문제로 제기된다.

전 세계 종교인이 절반을 넘는 지금, 배양육은 일반적인 식물성 단백질로 구현한 대체육과 달리 세포를 배양한다는 점에서 종교적인 측면의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살코기를 먹기 위한 수단으로 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논의가 없는 상황. 지난달 동국대 식품생명공학과 박유헌 교수와 동국대 교법사 자헌 스님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푸드(Nature Food)에 '배양육에 대한 불교적 시각(Buddhist perspectives on cultivated meat)'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 논문은 불교가 배양육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견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먹을 것'에 대한 지침이 종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유헌 교수는 "이 논문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에 배양육에 대한 화두를 던지기 위한 발판"이라며 "현재 불교적 관점을 담아낸 추가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전통 축산업은 점차 규모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대체육이 새로운 먹거리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불교는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대한불교조계종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주지 연 성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113번길 11
전화 062)961-1080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일암

주지 연규

사부대중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

대한불교조계종

지리산 천은사

주지 대 진



전남 구례군 광의면 노고단로 209
종무소 061-781-4800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사성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구례군 문척면 사성암길 303 전화 061)781-4544

대한불교조계종

용흥사

주 지 덕유

사부대중일동



전남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574
전화 061)382-0574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보물 제1842호 관음사 목조보살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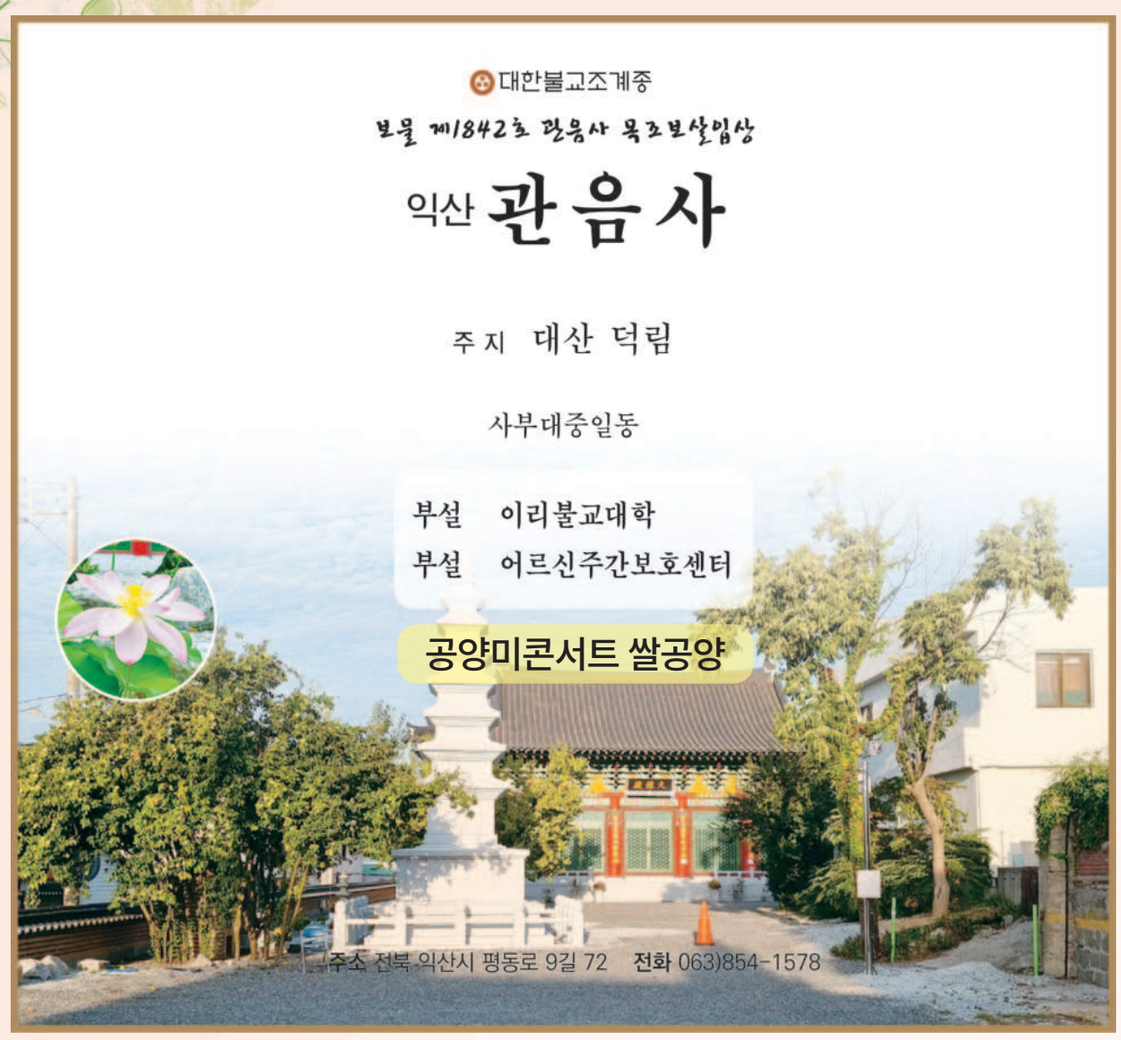
익산 관음사

주지 대산 덕림

사부대중일동

부설 이리불교대학
부설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공양미콘서트 쌀공양



주소 전북 익산시 평동로 9길 72 전화 063)854-1578

나의 참맘을 붓다, 사랑을 붓다, 행복을 붓다, 나눔을 붓다, 부처님 법을 붓다

신비의 령산 마이산 탑사

주지 청파 진성 스님

총 무 정원
원 주 연심화
교무국장 보문
사회국장 대련
문화국장 추파
복지국장 정진
전법국장 정이
신도회장 윤복길 감로수

붓다 봉사단장 이재현 수암 사) 붓다(복지센터)
탑밴드 음악 봉사단장 천순희 천수행 재) 마이산탑사 갑룡장학회
소년원 어머니회 위원장 김도은 청운행 사) 문화법인 한지등 장엄
소년원 어머니회 지원회장 정해자 혜안행 사) 재백(전북베트남교류증진협의회)
교도소 교정 봉사단장 박성균 진실행 사) 착한벗들(다문화지원센터)
군부대 지원 봉사단장 변상경 청진 사) 진안자원봉사센터
해외구호 봉사단장 황동현 청야 사) 전북녹색환경연합
무료급식소 국수나눔 운영단장 김동우 청우
사) 전북문화관광연구소 남상준 강암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 남로 367 마이산탑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260 붓다복지센터

홈페이지 : http://www.maisantapsa.com
이 메 일 : maitapsa@hanmail.net / 팩 스 : 050-4775-7807
공 유 폰 : 010-4335-7807 / 일반전화: 063-433-0012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대한불교 관법조계종 총본산 여래사
사)한국불교사회복지재단 여래원

회주 명암 대종사
종도 일동



각 지역교구 및 종도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중공사로 화합하고 상생하실
종도 스님들을 모십니다.
종도가 되시어 치유명상센터
명상지도자양상과정, 다도(茶道) 등을 전문적으로
함께 공부하고, 동공발원 동공성불을 기약해 보십시다.
시절인연에 맞는 불교문화 창조!
[제출서류: 사찰등록신청서, 기본증명서, 증명사진 등]

명상 힐링 도량!
총본산에서 합동기도 봉행
8개국 불교국가와 MOU 체결
명상/힐링/치유/음악과 함께

사)대한불교 관법조계종 총본산 화악산 여래사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청도면 요고3안길 138
접수처: 055)354-0398, 353-0398 팩스: 055)354-0418 회주 스님: 010-3862-0398



침향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고품질의 침향(Agarwood)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직접 생산,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학향료, 염료, 접착제 등은 일체첨가하지않은 천연의 향입니다.
진정한 침향의 향기를 느껴보세요.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습득

전 종도 일동 합장

총본산 경남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만수산 승가사 총무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곡로 15번길 5(서래암) 전화 051)552-8554, 556-0278~9 팩스 556-8551 seunggajong.co.kr

CJ 사찰식 왕교자 1.05㎏ 10,500원



신성민 만두계의 평양냉면. 고기만두, 김치만두, 갈비만두 등 자극적인 만두만을 먹어왔던 속인에게 처음에는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젓가락을 내려놓고 나면 다시 생각나게 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 ★★★★★

윤호섭 첫 맛은 물음표(?), 먹다보면 물결표(~), 다 먹으면 느낌표(!). 오신채마저 없는 완전한 사찰식 느낌이지만 있는 듯 없는 듯 청양고추가 "나도 있어"라고 조용히 손을 드는 느낌. 비비고 왕교자보다 가격은 살짝 더 높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다. ★★★★

임은호 첫인상만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사찰식 만두도 마찬가지네요. 사실 처음 냄새는 호감이 아니었지만 먹을수록 손이 가는 맛이랄까. 특히 양배추의 새로운 발견입니다. 진관사 스님들 따따봉~ (게다가 만두피는.. 역시 믿고 먹는 비비고 만든 CJ 아니랄까봐 쪼온득~) ★★★★★

노덕현 무오신채를 특징으로 하였지만 교자의 맛을 내기 위해 살짝 매콤함이 느껴졌다. 아이와 먹기에는 그부분이 마음에 걸린다. ★★★★

풀무원 식물성 철판불고기 볶음밥 9,900원 4인분



신성민 일단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어 편하다. 콩고기를 활용한 냉동볶음밥이라서 다이어트용으로도 좋을 수 있겠다. 근데 나트륨이 좀 높은 것이 흠이라면 흠. ★★★★☆

윤호섭 첫 입부터 "나 철판 볶음밥이야!"라고 외친다. 솔직히 냉동볶음밥이라는 음식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어쭈 이것 봐라?' 싶은 음식. 1인분을 나눠 시식하고 혼자서 1인분을 더해먹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 불향도 가격도 다 잡은 개인적 원 픽. ★★★★★

임은호 전자레인지서 나올 때 냄새 맡고 "우아", 음식 빛깔 보고 "헐스" 마지막으로 한 수저 떠먹고 "띠용". 이거 뭐야 하면서 계속 퍼먹음. ★★★★★

노덕현 현대인들의 선호가 늘고 있는 인스턴트식품계의 채식단이란 점에서 채식문화 확산에 도움은 될 것 같다. 하지만 인스턴트식품으로서의 단점은 명확하니 이에 대한 구별은 필요해보인다. ★★★

빈트 비건 뉴욕 핫도그 스테이크맛(150g) 9,900원



신성민 비건인 듯 비건 아닌 듯 한 오묘한 매력. 조리방법도 전자레인지 넣고 돌리면 돼서 매우 간편하다. 그런데 굳이 뉴욕 핫도그를 비건으로 먹을 필요가 있을까. 가성비, 가심비도 떨어진다. 그래서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

윤호섭 '비건식 맞아?' 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한 음식. 전자레인지에 넣고 잠깐 돌리면 되는 간편함, 그리고 진한 소스맛은 장점. 다만 소스에 모든 게 가려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기는 어려웠다. 빵도, 소시지도, 소스도 비건인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 가격이라면 경쟁력이 너무 없지 않을까. ★★

임은호 핫도그 사랑하는 1인입니다. 한때 직장상사 때문에 빡칠 때마다 회사 옆 건물 1층에 있던 스**핫도그를 애용했는데요, 그 집 없어지고 헛헛함이란.. 그런데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줄 핫도그가 나왔네요. 지금 주문하러 갑니다~ 단, 가격이 많이 사악해서 별 좀 뺄게요. (난 주머니 가벼운 직장인이니께) ★★★

노덕현 비건의 단점을 가리기 위해 소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가공소스맛으로 먹는다면 비건의 장점이 묻힌다고 본다. ★

만두부터 핫도그까지…'비건 신세계'

이젠 비건(vegan) 시대

불자에게 추천할 비건 제품들

식물성(Plant-based), 비건(Vegan) 키워드가 식품 · 외식업계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친환경 · 동물보호를 위한 윤리적 소비 트렌드와 기업들의 ESG 경영 전략이 맞물리면서 비건이나 식물성 대체 식품 등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추세다. 이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대체 식품 개발에 나선 스타트업들도 식물성과 비건 등을 내세운 레스토랑을 속속 오픈하며 고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비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식품기업들간 경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현대불교신문 기자 4명이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비건 식품들을 시식했다. 정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베지가든 궁중 너비아니 냉동 300g 13,010원



신성민 너비아니는 상고시대부터 내려온 고기구이 요리인 맥적(貊炙)이 그 시초이니 제품의 어원에 맞지 않는다. 죄송. 원고량 때문에 어그로. 그냥 내 취향은 아니다. ★☆

윤호섭 '못 생겼다고 놀리지 말아요.' 해동을 위해 그릇 위에 꺼낸 그 모습, 그냥 네모반듯한 블록 같이 생겼다. 전체적으로 특별히 향이 강하지 않고 담백한 맛이다. 첫 입 이후 천천히 씹다보면 적당히 감칠맛이 느껴진다. 간단한 소스가 있다면 한 끼 반찬으로도 크게 손색은 없을 듯. ★★★☆

임은호 콩고기 너비아니는 처음이다. 콩고기 특유의 냄새가 상당히 덜하고, 숯불향 그윽한 건 신기하지만 식감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쫀득 플러스 플리즈~ ★★

노덕현 아이들 반찬에 내놓고 콩고기 얘기를 안하면 쫄깃함이 떨어지는 일반 떡갈비 정도로 느껴질 수준. ★★★

비욘드 소세지 400g 19,900원



신성민 대체육으로 만들어진 소세지라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식감도 풍미도 생각보다 괜찮다. 안주로도 좋다. 다만 전자레인지가 아닌 일일이 구워 먹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설거지 거리를 안 만들려하는 자취생들에겐 좀 귀찮을 수 있다. ★★★★

윤호섭 아이돌그룹 몬스타엑스의 셔누가 먹으면서 유명세를 탄 제품. 고기맛을 내기 위해 향신료를 많이 넣은 것 같다. 스모크향도 첨가했는데 겉면에 비해 안쪽은 꽉 찬 느낌보단 퍼석한 느낌. 소시지를 좋아해도 단독으로 먹기보단 빵이나 채소와 어울리는 게 좋은 접근이지 않을까. 개당 5천원이라는 가격이 구매를 망설이게 한다. ★★★

임은호 비건 음식을 먹는 이유 중 하나는 다이어트도 있는 거 아니었나요? (전 비건도, 다이어터도 아니어서 잘 모름) 요리 중 기름이 줄줄 나와서 까암놀, 씹었을 때 밀도 없이 퍼석히 부서지는 느낌은 좀 당황스럽지만 '맞아 이건 콩고기야' 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먹을 만합니다. ★★

농심 야채라면 4개입 6,320원



신성민 건면이니 건강에도 좋을 것이고, 야채향도 무난. 맵지 않아 좋다. 칼로리도 350kcal로 낮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도 '제로' . 나트륨이 걱정된다면 스프 양을 조절하면 된다. 근데 양이 작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 그런가. ★★★★

윤호섭 '맵찔이' 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순한 라면. '진순' 이라 불리는 라면계의 순한 맛과 비교했을 때 유탕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다 가볍게 먹을 수 있다. 면발도 컵라면처럼 얇아서 얇은 면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다. '라면은 라면다워야 한다' 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에겐 오히려 마이너스. ★★★★

임은호 8살 딸내미 입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성분, 맛, 칼로리 다 따져가며 집착하는 엄마입니다. 한마디로 평하도록 하죠..그래, 이정도면 우리 딸이 먹어도 되겠어.. ★★★★

노덕현 분말에 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부분 외에 튀기지않은 라면이라는데 주목하고 싶다. 라면이 아닌 깔끔한 생면국수 느낌을 찾는 이에게 추천. ★★★

K-명상 간화선 국제선센터
대한불교조계종
문경세계명상마을
회 주 의정 대종사
선원장 각 산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원북큰마길 30-27 | wmv0408@naver.com | ☎ 1577-4327

코스요리부터 비건빵까지 '저탄소 식사' 어떠세요?

이젠 비건(vegan) 시대

우리 안의 사찰 · 비건 음식 전문점

전 세계적으로 채식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윤리 소비 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MZ세대를 중심으로 채식(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물건을 구매하는 가치 소비, 환경 보호, 동물 윤리 등과 맞물리며 '저탄소 식사'로도 불리는 채식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자리 잡았다.

비건이라고 해서 풀만 올려주는 음식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진짜 고기 같은 식물성 패티로 만든 버거나, 불향을 입힌 야채, 치즈 등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다양한 메뉴 등 건강한 재료로 만든 코스요리부터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차림까지! 몸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사찰 · 비건 음식 맛집을 소개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건강하고 정갈한 밥상

'두수고방(斗數庫房)'은 넷플릭스 '셰프의 테이블 시즌3' 출연과 뉴욕타임즈로부터 '철학자 셰프'로 불리며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사찰음식의 대가 정관 스님의 철학을 담은 공간이다. 정관 스님은 천진암 백양사에서뿐 아니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과 교감하며 교류하고자 2019년 신도시 광교 '핫플'에 사찰음식점을 열었다. 직접 제철 식재료를 준비하고 전통 발효 조미료를 사용해, 정성이 가득 담긴 손맛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다. 소박한 제철 밥상으로 운영하다 현재는 코스로 진행된다. '콩'을 주제로 수제 두부와 콩비지까지, 셰프가 직접 눈앞에서 만들어주는 콩 요리로 운영되며 100% 예약제다. 한가지 식재료를 주제로 셰프가 직접 요리하는 음식을 원테이블에서 즐기는 코스 메뉴를 만날 수 있다.

9코스 메뉴 100,000원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80 앨리웨이광교 어라운드 라이프 3층 031)548-1912



자연의 맛을 코스요리로 즐기는 사찰음식

발우공양은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2009년부터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이다. 발우공양의 다양한 메뉴는 사찰에서 면면히 전승되고 있는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사찰음식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 대표 메뉴 '원식'은 술적심, 죽상, 상미, 담미, 승소, 유미, 입가심 7가지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사찰 전통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코스요리는 자극적이지 않고 건강한 맛을 자랑한다. 2017~2019년 3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는 발우공양은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쿠킹클래스도 진행한다. 음식과 더불어 사찰음식의 전통과 문화를 함께 음미할 수 있다.

선식 30,000원 원식 45,000원, 마음식 65,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56 템플스테이정보센터 5층
02)733-2081 www.balwoo.or.kr



사찰 분위기 그대로

가게 이름처럼 깊은 산속에서 자라는 야생초와 산나물에 화학첨가물을 쓰지 않고 자연의 맛을 살린 요리들을 만날 수 있다. 한옥 구조를 살린 매장 곳곳에 놓인 불상, 연등, 종 등의 소품들이 도심을 벗어난 사찰 분위기를 자아낸다. 대표 메뉴 '산촌 정식'은 7가지 산채 모둠 나물을 메인으로 산채 잡채, 더덕 무침, 고소 나물, 튀각 등이 곁들임 찬으로 나온다. 신선한 야생초와 산나물로 산채 만든 모둠 나물은 씹을수록 향긋함이 묻어 나온다.

산촌 정식 점심 33,000원, 산촌 정식 저녁 45,000원,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30-13
02)735-0312



사찰음식부터 비건 베이커리까지!

지역에서 채식 맛집으로 소문난 아승지는 100% 예약제로 식사를 진행하는 사찰 음식점이다. 대표 메뉴는 별도의 메뉴 없이 그때그때 메뉴가 바뀌는 '아승지 정식'으로 곁들임 찬과 연잎 쌈밥이 나올 때도, 밥과 반찬으로 구성된 한정식으로 나올 때도 있다.

철저히 비건 철칙을 지키는 여러 종류의 빵도 판매하고 있다. NO 우유, NO 버터, NO 계란, NO 밀가루, NO 화학첨가제, NO 정제설탕, NO 동 · 식물성 휘핑크림으로 매일 빵을 굽는다. 우리 땅에서 자란 팥과 통, 잡곡 등 국산재료를 고집한다.

아승지 정식 30,000원, 비건 베이커리 3,000~5,000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76 1층 02)836-8442



자연 재료로 만든 힐링 밥상

강진군은 자연식을 추구하는 식문화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강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년 3월, '도반'을 개관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간을 맞추는 것도 최소화했다. 육류는 물론 향이 강한 오신채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담백하고 깔끔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음식 재료는 강진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다. 비빔밥부터 두릅튀김이나 호박채전, 취나물 잡채, 구절판, 황금팽이두부선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코스까지 다양한 요리를 맛볼수 있다.

점심 10,000원 코스1 정진+요리5품 식사 후식 30,000원
전남 강진군 강진읍 오감길 2 누리타운3동
061)432-6665 gangjintemplefood.com



향긋한 연잎 향 가득

2011년 '백련사찰음식 연구소'를 시작으로 한국 전통 자연 채식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 메뉴인 '한상차림 런치/디너 세트'는 죽과 샐러드, 우엉 잡채, 오늘의 전, 표고 탕수, 연밥 정식으로 구성됐다. 연잎 속 찰밥이 들어 있는 연밥은 은은한 연잎 향이 풍미를 더한다. 후식으로 배 냉면과 연잎 차가 나온다. 마지는 이 빠진 그릇이나 잔을 버리지 않고 다듬을 음식을 내고 물티슈도 사용하지 않는다. 자투리 야채와 껍질까지 모두 사용해 야채수를 만든다. 음식물 쓰레기를 내지 않고 일회용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환경에 관심이 있는 MZ세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늘의마지 10,000원, 고급코스 40,000~60,000원,
서울 종로구 지하문로5길 19
02)536-5228 templefood.com



비장하지 않은 채식

서울 이태원 해방촌에서 사찰음식점 '소식'을 운영했던 안백린 셰프가 '비장하지 않은 채식'을 꿈꾸며 2020년 6월 문을 열었다. 천년식향의 대표 메뉴는 둘이다. 식물성 고기와 채소를 다진 양념들을 넣어 떡갈비 모양으로 빚고, 식물성 버터와 마라 소스, 눅진하게 끓인 채수와 함께 내는 '플레저 앤 데인저(Pleasure and Danger)', 불맛 나게 구운 당근과 퓌레, 갈릭 사워도우가 곁들여 나오는 '베러 댄 섹스(Better than Sex)'다. 제철 채소와 비건 버터, 치즈를 사용하고 간장, 쌈장 등 한국적인 소스들을 주로 활용한다.

파스타 27,000원, 5코스 99,000
서울 서초구 효령로 316-1 3층 010-6323-7231
www.instagram.com/millennial_dining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문 장 은산 종국
회 주 송천 종열
주 지 초암 덕문

신도회&사부대중일동

주소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전화 종무소 061)783-7600 기도접수처 061)782-0011 www.hwaeomsa.com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행복나눔 성취도량

창원 미타사

부처님 품안 행복세상에서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전법실천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지 선 해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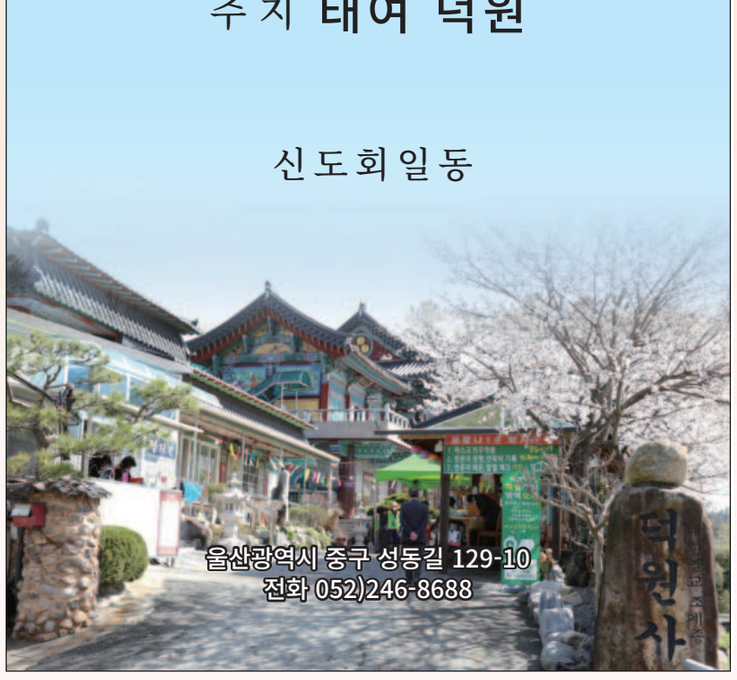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 말사

울산 덕원사

주지 태여 덕원

신도회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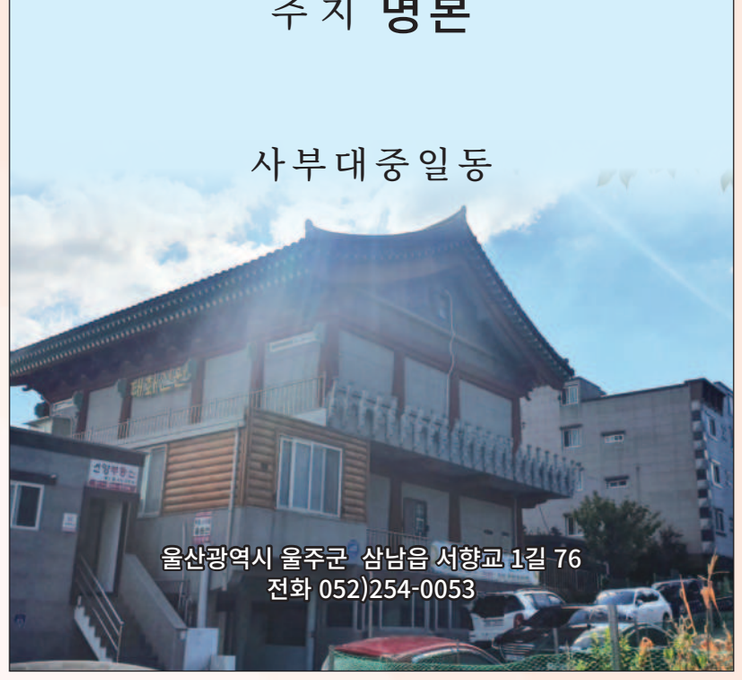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울주 태화선원

주지 명본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영축총림 통도사 창원포교당

저절로 되는 절 안국사

주지 성오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동남로26
T. 055.255.1080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울산포교당

울산 해남사

주지 혜원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경남지역단

단장 박해덕

감 사 홍승운 최선옥
수석부단장 이용복
부 단 장 최성환 안정임
중부총괄팀장 정선희 서부총괄팀장 박효종
동부총괄팀장 김임자 북부총괄팀장 김종복

경남지역단 임원외 포교사일동



대한불교 능인종

사부대중일동

총무원 :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905-13(청룡사)
055)585-5300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할인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남산둘레길 걸으며 생명존중·환경보호도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

2. 생명나눔 걷기명상 대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나눔실천본부는 5월 1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 일대에서 '제14회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참가자 1000여 명은 4km를 걸으며 싱그러운 봄 내음을 만끽했다.

선명한 초록의 싱그러움과 봄 내음이 가득한 남산 일대가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알리는 1000여 명의 발길로 가득 찼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5월 13일 서울 동국대 만해광장과 남산공원 북측순환로에서 '제14회 생명나눔 걷기명상 축제'를 개최했다.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아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4km 둘레길을 걸으며 시원한 봄바람과 맑은 하늘을 만끽했다.

올해로 14회차를 맞은 생명나눔 걷기명상 축제는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널리 전파해 자살 및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함은 물론, 생명존중 문화 확산으로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나눔실천본부가 2008년부터 개최해 온 대규모 행사다. 코로나19로 잠시 멈추었다가 지난해 다시 재개했다. 특히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축제는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기 위해 걷기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h) 활동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이날 축제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대종사와 이사 명신 스님을 비롯해 정현숙 생명나눔 후원회장, 개그맨 엄용수 홍보대사,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본격적인 대회에 앞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이날 걷기대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발원했다. 일면 대종사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계절, 남산 숲길을 따라 걷는 생명나눔 걷기대회가 벌써 14회째를 맞았다"고 감격을 전하고 "걷기명상을 통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 소통과 배려, 공감의 따뜻한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 명신 스님은 축사에서

5월 13일, 동국대서 개최
회원 학생 등 1000여 명
생명존중 문화 확산 기원
환경보호 위한 '플로깅'도
각종 체험부스들 인산인해

"화창한 봄날,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생명나눔 걷기명상이 많은 이들의 참여 속에 열리게 돼 기쁘다"면서 "오늘 걷기명상을 함께 하는 모든분들이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남산 길을 걸으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용수 홍보대사는 "걸어야 달릴 수 있고, 달려야 날을 수 있다"면서 걷기 운동 예찬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았다.

걷기대회는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북측순환로 4km를 걷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박종우 생명나눔 홍보위원회장의 힘찬 징 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했다. 아장아장 걷는 아이의 손을 잡는 가족과 손잡고 걷는 노부부, 친구, 연인 등 걷기대회 동참자들은 남산에서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며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는 시간을 보냈다.

한번씩 둘레길에서 만난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도 했지만 참가자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손을 끌어주며 봄내음 가득한 남산 둘레길을 함께 넘었다. 청정 자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쓰레기가 보이면 줍고, 재활용은 분리하며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지인의 추천으로 걷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에서 출발했다는 윤성한(60)씨는 "생명나눔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장기기증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걷기대회를 회향한 후 참석자들은 축하공연을 함께 즐겼다. 마하무용단의 한국무용 축하공연과 함께 동국대 댄스동아리 두둠칫의 화려한 퍼포먼스, 한양라인댄스팀의 열정 무대가 이어졌다. 회향 전에는 추첨을 통해 자전거와 전기밥솥 등 푸짐한 경품 증정도 이어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른 아침부터 만해광장 일대 마련된 20여 개 부스에서는 꽃 압화, 태권도 격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대표 해성 스님이 이끄는 압화 체험 부스에는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참가자들이 모여들었다. 또 생명을 주제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와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생명의 가치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건강과 재미가 함께한 시간"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날씨가 덥긴 했지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함께 걸으니 기분이 좋아지며 힐링도 됐다"면서 "많은 이들이 서로 양보하며 질서정연하게 함께 걸어준 덕분에 오늘 행사가 무탈하게 잘 끝났다"고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산 숲길을 함께 걷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체험활동을 통해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의미 있는 행사로 참가자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존중 문화가 더욱 성숙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생명나눔실천본부는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를 통해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탄 이소원 가수를 홍보대사로, 이한규 주간불교 주간을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위촉하고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또 ARS 060-703-1133 통화를 통해 소외이웃을 위한 기부를 독려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1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징 소리에 맞춰 만해광장을 출발, 남산으로 향했다.



정현숙 후원회장이 이끄는 마하무용단의 축하공연 등 신명나는 무대도 함께 열렸다.



20여 개 부스에서는 꽃 압화, 태권도 격파,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을 통해 '국악소녀'로 유명세를 탄 이소원 가수가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제29회 생명나눔 천도재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신 분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원의 호국영령들의 영가를 축원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신심있는 불자님들께서는 천도재를 통해 부모 · 형제, 인연 있는 영가 분들의 극락왕생도 기원할 수 있으니
많은 동참바라며, 모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시 2023년 6월 6일 (현충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경기도 남양주시)
행 사 인간문화재 전수자 초청 살풀이, 바라춤, 나비춤 시연
접수안내 문 의 | 생명나눔 (02)734-8050, 불 암 사 (031)527-8345
현장접수 | 불암사
접 수 비 | 영가 한 분당 2만 원
입금계좌 | 농협 053-17-001346 (입금 후 전화바랍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이 사 장 일 면 / 후원회장 정명선화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신도회장 전보현자

제4차 생명나눔 홍보위원회 총회
| 일시 | 2023년 6월 6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위원회 회장 박종우 홍보위원회 사무총장 최상균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용화사

주지 종묵

템플스테이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봉수로 107-82(봉평동404)
전화 055)645-3060, 649-3060
템플스테이 : ts6463090@templestay.com

대한불교조계종

가락고찰 불모산 장유사

불교대학 졸업생 및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70-563(대청동)
전화 055)314-2799

대한불교 원효종

벽 선 암

주지 홍법혜진

벽산암 신도회

사단법인 야단법석



울산광역시 북구 동산길 36-6
HP) 010-5101-0093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봉원사

주지 지 태

사부대중일동



경남 마산합포구 현동305
전화 055)241-5333

대한불교조계종

창녕 관룡사

주 지 정 안
관룡사 불교대학 회장 박선혜심
부 회 장 하행원
총 무 김다보행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화왕산관룡사길 171
전화 055-521-1747

대한불교조계종

화왕산 도성암

불교대학, 예향다회

주 지 만천대휴

신도회장 안홍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녕군 창녕읍 송현리 8번지
전화 055)533-2073

한국불교태고종

불감 정관암

주지 대활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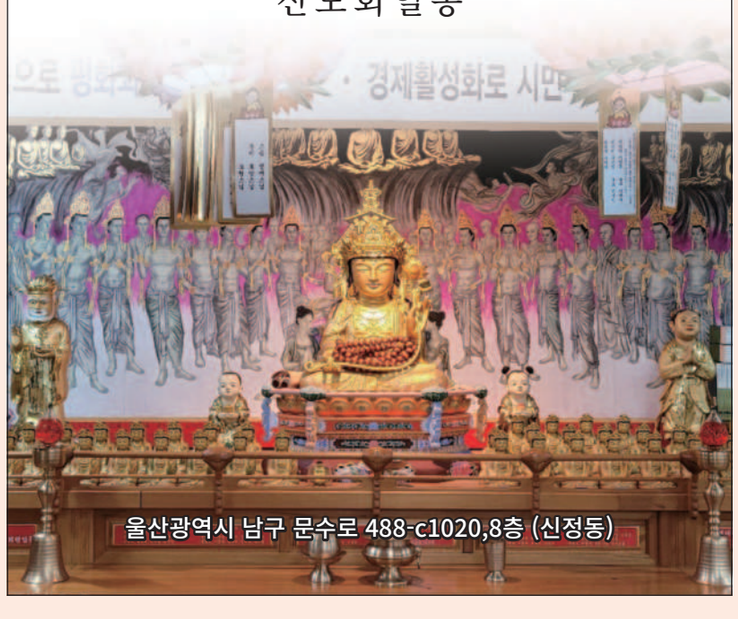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발길118(하작마을)
010-4517-0097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주지 효 암

신도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488-c1020,8층 (신정동)

대한불교진각종

울산 정지심인당

주교 선덕정사

금강회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183번길33(신정동131-4)
전화 052)271-5212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운 흥 사

주지 월 암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옥천사 **청 련 암**

사부대중일동

보리수동산
정토만일봉사회
53구법성순례단

경남 고성군 개천면 연화산 1로 430-34
Tel 055)672-0078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망 운 사**

주지 성 각합장

신도회일동

경남 남해군 남해읍 남서대로 2240번길 708
전화 055)863-3095 팩스 055)863-3096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진불선원

禪불교대학 | 시민 선방



사부대중 일동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호로 112
(구. 도지사관사 사거리)
TEL. 055)275-3222

대한불교조계종

행복기도도량

지 장 정 사

주지 현 우

사부대중일동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137번길 28
전화 052)256-3552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장유전법도량

동림선원
동림불교대학 동림선림원

주 지 은암신공

신도회장 김정행심

사부대중일동

경남 김해시 대청계곡길 168-14
전화 055)325-400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 안

사부대중일동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이다.
- 대행선사법어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26-12(천곡동)
전화 052)295-2335 팩스 052)295-2336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 연

사부대중일동

자기의 주인공이 바로 부처다.
- 대행선사법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45-230
전화 055)643-0643 팩스 055)643-064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중부경남지원

사부대중 합장



경남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35
전화 055)342-6639, 345-9900 팩스 055)346-2179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통도사

창포교원 **구룡사**

주지 **무 성**

사부대중일동

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56번길 31-1(소답동 909)
전화 055)294-3279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산 **내원암**

주지 **진 응**

사부대중일동

경남 울주군 온양읍 대운상대길382
전화 052)238-5088



대한불교조계종

동대산 **성불사**

회주 **만 상**
주지 **혜 안**

신도회일동

울산시 북구 아랫율동2길 262-70
전화 052)287-7200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불교신도회**

회장 **이영수**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신라천명고찰 밀양중심사찰 호국불교성지

무봉사舞鳳寺

주지 **일관(一寬) 천주(天柱)**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태고종

경남교구 종무원

원로의원	구하 (관음정사)	종무원장	환명 (약수암)
원로의원	지현 (해경사)	종무부원장	도각 (선암사)
자문위원	서산 (보광사)	종무국장	자명 (석봉암)
자문위원	월봉 (석봉암)	교무국장	법조 (보현사)
자문위원	세명 (관음정사)	재경국장	명성 (보광사)
자문위원	법안 (청량사)	규정국장	혜각 (수도사)
자문위원	옥산 (화엄사)	문사국장	법윤 (불정사)
자문위원	법철 (세심사)	종회의장	정광 (문수암)
자문위원	석봉 (백운사)	종회부의장	자범 (옥골사)
포교위원장	황봉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정광 (문수암)
감사위원장	성각 (기원정사)	중앙종회의원	혜우 (봉연암)
교육위원장	석봉 (백운사)	중앙종회의원	보행 (법운사)
선거관리위원장	만우 (법성사)	중앙종회의원	청호 (관음사)
		중앙종회의원	자범 (옥골사)
중부분원장	혜우 (봉연암)	중부분원 총무	자명 (석봉암)
서부분원장	백현 (금봉사)	서부분원 총무	자운 (여여암)
남부분원장	자명 (자명암)	남부분원 총무	근해 (무상사)
밀양분원장	승범 (해광사)	밀양분원 총무	지원 (부은사)
김해분원장	정광 (문수암)	김해분원 총무	무진 (보현정사)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로 119 현대오피스 1201호
전화 055)298-3634 팩스 055)298-3638

고성 **약수암**

주지 **수운 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대가면 연지4길 279-71
055)674-7598



대한불교조계종

와불산 일출봉
약사여래도량

오도암
적멸보궁

회주 **외산 지성**

시회대중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법륜사

회주 **눌암 지정**
주지 **향원 남수**

신도회일동



고승 진영·괘불·판화…사찰 박물관 전시 '눈길'

전국 성보박물관 부처님오신날 맞아 특별전 잇달아

박재완·신성민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의 역대 고승 진영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통도사 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20일부터 7월 2일까지 제1, 2 기획전시실에서 '통도사 고승 진영 특별전-진면목'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영각과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진영 80여 점과 관련 유물 30여 점이 전시된다. 특히, 통도사 고승 진영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눈길을 끈다.

자장 율사가 통도사를 개창한 이래 1300여 년 동안 수많은 고승들이 통도사에 주석하며 법을 펼쳤다. 오래된 사찰의 역사만큼이나 통도사는 국내 사찰 가운데 가장 많은 100여 점의 고승진영이 전래되고 있다. 그간 고승들의 진영들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옛 화원은 영정을 그릴 때 "터럭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 便是他人)"라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형상을 그리되 정신을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진영에 그려진 고승들의 모습에는 서릿발 같은 선풍(禪風)으로 영축산을 호령했던 정신이 담겨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역대 고승들의 진영을 시대 순으로 전시하며 고승들의 찬, 행장 및 자료, 유물 등을 함께 정리·전시한다.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은 "이번 전시는 통도사 고승들의 진면목을 찾는 중요한 전시다. 진면목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베끼고자 하여도 베낄 수 없고 그리고자 하여도 그릴 수가 없다"면서 "통도사가 더욱 빛나는 역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송천 스님은 "조선후기 진영 제작기법과 양식 등의 연구와 함께 진영에서 드러내고자 했던 진리의 정수를 탐구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길 없는 길 속에 행적을 살펴보고 마음속의 정성을 다하여 감히 조사들의 현묘한 깨달음의 이치를 조금이나마 궁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의 '영산회괘불도'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일반에 공개된다.

해인사성보박물관(관장 관암)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최근 보존처리를 완료한 경남 유형문화재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를 친견전시를 6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5월 15일 밝혔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는 해인사에 주석하며 많은 불화를 제작한 화승인 서암당 전기(瑞庵堂 典琪) 스님을 필두로 우송당 상수(友松堂 爽洙)·두명(斗明)·정건(正建)·문성(文性) 스님 등이 1892년 조성한 것이다.

화면 중앙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며, 문수·보현보살과 가섭·아난존자, 사천왕이 좌우 2위씩 배치되어 있는 다소 단순한 구도이나, 섬세한 표현으로 세련미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양 보살의 어깨선을 굵게 표현하여 부처님의 앞에 서있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입체감을 잘 표현한 불화다.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는 해인사 대적광전에 안치돼 있었으며 야외법회 때 대적광전 당간에 걸었다. 최근 보존처리를 마치고 성보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를 위해 해인사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됐다.

해인사성보박물관장 관암 스님은 "가정의 달인 5월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해인사와 해인사성보박물관을 찾아 우리 문화재를 살펴보며 역사와 전통을 느끼고,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교도상의 향연- 동아시아 밀교만다라 특별전'을 개최한다.

'밀교'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밀교의 불보살과 명왕, 천신 등 판화로 만들어진 200여 종의 도상이 소개된다.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출품되는 주요 작품으로는, 〈삼국유사〉에도 등장하는 밀교 문두루 법을 그림으로 볼 수 있는 중국 당 시대 그림을 일본에서 판화로 복가한 승적비사문천왕 판화다.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신라의 명랑법사가 문무왕의 지시로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기도법인 문두루법을 실시하여 당나라 병사들을 물리쳤다는 기록이 글로는 남아 있었으나, 그림으로 표현된 자료는 없었다. 이번에 전시되는 원적비사문천왕 판화를 통해 밀교의 진호국가 의례가 당나라 때부터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송과 원대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비단에 목판으로 찍은 문수보살상은 범어가 들어있는 다섯 명왕이 오방으로 문수보살을 호위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특히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의 판각 솜씨가 돋보이는 빼어난 작품성으로 인해 동 아시아 고판화의 뛰어난 작품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만한 작품이다.

일본의 국보인 공작명왕상은 일본의 자랑인 목판 인쇄술을 자랑하기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1904년 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만국박람회에 출품되어 금패를 받은 작품이다. 대형 공작명왕상 불화판화는 판각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화는 그리는 작가들을 위한 불화 초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의 작품으로는 고려시대 판각된 금강계, 태장계다라니와 유가심인도가 돋보이며, 500여 년 전 제작된 것으로 밀교의식을 종합해서 보여주는 안심사 제진언집(강원도 유형문화제)과 만연사판 중간진언집이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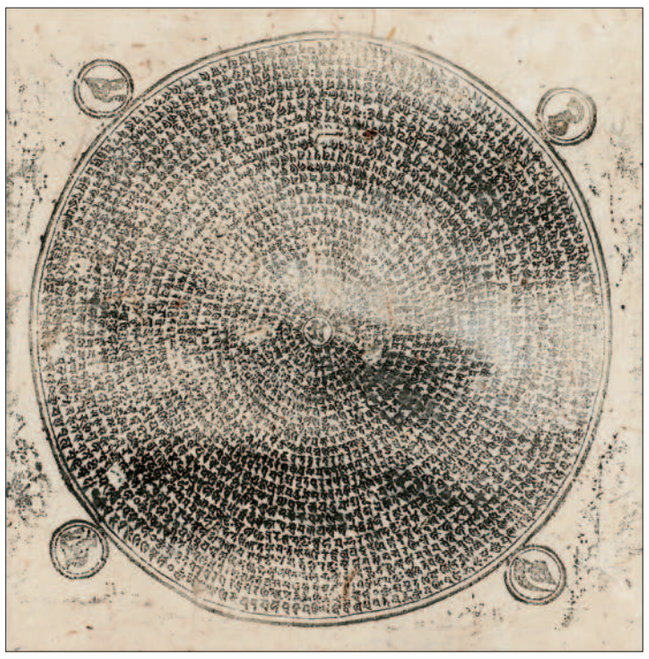
한선학 관장은 "이번에 기획한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 개관 20주년 기념 2번째 대규모 전시회로, 특히 그동안 수집된 고판화박물관 유물 6000여 점 중에서 불교회화사와 판화사에서 주목받는 '밀교'와 관련된 목판과 전적, 불화 판화 등 200여 점을 선별했으며, 관련학자들과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동아시아인들이 꿈꿔왔던 현생에서 성불하는 즉신성불의 길인 밀교의 세계를 고판화를 통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동양 문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
7월 2일까지 '고승 진영 특별전'
80여 고승 진영 일반에 첫 공개

해인사 성보박물관
6월 11일까지 '영산회괘불도' 전시
최근 보존처리 완료… 친견 기회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8월 31일까지 밀교만다라 특별전
고려代 금강계 등 200여 종 선봬


합천 해인사 영산회괘불도.


한국-태장계다라니(고려시대).


자장율사.


환성지안.


청허휴정.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창원 정인사

주지 원 행

함께하는마음 즐거운세상
사회복지법인 금강
금강어린이집, 정인사불교대학,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금강노인문화센터(금강노인종합복지본관),
경상남도 노인보호 전문기관(경남학대피해노인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118
전화 055)299-5450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주지 보문 지암

사부대중일동



경남창원시 진해구 웅동로 121번길 67
전화 055)547.6355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덕산사

주지 동 조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하 내원로256
전화 055)973-6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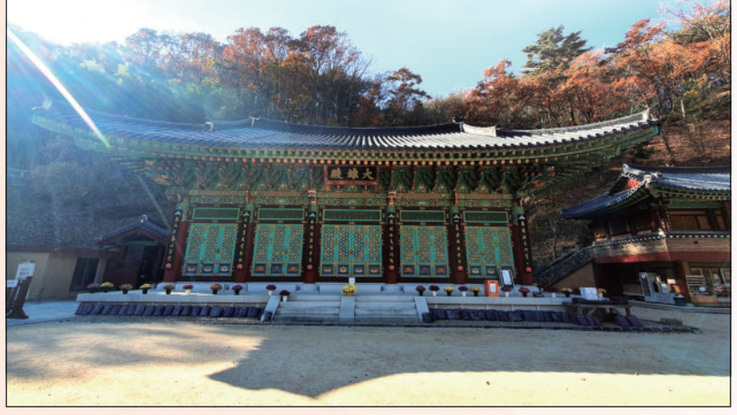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양산 내원사

주지 지도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207
전화 055.374.6466



대한불교조계종

신어산 은하사

회주 서림 대성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일동

부설
서림불교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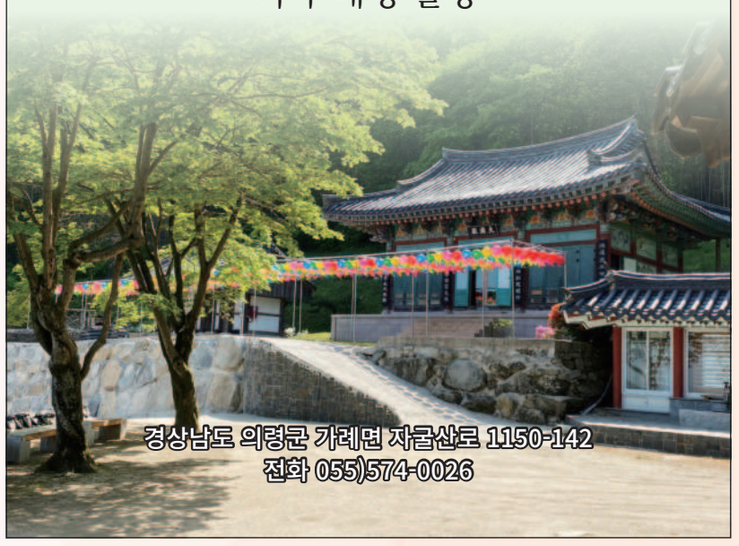
경남 김해시 신어산길167
전화 055)337-0101~5

대한불교조계종

의령 백련암

주지 도 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자굴산로 1150-142
전화 055)574-0026

대한불교조계종

진주 여래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진주성로188번길 29(상봉동)
전화 055)742-6070

대한불교관음종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 여

사부대중일동

❋ 법화경 기도소원성취도량 ❋



경남 진주시 의병로128
전화 055)761-5382

대한불교조계종

통영 연화사

주지 도 법

사부대중일동

경상남도 통영시 진남5길 36
전화 055-645-6683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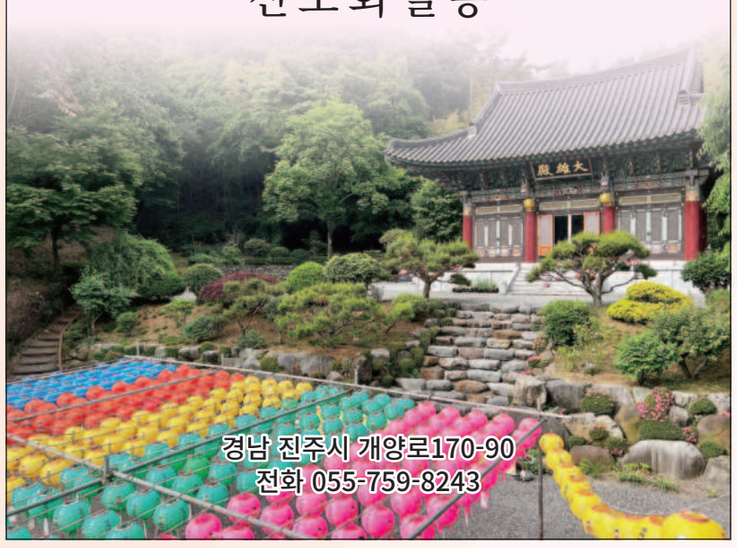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말사

행하면 되는 절

진주 미륵암

주지 담산

신도회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진해 대광사

회주 운성스님
주지 무경스님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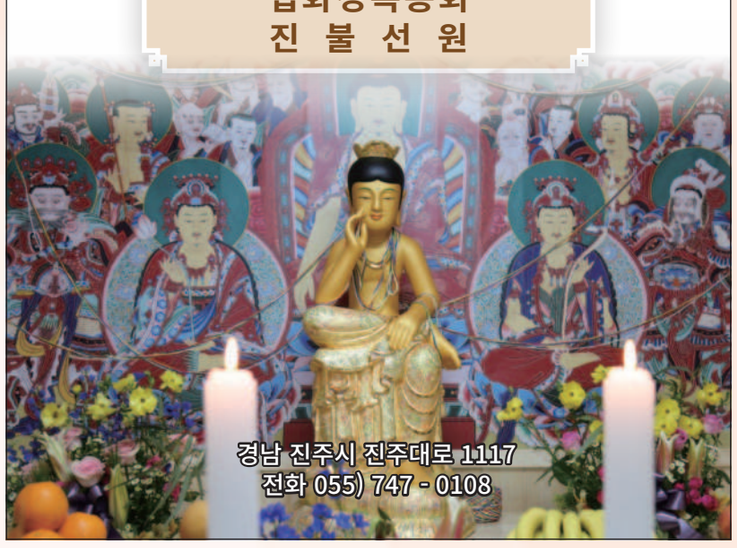


열려있는 불법마당

(사)진주불교회관

이사장 상전 홍수승

가야불교대학
무료급식소 보현의집
법화경독송회
진 불 선 원



대한불교조계종

칠 불 사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내장산 내장사

주 지 대 원

사부대중일동



한국불교태고종

자비실천도량

마이산 쌍봉사

주지 보경

섬김봉사단
사부대중 일동



전북혁신도시 금산사 포교당
전북 불교 미래본부 거점도량

수 현 사
수현불교대학

금산사 회주 취산 도법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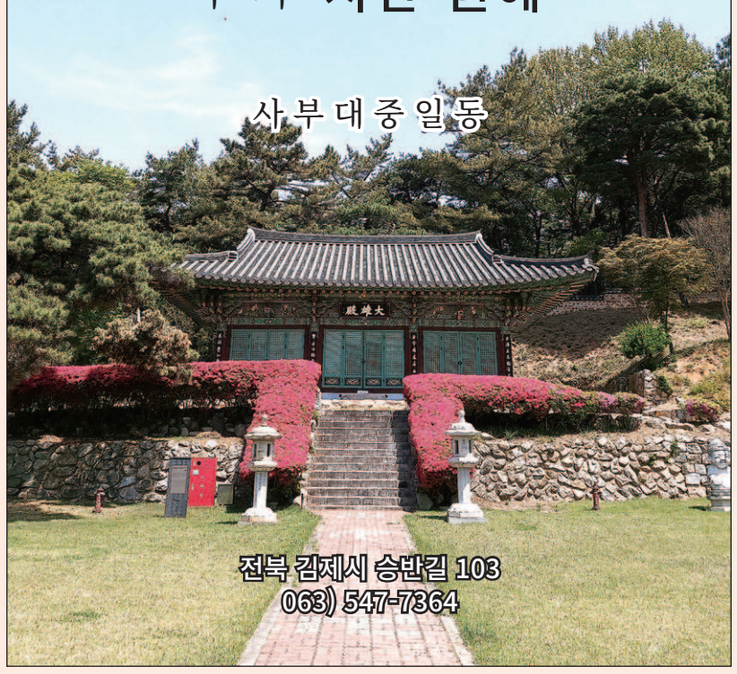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김제 흥복사

주 지 시산 원혜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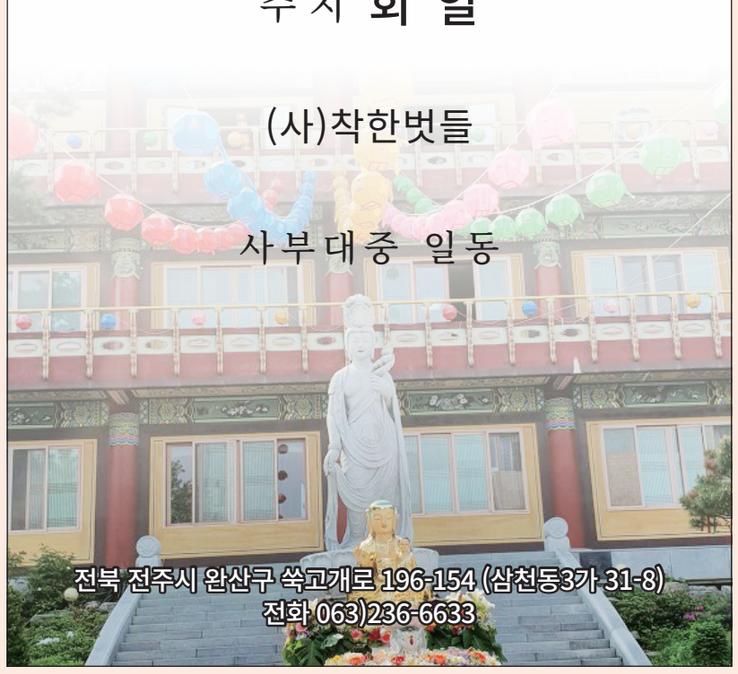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세상

참좋은 우리절

주지 회 일

(사)착한벗들

사부대중 일동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광역시 강서구 불교연합회

고 문 **진철** (숭림사)
회 장 **현엽** (청량사)
기획실장 **자인** (길상사)
수석부회장 **청원** (강서예술촌)
상임부회장 **연담** (용화사)
부 회 장 **정광** (문수암)
진종 (대성암)
사업본부장 **산해** (성불암)
감 사 **심행** (수능엄사)
사무총장 **평산** (산양사)
총무국장 **대일** (여여사)

강서구 불교연합회 회원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29 전화 051)271-2774

부산광역시 동래구 불교연합회

중명대범주 명해(소림사)
고 문 대원(금불사) 도문(전등사)
월봉(효자암) 월강(금어사)
혜성(금강사) 자관(자비암)
직전회장 효문(효심사)
회 장 용하(용문사)
자 문 혜민(천불암)
부 회 장 해운(용수달마사) 취산(무량선원)
범관(몽불사)
감 사 무상(미타사) 정호(해동암)
사무총장 범천(무량사)
재무국장 성화(용와사)
홍보국장 지훈(영주암)
포교국장 법광(무량정사)
문화국장 혜륜(혜륜정사)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321 용문사

부산진구 불교연합회

고 문 월천 혜총
회 장 영제
수석부회장 화산 정현
상임부회장 연산 원타
부 회 장 대유 시광
원상 정사
지명 지원
감 사 태산 보원
재 무 선혜
총 무 해운 도원
의 전 월화 법봉

회 원 백설 인수, 월륜 춘제, 석만 도관,
무심 법지, 승호 원종, 우당 무무,
원여 도경, 안국, 경록 보원,
송현 대원, 덕봉 법진, 진여
상보, 은좌 보현, 보안 지연



대한불교조계종

부산비구니
금 련 회

회장 **혜 덕**

회원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화 엄 회

회장 묘 선

화엄회 회원 일동



화엄회는 자비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
기장 **청량사**

이 사 장 **보 혜**
운영위원장 **최인락**

부산국제차문화교류회 회장 **원영애**
기장차문화대학 원장 **김진옥**
청량선차문화원 **장외숙**
기장꽃차문화원 **이숙자**
외 임원진 일동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밖길 12
(지하철 안평역 4번 출구) / 전화 : 051)723-1851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 미타선원

주지 **하 현**
사부대중합장

맑은 마음 밝은 세상
행복 禪 명상센터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5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 점
전화 051)253-8687~8

대한불교조계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지금선명상센터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서울분원 지금선원

YouTube 불바보TV

주지 목종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73
(로데오아울렛 3층)
전화 051)742-7610 팩스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세계불교 여래종
광 덕 선 원

주지 법 진
총무 박윤자

사부대중일동

부산시 강서구 평강로229번길 24 광덕선원
전화 010-4435-5660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⑲ 뉴델리에서 며칠 ②

▶한줄 요약
천상을 본 후 천상에 나기를 발원하며 수행에 들어갔던 난타는 천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인 지옥을 보게 되고 어리석었던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가기로 한다.



지옥 본 난타, 다시 수행 시작하다

이 거리에 서서 그녀와 짜이를 마시면서 킬킬거렸던 때가?

국립 도서관은 거리가 멀었으므로 서점이나 찾아보자고 했다. 그럴듯한 서점이 없었다. 서점이라고 해야 대부분 열악하고 조악한 편이었다. 꼬질꼬질한 공간에 촌스럽게 제본된 책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입구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는 꼭 숙소의 선풍기를 닮아 있었다. 녹이 슬고 덜덜거리는 것까지. 덕지덕지 묻은 때가 더운 바람을 타고 금방이라도 달라붙을 것 같다. 생각이 그래서인지 갑자기 코가 매웠다. 재채기를 두어 번 하고 나서야 멎었다. 정말 선풍기의 바람 때문일까, 내 의식의 발로일까.

여기서는 오히려 깨끗하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짜증이 일었다. 그때마다 달라붙는 기억의 편린들이 짜증스러웠다. 그런 나라가 아닌가. 겉치레보다는 영혼의 성숙을 노래하는 나라. 서양 문화가 밀려와도 자기 것을 버릴 줄 모르는 나라. 그렇기에 이곳에서는 그들의 영혼이 되어 보는 것이다. 그들의 풍습에 젖고 그들의 문화에 넋을 빼앗겨 보는 것이다. 그들은 시체가 둥둥 떠다니는 갠지스의 흙탕물이 어머니의 젖줄이라고 생각한다. 비로소 그 물속에 손을 담그면 의미를 알게 된다. 아, 이것이 인도구나. 흙탕물이 맑은 한 바가지의 물보다 더 맑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저 신비롭기만 한 나라.

대학에 다닐 때 그녀와 이곳으로 왔었다. 처음에 그녀는 불편해 했으나 점차 이곳 사람이 되어갔다. 이 나라가 그녀의 꿈이 될 줄 그때는 몰랐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싸우고 난 후면 그녀는 이곳에 와 있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보내오던 엽서. 눈 쌓인 히말라야 설산. 그녀를 찾아 이 거리를 헤매던 날들. 결국 그녀는 이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그렇게 떠나갔다.

스리나가르에 있다는 성물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힌두 신앙의 원산지여서인지 대부분 그쪽 글들이 많았다. 돌아와 보니 뜻밖에도 송 서화가가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나름대로 이곳 문물을 체험해 봐야겠다고 나갔었는데 맥없이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왜 그러고 앉았습니까? 들어가지 않고?

-열쇠를 잃어버렸지 뭐요.

-그럼 집주인에게 열어달라지요.

-집주인도 나가고 없는데….

-저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 남자가 어디서 돌아오는 것인지 털렁거리며 왔다. 열쇠를 잊었다고 하자 푸시시 웃으며 어디 여벌 열쇠가 있을 것이라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이내 찾아서 나왔다.

송 서화가는 방으로 들어서기가 무섭게 풀썩 침대로 넘어졌다. 매우 피곤해 보였다.

-어디 갔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사원이나 힌두 사원 닥치는 대로 돌아다녔는데….

-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일은 무슨…. 죽을 지경입니다.

-왜요?

-넨장 이곳 그림 구경을 좀 하려고 돌아다녔는데 기가 막혀서….

그렇게 말하고 그가 웃었다.

-좀 그렇지요?

-정말 모를 게 이곳 사람이더군요. 좀 멀긴 했지만, 시에서 하는 화랑이 있다기에 그곳에 들렀더니 운 좋게도 이곳 화가의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그래요?

-제법 잘 만들었더군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무슨 그림들인지. 영 헷갈려요. 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야지요. 작가들이 쓴 글들도 있었는데 그렇더군요.

-그렇습니다. 나도 오오스마 기자에게 이끌려 좀 돌아다녀 보았는데 그래요.

-잠이나 자야겠습니다.

그의 얕게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커피를 들고 창가로 다가갔다.

3 이 분 마르기 전에 돌아오소서

붓다는 어느 날 제자 사리풋드라를 찾았다.

사리풋드라가 오자 붓다는 이렇게 일렀다.

-대중들에게 가서 일러라. 누구도 난타와는 상대하지 말라고.

-붓다이시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난타 사문과 상대를 하지 말라니요?

-아무튼 그렇게 일러라. 그와는 자리도 같이하지 말라고. 같은 곳에서 거닐지도 말 것이며, 같은 횃대에 옷도 걸지 말 것이며, 같은 곳에 발우를 놓거나 물병도 두지 말 것이며, 같은 곳에서 경전도 독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러라.

-알겠습니다. 붓다이시여.

사리풋드라는 붓다께서 하신 말씀을 모든 비구에게 전하였다.

난타의 하열한 신심을 깨쳐주기 위한 붓다의 생각을 눈치챈 비구들은 한결같이 그 거룩한 뜻을 따랐다.

난타는 그것도 모르고 비구들과 어울리려고 애를 썼다. 누구 하나 그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난타는 계속 비구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그들은 결코 그와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다. 심지어 대놓고 면박을 주기가 일쑤였다.

하루는 사리풋드라와 여러 비구가 공시당(供侍堂)에서 옷을 깁고 있었는데 여러 비구가 싫어해도 라훌라는 사가의 조카이기에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의 곁으로 가 앉았다. 그가 곁에 와 앉자 라훌라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난타는 라훌라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독생자라고 하지만 붓다는 자신의 자식이라고 해서 감싸는 법이 없는지라 마를 대로 말랐다. 궁에서 호의호식할 때는 통통하게 살이 찌더니만 먹거리가 열악하다 보니 몸이 마를 대로 말랐다.

-라훌라야.

-라훌라라고 부르지 마시오. 나는 그대보다 출가를 먼저 한 사형이요 사형이라고 부르시오.

-왜 그래? 너까지.

-어허, 저리 가시오.

-정말 왜 그러느냐?

-아무튼 저리 가라니까요.

-지금까지 다른 비구들이 나를 피하는 건 참을 수 있었으나 너는 내 조카가 아니냐. 아무리 사문의 길에 들어섰다 해도 어떻게 삼촌 되는 사람을 이렇게 갑자기 싫어할 수 있단 말이냐?

라훌라가 지그시 눈을 감았다 떴다. 그리고는 눈을 빛내며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진실로 그 이치를 모르시겠소?

-그렇다.

-그 이치는 이렇소. 그대는 다른 도를 좇고 있고 나는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그 때문에 피하는 것이오.

-무엇을 다른 도라 하고 무엇을 너의 길이라 하느냐?

-그대는 지금 천상에 나기를 좋아하여 범행을 닦고 있는 것이오. 하지만 나는 원적(圓寂)을 구하므로 욕심을 없애고 있소.

어린 조카의 말을 듣고 난타는 그만 그 방을 나와 땅바닥에 그대로 엎어졌다. 천궁에 나려고, 그리하여 손타라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인네나 만나기 위하여 다시 신심을 내어 범행을 닦으려 했던 자신이 너무도 비하스러워 그는 피를 토하듯 땅을 쳤다.

그러나 그의 하열한 신심을 고쳐주려는 붓다의 자비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그 사실을 안 붓다가 그를 불쌍히 여겨 다시 난타에게 다가들었다.

-난타야 너는 나락가(奈洛迦)에 가본 일이 있느냐?

나락가란 지옥을 말하는데 난타는 머리를 내저었다.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리로 가자구나. 내 너의 슬픔에 도움이 되리라.

붓다는 난타를 곧 나락가로 데려갔다. 눈앞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을 보면서 난타는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는 먼저 지옥의 언덕에서 재가 흐르는 강물을 보았다. 그런 다음 칼로 된 나무가 있는 곳과 똥오줌만 가득한 곳과 불로 된 강물이 흐르는 곳을 보았다. 옥졸들이 죄를 짓고 들어온 유정들을 차례로 붙잡아 부젓가락으로 혀를 뽑고, 이를 비틀고, 눈을 후벼 파내고, 톱으로 몸을 썰고, 도끼로 손발을 자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쇠몽둥이로 부수어 가루가 되게 하고, 이글거리는 구리물을 입에다 부어 넣고, 칼로 된 산과 칼로 된 나무에 오르게 하고, 방아에 찧고 돌에 갈며 이글거리는 구리 기둥과 쇠평상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기도 하고, 맹렬한 불에 펄펄 끓어오르는 가마솥에서 유정들을 삶고 있기도 하였다.

난타는 고통 받고 있는 일들을 보고 나서 다시 한 가마솥을 보았더니 그것은 빈 가마솥이었다. 펄펄 끓고 있는 것은 기름뿐이었다. 속에는 유정들이 보이지 않았다. 왜 저것만이 빈 가마솥일까 생각하며 옥졸에게 물었다.

-무슨 이유로 다른 가마솥에서는 모든 유정을 삶고 있는데 왜 이 가마솥만은 끓기만 하고 비어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졸이 고개를 끄덕이다 말고 대답하였다.

-기다리고 있다니요?

-붓다 님의 아우 되는 난타라는 이가 천상에 나기만을 원하면서 범행을 닦고 있으므로 곧 이리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그 복덕으로 천상에 나서 쾌락을 누릴지 모르나 거기서 그 보를 다하면 이곳에 올 것이므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타는 그 말을 듣고 그만 너무 겁이 나서 급히 도망쳐 나오고 말았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려 보니 온몸의 털이 곤두서 있고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붓다에게로 갔다.

-난타야 너는 지옥의 모습을 보았느냐?

붓다가 물었다.

-예 보았습니다.

난타가 울면서 대답했다.

-너는 어떠한 것들을 보았느냐?

난타는 그가 본 지옥세계를 그대로 아뢰었다.

-난타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니라. 그러니 천상을 구하면서 범행을 부지런히 닦는 사람은 이런 허물이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열반을 구하며 범행을 닦아야 하고 천상에 나기를 바라면서 애써 수고하면 안 될 것이니라. 난타는 그제야 깨닫는 바가 있어 부끄러워 고개도 들지 못하였다. 붓다는 그런 그를 데리고 정사로 돌아왔다. 이번에도 붓다는 돌아오는 즉시 여러 비구를 모아 놓고 이런 말을 하였다.

-난타 비구가 수행을 열심히 해도 그를 가까이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그 거룩한 뜻을 알고는 그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수행을 계속하다가 그에 화가 난 난타가 아나율 사형을 잡고 물었다.

-한때는 내 천궁에 미쳐 그릇된 신심을 내었다 하나 이제 지옥 보를 받지 않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또 나를 멀리하시오?

아나율 사형이 그걸 모르겠느냐는 얼굴로 그를 돌아보았다.〈계속〉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전화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054)571-7498
방송국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전화 1670-2010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사상구 불교연합회

회 장 성 림(관음사)
직전회장 성 문(선광사)
부 회 장 호 명(옥천사)
일 도(성불사)
대 둔(용운사)
감 사 법 경(광명사)
고 문 청 강(옥천사)
혜 지(낙은사)
자문위원장 혜 산(봉덕사)
자 문 위 원 은 적(괘법동관음사)
항 공(견강암)
총 무 국 장 도 법(덕포동관음사)

회원사찰주지 대표 운영스님 일동

사상구불교연합신도회

회 장 심 인 택
부 회 장 전 수 덕 정 우 상
자문위원장 장 성 규
봉사위원장 박 유 진
사 무 국 장 김 종 현

각 사찰 운영위원 자문위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50번 나길 80-42(모라동)
전화 : 327-5095 총무국장 : 010-4181-6049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교연합회

고 문 현 각 (서림사), 만 일 (미륵암)
회 장 법 인 (약천사)
부 회 장 혜 원 (성불사), 승 공 (칠보사)
총무국장 송 우 (해장암)
포교국장 자 은 (성불사)
조직국장 보 성 (무학사)
감 사 선 혜 (대부암)
회 원 서 천 (미륵암), 정 홍 (용주암)
지 화 (감로암), 지 효 (남운정사)
능 인 (성불사), 능 선 (보경사) 외 회원일동

사하 사암 무료급식소

복지회 회장 이경애

약천사, 성불사, 대부암, 길상사, 해장암,
무학사, 칠보사, 용주암, 감로암, 이경애

▷ 운영시간 :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 후원계좌 : 부산은행 101-2007-6614-08
사하사암 무료급식소

사하구 불교신도연합회 회원 일동

부산광역시 사하구 윤공단로75번길 28(다대동) 약천사 전화 (051)24-1936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정종원
상임고문 최주덕
고 문 박영근 박수관 박순곤 허인구 설동근
김재운 김재진 조효식 이윤희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이상수 정홍섭 김수현
부 회 장 배영호 배상진 공정근 최삼섭
양재생 최금식 류재호
감 사 최상곤 정연식
사무총장 장병주
재무총장 이현수
총무이사 안천일
친목이사 배도정
홍보이사 박차수
기획이사 박창근
섭외이사 이헌호
대외협력이사 안병호
자문이사 김상훈
이 사 강갑균 공영석 김선일 김성규 김윤곤
김종한 노종헌 박상호 박효근
회 원 강석진 곽방보 김선조 김인석 방택훈
손만형 신기열 신상해 안경수 양승찬
이경칠 이권주 이근욱 이성원 이오식
이정출 이학우 진남일 최대경 최태식
김기호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1705호 (부전동, 유원골든타워)
Tel 051)334-0108 Fax 051)867-4397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원 장 김수현
종무부원장 김종숙
부 원 장 이영숙, 김순례, 이향순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92 3층

사회에 봉사하는 스님들의 단체 화엄승가회

고 문 법우 자관
자 문 범혜
회 장 자인
감 사 명호 정담
수석부회장 대각
상임부회장 도경 청허
부 회 장 도명 천웅
총무부장 대각
재 무 태산
총무국장 관호
의전부장 법봉
회 원 도원 혜광 선혜 보현 지오 의천
향공 혜명 원도 여해 지현 도안
관호 대원 안국 혜민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진우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부회장겸 이사장 호명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덕수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도진정사님 (진각종 통리원장)
우인정사님 (총지종 통리원장)
법명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주경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고 문 홍파스님 (관음종 종정)
부이사장 인구스님 (보문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향운스님 (원효종 총무원장)
감 사 금주스님 (보문종 기획실장)
방정자 (여성부 운영위원)

여성부

회 장 백명숙
부 회 장 박동희 조경순 남영희
총 무 한윤교
재 무 조원숙
운영위원 김경수 옥영숙 정지연 방정자
최진희 우정해
감 사 김예영
국제협력부장 강경애

범내산 관음사

주지 천웅 도광

신도일동
매주 일요일 국수 무료급식

Tel 051) 634-2040 H.P 010-8339-5525





주 지 성 문
신도회장 강귀자

총무 이은영 사무국장 이미희 연화회장 김복자

신도일동

주소 부산 사상구 덕포2동 21-1번지
전화 051)302-5657, 303-4848, 010-3563-5657 팩스 301-4854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당신의 삶에 작은 쉼표 하나'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사단법인 쿠무다가 함께합니다

KUmuda Healing Village
지하 2층, 지상 8층 850평 규모

옥상 SKY BUDDHIST SANCTUARY 하늘법당
8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7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6F Res.Maison KUmuda 관광숙박시설 레스메종
5F EDUCATION CENTER/FRONT DESK/MEDITATION & TEA
4F LABXXIV [랩24] by KUmuda
3F Eat:多 [잇:다]
2F cafe KUmuda 갤러리
1F 로 비
B1 문화예술 쿠무다 콘서트홀
B2 사무국/베이커리 교육공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Tel. 051-702-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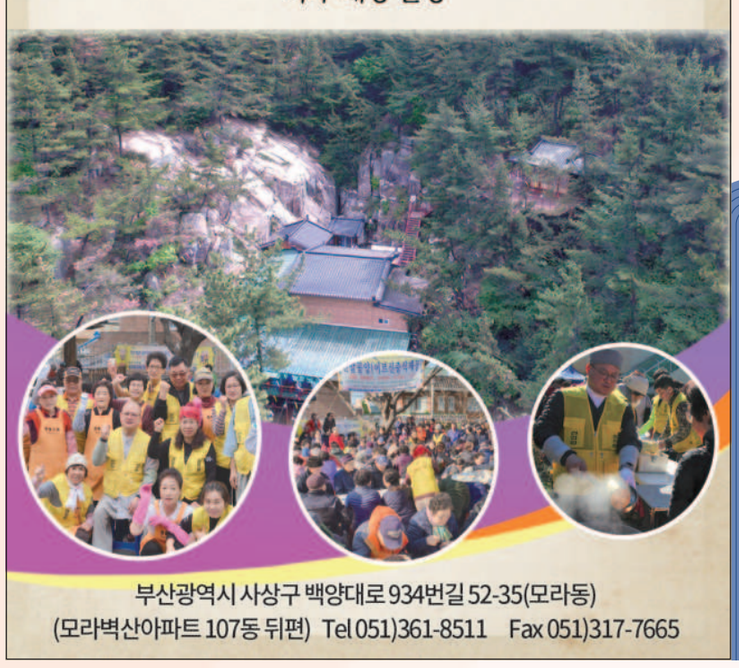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자비 사랑 행복 나눔을 실천하는 사찰

백양산 참회기도성취도량 **견강암**

주지 **향공**

(사)부산정각회, 금강회, 보현회, 관음회, 다도회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934번길 52-35(모라동)
(모라벽산아파트 107동 뒤편) Tel 051)361-8511 Fax 051)317-7665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김해포교당
율하선원

회주 **수불**
주지 **석산**

신도 일동



경남 김해시 율하임수길 73
전화 055)321-0772

(주)열린기획

대표
정성훈

Stage System Design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506
전화 062)381-7730

예공
Total Design 전문회사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

카다로그/브로슈어/리플렛/BI,CI제작
시각Design/인테리어/환경Design
실사, 현수막출력/옥외광고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54-1
대표전화 _ 062·352·7474

전통燈 장진익 공방

작가 **장진익**

봉축탑, 전통한지등 제작
전통등강습회 진행

전화 010-2606-4403

대한불교조계종
천 룡 사

회주 **무등**

- **산사순례법회** – 매월 둘째 일요일(명산명찰 순례)
- **묘법연화경 독송모임** – 매월 음력 1일 ~ 7일
- **다라니 독경 모임**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신묘장구 대다라니 독송기도회)
- **성덕회** – 매월 마지막 일요일 주지스님 법문 법회 (성덕사 포교원 개설을 위한 준비 모임)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 - 23
전화 010) 8932 - 1825. FAX 062)234 - 0108

대한불교조계종
선 덕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밤실로 136번길 8-21
전화 062)263-4660

연우개발(주)

대표이사
윤상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50-1, 302호
(두암동, 두암2차무등파크맨션 상가동)
전화 062)262-0480 팩스 062)262-0481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소 운**

- 관음사 신도회
- 관음사 불교대학(원)
- 붓다스마일 합창단
- 연꽃향기 성지순례회



대한불교조계종

연 화 사

주 지 **명 신**

부 설
연화유치원,어린이집
062)227-0173



대한불교조계종

보 승 사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상 진**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무등산 원 효 사

주 지 **해 청**

사부대중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시공스님**

신도회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무등로 557번길 27

한국불교태고종

법 륜 사

주 지 **월 인**

신도일동

광주전통불교영산보존회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23호
작법기능보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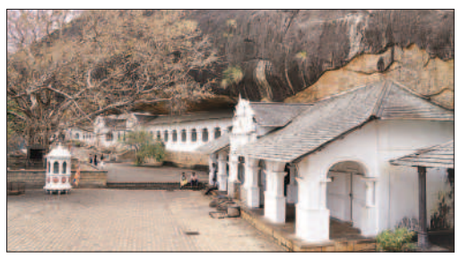
지장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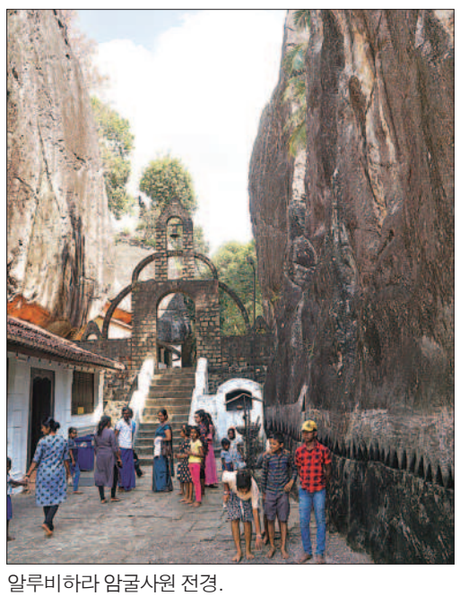
미 륵 사

주 지 **혜 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자타




담불라 석굴사원 전경.


알루비하라 암굴사원 전경.


담불라 석굴사원 내부 모습. 담불라 사원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불치사.


스리랑카 랜드마크 시기리야 팔레스.


신심 높은 스리랑카 불자들.

부처님께서 세 번이나 방문했던 '불국정토'

부처님 치아사리 봉안된 불치사
동굴 속에 조성한 '담불러 사원'
국민 중 70% 불자… 신심 '귀감'

인도양의 진주라 불리는 스리랑카는 천혜의 자연과 불교 성지를 자랑하는 국가다. 스리랑카와 불교와의 인연은 매우 깊은데, 이는 스리랑카의 고대사를 정리한 〈마하완사〉에도 잘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리랑카를 세 번이나 찾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 인구 중 70%가 불자이며, 이들은 신실한 신심을 자랑한다. 또한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신 캔디의 불치사와 담불러 동굴사원 등 불교문화유산도 풍성하다.

5월 4일 작고한 故김주일 편집국장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스리랑카 관광청의 초청으로 스리랑카 순례를 다녀왔다.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스리랑카 불교 성지를 소개한다. 사진은 순례에 동행했던 이재형 법보신문 편집국장이 제공했다.

〈편집자 주〉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스리랑카 신심 정수 '담불라 사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담불라 동굴사원(Dambulla Cave Temple)'은 스리랑카의 신심을 느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사원을 조성한 사람은 왓타가마니 아브하야(Vattagamani Abhaya) 왕이다. 그는 타밀족의 침략으로 왕위에서 쫓겨나 담불라 지역까지 내려왔다. 이곳에서 14년간 인고의 세월을 보낸 왕은 기원전 89년 수도였던 아누라다푸라를 탈환했다. 금의환향한 왓타가마니 왕은 아누라다푸라로 돌아간 후 담불라에 석굴과 불상을 조성해 불법이 융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담불라 사원은 5개의 동굴에 조성됐으며, 그 안에는 157구의 불상이 있다. 동굴에 있는 그림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크기의 입상이 157개나 된다. 제1동굴은 가장 오래된 석굴사원으로 '신들의 사원'이라는 별칭이 있으며, 14m에 달하는 거대한 와불이 있다. 제2동굴은 담불라 최대 동굴로 일명 '위대한 왕의 사원'이라고도 불린다. 제3동굴은 18세기에 조성됐으며, 9m 와불과 다양한 불상군들이 있다. 제4동굴은 좌불이 밀집해 있으며, 제5동굴은 20세기 초에 조성됐다.

부처님 치아사리 모신 '불치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사리가 8섬 4말이 나왔다고 경전에는 기록돼 있다. 무게로만 약 700kg에 달하는 건데, 그 만큼 많은 사리가 나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 사리는 8개 나라에 분배돼, 사리 · 탑 신앙의 토대가 된다.

부처님이 직접 세 번이나 방문해 설법까지 한 스리랑카에 진신사리가 없겠는가. 스리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사찰을 들라면 단연 부처님 치아사리를 봉안한 '불치사'를 꼽을 수 있다. 불치사는 신심 깊은 인도 칼링가 왕국의 헤마말라 공주가 머리카락 속에 치아사리를 숨겨 모셔왔다는 창건설화가 전해진다.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와 폴로나루와를 거쳐 봉안했으며,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불자들의 순례가 이어지는 성지다.

불치사의 맨 위층, 금과 보석으로 만든 겹겹의 상자 안에 부처님의 치아사리가 모셔져 있다. 불치사는 1803년 스리 위크라마 라자싱헤 왕(1798~1815년 재위)이 지은 파티리푸와 탑과 통로로 이어져 있는데, 이 탑은 야자나무 잎에 기록한 귀중한 필사본들을 보관하고 있다.

最古 패엽경 있는 곳, 알루비하라 사원

마탈레에 소재한 알루비하라 암굴사원(Aluvihara Rock Cave Temple)은 스리랑카 불교의 상징인 패엽경이 완성된 곳이다.

기록에 따르면 왓타가마니 아브하야 왕은 타밀족을 몰아낸 뒤 수도 아누라다푸라를 수복했지만, 민중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 왕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복원하기 위해 새로운 결집을 시도했다. 왕의 명에 따라 500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알루비하라 암굴사원에 모여 7년 동안 4차례 결집해 경 · 율 · 론 삼장을 세계 최초로 완성했다. 2000년 전 조성된 최초의 패엽경은 안타깝게도 1848년 영국군이 파괴했다.

현재도 알루비하라 사원을 찾으면 패엽경 제작 과정을 볼 수 있다. 가사를 수한 스님이 잘 말린 잎사귀에 경전 내용을 새기는 작업을 선보이는데 신심이 절로 생긴다.

보리수 중심으로 조성된 아누라다푸라

아누라다푸라(Anuradhapura)는 스리랑카의 첫 번째 수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유서 깊은 도시다.

아누라다푸라는 기원전 4세기에 건설되자마자 실론의 수도이며 불교의 신성 도시가 되었다. 서기 1000년 후 이야기로 전해 내려온 '마하남의 연대기(The Chronicles of Mahanam)'에 따르면, 아누라다푸라는 기원전 380년 판두카바야(Pandukabhaya) 왕자가 세웠다고 한다.

기원전 250년 무렵, 아소카 왕은 자신의 아들 마힌다(Mahinda)를 보내 판두카바야의 손자인 티사를 불교로 개종시키고자 했다. 티사는 불교를 믿는 실론의 첫 번째 왕 '데바남피야(Devanampiya)'가 되었다. 또한 아소카 왕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가지를 딸이자 비구니인 상가미타로 하여금 티사 왕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지금도 이 보리수는 2200년을 넘어 순례 온 불자들을 맞이한다.

기원전 2세기 초 타밀의 침략 기간을 제외하면, 아누라다푸라는 10세기 동안 실론의 정치적 · 종교적 수도였다. 타밀의 침략을 무찌르고 브라만교 대신 불교를 중흥시킨 두타가마니(Dutthagamani) 왕(기원전 161~기원전 137)의 치세 때 아누라다푸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두타가마니는 미니사웨티 대탑(Dagaba Minisaweti), 루완웰리사야 대탑(Dagaba Rubanwelisaya), 브라젠 궁 등의 위대한 유산을 남겼다. 팃사 왕자 때 높이 100m, 지름 290m의 웅장한 규모로 완공한 루완웰리세야 대탑은 지금도 스리랑카인들이 자주 참배하는 도량이다.

부처님 설법지 켈라니야 사원

〈마하완사〉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스리랑카에 세 번 방문했다. 첫 방문은 부처님이 성도하신 지 9개월이 지나 스리랑카의 야키족과 나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서였다. 5년 뒤 야카족이 물러난 후 섬을 지배하던 나가족의 마호다라와 추호다라 형제 사이에 왕좌를 놓고 싸움이 벌어지자 부처님은 다시 방문해 두 형제를 화합시켰다.

세 번째 방문은 성도 후 8년째 되는 해에 이뤄졌다. 나투신 곳은 현재 수도 콜롬보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켈라니야였다. 부처님은 이곳에서 설법을 하고 끝난 뒤 목욕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기념해 사원이 조성되니 바로 '켈라니야 라자마하 위하라'다.

이밖에도 높이 195m 바위산 위에 건설한 스리랑카의 랜드마크 시기리아팔레스, 세계인들의 차 실론티의 산지 우바, 포르투갈 · 네덜란드 · 영국이 식민지 기간 동안 만들어나간 유럽풍의 도시 갈레 등도 스리랑카를 찾는다면 가봐야 할 필수 코스다.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지구 안녕 발원
사부대중일동
경남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전화 055)746-8162 팩스 055)746-7825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사

주 지 대 요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성덕관음길 453
전화 061) 362-4433

대한불교조계종

향림사 포교당
금 당 선 원

주 지 진표

신도 및 활짝회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53번길 24-1
전화 062)653-8108

녹 야 선 원

주 지 아 도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로 68, 2층
전화 062)365-0108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 주 지 각
주 지 지 장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64번길 54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심 향 사

사부대중 일동



전남 나주시 건재로 41-1

대한불교조계종

쌍 봉 사

지금 이 순간 행복도량

회 주 영 조
주 지 증 현



사부대중일동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산의로 459
전화 061)372-3765~66

대한불교조계종

자 성 사

회 주 명 지
주 지 일 주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55번길 6-1
전화 062)381-0878

대한불교조계종

자 운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지호로 106번길 8-8
전화 062)222-8296

대한불교조계종

정 안 사

주 지 동 초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북구 분토길 90
전화 062)265-0801

박태수의 알아차림의 파워 ❺ 성숙한 삶과 수행



▶한줄 요약
나의 자유와 행복은 나 자신의 깊은 깨우침에서 일어난다. 나의 영적 삶은 내가 자신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온전히 연결됐을 때만 확고해질 수 있다.

마음 지혜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어느 날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내 가슴에서 찬바람이 일어났다. 지난 몇 달간 명상센터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아픔들이 쌓여 무의식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이제는 제주를 떠나고 싶다. 아픔에도 때가 있는가? 돌아보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왜 이렇게 아픔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아픔도 파도처럼 순환이 일어나는가? 최근의 일을 보면 동료와의 지루한 갈등, 이를 둘러싼 주변인들의 달갑지 않은 시선들, 나도 이제는 그러한 주변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수행으로 다져진 내적 힘이 형성될 때도 되었는데, 명상수행은 내 마음을 안정시켜주지 않았다.

생명을 가진 존재는 언젠가 떠난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떠나갈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떠나는 이유는 존재하는 그곳이 부적합하여 존재에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일어난다. 이사장직을 그만둔 입장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에 계속 머무를 수 없기도 하거니와 더 이상 나의 역할이 명상센터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매주 명상지도사 자격과정을 강의하는 것과 토요일마다 전문상담사 슈퍼비전이 있으니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일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수행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이곳의 일이 때때로 벅차고 힘들어도 삶 자체가 수행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하나는 내가 진정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는 점이다. 말하자면 내가 가정을 꾸리면서 수행의 길로 온전히 가고 있는가? 그리고 제대로 수행을 하고 있느냐이다. 다른 하나는 수행자라고 하는 나를 어느 스승이 제자로 인정해 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행자는 누구나 스승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수행 길이 흔들리지 않아 정진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명상센터나 사회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준다면 아낌없이 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명상센터는 내가 진리와 자비를 바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인가' 하는 점이다. 무엇보다 내가 내면의 경험을 이해하고 내면의 자유를 얻고자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나를 이끌어줄 스승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재가수행자로서 겪는 어려움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찾는 스승이 지닌 지혜와 고결함에 신뢰와 존경을 느껴야 한다. 또한 내 존재 내면에 기쁨이나 여유, 사랑을 담고 있어야 한다. 내가 나의 내면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고, 상황이 옳다 싶으면 과감히 뛰어드는 적극성도 가져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나는 수행자가 갖춰야 할 조건이 지극히 부족하고 수행자로서 살아갈 허울만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셈이다.

붓다는 단지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제자들에게 거울이 됐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아무런 칭찬이나 비판의 말씀이 없어도 자신이 불자로서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분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때 만나는 순수함이 바로 우리 자신의 참본성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만일 부처님의 마음 상태라면 어느 누구를 보더라도 그들 본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나는 중학생 때부터 한결 같이 만난 스승이 있었다. 나다니엘 호오돈의 〈큰바위 얼굴〉이다. 단지 책속에서만 존재하므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분은 내 안에 늘 함께 살아왔다. 마치 소설속의 소년처럼 어렸을 때부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만날 수 있었던 큰바위 얼굴이 바로 그분이다. 큰바위 얼굴은 어느 때 만나도 변함없이 인자한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며 성장을 이끌어주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초의 영적 경험은 어린 시절에 이뤄진다. 그 경험은 신비하고 성스런 대상과의 자연스런 일체감으로 다가온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은 나의 수행에서 그런 일체감을 다시 발견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만일 내가 부모님과 존경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다면 그 역시 다른 모든 대상과의 관계에서 존경과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자라면서 온전한 사랑을 받았고, 그 힘은 자라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진정한 자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욕구를 배려하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한다. 이러한 사랑과 자비의 힘도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

붓다도 한계에 부딪친 때가 있었다. 어떤 비구들이 다른 수도승들을 계율 위반으로 비난했고, 비난 받은 이들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상대방이 계율을 어겼다면서 맞받아쳤다. 이때 그들 앞에 나타난 붓다는 모두 서로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붓다의 제자였음에도 붓다의 권고를 듣지 않았다. 붓다는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순종시키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붓다는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버려두셨다. 그리고는 비구들을 떠나 숲속으로 가셨다. 거기서 동물들에 둘러싸여 생활하며 고요히 명상에 들어가셨다. 붓다는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그 이상은 손을 떼셨다.

붓다, "변화가 존재 본질" 강조해
인생의 변화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이 과정서 '영적 성장'이 이뤄진다
지금부터 마음 수행을 시작해보길

나도 이제 늦은 나이에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 한계에 이르렀고 제주국제명상센터에 대한 역할도 한계에 달했다. 이 나이에 세상 만물을 향해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기도 어렵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 만이라도 온전히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늦었지만 나를 위한 수행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흔히 세상에 태어나 자신을 위해 살다가 세상을 위한 삶으로 의식을 확대하지만 나는 그 반대로 나를 위한 의식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붓다는 마음챙김에 관한 가르침에서 우리 행동을 자극하는 마음상태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셨다. 우리가 항상 선한 일만 원하리라는 생각은 너무 순진한 착각이다.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집착이 일어날 때, 두려움이 생길 때, 의존심이 솟아날 때를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게 찬찬히 내면의 소리를 듣다보면 의존과 사랑을 구분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열릴 때, 집착에서 벗어날 때, 상호존중과 배려가 나타날 때를 구분할 수 있다. 이런 분별에 근거하여 우리 행동은 지혜롭고 자비로워질 수 있다. 지혜로운 행동과 의존적 행동을 구별하는 데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 가족의 욕구 충족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불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영성생활이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내 인생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피해갈 길은 없다. 그 변화 속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수없이 반복해서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인생의 괴로운 단계들을 헤쳐 나갈 때 이런 순환과 그 과정에 우리 마음을 내맡기는 법을 터득할 수 있다.

중국 선종 3대 조사 승찬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깨달음과 통일성의 경지는 불완전함을 근심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

우리 몸은 완전치 않고 마음도 완전치 않으며, 우리 감정과 온갖 관계들 역시 완전치 않다. 하지만 불완전함의 근심을 떨치는 것을 이해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불완전함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다.

나의 인생에서 발달단계는 저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씨앗을 품고 있다.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나의 경우 요가 아사나를 시작한 것이 나이 50세에 들어서였다. 그때 나는 늦은 나이여서 몸으로 하는 요가를 배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나의 생각을 듣고 요가지도자께서는 "참 좋은 나이에 요가공부를 하려고 하시네요. 요가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을 때입니다"라고 용기를 주셨다. 이를 계기로 하타요가를 꾸준히 하게 되었고 방학 때마다 인도 비하르 요가대학에 가서 요가연수를 받았다. 그 후 영성요가에 중점을 두면서 라자요가를 하게 되었고, 아봐타와 위빠사나 공부를 함께하였다. 그리고 제주국제명상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수행자로서의 준비를 하였다. 영성생활은 내가 자신에게 적합한 인생의 과제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 성숙한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여태까지 적합한 인생의 과제를 명확하게 알고 수행을 해오지는 않았다. 붓다는 끊임없는 변화가 존재의 본질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인생이 펼치는 끊임없는 순환들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내면의 과제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

만물의 변화는 자명한 이치인데도 우리 사회는 자연의 흐름을 놓쳐버린 채 온갖 방법으로 변화를 무시하도록 가르친다. 어린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 놀며 건강한 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 훈육과 때 이른 입시교육에 시달린다. 수많은 중년 남성들은 계속해서 청년으로 살려하고 여성들은 마치 영원히 늙지 않겠다는 듯이 젊음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 늙는다는 것이 패배라도 되는 양 그것에 저항하고 두려워한다. 인생의 자연스런 순환을 존중할 때 우리는 인생의 각 단계마다 영적인 면이 담겨있음을 발견한다. 각 단계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지혜와 경험을 담고 있다.

마음의 지혜는 여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있다. 그것은 항상 여기 있었고, 언제든 발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와 통일성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참 본성이다. 영성수련을 시작하거나 명상서적을 읽거나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마다 나는 필연적으로 이 진리, 즉 인생 그 자체의 진리를 향한 열림의 과정을 시작한다.

붓다는 말한다. 지극히 완벽한 순간이나 사물도 바로 다음 순간 변하고 만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마음의 자유이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에는 오직 한 가지 맛만 있으니, 그것은 자유의 맛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진정 수행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계속 일어났고 이제는 스승에 대한 의존이나 기대는 떨쳐 버리고 나 자신이 홀로 설 수 있는 좁은 의미의 수행이라도 하고자 한다. 나의 자유와 행복은 나 자신의 깊은 깨우침에서 일어난다. 남들이 어떤 말로 반박하더라도 그것은 중요치 않다. 나의 영적 삶은 내가 자신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에 온전히 연결됐을 때만 확고해질 수 있다.

〈前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제5회
부산불교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대상
최금식(선보공업(주) 회장)
(상패, 상금 1,000만원)

● 최우수상
서보석(반도산전(주) 대표이사)
신기열(목원개발 대표이사)
삼광사 차문화회
(상패, 상금 500만원)

● 우수상
이명숙(대한불교진각종 유가합창단 단장)
최은숙(해동중학교 교사)
고담나누미 봉사회(대표 신희숙)
(상패, 상금 300만원)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박수관
수석부회장 양재생 정창교

■ 부회장
국제교류부회장 최금식
사회문화부회장 박수곤
불교경제사회부회장 조용국
대외협력부회장 이수태
정치교류부회장 신상해
사찰문화부회장 최삼섭
섭외부회장 최영호
홍보부회장 이경신
법률부회장 박명진
사회교육부회장 정종원
사회공헌부회장 박형연
재무부회장 김원용
총무부회장 박종문
기획부회장 이희태
경조부회장 신기열
행정교육부회장 최대경
행정법률부회장 박도영

■ 부회장
김진수 배재한 이오상 윤종경 김영주 황의순 김홍종
원정희 김선조 송삼종 문 호 최태식 이종우 강경희
공정근 백영선 김옥희 이영숙

■ 고 문
김재진 박원양 장복만 조효식 박정오 전광수 설동근 이윤희 김수현 하정선

■ 자문위원
정홍섭 이장호 고영립 박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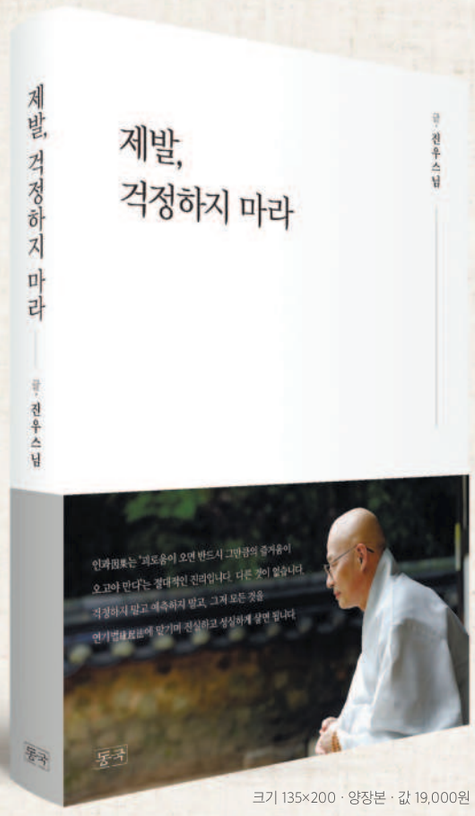
■ 집행부
사무총장 장병주
사무부총장 김민성
기획이사 김기호
국제교류이사 이윤희
문화이사 하승준
법률이사 성원석 홍재석
사찰협력이사 강갑균
사회공헌이사 정진우
섭외이사 이만수
재무이사 이근욱
총무이사 이현수
홍보이사 손정현
집전 류상영

■ 이 사
강근순 강길주 류강렬
심인택 안천일 유지호
이명학 노현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정산빌딩 9층 Tel 051) 808-8600

제발,
걱정하지 마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전하는
희망과 용기의 법문!



크기 135×200 · 양장본 · 값 19,000원

괴로움이 오면
반드시 그만큼의 즐거움이 오고야 만다.

오랜 수행과 전법으로 이뤄진 깨달음이 푸근한 말투로, 은은한 미소로 손 내미는 책!!
불교의 핵심이자 행복의 비결인 '인과因果'의 도리로 전하는 진우스님의 지혜.

"헐떡거리고 비뚤어지는 건 항상 우리 마음일 뿐, 실상實相은 언제나 평온하고 반듯하니
제발,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예측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을 연기법緣起法에 맡기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됩니다.
인과를 굳게 믿고, 스스로 마음의 평정하게 다스리며 대자유를 누리십시오."

소중한 가족과 지인에게 진우스님의 지혜를 법보시하세요.



부처님 인생응원가
저자 정찬주 / 크기 150×213 / 제본 무선 / 값 15,000원

부처님 말씀과 침묵으로 명상한 이야기

부처님 인생응원가

지친 현대인을 위한 찰나의 '힐링쉼터'
정찬주 작가가 동국역경원『불교성전』에서 찾은 따뜻한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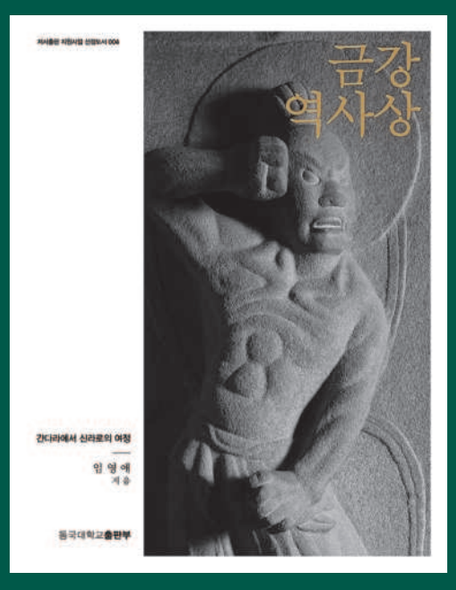
"누구나 다 현실존재로서 각자의 일상을 영위하고 있을 터.
그런데 때로는 그 일상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기마련.
그럴 때 부처님 말씀을 거울삼아 자신을 묵묵히 비추어 보면 위로 받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지 않을까.
모든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틈틈이 가슴에 새기어,
맑은 복이 하얀 불두화처럼 뭉게뭉게 피어나기를 발원해 본다."

- 작가의 말 중

동국대출판문화원 신간도서



사진으로 읽는 근현대 한국불교
한국의 근대불교문화사진아카이브 / 146*219/ 양장본 / 37000원(세트)
1권 일제강점기편 / 2권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20세기 한국 사찰의 풍경과 용욕을 '한눈에'



금강역사상 - 간다라에서 신라로의 여정
임영애 지음 / 185×235 / 양장본 / 25,000원
금강역사의 모든 것을 담은 한 권의 책!
간다라부터 신라까지 '금강역사상' 변천 총망라



가람유사❶ 해인사편(2권세트) 25,000원 **가람유사❷ 화엄사편(2권세트)** 25,000원
전통사찰의 사료를 재미있는 스토리로 재구성한 시리즈
술술 읽히는 해인사와 화엄사의 숨은 이야기!

동국대학교 출판문화원 | 도서출판 동국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바랍니다.
문의 동국대학교출판문화원 홈페이지 http://dgpress.dongguk.edu Tel 02-2264-4714 Fax 02-2268-7851 e-mail abook@jeongjincorp.com

100년 전법불사 이어가는 부루나 후예



장정화 회장은… 1974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1987년 삼천사 불교학생회 입회했으며, 청년회 홍보부장을 역임했다. 2005년 대불청 예천지회 회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북지구 예천지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대불청 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2023년 대불청 32대 회장으로 연임됐다. (사)KYBA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대의원, 대한불교조계종 경주 마애불 '천년을세우다'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종단협의회장상(대불청),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상 대상(단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원력상(단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INSIDE

C5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연등

C12·13 화보 2023 부처님오신날 연등회

C17 이안의 '미디어 인 붓다' 영화 〈슬픔의 삼각형〉

테마人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수행자들이여, 인간의 이익과 번영과 행복을 위해 길을 떠나라. 둘이 가지 말고 홀로 가라. 처음도 아름답고 중간도 아름답고 마지막도 아름다우며 말과 내용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라."

2500여 년 전, 부처님이 60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전도선언'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시작됐다. 부처님의 결심과 60명의 제자들에서 시작된 불사였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부루나와 아난이 있어 오늘의 우리는 그 가르침으로 살고 있다. 시대마다 이름을 달리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 부처님의 '전도선언'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하며 지금까지 인류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대의 부루나와 아난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당부를 받들고 있는 이가 또 있다.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이하 대불청) 중앙회장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첫 여성 회장

"제가 하고자 하는 혁신은 제 임기만 빛내는 2년짜리 혁신이 아닙니다. 지난 30대 집행부가 이뤄놓은 그릅화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만해평화센터를 후원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회향의 마음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1년 2월 대한불교청년회는 제31대 중앙회장으로 장정화 前 비대위원장을 선출했다. 대불청 100년 역사가 배출한 첫 번째 여성 중앙회장이다. 장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서 천명했던 혁신은 자신의 임기 2년, '2년짜리'가 아닌, 앞으로 100년을 기대하는 원력이다.

1920년 6월, 만해 한용운 스님은 청년들과 함께 '불교를 통한 민족의 각성, 조선의 독립'을 기치로 하여 '조선불교청년회'를 창립해 민족각성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광복 이후에는 조직을 재정립해 1962년 6월 '(사)대한불교청년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불청은 그렇게 명징하고 간절한 이유로 탄생했다.

"그 시절에 만해 스님은 '청년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정신을 똑바로 해야만 한 나라의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가 아니었더라도 '청년'이라는 명제는 시대와 장소에 상관없이 중요하고 명징한 시대의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정화 회장이 이끌고 있는 대불청은 100년이 넘는 역사가 있고, 그 시작이 만해 스님이라는 것에서 한국불교사에서 굵은 글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불청이 지나온 100년이라는 세월은 한국불교사를 지탱하고 있는 여러 기둥 중 하나인 것이다. 때문에 대불청의 피는 '청년'일 수밖에 없다. 청년을 바로 서게 하는 포교와 전법, 바로 선 청년이 전법을 펴는 불사가 대불청의 소임인 것이다. 곧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받드는 일인 것이다.

대불청은 2023년 현재 직할 2곳과 지구 14곳, 지회 65곳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년 13만km 달리며 '대불청' 알려

"제가 2년 동안 자동차로 이동한 거리가 13만km였어요. 2년 동안 제가 발로 뛴 거리가 성과의 첫 번째 척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로 뛰어야하는 이유는 단지 대불청의 이름만을 알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대불청의 지향점과 실천, 그리고 다소 편향됐다고도 볼 수 있는 대불청의 이미지를 고쳐서 제대로 알리고 싶었어요."

신임 회장에 취임한 장 회장은 우선 대불청의 존재를 좀 더 많은 불자들과 대중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존재 자체를 알리는 일과 더불어 그동안 사부대중이 대불청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바로잡음'의 차원도 큰 이유였다. 장 회장은 그것이 대불청이 소임을 다할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했고, 그렇다면 우선 발로 뛰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만나는 대중마다 일일이 대불청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전했다.

그리고 장 회장은 대불청을 알리는 데 미디어를 활용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미디어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행보를 보여야한다고 생각했다.

"대불청 재정이 어렵다보니 재원을 이용한 홍보나 광고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디어'였어요. 우리(불교)는 신문, 방송 등 불교 언론사가 많이 있잖아요. 불교만 생각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 불자로서 행복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신문사와 방송사 뉴스에 매일 대불청이 나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대불청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대불청이 있어야 할 곳, 하지 못했던 일을 생각하고 움직였어요."

2021년 대불청 첫 여성 중앙회장

2023년 첫 여성 회장으로 연임해

2년 임기 중 이동 거리 13만km

'대불청' 홍보, 대상포진만 두 번

서울 성북구에 만해평화센터 개관

'2022년 대불청 활동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그 첫 번째 줄에는 '만해 스님 선양사업'이 있었다. 대불청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해'를 기리는 일이다. 대불청은 그동안 이어왔던 만해 스님 열반 78주기 다례재와 전국만해백일장을 개최하며 첫 번째 본분에 충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만해평화센터 개관이다.

대불청은 2021년 서울 성북구에 만해평화센터를 마련했다. 만해평화센터는 대불청의 100년 대계 사업 중 하나다. 만해평화센터 개관은 많은 의미를 지닌다. 청년불자의 자립공간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만해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의 도량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그 밖에 대불청이 2022년에 성료한 불사는 너무나 많다. 그 중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진행한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은 부처님 전도선언를 제대로 받든 불사라고 할 수있다.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은 꼭 언론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법과 포교라는 대불청의 소임을 제대로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법이라는 불사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용을 갖춘, 즉 제대로 알고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C2면에 계속

“바로 선 청년 불자 양성, 제대로 된 전법을”



대한불교청년회가 2023년 1월 28일 개최한 제32대 중앙회장 취임식에 참석한 장정화 회장(우측 5번째).


조계종이 지난해 5월 21일 개최한 인도 보드가야 분황사 대웅보전 준공식에 참석한 장정화 회장(좌측 3번째).

‘장정화’ C1면에서 계속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을 대불청이 계획한 이유는 불교를 알고 불심을 갖춘, 제대로 된 사찰문화해설사를 양성함으로써 한 마디의 해설에도 제대로 된 부처님의 말씀이 담기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대중이 제대로 된 불법을 접할 수 있고, 불법을 몰랐던 이들이 부처님 법에 한 발짝이라도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불사인 것입니다.”

대불청이 4년 동안 배출한 사찰문화해설사는 800명이 넘는다.

또 하나 눈길이 가는 활동은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BYE, 이하 청소년캠프)’ 한국대회 유치다. 대불청은 2022년 태국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청년우의회(WFBY) 총회에 참석해 이웃 나라와의 각축전 끝에 청소년캠프 국내 유치를 이뤄냈다. 청소년캠프는 각 나라별로 자국의 청소년을 불교계 리더로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며, 각국의 청소년 불자들이 청소년캠프에 참가해 개최지로 선정된 나라의 불교, 산업,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최지는 전 세계 불자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더욱이 올해는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큰 불사가 있어서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한국불교의 면모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경북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2023년 청소년캠프는 불국사 등 경북 지역 사찰순례와 명상, 사찰음식 및 전통등 만들기, 환영의 밤 K-POP콘서트, 세계과자교환, 양궁체험, 환경보호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불교와 문화를 알리게 된다. 더 없이 ‘제대로 된 전법’ 이라는 게 장 회장의 설명이다.

그 밖에도 대불청은 전국불교청년대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참여, 역사바로알기 운동본부 · 불교역사제자리찾기운동본부 참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산사문화체험, 폐사지지킴이들의 3 · 6 · 5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으며, 인천지구를 새롭게 열었다.

군종특별교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군종교구 청년포교 관련 자료 공유와 청년포교 전법 사업과 관련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이어나갔다. 자비나눔공덕회와 함께한 연탄나눔봉사, 쪽방촌 떡국나눔봉사,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함께한 옷 나눔활동 등이다.

그렇게 장 회장이 2년 동안 걸어간 길이 13만 km이다. 장 회장은 임기 2년 동안 대상포진을 두 번이나 앓았다. 2022년 장정화 회장의 대불청은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연임 임기는 안정화 · 활성화에 주력

사찰문화해설사 양성교육사업 추진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 한국 유치

사업체와 MOU체결 재정기반 마련

안정화 · 활성화 목표로 다시 뛴다

장 회장은 대불청 100년 역사에서 첫 여성 중앙회장이라는 역사가 됐다. 그런 그가 또 한 번 대불청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장 회장은 대불청 사상 처음으로 연임한 여성 회장이 됐다. 장 회장은 2023년 1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임 취임식을 열고 한국불교의 단단한 허리가 될 것을 다짐했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부족했나 봐요. 더 열심히 하라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2년은 대불청을 알리는 데 많은 시간을 썼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인데 또 한편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첫 번째 임기 때,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잘 몰랐고, 찾아주는 데도 없어서 제자 먼저 찾아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연임하고 나서는 정말 많은 일정으로 정신이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임기 2년이 지금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대불청 역사상 연임한 중앙회장은 장 회장을 포함해 모두 3명밖에 없다. 또 한 번 대불청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 회장은 두 번째 임기 동안 대불청 안정화와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제는 지회 · 지구 활성화와 안정화를 통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회 · 지구의 활동이 원만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직의 활성화와 안정화에 힘쓰려고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자립과 안정도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장 회장은 2023년 대불청의 주요 사업의 키워드로 △대불청의 내실화 및 안정화 △자립 대불청을 위한 청년 불교 기반 마련 △미래 100년을 위한 포교사업 강화 △만해평화센터 운영 활성화 △만해 선양사업 계승 발전 △대불청 네트워크 강화 등을 발표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으로는 △지구 · 지회 활성화 △회원시스템 재정비 및 회원서비스 구축 △대불청의 재정자립성 제고 △경주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 청년불자 동참 프로그램 개발 △국제불교청소년교환캠프(IBYE) 성공적 개최 △만해선양사업 및 만해평화센터 운영 안정화 등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 재정자립사업은 중요한 과제다. 장 회장은 중앙 · 지구 · 지회의 안정적인 회비수입 구조 조성을 위해 CMS 정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CMS회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회원 확보와 시스템 정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스마트 스토어) 설립을 통한 재정 확보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기업 및 사업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재정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불심 씨앗 된 사탕 하나

“사실은 스님이 주시는 사탕이랑 과자 때문에 절에 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를 졸졸 따라간 거죠.”

장 회장은 1974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났다. 모친이 독실한 불자였다. 장 회장은 모친의 영향으로 어린 나이에 불교를 만났다. 모친이 절에 갈 때면 앞서 길을 나섰다. 모친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어린 마음에 혹여 어머니가 떼어놓고 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대부분의 불심 깊은 어머니들이 그렇듯 장 회장의 모친 역시 가족을 위해 절에를 갔다. 그렇게 모친을 따라 절에 다니기 시작한 어린 장 회장은 사실 스님 주시는 사탕 하나 과자 하나 때문에 절엘 갔다.

“저는 그게 포교라고 생각해요. 포교는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가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스님이 주시는 사탕 먹으러 절에 간 것, 그것이 저의 불연의 시작이었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일상이 지금의 장정화를 있게 했다고 생각해요.”

장 회장은 연임 후 취임사에서 대불청의 내실을 다져 미래 100년의 초석으로 삼겠다고 했다. 그의 또 한 번의 ‘2년’은 2년짜리가 아니라 100년인 것이다. 부처님이 길 위에서 전법으로 보낸 45년이라는 시간이 ‘45년짜리’가 아니라 2567년이 됐고 앞으로 무량한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장정화의 ‘2년’도 100년이 아니라 무량한 시간이 될 것이다. 어릴 적의 작은 사탕 하나가 지중한 인연을 짓고 무량한 공덕과 회향된 것이다.

2023년 한국불교사에는 커다란 불사가 있었다. 유래가 없는 ‘순례’, 상월결사의 43일간 1167km의 인도순례다. 43일간의 순례를 마치고 열린 조계사 회향법회에서 회주 자승 스님은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는 60명 비구에게 ‘중생의 안락과 이익, 행복을 위해 떠나라’며 전법을 선언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로 부여한 의무는 부처님 법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드가야로 320km를 다시 맨발로 걸어가 45년 동안 당신의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최선을 다해 중생의 이익을 위해 법을 설하신 것입니다”고 법문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말해온 ‘성불하세요’라는 인사에 앞서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라고 서로에게 말하자”고 당부했다.

장정화 회장은 인터뷰 내내 ‘제대로 된 전법’을 강조했다. 제대로 알고 하는 전법, 그것이 대불청이 해야 하는 소임이자 불사라고 했다. 요즘 우리는 ‘침체’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의 거대한 침체 속에서 불교 역시 많은 침체의 부침을 겪고 있다. 하지만 부침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다. 늘 인류는 부침 속에서 살아왔다. 오늘도 발로 뛰는 장정화 회장을 보면서 생각한다. 어린 장정화가 큰 불사가 되었듯이 작은 정성과 노력들이 모여 침체와 부침을 이겨낼 것이다. 장정화라는 꽃이 오래오래 시들지 않기를 기원한다.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소 원 정 사

주지 **도 계**

연꽃향기자비나눔본부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79-5번지
전화 062)279-3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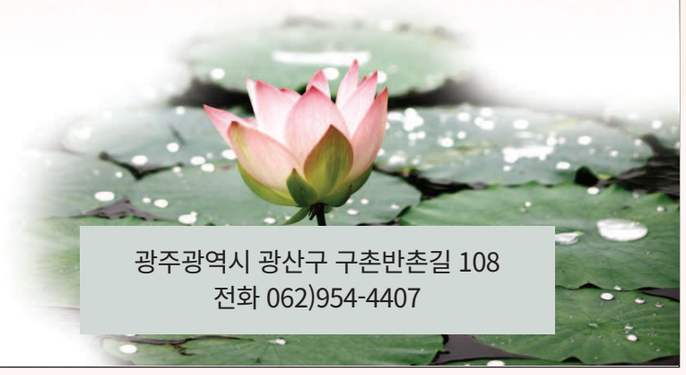
생명나눔 문화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보 은 사

주지 **도 제**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촌반촌길 108
전화 062)954-4407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지 **중 현**

사부대중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증심사길 177
전화 062)226-0108 팩스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신 광 사

회주 **경 주**

주지 **동 현**

대중일동 합장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66번길 42-10
전화 062)261-1529

대한불교조계종

불 갑 사

주지 **만 당**

사부대중일동



전남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전화 061)352-8097

대한불교조계종

신 흥 사

주지 **법 공**

신도일동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101-1
전화 061)554-2634

무등산 약사기도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약 사 사

회주 **범 종**

주지 **무 진**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11번지
전화 062)222-9844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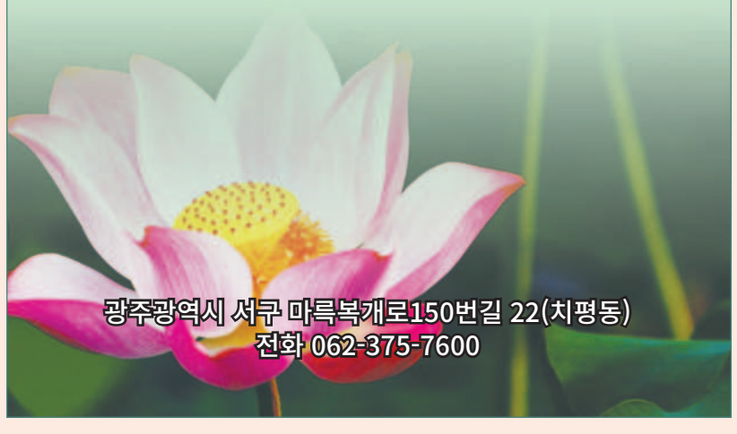
향 림 사

회 주 **수월 혜향**

주 지 **상범**

신도회장 **김보덕행**

합창단장 **조백련화**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복개로150번길 22(치평동)
전화 062-375-7600

대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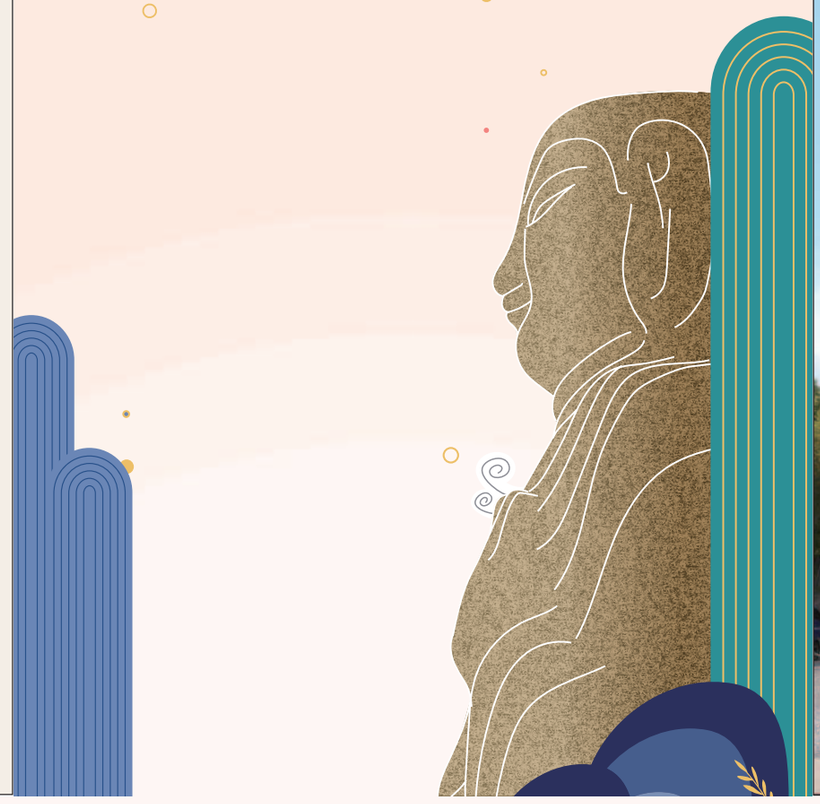
복 암 사

주지 **도 성**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49번길 68-32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한국불교통합조계종

종정 혜각 대종사

총무원장 법 경 감 사 혜 광
교육원장 정 관 감 사 지 월
재 무 일 초 거사림회장 종 우
사회부장 덕 운 신도회장 지 덕
사무총장 송 방

❋ 함께 정진할 종도 모집합니다. ❋

총본산 청룡사 : 경북 청송군 파천면 이사리2길 15-19
전화 054)873-2748 / 010-3847-4700
종정주석사찰 공덕사 : 경북 문경시 산북면 대승사길 90-7
전화 010-3513-4940

"지장천도 영험기도도량"

팔공산 천룡정사

주지 지 덕

◆ 국내 최대 탄생불 봉안
◆ 국내 최대 반려동물을 위한 축생법당(畜生法堂)개원
◆ 지장 천도기도도량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길 95
전화 054)336-0052 팩스 054)336-0053
핸드폰 010-5153-0052

"천년의 미소, 부처님 얼굴"

고려불상조각원



원장 일연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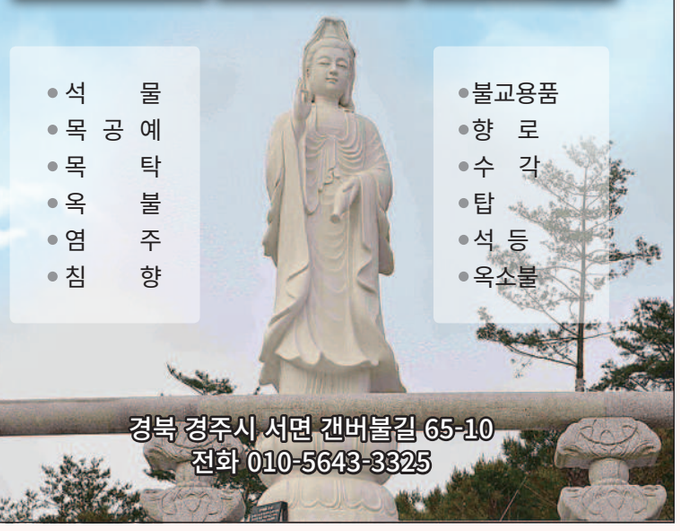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재재기로71번안길 12-32
전화 031-566-8821 팩스031)593-8821
핸드폰 010-2934-4508 www.고려불상.com

"불교전문제조업체"

정인불교예술원

대 표 김승하





- 석 물
- 목 공 예
- 목 탁
- 옥 불
- 염 주
- 침 향
- 불교용품
- 향 로
- 수 각
- 탑
- 석 등
- 옥소불

경북 경주시 서면 갠버불길 65-10
전화 010-5643-3325

사단법인 세계불교일화종

백이산 서산사

주지 원 담

순국선열호국사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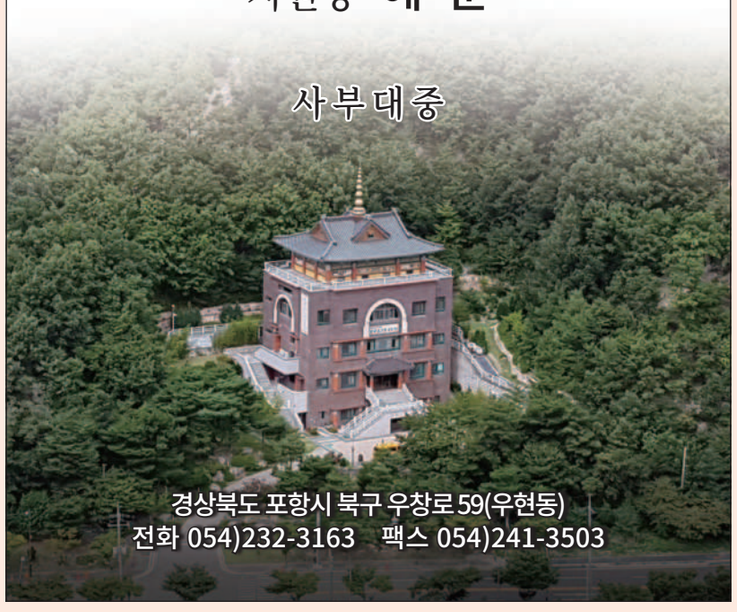
경남 함안군 군북면 사군로 1338-1
전화 055)585-5449 팩스055)583-8334 핸드폰 010-4977-243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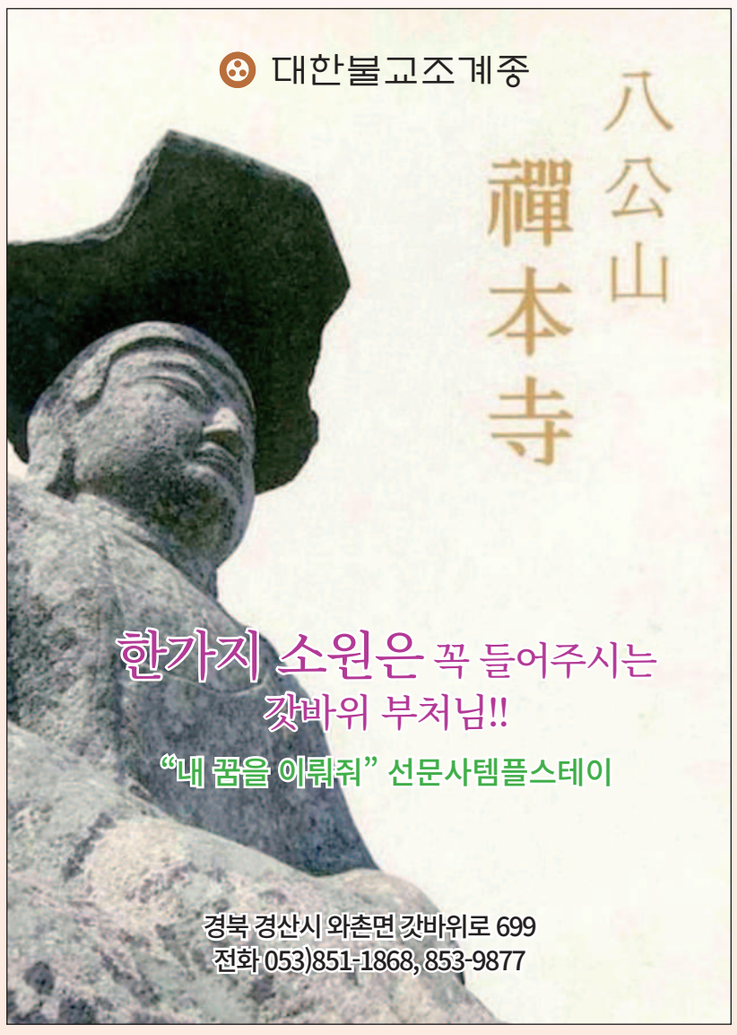
지원장 혜 문

사부대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우현동)
전화 054)232-3163 팩스 054)241-3503

대한불교조계종



한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갓바위 부처님!!

"내 꿈을 이뤄줘" 선문사템플스테이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699
전화 053)851-1868, 853-9877

큰 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이 사 장 운봉 법광
교 법 사 문수·원경
능인중학교장 정 영 채
능인고등학교장 홍 은 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 (지산동800)
전화 053-232-9175 / 053-232-9104 / 053-235-4414
법인 중학교 고등학교



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⑩ 연등



▶한줄 요약
등을 밝히는 의식은 불교와 짝을 이루어 전승되어온 역사가 깊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을 남겼듯이, 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한다.

환희로운 체험 의례, '연등 축제'

〈燃燈〉

내 등(燈)은 내가 지킨다

이삼십 년 전만 해도 부처님오신날이면 목욕재계한 신도들이 하루 전날 절에 와서 밤새워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다. 당시에는 전기로 등을 밝히던 시절이 아니었고, 등 안에 초를 꽂아 불을 켰으니 화재의 위험 때문에 '법당 등'의 개념도 없었다. 따라서 전날 밤부터 대웅전 앞마당에 등을 달았는데, 그들은 법당에서 기도하지 않고 돗자리를 펼쳐놓은 등 아래서 밤을 새웠다. 바람이 불면 두 손으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듬어, 밤새 자신의 소망이 담긴 등을 지키며 기도한 것이다.

인근 부석사에서도 철야기도를 하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2009년의 경우, 초칠일 저녁부터 수백 명의 신도가 무량수전에서 저녁예불을 올리고 기도에 들어 3시에 새벽예불로 부처님과 만났다. 봉축법요식과 법문을 들으며 산사의 하루를 보낸 뒤, 황혼이 찾아들 무렵 경내를 뒤덮은 등에 일제히 불이 켜졌다. 자신의 발원에 불을 밝힌 듯, 환희로운 탄성과 함께 범종루와 안양루 아래까지 빼곡히 자리한 신도들의 '석가모니불' 소리가 봉황산에 울려 퍼졌다.

이어 저마다 등을 든 이들이 기도하며 무량수전 앞마당의 팔각석등을 돌기 시작했다. 이 석등은 창건 당시의 것으로, "부석사 석등을 백 번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담론과 함께 '등(燈)을 들고 석등(石燈)을 도는' 아름다운 행렬이 이어졌다. 이윽고 사자좌에 오른 조실스님의 법문을 마음에 새기며 늦은 밤에야 신도들은 산문을 나섰다.

봉정사와 부석사의 부처님오신날 맞이는 신앙공동체의 지극한 정성과 환희로운 축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듯 깨어있는 몸과 마음으로 경건하게 부처님을 맞는 모습은 한국 불자들의 전통이었다. 이러한 축제 속에 등을 밝히는 연등(燃燈)이 정점을 이루어, 부처님오신날의 의식을 '연등회'라 부르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게 여겨진다.

등을 밝히는 시간은 해가 지면서부터이다. 봉정사는 전날 저녁에, 부석사는 당일 저녁에 불을 밝혔듯이 어둠과 함께 점등(點燈)이 이루어지면서 종교적 체험은 고조되게 마련이다. 신라 탑돌이가 밤늦도록 이어졌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처럼, 전통적으로 축제적 탑돌이 또한 날이 어두워지면서 본격화되었다. 탑돌이가 밤에 행해졌다는 사실은 연등과 짝을 이룬 것임을 말해준다.

신도들은 밤새워 기도하는 시간 중에, 등을 든 채 포행을 겸하여 경내를 돌거나 탑을 돌기도 한다. 어둠이 뒤덮인 가람에 오롯이 깨어 자신의 소망을 밝히며 걷는 일은 성스러운 시공간에 놓이는 의식이다. 그러한 체험은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의 하나로 각인되어, 언제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빛이 될 법하다.

연등과 민간축제의 결합

인간이 불을 다루기 시작한 이래, 의식이나 놀이로써 불을 밝히는 문화가 동서고금 없이 상징적 행위로 전승되어왔다. 불은 태양 · 밝음과 연결되는 강력한 상징물이기에 '불의 문화'는 그만큼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권위와 파괴력을 지닌 원시적 상징성이 크다면, 인간은 등(燈)이라는 '문화화된 불'을 통해 불의 또 다른 상징성을 공유해왔다.

특히 등을 밝히는 의식은 불교와 짝을 이루어 전승되어온 역사가 깊다.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을 남겼듯이, 등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를 상징한다. 이에 이른 시기부터 연등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행이자 중요한 공양으로 정착되었고, 초기 경전인 〈증일아함경〉을 비롯해 수많은 경전에서 등 공양의 공덕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이처럼 부처님께 일상적으로 올리는 연등 공양이, 중요한 불교행사에서 축제적 연등회(燃燈會)로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5세기 초 구법 순례에 나선 중국 동진의 법현(法顯) 스님은 당시 인도의 부처님오신날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에 따르면 장엄하게 꾸민 거대한 행상(行像) 수레에 불상을 모신 채 가두행렬이 펼쳐졌고, 왕과 백성들은 부처님께 꽃과 향을 바치며 밤새 연등과 기악 · 연희로 공양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정월보름에 불을 밝히는 민간의 풍습과 불교의 연등이 깊이 결합하게 된다. 중국의 경우 6~7세기에 인도의 영향을 받은 행상 공양의 기록이 등장하고, 정월 보름날 대로에 등을 밝히며 연등축제를 즐겼다. 이때 '등수(燈樹)'라 하여 거대한 나무에 가지마다 수백 개의 등을 밝혔는데, 부처님을 찬탄하는 돈황 벽화에 이 모습이 그려져 있어 불교와 깊이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연등회의 역사는 고려 초부터 정월보름에 이어온 국가의 연례행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민간과 사찰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연등 풍습이 성행하고 있었다. 〈삼국사기〉를 보면, 866년에 신라 경문왕이 대보름날 황룡사로 행차하여 등을 구경하고 백관에게 잔치를 열어주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진성여왕 때의 연등 기록도 있어, 고려의 국가행사로 정착하기 전부터 이미 사찰에 대보름 연등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신라의 사찰은 물론, 고려 연등회를 불교력(佛敎曆)과 무관한 정월보름에 연 것은 민간의 '대보름 불문화'와 관련이 깊다. 농경사회의 정월보름은 대축제의 날로, 일련의 불놀이를 하며 풍농을 기원하고 삿된 것을 물리치는 풍습이 광범위하였다. 대보름 연등은 가장 밝고 풍요로운 보름달 아래 불을 환히 밝힘으로써, 만월의 풍요와 재생을 지상으로 옮겨놓기 위한 공동체의 기원을 담고 있다.



통도사 연등.



부처님오신날 제등행렬의 탄생불.



봉황산을 환히 밝힌 부석사 연등.

그 뒤 1010년에 현종은 2월 보름으로 연등회의 날짜를 바꾸어 고려왕조의 마지막까지 이어가게 된다. 이날은 부처님 열반일이자, 2월이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농경축제의 기간이라는 점도 중요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의 연등이 민간의 축제와 결합하는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사월 초파일이 '연등'을 기반으로 온 백성이 공감하는 축제의 날로 자리 잡게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 새기는 연등의 축제성

"수많은 등불이 하늘에 이어져 마치 대낮처럼 밝구나." 고려의 문신 최자(崔滋)가 연등회를 노래한 글이다. 고려 연등회는 소회일 · 대회일로 나누어 이틀간 이어졌는데, 도성에 통금을 해제하고 밤새 등을 밝혀두어 이를 즐기는 관등(觀燈)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졌다. 〈고려사〉에 "선비와 부녀자들이 거리가 미어지게 나와 서로 축하했다"고 했듯이, 백성들은 밤늦도록 야산에 올라 불야성의 축제를 즐겼다. 조명이 열악하고 통금이 철저하던 시대에 환한 밤이 열렸으니 연등회는 그야말로 비일상의 축제일이었을 것이다.

임금은 궁궐에서 일련의 의식과 무대공연을 마치고 나면, 수천 명을 대동한 행렬을 이루어 개경 봉은사(奉恩寺)로 행차하였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세상을 떠나기 전 훈요십조(訓要十條)를 남겨 연등회와 팔관회를 이어가도록 당부하면서, '연등은 부처님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태조의 진영을 모신 사찰에서 불공을 올리며 나라의 평안을 기원한 것이다.

행렬은 동서고금 없이 축제의 백미이다. 당시 의례공간으로 연결된 궁궐과 사찰 간의 거리는 3km 정도로, 개경에서 향읍에 이르기까지 환한 등이 거리를 밝힌 가운데 대규모 행렬이 장관을 이루었다. 행렬을 따라 풍악과 연희 가무가 따르며 도성 전체가 연행공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축제의 주요요소를 행렬에 집약시킨 다채로운 길놀이 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늘날의 연등회에서도 행렬이 핵심을 이루듯, 고려 연등회 또한 축제에 가장 부합하는 의식이 바로 행렬이었다. 풍부한 시청각 요소와 함께 이어지는 행렬은 공동체 전체를 축제 분위기로 조성해주며, 백성들도 그 뒤를 따르며 행렬은 더욱 길어지게 마련이다. 특히 법왕(法王)인 부처님과 세간의 왕인 임금을 연결함으로써, 연등회가 나라와 백성을 위한 불교축제임을 깊이 체감했을 법하다.

고려의 국가 연등회는 정월 · 이월 보름에 봉행했지만, 사찰과 민간에서는 불교 명절인 부처님오신날에 집집이 등을 밝히는 '초파일 연등' 또한 전승되고 있었다. 조선의 건국과 함께 국가 연등회는 폐지되었으나, 초파일은 민간의 명절이 되어 연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와 풍습이 전승되었고, 언젠가부터 '연등회'는 '초파일'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처럼 등을 밝히는 문화가 불교의 연등과 결합하고, 부처님오신날을 중심으로 결집해온 역사를 살필 수 있다. 온 백성이 공감하는 기반 위에 전승되어왔기에 연등회의 의미는 더욱 소중하다. 따라서 근현대에 와서도 연등회는 종교를 초월해 감동을 주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시대에 집집이 달던 등이 오늘날의 다종교사회에서는 사찰과 축제공간으로 나오고, 지역마다 연등 행렬이 이어지면서 공동체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축제의 환희로움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등회의 가치는 부석사 · 봉정사의 사례처럼, 사찰마다 등을 밝히며 이어온 불자들의 신심과 정성이 가장 튼튼한 기반을 이룬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지극한 마음이 모여, 세계를 감동케 하는 환희로운 불교축제의 동력이 되어온 것이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실 현봉 근일
회주 남전 호성
주지 등운

사부대중 일동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전화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대한불교조계종

봉정사

주지 두현
회주 호성

신도회일동

봉황이 머무른 자리
영산암에서의 하룻밤
하루 템플스테이 특별 템플스테이

세계유산 봉정사

홈페이지 www.bongjeongsa.org
인스타그램 bongjeongsatemplestay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전화 054)853-4181, 4187 / 팩스 054)853-4185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사부대중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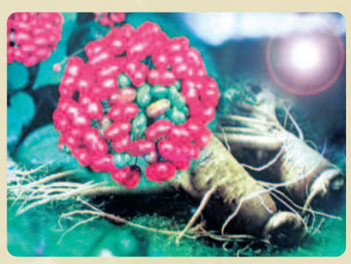
보궁기도 · 참선법회
템플스테이 · 불교대학
은빛노인대학



경북 봉화군 물야면 월계길739번길
전화 054)672-7579

풍기정품인삼 **풍삼정**

홍삼의 샤포닌은 성분과향기를 보유하기 위하여
저온에서 72시간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



■ 풍삼 정제품 :
풍기정품홍삼액(명품),
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
풍기정품홍삼액(골드),
홍삼먹은사과즙, 풍기홍삼,
풍삼정쥬니어홍삼액,
풍삼정홍삼환, 홍삼진액,
홍삼청국장, 백미삼, 수삼



직접재배 가공하여 양심을 속이지 않고 만든
인삼향기 홍삼액 「골드」
100ml × 60포(한달분) ₩128,000원



전화 : 054-636-2174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소백산 용문사

주지 청안

아름다운 휴식
용문사템플스테이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전화 054-655-1010 팩스 054-655-8405



중생들의 평안과 다복을 기원하는

八公山 **松谷寺**

주지 만녕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팔공로 209
전화 053)657-0108 / 휴대전화 010-3390-2145
https://blog.naver.com/sm20815

제71회 여름 지도자 강습회

마음愛부처님

2023년 6월 6일 (화) 오전9시~오후6시 / 조계사 불교대학

◀◀◀◀ 여름불교학교 **준비**를 한번에! ▶▶▶▶

강습회 프로그램

- 마음愛화합 / 강사 진성철
  - 불교학교의 환영의 시간 레크리에이션 지도법
- 마음愛몸들다 / 강사 이수민
  - 부처님 말씀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전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 자개공예, 비누꽃풍경, 슈링클스 외
- 마음愛몸짓 / 강사 민선희, 장혁진
  - 불교학교 찬불가 지도법과 함께 배우는 율동
- 마음愛담다 / 강사 혜장스님
  - 부처님말씀을 마음에 담아가는 화엄놀이

참가 대상

계층법회 지도자, 포교사, 지도법사,
템플스테이 담당자 등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

강습회 참가비

6만원 (5/31까지 사전접수시 5만원)
국민 610301-04-116109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신청서 작성 후 강습회비 납부하셔야 최종접수가 됩니다.

신청서 일정표

접수 및 문의 02-738-7860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명원문화재단 MYUNG WON CULTURAL FOUNDATION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 다도대학원
2023학년 2학기 9월 개강

"차의 입문에서 차문화, 예절, 인성교육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까지"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교육과정 소개

구분	과정명	기간	주 교육 내용
명원 다도예절문화원	준사범 과정(3급)	15주	잎차 다례법, 다례 예절
	사범 과정(2급)	15주	가루차 다례법, 다례 예절
명원 다도대학원	다인 과정(1급)	1년	한국 차 문화, 차 품평, 함말차
	명인 과정(지도사)	1년	세계 차 문화, 궁중다례

(재)명원문화재단은 국가가 지정한 차문화산업 교육훈련기관이며 전문인력양성기관입니다.

(재) 명원문화재단
홈페이지 | www.myungwon.org TEL | 02-742-7190 E-MAIL | myungwon@myungwon.org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진각종 부산교구

교구청장 현 강 정사님
종무국장 도 오 정사님
신도회장 안인수 보살님

부산교구신도회
신교도 일동

부산광역시 동구 구청로 19
전화 051)464-0668

금정구사암연합회

고 문 보운스님(범어사) 춘광스님(광명사) 계전스님(국청사) 월인스님(승가종 종정) 동원스님(연화종 종정)
자문위원 조연스님(법연원 회주)
회 장 고담스님(천불정사)
수석부회장 지홍스님(보광정사)
상임부회장 홍일스님(법전사)
부 회 장 법일스님(법장사)
사무총장 동암스님(금용사)
감 사 운곡스님(관음사)
기획국장 석산스님(안국선원)
문화국장 지광스님(대운사)
사회국장 혜공스님(구룡사)
포교국장 현수스님(홍법사)
재무국장 박 분 순(달오사)
사서국장 심일스님(천불정사)
회 원 승공스님(칠보사) 진여스님(다보사) 청명스님(불다사)

금정구 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천불정사 內 | Tel 051)583-9233

"수행이 곧 포교, 포교가 곧 수행"
포교현장을 찾아가는 포교사
전법의 선원을 실천하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 장 송재린
자문위원 최덕수 심재덕 강수대 이승표 정분남
감 사 강재실 이수임
부 단 장 서영우 이양희 임한규 주태돈
사무국장 강태산
총괄팀장 최정자 황용대 조봉례 김영신 천경덕 김옥희 윤영준 외 포교사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오피스텔 501호
전화 051) 633-3011, 3015 팩스 051) 633-3012
www.pogyosadan.org
http://cafe.daum.net/bgpogyosadan

부산불교복지기관의 상호교류와
불교사회복지 역량강화에
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사)부산광역시 불교복지협의회

Since 1999

회장(대표이사) 정 여
수석부회장 범 산
상임이사 원 광
이 사 명현, 성문, 심산, 정오, 보혜, 김수현
감 사 박용하, 이륭우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 불교회관 3층
전화 051)243-3531 http://www.bswia.org

청정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여여선원

(양정시장 꽃상가 5층)

[부설 자선단체]
사단법인 세상을 향기롭게

선원장 정여 (前범어사 주지)

영도대흥사 주지 정여
대연동 붓다선원 주지 도경
서울진여선원 주지 도일
삼랑진 여여정사 주지 도명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
거제 여래선원 주지 효산
사량도 관음낙가사 주지 효원
울산 여여선원 주지 효암
단장면 자모선원 주지 효문
양산 보현선원 주지 효범

여여선원 신도회 명예회장 김경환

부산시 부산진구 동평로420번길 18, 5층(양정상가 아파트)
전화 051)853-5486~7, 팩스 051)863-6422
(사)세상을 향기롭게 : 전화 051)702-9944

대한불교조계종

청 심 사

YouTube 밝은마음TV

주지 법 진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139번길 14-8
전화 051)315-7282



참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사

회주 법 흥
주지 지 원

신도회장 박화자 외 신도일동

사회복지법인문수복지재단
사단법인 위드아시아
용호 종합사회복지관
용호 종합 어린이집
문수 노인 통합지원센터
문현 노인 복지관

부산시 남구 홍곡로336번길 41 (용당동)
전화 051)624-3754, 7848
팩스 051)623-9253

한국불교조계종

황령산 옥 천 암

주 지 대각 금산
원 주 월하 도진
연등회 회장 김선숙
보현회 회장 박영자
지장회 회장 김감애
관음회 회장 배기매

사부대중 일동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90번 나길 23(문현동)
전화 051)634-5689

대한불교조계종

地藏佛教 根本道場 대연정사

사부대중일동

www.dytemple.net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69번길 8
전화 051)625-3886

대한불교조계종

가 야 사

주지 정 현

✽ 가야사 다도회 모집
(매주 월요일 10시~12시)
: 차의 세계와 문화, 다법과 예절(다례), 차명상과 참선
✽ 금강경 수업반 모집
(매주 1회 19시~21시)
문의 : 051)893-0428

< 운영지원기관 >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보현어린이집,
부산진시니어클럽, 연제시니어클럽

※ 만60세 어르신으로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이나 어르신들의 채용을 원하는 단체는 언제든지 문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부산진시니어클럽 ☎ 051) 893-9060
연제시니어클럽 ☎ 051) 851-2190

고려시대 석기왕자 출가사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3호 만덕사지)

주지 금산 박혜명

만덕사 신도일동

사단법인 현대불교 금정원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
전화 051)334-3009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봉사일번지

사단법인 미 소 원

상담 · 봉사
수행 · 후원

이사장 장유정

[자원봉사 인증 등록기관]

지역 독거어르신 영양식 반찬봉사
만성질환자 죽봉사 어르신 심리상담
생활상담 및 심리상담
결핵환우 밑반찬 및 후원활동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부산광역시
남구불교연합회

회 장 **회중 지원** 문수사
수석부회장 **원순** 동명불원
부 회 장 **능후** 대연정사
도오 남도심인당
감 사 **대 각** 옥천암
사무총장 **호 명** 무문홍법사
사무부총장 **혜 광** 대연사
사무국장 **대혜법사**

남구불교연합회 회원 사찰 주지 일동
남부경찰서 경승 일동

남구불교연합회 신도회
신도회 회장 **박화자**
수석부회장 **광혜 성재곤**

부산시 남구 홍곡로 336번길 41 (용당동)
문수사內 전화 051)623-9253

부산광역시
연제구불교연합회

고 문 **원광스님(정수사)**
보당스님(보국사)
자문위원 **범수스님(금용암)**
정산스님(마하사)
회 장 **법승스님(화엄사)**
부 회 장 **동선스님**
이 사 **법호스님(정토사)**
희공스님(불심사)
지원스님(선금사)
법진스님(고운암)
사무총장 **눌은스님**
감 사 **지공스님(불이중도사)**

그 외 회원스님 일동

부산광역시 연제구 황령산로524번길 16
화엄사內 전화 051) 853-1942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보운스님**
부 총 재 **무관스님 원타스님**
사무총장 **눌은스님**
협 회 장 **백명숙**
사무처장 **정경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문화로27, 1206호
전화 051)513-4306 Fax 051)513-4307

불교TV 염불공양회

고 문 **강명자 김순이**
회 장 **하정선**
수석부회장 **정승자**
특별임원 **임춘지**
부 회 장 **윤미자 안상희**
감 사 **강행순 강지원**
재 무 **윤정희**
총 무 **송순애**
팀 장 **최말순 김금옥 박선자 김숙희**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 102번길 16-10
동양빌딩 7층(범일동) | 전화 051)633-4020

준제보살기도도량
연종학림
명상센터
바즈라야나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 115 3층
전화 051)404-5037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송광사 부산분원
관 음 사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다음카페 cafe.daum.net/gwanumsa1

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당리동39-2)
전화 051)294-9300

대한불교조계종
자비도량 **원오사**

(재)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
원오사 부설 명정지역아동센터

회 주 **고원 명정**
주 지 **대원 정관**

부산시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전화 051)542-7949 www.wonosa.or.kr

지장기도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회 주 **선 묵 고 담**
주 지 **법 경**
누림주간보호센터장 **조민호(범성)**
원 주 **조정자**

신도회 회장 **이정민** 변호사
신도회 부회장 **양귀임 박상옥**
신도회 총무 **김영애**
거사림 회장 **이경철**
고담나누미 회장 **신희숙**

사부대중 신도일동
누림주간보호센터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230-9 (장전동)
전화 051)583-9233 팩스 051)583-6362
누림주간보호센터 051)516-2333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장산
대 원 각 사

주 지 **안 도**
신도회장 **정재원**
수석부회장 **이복덕**
다 도 **김미규**
불무도 **박성우**

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좌동 1132번지)
전화 051)701-8827

대한불교조계종
광 명 사

주지 **무 아**

신도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창로14번길 46
전화 051)646-0843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감 로 사

조실 **현담 의현** 대종사
회주 **수봉 세민** 대종사
주지 **월천 혜총** 대종사

부주지 **경성**
총 무 **경원** 교 무 **경무**
재 무 **경증** 사 회 **경동**
포 교 **경소** 복 지 **경지**
연 수 **경상** 교 육 **경증**
군포교 **경제, 경진, 법설**
해외포교 **경적, 경본**
사 서 **경여**

감로사 신도 일동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432(전포동)
전화 051)809-0926

사회봉사단체
부산불교 보현회 보 현 정 사

회 장 **안성이**
재 무 **조영희**
총 무 **전영자 윤점자**
최본자성
감 사 **배종환**
홍보부장 **유기선**
청년회회장 **전진호**

회 원 일 동

부산시 동구 좌천동 532-1
전화 051)636-4531

강소연 교수의 깨달음의 미학 ⑩ 깨달음의 작용—여의주와 빛 (2)



▶한줄 요약
깨달음의 작용으로서의 빛 또는 광명은 부처님 형상을 조성할 때 '광배(光背)'로 나타낸다.

부처님 '광배', 지혜광명 형상화하다

부처님의 형상(形像)을 조성할 때, 필수 도상으로 여의주를 언급한 바 있다. '깨달음의 본체' 로서의 여의주가 불교에 있어 핵심 도상(종교적 기호 또는 상징)임을 설명하였다. 청정범행의 완성이자 궁극의 불성인 법신(法身)으로서의 표상임을 논하였다. 본 글에서는 '깨달음의 작용' 으로서의 빛(光, 광명)에 대해 풀이하고자 한다.

깨달음의 작용으로서의 빛 또는 광명은 부처님 형상을 조성할 때 '광배(光背)' 로 나타낸다. 즉, 여의주와 광배가 없는 불상은 없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여의주와 광배가 없으면, 부처님 형상이라 할 수 없겠다. 그만큼 '여의주와 빛(광배)' 은 깨달음의 본질적 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깨달음과 광명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① 아기 붓다의 몸에서 방사되는 깨달음의 광명. (송광사 팔상탱 부분, 1725년)



그림② 여의주서 분출하는 지혜광명. (송광사 팔상탱 부분, 1725년)

'존재=고통', 고통이 해체되는 과정

깨달음과 관련하여 '광명' 은 가장 처음 언제 등장하는 것일까? 〈사꺄무니 고따마 경〉에는 붓다께서 자신이 어렸던 태자 시절에 잠시 경험했던 깨달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생노병사의 고통' 의 원인을 정사유(正思惟)하다가 12연기를 순관과 역관으로 꿰뚫어 보게 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 있을 때(무엇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은 있게 되는가?" 늙음과 죽음(老死)의 괴로움은 태어남(生)으로 생긴다. ←"무엇이 있을 때 태어남은 있게 되는가?" 태어남은 존재(有)함으로 생긴다. ←"무엇이 있을 때 존재함은 있게 되는가?" 존재함은 취착(取)으로 생긴다. ←취착은 갈애(愛)로 인해 생긴다. ←갈애는 느낌(受)으로 생겨난다. ←느낌은 접촉(觸)으로 생긴다.←접촉은 육입(六入: 여섯 감각 장소)으로 생긴다. ←육입은 명색(名色: 물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서 생긴다 ←명색은 식(識, 알음알이)으로 인해 생긴다. ←식은 행(行:의도적 행위)으로 인해 생긴다. ←행은 무명(無明)에서 생긴다. 이같이 고통의 무더기(苦蘊)가 발생한다.

붓다는 통찰지로 관통함으로써 고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에게는 '일어남, 일어남'이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眼, cakkhu)이 생겼다. "지혜(智, ñāṇa)가 생겼다. 통찰지(慧, paññā)가 생겼다. 명지(明, vijjā)가 생겼다. 광명(光, āloka)이 생겼다."

여기서 일어남이란 고통의 일어남이다. 〈대념처경〉의 '고성제' 에서는 '나' 라는 존재 자체(오온)를 '고통' 과 동격으로 설명한다. 존재의 실체는 오온(五蘊)이 고인데, 오온의 결과로써의 고온(苦蘊)을 말하고 있다. 즉, 12연기의 역관은 존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연역법의 방식으로 통찰한 것이다. 존재라는 덩어리가 바야흐로 분해되는 순간이다.

'12연기' 통찰 순간, 발생하는 빛

가장 밑바탕의 '무명(無明)' 이 타파되는 순간, '명(明, 밝음)' 이 드러났다. 깨달음의 빛! 그것은 "지(智)이자, 혜(慧)이자, 명(明)이자, 광(光)"으로 표현된다. 붓다는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셨지만, 모두 깨달음의 한순간에 나타난 4가지 측면이라 하겠다. 반야지혜(통찰지)는 사물을 꿰뚫는 레이저 빔의 광선과도 같다. 지혜를 닦을수록 광선은 고밀도가 된다. 이러한 통찰지의 빛이 생긴 것을 "제3의 눈이 열렸다"라고도 표현한다. 반야지혜의 빛이 생긴 모습은 미간 차크라가 열린 형상으로 백호의 여의주로 구현된다. 부처님 형상의 광배(두광 및 신광)의 중심점은 가슴 차크라 또는 미간 차크라가 기점이 된다. 부처님의 본질적인 표현인 여의주에서 깨달음의 빛이 발산되는 것이다. 붓다께서 존재의 일어남의 원인과 멸함의 조건들을 체득하셨을 때 "마치 태양이 허공에 빛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돼 있다.

> 무명 타파하며 생긴 '지혜광명'
> 통찰지, "제3의 눈"으로 표현도
> 깨달음의 빛, 불상 광배로 조성
> 여의주, 광배는 '깨달음의 도상'

붓다께서 표현하신, 깨달음의 순간에 생겨난 '지 · 혜 · 명 · 광' 을 (필자는) 부르기 쉽게 '지혜광명(智慧光明)' 이라 칭하기로 한다. 지혜광명의 조형적 표현이 광배이다.

"자신에게 향한 애정만한 것이 없고, 곡식만한 재산이 없고, 통찰지만한 광명은 없고, 비야말로 흐르는 물 중에 최상(〈아들에 비견하지 못함 경〉中)"이라고 붓다는 말씀하셨다. 즉, 통찰지를 넘어서는 광명은 없다는 것이다. 통찰지 자체가 빛 그 자체인데, 이 빛으로 수만의 세계를 밝힐 수 있고 삼세의 모든 암흑을 몰아낼 수 있다.

'통찰지의 광명' 광배로 표현

초기경전 상의 '통찰지의 광명' 에 대한 언급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이 있어 밤낮없이 빛을 발하나/ 완전하게 깨달은 그 자야말로/ 빛나는 것 가운데 으뜸이라/ 이 광명은 위없는 밝은 것이라." –〈광채경〉 中

깨달은 자에게서 방사되는 빛이 최고의 빛이라는 설명이다. "이 광명(esā ābhā)이란 부처님의 광명(Buddh-ābhā)을 말한다. 왜냐하면 지혜의 광명이건, 희열의 광명이건, 청정한 믿음의 광명이건, 설법의 광명이건, 이 모든 광명은 부처님들이 출현(pātubhāva)하심으로서 생겼기 때문이다(SA.i.52)"라는 것이다. 깨달음의 다양한 단계마다 빛이 출현하는데, 이는 곧 붓다의 출현을 말한다.

특히, 설법하실 때 광명에 대해서는 〈대반열반경〉및 〈법화경〉의 '서품' 에서 익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세존께서 이른 새벽녘에 입으로부터 가지가지 광명을 놓으시니, 그 밝은 빛이 여러 빛깔이라, 푸르고 붉고 흰빛과 파리(頗璃)빛 등이요, 그 광명은 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비치며, 시방세계에까지 이르러서도 또한 그와 같은데, 그 속에 있는 여섯 갈래의 중생으로서 이 광명에 비추인 이면 죄업과 번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대반열반경〉 서품 中

수행 중 만나게 되는 빛의 파장

깨달음의 여러 단계 마다 경험하게 되는 또는 체득하게 되는 빛의 크기와 밀도는 다양하다. 물론 깊은 수행 상태로 들어갈수록 빛의 크기는 커지고, 빛의 밀도는 높아진다. 수행할 때 변하는 빛의 파장을 이하 정리해 보았다.(이하 내용은 영선의 〈위빠사나 명상일기〉참고 요약)

의식이 깨어있을 때의 뇌파는 베타파(Beta waves)인데, 이는 흥분 · 긴장 · 혼란 · 초조를 초래한다. 우리가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대부분이 베타파의 상태이다. 눈을 감고 몸이 이완되는 명상의 상태에서는 알파파(Alpha waves)가 작동한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고 근육도 이완되며 편안한 상태에서 의식이 집중되어있는 상태를 말한다. 건강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타파(Theta waves)의 상태가 되는데 이는 알파파보다 더 느린 파장이며 얕은 수면 상태와도 같다.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로 무의식 속의 기억이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통찰력과 초능력이 발휘되기도 하며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정신적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 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창조적인 힘이 발휘된다. 세타파보다 더 느린 파장이 델타파(Delta waves)이다. 이때는 완전히 무의식으로 빠져든 상태이다. 델타파가 나올 때는 다량의 성장 호르몬이 방출되어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이를 통해, 명상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화되고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검은 먹구름 같은 업장은 소멸되고, 마음 바탕은 청정하게 빛이 나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TEL 051)746-2256, 744-4812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성담사 TEL 055)867-9999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 산 지 역 본 부

본 부 장 **심산**
부본부장 **자인, 목종, 해암, 이동권, 이승표, 이욱태**
감 사 **최상곤, 이영숙**
총무이사 **성문, 권인자**
기획이사 **마나, 최성은**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배종권**

운영이사 일동

〈주요사업〉

장기기증 희망등록사업
환자치료비 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부산광역시 동구 고관로 63번길1, 2층(은정빌딩)
☎ 051-853-0429
☎ 051-468-042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나눔은 습관이며 베풂은 수행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불교문인협회

실상문학상운영위원장 **혜총 대종사**

회 장 **차정연**
수석부회장 **이석래**
부 회 장 **명은애, 박숙자, 박혜숙, 서경남, 손순이, 양은순, 윤기선, 윤유점, 우아지, 이순선, 이초우. 최선희, 보혜스님**
감 사 **차달숙, 박선옥**
편집주간 **양원식**
편집국장 **이소정**
편집위원 **윤기선, 염계자, 권명해, 홍종원**
편집기자 **최인숙**
사무국장 **채경자**
사무차장 **이장옥**
재무국장 **이형주**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27
유원골든타워717호
☎ 051)816-4181
http://cafe.daum.net/bulgoy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登一段하는

(社)釜山佛教實業人會
妙光禪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이근철 이달수 강양수 정영철**
감 사 **지호경 박신욱**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연수이사 **박주영**
부 총 무 **양동회**

회 원 일 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부처님 오신 날, 성불합시다.

"대학생불자활성화 108후원"모집

불교인구 감소와 탈종교 시대에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현재이자 미래인 대학교 불자동아리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08후원회'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원일동 합장

자동이체 : 1만원/월
계좌번호 : 농협 301-0169-1519-21
(예금주 : 부산교수불자연합회)
문의 : 010-3544-7500 (회장 권성열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여 래 선 원
경산 **삼 성 사**

주지 **평 중 효 산**

사부대중 합장

· 여래불교대학 : 매주(수) 주간10시 야간 오후7시
· 경전반 : 매주(화) 주간 10시 야간 오후7시
금요천주관음기도 오후7시
금요자비참법기도 오전10시
· 매월 첫째주 금토 다라니기도 오후7시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지 **운암 현엽**

(재)청미단 운암장학회
(사)청미단 생활문화 학림원
마에뜨리아 불교대학
포교사반(1년) · 입문자반(3개월)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도로 29 (명지동)
전화 051)271-2774 팩스 051)271-0936

대한불교조계종

천 태 암

회 주 **상 화**
주 지 **동 효**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동래구 쇠미로
129번길 175(온천동)
Tel 051)506-0642

대한불교조계종

발 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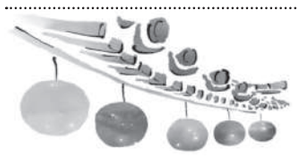
주지 **호 법**

신도회장 **김해림**
화엄회회장 **오부상**
순례단장 **김상욱**
다도회회장 **윤선영**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310-78
Tel 051)405-2326

락 서 암



주지 **수 월**

락서암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서구 망양로 227-3
전화 051)254-0820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 산하시설 및 운영사업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공덕향재가장기요양기관
북구아이돌봄지원사업
독거노인건강음료지원사업

온정의 마음을 전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후원 : 부산은행 255-01-000716-4
사회복지법인 공덕향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 268 상가동 204호 (금곡동)
Tel. 051)363-2063 Fax. 051)363-2067
http://www.gongchang.or.kr

담해북스

출판문화그룹 DHAM&BOOKS

서울_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23(내수동)
경희궁의 아침 4단지 805호
T. 02)765-1251(영업부) 1250(편집부)
dhamenbooks@naver.com

부산_ 부산광역시 남구 진남로 82(대연동)
T. 051)244-1251
hdbooks21@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원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신도 일동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664(구포2동) 3-4층
전화 051)338-1008, 337-1080

12만 조선인 '恨' 서린
교토 '耳塚'(귀무덤) 고혼을 천도하다

일본 교토 이총 추모봉행위, 4월 30일 진혼재 봉행

세계불교법왕청 · 국제붓다봉사단 100여 불자 모여 불교위령재 열어
일본 스님 · 지식인들 대거 참여 눈길, "진정한 관계 개선, 참회서 시작"







"낮선 땅에 묻혀 수십만 귀를 열어 두어도
끝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
한 서린 애혼 영가이시여!
여기 한국의 후손들이 진혼재를 올리오니
애절한 한을 잠시 내려 놓으소서!"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대한민국나라사랑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일본 교토이총 추모진혼재 봉행위'(총재 목탁 스님)는 4월 30일 교토 귀무덤에서 '임진왜란 희생 애혼 영령 추모 진혼재'를 봉행했다.

귀무덤은 400여 년 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 일으킨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전리품으로 12만 6000여명 조선인의 귀와 코를 베어 이를 묻어놓은 곳을 말한다. 이날 진혼재에는 봉행위원회 총재 목탁 스님, 회장 혜정 스님, 봉행위원장 청명 스님 등 한국 스님들과 일본불교협회장을 역임한 불광사파 서덕사 최고고문 오타니 기하쿠 스님, 정토종 칭명사 주지 샤쿠 하쿠신 스님 등 스님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한국불자 및 재일교포들과 아마키 나오토 교토평화모임 대표(前 레바논 대사), 나까노 요우이치 교토시의원, 민단신문 · 중외일보 등 일본언론기관 등의 관계자 100여 명이 동참했다.

진혼재는 범패 등 불교전통의식과 함께 천도의식으로 이어졌다. 오타니 기하쿠 스님 등 일본 스님들이 참회와 축원을 올렸으며, 아마키 나오토 대표의 참회발언 등이 이어졌다.

〈귀무덤〉 책을 펴낸 아마키 나오토 대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이총에 관한 내용을 모르는 이들이 많다"며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일본 내에서 과거사를 반성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야 한다. 이총 추모 진혼재는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육법공양을 올리고 애도송을 합송했으며, 한국에서 준비한 추모의 글을 낭독하여 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총재 목탁 스님은 "세계가 화합하여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때"라며 "국제불교지도자 스님들이 앞장서고 한국불교계의 각 종단 스님들과 불자들이 힘을 모아 자리이타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와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은 자비행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매년 4회씩 10년간 봉사활동을 진행하여, 회당 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소외계층에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달한 물품은 총 2억여원에 달한다. 이밖에 교도소 재소자 교화 지원에도 나서 7회에 걸쳐 6천만원을 전달했다. 올해 2월 23일에는 튀르키예 지진 당시 BBS불교방송 모금창구에 1천만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성금모금 특집방송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을 비롯해 혜정 스님, 김재은 의전1단장, 이정희 의전2단장 등이 참석했다.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모집

전국 각 지역 지부장 및 지역봉사단원을 모십니다
국내외 남녀 자원봉사자 환영합니다

지역 불교지도자 : 종단 불문, 포교에 나선 출가자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 남성분과, 여성분과 활동 재가자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활동문의 02-733-5665

10만 연등 수 놓으니…여기가 '부처님 세상'

불기 2567년 연등회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연등회 보존위원회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처음 열린 이번 연등회에는 5만여 대중이 행렬에 참여하고, 10만 연등과 장엄등이 서울 밤하늘을 장엄해 이전 규모로 회복했음을 세계에 내보였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연등행렬은 윤재웅 동국대 총장의 행렬 선언으로 시작됐다. 올해 선두 장엄등은 '불교사물등'이었다. 중생제도를 상징하는 '불교사물등'은 법고등, 범종등, 운판등, 목어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는 서원이 담겼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생명을 위해 환경을 고려한 장엄등과 행렬등도 행렬에 참여했다.

사찰과 불교단체들이 새롭게 선보인 장엄등들도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은 '평등공법등'을 새로 선보였으며, 화계사는 '세계일화등', 진각종이 '황룡등'을, 전국비구니회는 '사캬디카등'을, 태고종이 '거북법고등' '관세음보살등' '달위의 비천등' '연꽃과 아이들등' 등을 새로 제작해 행렬에 참여했다.

올해 연등행렬에는 참가단체 이외에 시민 문화체험단도 행렬에 참여한다. 대한불교청년회를 통해 선착순 250명 사전 신청을 받아 참여한 시민들은 연등행렬에도 동참해 축제를 즐겼다.

▶C13면에 계속



연등회 보존위원회 ·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서울 종로 일원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를 개최했다. 앞서 동국대에서 열린 '어울림마당' 후 연등행렬이 이어졌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장엄등 행렬 모습.









봉축위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지도자들.







청정 염불수행도량

영산불교 현지사

초대 교조 광명 만덕 큰스님
제2대 교조 자재 만현 큰스님

장로원 의장 성광 교정원장 일도
포교원장 행원 교육원장 대원
감찰원장 범행 불교대학장 일도

춘천본사 주지 대원 제주제2본산 주지 범행
부산분원 주지 보문 대전분원 주지 행원
고성분원 주지 성범 대구분원 주지 정대
김해분원 주지 성광 일본분원 주지 성도

영산불교 현지사 사부대중 일동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 033-243-1787
•제 2본산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11 ☎ 064-783-5355
•부산분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325 이센타워 15층, 14층 ☎ 051-554-5150
•대전분원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고성분원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길 7 ☎ 033-681-5515
•대구분원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9길 20 ☎ 053-654-5557
•김해분원 : 경남 김해시 상동면 상동로 739-157 ☎ 055-327-0055
•일본분원 : 일본 야마구찌켄 이와쿠니시 오즈마치 3-3-10 ☎ 81-827-31-1611
•영산불교대학 :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1070 ☎ 042-525-5325

오늘은 축제의 날, 매일이 부처님오신날 같아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 및 어울림마당을 봉행했다.



5월 20일 서울 동국대에서 열린 연등법회.

▶C12면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20일 동국대 대운동장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연등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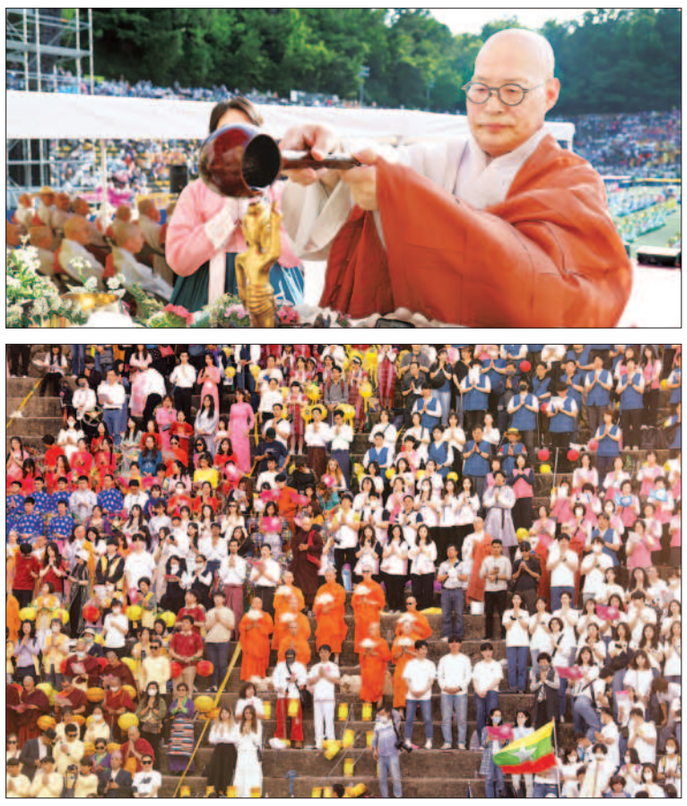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올해 연등회는 차별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담아내는 법석으로 진행됐다. 연등회의 시작을 알리는 어울림마당은 어린이, 청소년과 연희단의 율동 발표로 꾸며졌다. 연희단은 흥겨운 율동으로 축제의 흥을 돋웠고, 참석대중은 환호로 화답했다.

행렬등 경연대회 시상식도 진행됐다. 연등지혜상은 한마음선원의 '봄을 품은 염주등'이 수상했으며, 연등선정상은 수국사와 삼천사가 받았다. 연등인욕상은 승가사 · 석불사 · 도선사 · 화계사 · 금륜사 · 삼성암 · 구룡사 · 충정사가 수상했으며, 연등지계상은 불광사 · 봉은사 · 진각종 · 옥천암 · 파라미타 · 총지종 · 법안정사 부부불자회에게 돌아갔다.

이어진 연등법회는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전쟁을 극복하고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법석이었다. 법회에는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이자 연등회보존위원장인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우인 정사, 윤재웅 동국대 총장 등 사부대중 3만여 명이 참석했다.

불기 2567년 연등회 연등행렬의 대미는 대동한마당이 장식했다. 5월 20일 오후 9시 30분 종각사거리 특설무대에서 진행된 대동한마당은 시민과 불자, 내국인과 외국인, 남녀노소를 넘어 하나가 되는 화합의 법석이었다.

마스크를 벗은 사부대중은 흥겨운 찬불가와 트로트, 댄스음악에 몸을 맡겼다. 또한 대중은 서로 손을 맞잡고 쏟아지는 꽃비 아래 강강술래를 하며 서로가 하나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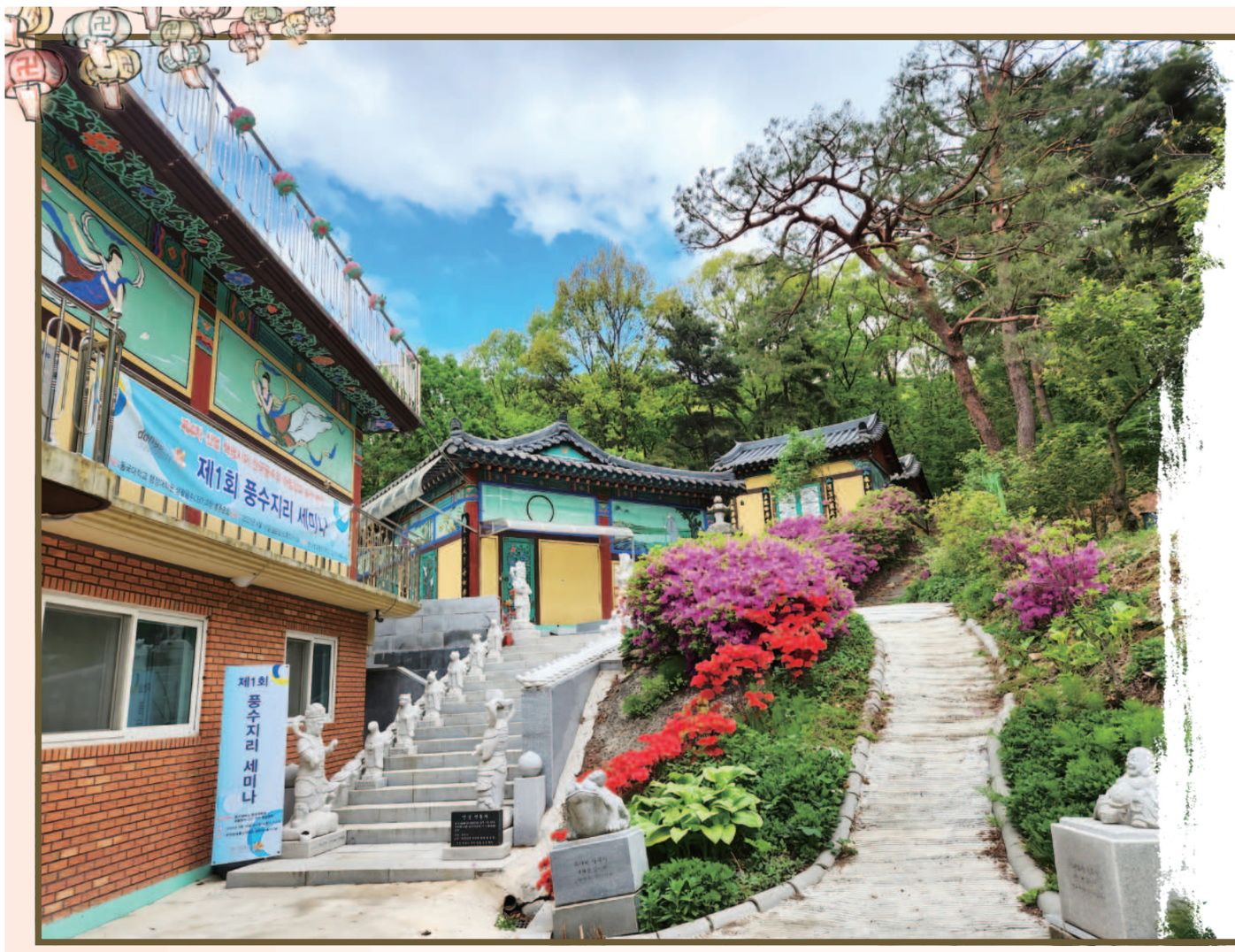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사단법인 불교 정중종

일죽 망이산성 연 등 사

주지 도 심

- 사회부장
- 안성경찰서 경승회 감사
- 안성불교사암연합회 부회장
- (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일붕문도중앙회 수석부회장
-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 최고위과정 생활풍수CEO총동문회 회장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금일로 48-37(화봉리 69-1)
TEL (031)674-5765 | FAX (031)674-5769 | Mobile. 010-3714-9351

불기2567(2023)년 #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참된 사람/착한 사람/아름다운 사람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선화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 사 장 돈 관

사범대학부속
선화여자교등학교

교 장 한승철
행정실장 신수영

경상북도 영천시 상아탑길 36
전화 교무실 054)333-3435
팩스 054)334-3435
행정실 054)333-3431 팩스 054)333-3432

하늘이 준 복을 누리는 도량!

안 향 사

회주 조향

사부대중일동

경북 경주시 안강읍 호국로 2159
전화 010-3104-3791

대한불교조계종

해운정사

부설 청명노인복지센터

주 지
센터장 청명

육재일 법회안내
(음) 1월 하루 (음) 15일 보름
(음) 7일 아라한재일 (음) 18일 지장재일
(음) 8일 약사재일 (음) 24일 관음재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2길 35
전화 053)621-6237 팩스 053)621-5933
cjdaud6237@naver.com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불교총 원효종

종 정 宋昊巖 대종사

총본산 호암사

대구광역시 동구 위남로 66
전화 053)983-2157 팩스 053)986-0500
핸드폰 010-8597-2157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

문 수 사

주지 덕 화
회장 김광석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적계지길 46
(인주리 151)
전화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 실 청운 도원
주 지 허주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전화 053)984-4550 팩스 053)985-7118
www.pagyesa.org

운불련 호출택시

호출은 053-766-7777

Google play 에서
운불련을 검색하세요! ▼

회 장 조신제

한국 운전기사 불자 연합회
대구지역회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 지 태 관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전화 054)335-1369 팩스 054)335-2609

대한불교용화법원미륵종

불 종 사

종 정 보원 현진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경산시 남방1길 5-6 (남방동)
전화 053)802-4043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증 혜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584-1
전화 053)255-1450,1411
팩스 053)292-0751
홈페이지 www.jingak.or.kr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 지 우록 법륭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로33길 6(불로동)
전화 053)982-9329 팩스 053)983-1698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 지 부 용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전화 053)553-5371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합동석물(주)

석재가공 석공사
전문건설업체

대표 탁 진 규

사부대중일동

경북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714-10
전화 054)955-8200 ~ 1
팩스 054)955-8202

대한불교조계종

금 용 사

(금용 복지회관)

혜 선

신도회 일동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13(성당동)
전화 053)628-5404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김도원

부설
· 동 해 유 치 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전화 053)624-0542 팩스 053)623-0265
www.daesungsa.or.kr

'효' 종찰 기도도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 현

「길따라 …
土樂 토락」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전화 054)931-5204

대한불교조계종

불 광 사
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www.gbbc.or.kr
(우리나라 두꺼비 최대서식지)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전화 053)792-1353, 1181 팩스 053)791-4951

유튜브 불교대학 비유디

17만 구독자가 시청하는 생활법문
한국불교대학 or 유튜브불교대학 or 우학스님 검색

불교의 모든 것! 생활법문, 신행상담
수행 – 금강경 독송, 관음정근, 대다라니 등
경전공부 – 육조단경, 금강경 등

◈ 멤버십을 통한 체계적 불교공부 ◈
(월 2,990원 / 교재 무료 제공)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대구큰절 (053)474-8228

대한불교조계종

보 리 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 악

사부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전화 053)522-7611 팩스 053)522-7612

대한불교조계종

오 어 사

주지 성 주

사부대중일동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오어로 1
전화 054)292-2083 팩스 054)291-4190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 현

신도일동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곡로 91길14(지묘236)
전화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대 전 사

사부대중일동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공원길 226
전화 054)873-2908 팩스 054)874-9137

재단법인 선 학 원

서 봉 사

회주 경 희
주지 명 음

사부대중 일동

대구광역시 남구 명덕로54길 34
전화 053)471-4812 팩스 053)471-4813

高靈 Goryeong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전화 054)954-8008(代) 팩스 054)954-5335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두 타 사

불 사 회
두 타 회
단 나 회
108산사순례단
가릉빈가합창단
해병대통영전우회

해병 영혼의집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용남면 삼화리 95-1
전화 055)648-1477, 648-1366

대한불교조계종

용 화 사

주지 **현장**

신도회일동

경남 울주군 상북면 천전길54
전화 052)262 0518

대한불교조계종
통도사 말사

양산 미타정사

주지 **여해**

사부대중일동



경남 양산시 대평들1길25-9(소주동)
전화 055)388-3280

대한불교총화종

고성 청 수 암

주지 **진각**

사부대중일동

경남 고성군 삼산면 대독1길 85
전화 055)672-6972

대한불교법화종

통영 보 광 사

법화제일도량

주지 **연산**

사부대중일동

경남 통영시 망일길71-20
전화 055)645-9292

한국불교태고종

보 현 사

회주 **혜화** 주지 **묵원**

신도회장 **유대암** 반야회장 **최진광월**
관음회장 **정반야월**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055)645-6448

자비나눔 실천도량
사단법인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사무국 : 경남 통영시 도리7길 37
전화 055)641-7731

대한불교조계종

산청 심적정사

사부대중일동

경남 산청군 산청읍 꽃봉산로133번길 15
전화 055)973-1388

한국불교태고종

밀양 약 수 암

주지 **환 명**

사부대중일동

경남 밀양시 단장면 국전로879-119
전화 055)356-1844

가야불교 빗장을 열다

대한불교조계종

김해 여여정사

불교대학 · 경전반



주지 **도 명**

사부대중일동

주소 경남 김해시 가야로30번길1
전화 055)311-2911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용 문 사

주 지 **승원**

신도회장 **송한영**
거사림회장 **송행열**
지장회회장 **조명각선**

신도회일동

경남 남해군 이동면 보리암로65-23
전화 055-862-4425

영축총림 통도사

영축문화재단

이사장 **이산 현문**

이사 : **상우, 운성, 산옹, 법진**
명신, 정우, 재원, 항조
동진, 오심, 만초, 동주, 수진행

감사 : **영산, 도광록세무사.**

사무국장 : **홍성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77번지
전화 055)372-3722 팩스 055)372-3723

한국불교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밀양 법 성 사

주지 **만 우**

신도회일동

경남 밀양시 상동면 고정2길 159-11
전화 055)351-0374

이안의 Media In Buddha ⑯ 영화 〈슬픔의 삼각형〉



▶한줄 요약
202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은 자본주의 계급 폭력을 유쾌하게 비틀고 있다.

자본주의 계급 폭력을 비틀다



영화 〈슬픔의 삼각형〉 한 장면.

불상을 보면 부처님 눈썹 사이에는 구멍이 있다. 어릴 때는 부처님이 마마를 앓으신 건가, 곰보 흉터인 건가 싶었다. 국사 시간에 석굴암 불상처럼 동굴 안에 모신 부처님 미간에 박힌 보석은 아침에 동틀 때 해가 깊숙하게 들면 동굴 바깥까지 환하게 빛을 뿜었다는 선생님 말씀에 그 찬란한 광휘를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던지. 이제는 부처님 가피를 바라며 귀하게 새겼던 보석들은 죄다 도적들 차지가 되었을 것이다.

그 보석은 '백호광명'을 상징한다. 백호는 흰 터럭이고 훗날 부처님이 된 고타마 싯다르타가 날 때부터 백호가 있었다고 하며, 여러 문화권에서 종교의 경계를 넘어 깨달음에 이른 존재 이야기 전승에 나타난다. 노자는 태어날 때부터 온 몸에 흰털이 나 있었다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존재는 육신의 두 눈 사이에 '제3의 눈'이 있다고도 한다.

흰 터럭 가운데 특히 '흰 눈썹'은 백미(白眉)라고 한다. 촉한에 재주와 학문을 겸비한 다섯 형제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흰 눈썹을 가지고 있었던 마량이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기에 탁월한 작품이나 어떤 물건의 높고 맑은 정수를 가리킬 때 '백미'라고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처는 몸에서 뿜어 나오는 빛은 '진리'를 나타내며, 특히 부처의 미간백호(眉間白毫)에서 발현되는 빛을 '백호광명'이라고 한다.

불경 가운데 부처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법화경〉은 부처님이 백호에서 빛을 발해 동방 1만8천세계를 비추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이 백호광명은 일체를 받아들이되 차별이 없어 원만 무애하며, 부처의 평등한 큰 지혜를 상징하는 빛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급 없는 사회, 자비심이 고루 미치는 세상이 참 세상이라고 깨우치고 그 진리를 온몸으로 알리신 것이다.

202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은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의 〈슬픔의 삼각형〉은 딱 그 반대에 있다. 사람들이 인상을 쓰고 찌푸릴 때 눈썹 사이에 나타나는 주름이 바로 '슬픔의 삼각형'이다.

2017년 〈더 스퀘어〉로 칸영화제 첫 경쟁에 오르자마자 바로 황금종려상을 받으며 전세계 영화계에 젠체하는 사람들이 얽혀 있는 세상의 권력, 계급, 비틀림, 부조리, 비루함을 '웃프게' 드러낸 루벤 외스틀룬드 감독은 사람 세상에서 부처의 광명 대신 슬픔을 보는 감독이다.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눈썹 사이에 세모꼴로 잡힌 주름의 결을 아주아주 세세하게 풀어 놓는데 놀라울 정도로 집요하다.

〈슬픔의 삼각형〉이 모아 놓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일상에서는 서로 얽힐 일 없는 사람들이 장편 영화 한 편을 엮어낼 만한 인연으로 모이도록 한 것은 호화 유람선 때문이다.

관광 좀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 최고 로망으로 꼽히는 여행 상품이 바로 크루즈 투어일 것이다. 비행기로 이 땅에서 저 땅으로 목적지에 후딱 가서 깃발 들고 재촉하는 가이드 따라 미친 듯이 좌표 찍고 간신히 인증 사진만 찍고 오는 서민형 단체 여행과는 달리, 크루즈 여행은 육지를 떠나 몇 날 며칠 걸리도록 느긋하게 유람선을 타고, 바다 위에서 먹고 자고 파티하고 수영하고 연애하며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을 즐기는 느긋한 부자들의 여행이다.

2022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자본주의 계급 비유한 호화 크루즈
무인도에 표류하며 일순 계급 역전
찡그린 미간 나타나는 '슬픈 삼각형'
부처님 '백호광명' 깊은 뜻 되새긴다

이 호화 관광 유람선에는 부자들만 오를 리가 없다. 그들의 시중을 들 승무원들이 있어야하는데, 이 승무원 세계는 워낙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이 중요한 운항 수단이다 보니 '캡틴'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하는 명령 체계를 따르는 조직이다. 〈슬픔의 삼각형〉의 승무원들은 아주 의욕에 차 있다.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물 쓰듯 써댈 부자 승객들로부터 더 많은 '팁'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기다리는 승객들 가운데 영화는 먼저 모델 커플인 야야와 칼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데이트 비용을 두고 남자가 내는 게 당연하다는 야야나 모델로 더 잘나가는 사람이 내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칼은 돈을 물 쓰듯 쓰기는커녕 인플루언서라서 무료로 탑승하는 승객이니 승무원들에게 봉 노릇하기는 글렀다.

페미니즘과 여혐 사이에서 여성의 육체와 웃음은 갖고 싶지만 돈은 쓰기 싫으면서도 또 인플루언서로서 누릴 것 많은 여자 친구 야야의 치마꼬리를 놓을 생각도 없는 칼은 훤칠하고 잘 생겨서 더 비루해 보인다.

이들이 크루즈에 오르면서 진짜 부자들과 만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인간 군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축소판이 된다. 모든 승객 가운데 가장 돈을 뿌려대는 사람들 돈은 다 구리다. 비료 사업을 하는 러시아 부자는 그러니까 똥을 팔아서 떼돈을 번 것이고, 무기를 팔아서 부자가 된 부부는 피와 분쟁을 일으켜 돈을 불린 것이고, 인플루언서여서 무료로 탑승을 하게 된 야야와 칼은 타인의 시선과 욕망에 무임승차한 것이다,

이들이 쓰는 돈 앞에서 승무원들은 웃음으로 엎드린다. 그 승무원들은 돌아서서 궂은 일 담당인 청소부들을 몰아쳐댄다. 그러니까 이 배는 자본주의 사회의 표상과도 같다. 술에 취해 의무도 팽개친 선장이 나타나든 말든, 배의 안전이 지켜지든 말든 승무원들은 부자 승객들만 만족하면, 그래서 그들이 뿌려대는 돈만 뽑아낼 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 자기 앞에 음식을 게워내든 말든.

그런데 돈이 있으면 도적이 드는 법! 뉴스에도 종종 나오던 그 해적이 들이닥치는데, 인재보다 무서운 건 천재지변까지 덮치면서 스크린은 사람들 토사물과 비명과 풍랑에 휩쓸려 아수라장이 되어 버린다. 크루즈라는 환상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몇몇 생존자들이 깨어나 보니 하필 무인도. 지금껏 크루즈를 지배해 온 질서는 돈으로 이뤄진 계급이 바탕이었는데, 아뿔싸! 돈이 아무 소용없는 무인도라니!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면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을 구하려면 수렵이든 채취든 몸과 기술이 있어야 한다. 기껏 먹을 것을 구해도 요리를 해야 입에 넣을 수 있는데 남이나 부리던 부자들은 불 하나도 붙일 주변머리가 없다.

몸 쓰는 일로 살아 온 중년 여성 이주노동자 애비게일이 억척스런 생명력으로 생선을 잡고 불을 붙여 음식을 만들어 냈을 때, 늘 그 청소부의 시중을 받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이 침만 꼴깍꼴깍 삼키며 바라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뒤집힌다.

남자가 힘으로 뺏으면 될까? 힘이 있으면 뭘 하나. 요리를 할 줄 모르는데. 윽박지르는 것보다 효과적인 건 조아리는 것. 돈으로 안 되면 미모로 해결하고, 욕망을 감추느니 채우고 채워주는 관계가 과자 한 봉지라도 더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순식간에 새로운 계급 사회에 적응해 간다.

이 우스꽝스러운 새 계급 질서에 가장 적응을 잘하는 등장인물이 바로 처음 '슬픔의 삼각형'을 만들었던 사람, 칼이다. 영화가 시작하면서 칼은 모델 오디션을 보고 있었다. 유명 패션 브랜드 오디션에서 제 딴에는 멋져 보일 심각한 표정과 몸짓을 잡아 보이는데 브랜드 관계자가 칼에게 "슬픔의 삼각형을 만들지 말라"고 지적한다. 그 짧고 무심한 지적 하나로 칼의 눈썹 사이에 떠올랐던 '슬픔의 삼각형'은 미소에 밀려 사라졌었다.

야야의 연인이었던 칼은, 돈도 더 많이 버는 야야와의 데이트 비용을 남자라서 자기가 내는 게 부당하다고 분개했던 칼은, 그러면서도 야야의 명성에 기대 공짜 크루즈 여행을 즐겼던 칼은 새로운 권력자 애비게일의 손짓 앞에 고분고분하기만 하다.

이 영화를 보면서 문득 석가모니의 고향인 인도, 한 때는 불교의 본산이었던 인도가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가르치는 불교 대신 왜 아직까지도 철저한 카스트에 얽매인 계급 사회가 되었을까를 생각했다.

기원전 3세기에 전륜성왕으로 일컬어지는 아쇼카 왕이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인도는 7세기까지도 당나라 승려 현장이 대당서역기에 기록하기를 불교 사원이 천 개가 넘고 출가 수행자가 5만이 넘는 불교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철저한 계급을 기반으로 하는 힌두교 국가가 되어 있다.

이슬람의 침공이든, 제국주의 서양의 지배든 외세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먹고 살기 팍팍한 사회였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다. 인간의 욕망과 먹고 사는 생존의 치열함 앞에서 자존감보다 쉽게 저버려지는 것이 평등이라는 진리였을 것이다. 인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계급의 틀에 묶여있다. 법으로는 평등할지라도 아이들도 다 아는 '금수저 흙수저' 계급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성의 상징인 '슬픔의 삼각형'을 먹고 사는 일 앞에 지워버리도록 하는 것이 계급의 폭력이라는 이 서늘한 영화를 보면서 불상 눈썹 사이 사라진 보석들을, 백호광명의 깊은 뜻을, 평등을 향한 자비심을 생각한다.

〈영화평론가〉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불광출판사가 함께합니다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불교 공부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



단숨에 읽어지고 즐겁게 깨치는
원영 스님의 불교 수업

드디어 찾았다!
불교 공부를 어려워하는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고
재미있는 불교 입문서!

BBS불교방송 최고 인기 프로그램
〈원영 스님의 불교대백과〉 진행자
원영 스님이 알려주는 한 번만 읽어도
이해되는 불교의 핵심!

원영 지음 | 352쪽 | 18,000원



나,
아직 열리지 않은 선물

감옥 같은 삶을 꽃피우듯 아름다운 시절로 만드는 지혜



여전히 고통스런 삶 속에서
나를 잘 부리며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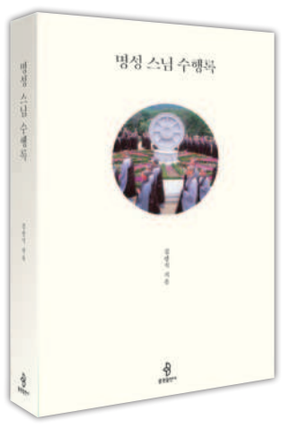
2019년 혜성처럼 등장해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를 펴내자마자
베스트셀러 저자로 자리매김한 수좌(首座) 원제 스님이
이후의 수행과 공부를 점검하며
또 한 권의 책을 신비로운 선물처럼 건네준다.

원제 지음 | 232쪽 | 18,000원

이 세상이 고수에겐 놀이터요, 하수에겐 생지옥 아니던가!
"다만 안목의 문제입니다. 내가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굴리겠지만,
만일 그러지 못하다면 세상에 굴림을 당할 뿐입니다."

명성 스님 수행록

김광식 지음 | 352쪽
25,000원



"명성 스님의 일생은 그 자체가 기념비적인 생애이다"

한국 현대 비구니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명성 스님!
명성 스님의 생생한 구술과 회고로 집대성한 삶과 수행 이야기,
그리고 한국 비구니사를 증명하는 증언사료집!

명상의 지혜로 밝히는 초기불교의 깨달음

붓다의 언어

등현 지음 | 248쪽
1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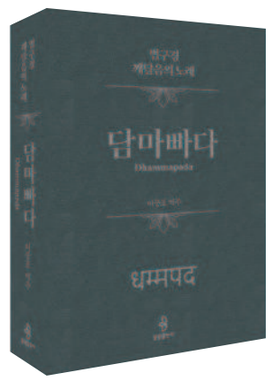
시처럼, 음악처럼 유려하게 다가와
생생히 울려 퍼지는 초기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진심에 다가가는 가장 바르고 쉬운 길!
시처럼 부드럽게 읽히는 문장 하나하나를 곱씹고 음미하다 보면
자연스레 불교가 이해되고 지혜의 눈이 밝아진다.

법구경
깨달음의 노래

담마빠다

이중표 역주 | 480쪽
25,000원 (가죽 양장)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석학
이중표 교수의 첫 완역 !

법정 스님이 거울삼아 자주 꺼내 보셨다던 경전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불교의 고전(古典)
빠알리어 '담마빠다'의 내용과 형식을 고스란히 옮기다!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자유로운 삶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

향봉 지음 | 248쪽
17,000원



산골 노승이 온몸으로 펼쳐 보이는
삶의 애환, 그리고 깨달음의 기록!

그래, 이 맛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같은 맛,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향봉 스님의 글맛!
오랜만에 눈이 맑아지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간화선과 명상, 그 절묘한 만남

이 뭐꼬? 이것뿐!

월호 지음 | 312쪽
18,000원



고정된 실체로서 '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떠한 '나'도 만들 수 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실체 없는 세상 속에서
한바탕 번뇌 놀이에 몰두하는 당신을 일깨우는
월호 스님의 세 가지 명상 처방!

단박에 성적과 행복을 끌어올리는 명상 비법

최강의 공부 명상법

글 자현 · 그림 김재일
288쪽 | 18,000원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역전의 공부 명상법!

국내 최다(6개) 박사학위 소지자,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논문 180여 편 수록
자현 스님의 30년 공부 내공과
'머리가 확 트이는' 명상 비법을 낱낱이 공개한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7~5/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종교학자 최준식 교수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	최준식	김영사
2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 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금강경 강의(통섭불교원/김성규)	김성규	통섭불교원출판부
5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명상치료5)불교심리학과 위빠사나 수행의 지침서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6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7	가시를 거두세요: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8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법정 스님 원적 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요가 수행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5)완전함 내면의 평화 해탈의길	아헹가,존 J. 에반스	선요가
10	꾼달리니 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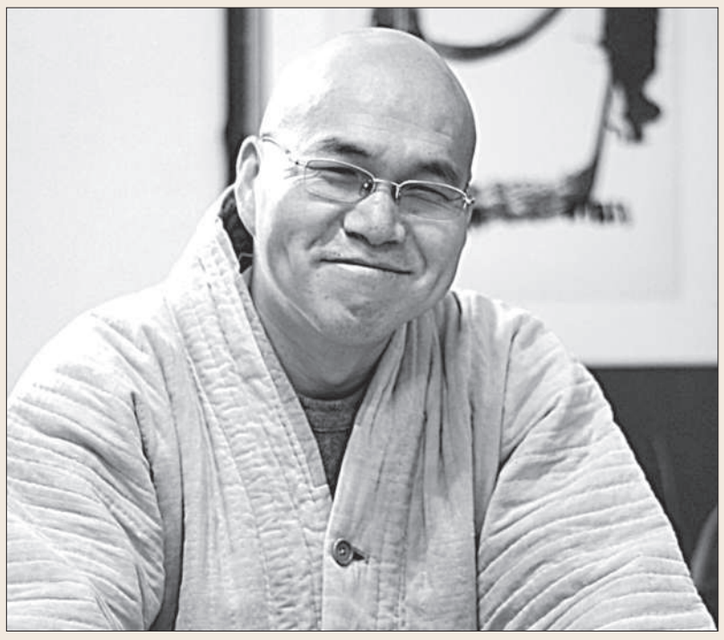
책세상

40년 여정 속 도반에 전하는 안부



문득 돌아보니 늘 그곳에 있었다
현진 지음
담앤북스
1만6천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사진=담앤북스

친구와는 다른 의미 갖는 '도반'
선 · 후배 격을 넘어 성장하게 해
수행자 32명에 대한 잔잔한 회고

누구에게나 도반(道伴)은 지중한 인연이다. '함께 도를 닦는 벗' 이기에 그저 웃고 떠드는 친구와는 성격도 다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불법(佛法)에 관심이 없는 조띠빨라였을 때 그의 도반이자 도공이었던 가띠까라의 거듭된 권유로 깟사빠 부처님을 친견해 구족계를 받았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겐 한 명쯤 소중한 도반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 재가불자에게도 도반이 있는데, 늘 수행으로 자기점검을 하는 스님들은 얼마나 많은 도반들과 인연을 쌓았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많은 선 · 후배 스님들과 어떤 말을 나누며 스스로를 반조했을까.

〈문득 돌아보니 늘 그곳에 있었다〉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사인 현진 스님이 쓴 도반들의 이야기다. 부제인 '나를 응원해준 수도자들의 이야기' 에서도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단박에 느껴진다.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잡아함경〉

40년이라는 출가 생활에서 현진 스님을 성장하게 한 건 누구일까. 울퉁불퉁한 삶의 여로에서 스님을 일깨워준 스승과 벗이 된 32명의 수행자 이야기가 잔잔하고 다정하게, 때로는 매서운 죽비로 다가온다.

책에서 서두를 장식한 건 다름 아닌 성철 스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8년간 계속된 장좌불와로 후학들에게 지남이 되는 어른이다. 현진 스님은 해인사에서 중노릇을 배우던 사미 시절, 성철 스님을 먼발치에서 처음 본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안거 법문 때마다 "밥값을 언제 할 것이냐"는 사자후를 토해내고, 아이들을 천진불 대하듯 아꼈다는 성철 스님. 현진 스님은 성철 스님을 '미혹의 길을 헤맬 때 바른길을 안내해주는 준엄한 스승' 이라고 회고한다.

철없던 시절 해인사 원당암을 불쑥 찾아가 서투른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르침을 준 혜암 스님, 한번 자리에 앉으면 정진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없었던 '절구통 수좌' 법전 스님, 은사인 월암 스님 등 여러 스승과의 일화도 풀어냈다. 여기에 감성의 목소리 성전 스님, 미소가 아름다웠던 성안 스님, 산사의 정원을 가꾸는 여경 스님 등 각 도반마다 현진 스님이 추억하는 미사여구도 붙였다.

책에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도 진득하다. 시서화에 뛰어나 '삼절 화상' 으로 불렸던 설곡 스님에 대해선 "사대는 비록 자연으로 돌아갔으나 스님이 남긴 보장금언(寶槧金言)은 후인들에게 큰 그늘이 돼 오래오래 삶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조사를 바친다.

그렇게 현진 스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

"그리운 이들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라. 생을 사랑하고 축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

현진 스님이 그랬듯 이제 우리 주변 지기지우들을 돌아보고 인연의 감사함을 표할 때다.

▲저자 **현진 스님**은?

현재 청주 마야사 주지로 10년째 산사의 뜰을 가꾸며 수행하고 있다. 5천여 평의 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농사지으며 산사생활의 고요와 기쁨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월간 해인,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펴낸 책으로 〈수행자와 정원〉 〈꽃을 사랑한다〉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스님의 일기장〉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스님이 산다〉 〈삭발하는 날〉 〈잼있는 스님 이야기〉 등이 있다.

진정한 예술 세계로의 초대



일향강우방의 예술혁명일지
강우방 지음
불광출판사
3만2천원

미술사학계의 촉각을 세우게 만든 한 남자가 있다. 그는 50년 넘게 조각, 회화, 공예, 자기, 건축 등 예술 영역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며 독창적이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해왔다. 학계, 정책, 문화 및 전시 등 예술의 영역에 때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 석 자에 '미술사학자' 라는 수식어가 생겼고, 수식어는 이름과 등호가 됐다. 우리나라 미술사학계를 대표하는 원로이자 현역 미술사학자, 강우방이다.

〈예술 혁명일지〉는 삶의 진정성, 연구의 독창성, 학자의 양심이 미술사를 사상사로 끌어올린 강우방의 고백이다.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저자는 평생 예술을 읽어왔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박물관에 입문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5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15년, 그리고 2000년 경주박물관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예술품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다.

저자는 치밀하게 작품들을 관찰하고 철학적 성격의 논문을 쓰면서 독학으로 미술사학의 길을 개척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사 정각상에서 석굴암 본존불의 비례를 찾아 학계에 밝혔고, 왕궁리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의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에서 백제시대로 끌어올렸다.

'한국미술 5000년전' 미국 내 순회 전시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발제했고, 이는 하버드대학 대학원생으로 특별 입학하는 계기가 됐다. 2014년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그리스 신전 건축의 개념 오류들을 지적했으며,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노트르담 사원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했다.

이렇듯 책은 1970년대부터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미술사의 굵직한 이슈들을 드러낸다. 한국 특히 불교미술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면에는 감춰진 이야기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또 30톤에 이르는 경주 황룡사 터의 거대한 심초석을 들어 올리는 현장, 일본의 국보 코지마 만다라가 한 개인에게 그 자태를 공개한 사건, 만나기 힘든 석굴암 부처님을 문화유산 사진 전문가 안장헌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찍은 15TB에 달하는 예술품 사진 중 엄선한 사진과 이를 채색하며 분석한 도판들은 하나의 작품과 같다.

임은호 기자

"넌 혼자가 아냐"…곁을 지키는 위로



내가 여기 있어요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안해린 옮김
불광출판사/1만9천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위로' 를 치면 가장 먼저 뜨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위로가 되는 글귀' 다. 시에서, 소설에서, 유명인의 말에서 위로가 되는 글귀를 찾은 누군가는 위로가 듣고 싶었던 사람일까, 위로를 하고 싶었던 사람일까.

폐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녀오며 위로의 중요성을 느낀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의 말에 따르면 다음의 모든 것은 위로가 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단정 짓지 않되, 괴로움에 세상과 멀어지지 않게 언제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돕겠노라 말해주는 것. 슬픔과 비탄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 번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 부드럽게 어깨를 다독이는 손.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 당장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더라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고통 받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렇게 우리 모두 알지만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대놓고 드러낸다. 그가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인 고통, 노화, 죽음은 그 표현대로 인간의 삶에서 어쩔 도리 없이 마주칠 괴로움의 원천이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홀로 괴로움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 있어요〉는 그 해답을 관계에서 비롯한 위로에서 찾는다. 온유함과 형제애가 담긴, 일시적인 위안을 초월하는 위로는 해결책이 없는 삶의 시련이라는 폭풍우와 공존하는 방법이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 는 것을 알아주고 또 거기 있어 주는 타인의 존재감, 이해와 공감으로 묵묵히 곁을 지키는 위로는 운명의 붉은 실처럼 우리의 삶 내내 이어진다.

저자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과 증세가 다양한 만큼, 위로의 근원 역시 무수히 많아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 책이 위로에 관한 책에 머무르지 않고 부디 위로하는 책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말대로 〈내가 여기 있어요〉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가이드이자 위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임은호 기자



불기2567(2023)년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대중불교 전법도량

봉화산 정 토 원

사부대중일동

김해시 진영읍 장방로136-200
전화 055)342-2991~2
www.bonghwasan.org

밀양불교사암연합회

회 장 **진 각**(표충사 주지)

상임부회장 **환명**(약수암)
사무총장 **정무**(용궁사)
재무부장 **지공**(어룡사)
포교부장 **현송**(대원암)
사회부장 **천주**(무봉사)
감 사 **성정**(수덕사)
교무부장 **도청**(신명사)
홍보부장 **덕향**(미덕사)

회원사찰일동

경남 밀양시 북성로1길 8-1
전화 055)355-4518 팩스 055)354-5622

대한불교조계종

함안 자양산 칠 보 사

주 지 **정광스님**

사부대중일동

경남 함안군 산인면 산인 운곡리86-153 지양산
전화 055)584-5390

대한불교조계종

대 원 사

주지 **도륜**

사부대중일동

* 안동지역 도심포교의 중심사찰
* 대원불교대학 운영
* 경내에 카페 '무심코' 운영

경북 안동시 서문동로141
전화 054)858-2630

대한불교조계종

원 효 암

'기도와 수행의 천년고찰'

주 지 **활 안**

사부대중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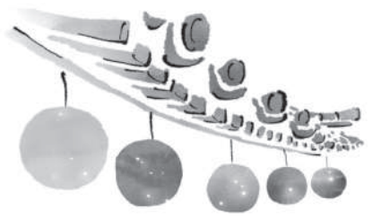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386-73
전화 053)852-0963

韓國佛教太古宗

八公山 冠岩寺

住持 **滿 虛**
원주 **돈 화**

사부대중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갓바위로 350(능성동)
Tel (053) 982-6666, Fax (053) 243-2580

동국한의원

부처님의 자비광명
온누리를 밝히소서

동국한의원 직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한나타워 209호
전화 051)413-1155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 2동 489-22번지
전화 062)951-3562

한국불교태고종

운 천 사

운천사마애여래좌상

주 지 **각 인 법 진**
신도회장 **옥 담 김병남**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미래를 내다보는 정법 포교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광주전남지역단

포교사 일동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회주 **시 각**
주지 **혜 성**

사부대중 일동

광주광역시 남구 구성로 22
전화 062)363-6617

한국불교태고종

정 인 암

신도일동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143-1
전화 062)523-0035

불기2567(2023)년 **우리도 부처님 같이** 부처님오신날 Buddha's Birthday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익산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일 행**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정 각 사

주지 **일 행**

사부대중 일동

정각복지센터
주간보호방문요양
063)841-1355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전화 063)857-6533

대한불교조계종

금 선 암

주지 **덕 산**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1길 377
전화 063)221-8486

남원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위 원 장 **도법**
집행위원장 **승묵**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성 불 사

전북지방유형문화재 제238호
석가여래행적송

주지 **월은 종명**

사부대중 일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전화 063)445-3266

정읍 미타사

주 지 **경 오**
고 문 **김종현**
신도회장 **김미경**
총 무 **조미선**

사부대중 일동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수성동)
전화 063)533-1373

한국불교태고종

구미산 일광사

주지 **승 천**

사부대중일동

전북 정읍시 성황산길 50
전화 063)535-3380

한국불교태고종

군 산 성 흥 사

(부설 성흥사 불교대학)

회주 **송 월**
주지 **보 위**

사부대중일동

전북 군산시 성산면 오성로 134-16
전화 063)453-0050

대한불교 조계종

포 교 사 단

포교사 일동

포교가 곧 수행
수행이 곧 포교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4길 27-17
우리함께빌딩 5층
전화 02)927-0588 / 팩스 02)927-5390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 륵 정 토 사
초무한참나선원

비대면 설법 <불교심리TV>
YouTube 검색

사부대중일동

미륵정토사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전화 041)855-3566

초무한참나선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94
전화 02)912-1050

불기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대한제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박재완의 포토에세이

오늘은 좋은 날



천 년 전의 어느 날, 석공은 이름 없는 돌에 부처님을 새기기로 했다. 돌 속에는 우주가 들어있어, 돌은 석공의 망치질을 받을 때마다 아득한 세월을 드러냈다. 돌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햇살의 그림자가 달라지고, 지나는 바람의 길도 달라졌다. 부처님이 눈을 뜨던 날 석공은 처음으로 부처님의 눈을 보았고, 부처님이 손을 가지던 날 부처님은 석공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렇게 천 년 전 어느 날이 불사가 되고 오늘의 우리는 부처님과 가까워진다.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오신날, 가까운 부처님 전 보이면 부처님 손 한 번 잡아보는 날.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⑨ 장미꽃차

갱년기 여성 우울증에 좋은 '소양인 茶'

계절의 여왕 5월이 되면, 화단이나 울타리에 장미꽃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붉은 꽃 속의 치명적인 가시를 가진 장미는 소양인의 성품을 닮아 있다. 소양인은 밖으로 화려하게 꾸미기를 잘하는 외향적 성품이지만, 날카롭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장미의 꽃말에서 빨강은 '열렬한 사랑', 흰색은 '순결함'과 '청순함', 노랑은 '우정'과 '영원한 사랑'이다. 기원은 B.C 3000년경에 중동지역에서 다마스크 장미가 관상용으로 재배되었다고 한다. 로마시대에는 장미를 증류해 향료를 얻어 귀족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애용해 왔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부위는 꽃 · 잎 · 줄기 · 뿌리로 약용한다. 겨울에는 뿌리를 쓰고, 여름에는 줄기와 잎을 이용한다. 장미꽃차를 만드는 품종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하게 보는 울타리의 장미꽃은 그리 맛이 없고, '오클라호마' 흑장미가 맛과 향이 좋다.

성분과 약성

에스트로겐(astrogalin), 폴리페놀(polyphenol), 카로티노이드(carotinoid), 안토시아닌(anthocyanin), 정유, 비타민A, 비타민C, 미네랄 등이 있다.

장미는 성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다. 열을 내리고 갈증을 없애준다. 열이 많은 사람의 토혈 · 설사 · 학질 등에 효능이 있다.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시키고, 갱년기 여성들의 우울증을 다스린다. 입이나 혀가 헐어 짓물러 오래도록 낫지 않을 때 진하게 달인 찻물을 입에 머금고 양치한다. 밤눈이 어두운 증상에 효과가 있다.

마음 · 기(氣)작용

장미꽃은 신장(腎臟)에 좋은 소양인의 꽃차이다. 소양인은 비대신소(脾大腎小)의 장국으로, 수곡한기가 작은 사람이다. 장미꽃은 기본적으로 수곡한기의 기 흐름을 잘 흐르게 한다.

소양인의 신체적 특징은 가슴이 발달되어 있고, 하체가 약한 편이다. 외모를 중시하여 치장하고, 화려함을 추구한다. 상황판단이 빠르며, 시각이 발달하여 색채 감각이 있다. 또 건강한 소양인은 대변의 소통이 원활하고, 땀을 잘 흘리지 않으며, 잠을 잘 때 움직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장미꽃차는 열을 내리고, 열이 많은 사람의 토혈 · 설사 · 학질 등에 효능이 있는데, 이는 수곡한기의 액해(液海)와 관계된다. 수곡한기는 대장(大腸)에서 액(液)이 생성되어 생식기 앞으로 들어가 액해가 되고, 액해의 맑은 기운은 입으로 나아가고, 액해의 탁재(濁滓)는 대장을 보익한다. 장미는 생식기 앞에 있는 액해를 충만하게 하여 대장을 돕는 것이다.〈그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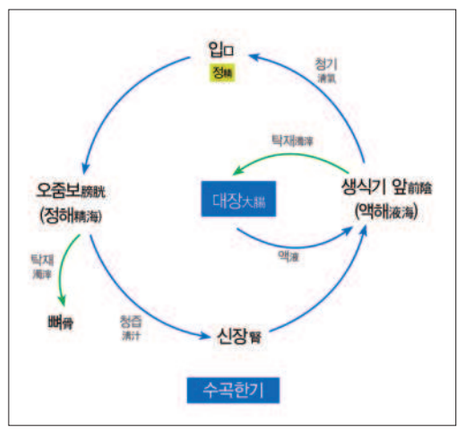


또 장미꽃차는 밤눈이 어두운 증상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열기의 고해(膏海)와 관계가 있다. 양 젖가슴에 있는 고해의 맑은 기운이 눈으로 들어가 기(氣)가 되기 때문에 장미는 고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제다와 음용

꽃잎이 조금 벌어진 꽃을 채취한다. 꽃잎을 한 잎 한 잎 익힘과 덖음을 한다. 고온에서 가향 덖음을 하여 완성한다.

장미꽃차 1g에 100℃로 끓인 물 30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장미는 성질이 서늘하고, 향기는 원기를 소모시키므로 몸이 차가운 사람이나 또는 기운이 허한 사람은 많이 마시지 않아야 한다.



장미꽃차는 청귤차와 블렌딩한다. 장미꽃차 블렌딩은 몸의 열기(熱氣)가 위로 올라 혈액이 위로 쏠리고, 눈에 핏발이 서며,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허는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장미차 0.8g, 청귤차 0.5g에 100℃로 끓인 물 300ml를 넣고, 2분 이내 우린다. 장미의 떫은맛과 청피의 쓴맛이 조금 있으므로 오랫동안 담가 놓지 않는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은 장미꽃차에서 달큰한 향을 느꼈으며, 우림한 탕색은 처음에 청보라 색에서 붉은 색으로 다시 진한 붉은 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차 시음에서는 와인의 달고 떫은맛을 느꼈으며 입안에서의 단맛은 있지만 회감은 없고 떫은맛을 느꼈다. 2차 시음에서는 혀에 남고 목이 마른 느낌이다.

다른 시음자는 장미꽃차에서는 단 향기를 느꼈으며, 1차 시음에서는 과일 맛에 단 맛이 났지만, 뒤 끝에 아린 맛을 느꼈다. 2차 시음에서는 차향이 거북하게 다가오면서 트림이 나고, 약간 시간이 흐르면서 머리가 멍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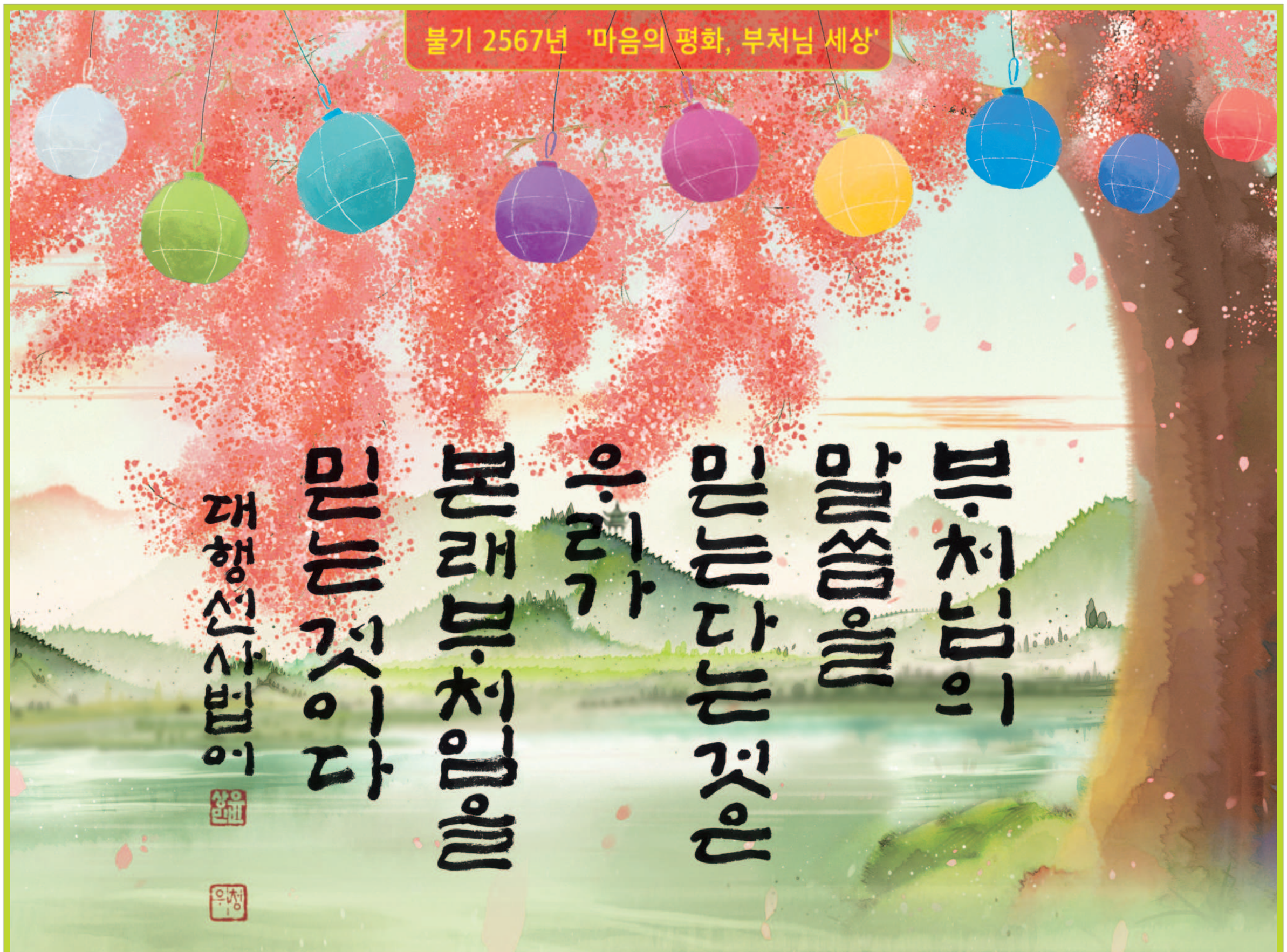
소양인은 약간 텁텁한 냄새가 났다고 했으며, 1차 시음에서는 약간 떨떠름하고, 심장이 약한 놀리는 듯했다고 한다. 2차 시음에서는 떫은맛이 나고,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소음인은 감 상자에서 나는 냄새를 느꼈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고 한다. 우린 차는 단 맛을 제거한 포도 주스와 비슷한 맛이 났다고 한다. 머리가 약간 묵직하고 멍한 느낌이 있었고, 입 주위가 마미 되는 것 같았다고 한다.

다른 시음자는 꽃차가 부드럽게 목 넘김은 좋으나 뒷맛이 아리고 쓴맛이 났다고 한다. 2차 시음에서는 혀 안쪽에서 아린 맛이 오래 느껴졌고, 시간이 더 할수록 떫은 이 깊어지고 머리가 띵한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재단이사장 **혜 수**
주 지 **혜 솔**
신도회장 **이동복**

사부대중 합장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조암길 45-230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31-1(상동)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A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석수동) **T) 031-470-3100 F) 031-470-3116**